



2005-R-37

서울형 축제 발전 및 체계적 지원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Supports of Seoul-like Festivals

2005

서울시정개발연구원
Seoul Development Institute

연구진

연구책임 이 무 용 • 도시사회부 부연구위원
연구원 이 지 은 • 도시사회부 위촉연구원

자문위원 권 순 석 • 문화컨설팅 바라 대표
류 정 아 •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안 경 모 • 경희대학교 관광대학원 교수
오 순 환 • 한국문화관광연구소 소장
윤 영 민 • 서울시 문화과 축제지원팀
이 각 규 • 한국지역문화이벤트연구소 소장
이 훈 • 한양대학교 관광학부 교수
이 흥 재 • 한국문화정보센터 소장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I. 연구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현재 서울의 축제는 서울축제로서의 개성과 정체성, 대내외적인 인지도 및 시민·관광객의 참여, 축제기획 및 운영, 효율적인 행·재정적 정부지원 및 축제 정책 수립, 서울 대표축제 등 축제 전반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음. 이는 현대도시축제에 대한 이해와 마인드의 결여, 서울의 문화와 장소성에 대한 연구 및 축제 정책에의 반영 결핍, 축제에 대한 진단과 지원 및 평가시스템의 미비, 서울축제발전의 장기비전과 목표수립 등 정책계획의 부재로 인한 것임. 따라서 서울시는 시민과 방문객들이 제대로 된 축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축제 행정 및 축제 지원체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 현대도시축제로서 서울축제의 의미를 이해하여 축제행정의 마인드를 제고하고, 서울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축제들의 현황을 분석하여, 서울다움(서울성)과 축제다움(축제성)을 겸비한 서울형 축제들을 선정하여 발전시켜야 함.
- 본 연구에서는 서울의 이미지와 정체성을 반영하는 다양한 서울 축제들을 분석하여, 서울을 대표하는 서울형 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서울시민의 여가문화 활성화와 서울관광 및 도시마케팅 정책 수립에 활용하고자 함.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 및 자료조사를 통하여 축제와 문화행사에 관한 기존 연구보고서와 논문을 토대로 축제로 및 현대도시축제를 살펴보고, 축제관련 자료를 중심으로 한 자료조사 실시를 통한 현황 파악을 함. 설문 및 인터뷰 조사를 통하여 서울시 축제 관련 행정담당자 및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서울시 축제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과 행정적인 어려움 및 서울형 축제 개발을 위한 의견 조사를 실시하며, 현장조사를 통하여 서울시 축제 중 주요한 축제를 대상으로 직접 참여 관찰하여 해당 축제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현재 서울시 축제의 실정을 면밀하게 관찰함.
- 본 연구는 시간적 범위: 2004년부터 2005년까지의 개최된 축제를 대상으로 하며, 공간적으로는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면적 605.52km²)를 대상으로 함. 내용적 범위는 [표 i]과 같음.

[표 i] 연구의 내용적 범위

| 구분 | 해당 내용 |
|-------------------------|--|
| 이론연구 | 축제의 개념 및 유형 정립 축제와 도시발전의 관계 |
| 서울의 문화행사 및 축제 현황 | 유형, 명칭, 개최시기, 장소, 주체, 예산규모, 프로그램 등 |
| 서울형 축제의 개념, 유형, 평가지표 개발 | 서울의 장소정체성과 서울성 서울성 정립 및 그에 따른 서울형 축제컨셉 개발 |
| 서울형 축제 현황 및 평가 | 서울형 축제 평가지표에 의한 평가 |
| 서울형 축제 지원 방안 | 축제지원정책 시스템 (조직, 주체, 공간, 프로그램, 예산, 정보, 홍보·마케팅, 관광연계) |

II. 연구의 결과 및 정책건의

1. 서울시 축제 현황(서울시 및 자치구 관여 축제 총 145개)

- 주체별: 서울시 45개(31%), 자치구 100개(69%)
- 유형별: 예술형(32%) > 화합형(28%) > 전통형(27%) > 산업형(9%) > 자연형(4%)
- 시기별 현황
 - 월별: 10월(36%) > 5월(21%) > 8,9월(각 7%) > 기타 > 4,7월 > 6,12월 > 2,3월 > 1월 > 11월
 - 계절별: 가을(43%) > 봄(29%) > 여름(15%) > 겨울(6%) > 기타(6%)
- 지역별: 서남권 > 동북권 > 동남권 > 도심권 > 서북권
- 참가규모별
 - 소형(1만 미만, 59%) > 중형(1만~10만, 30%) > 대형(10만~100만, 7%) > 초대형(100만 이상, 4%) 순

2. 서울시 축제 정책 현황(서울시 및 자치구 관여 축제 총 145개)

- 축제 조직 정책: 관 주최, 민간 주관: 관주도형 지배
 - 주최: 자치정부(69%) > 민간단체(22%) > 축제전담기관, 민간업체(각 3%) > 공동(2%) 순
 - 주관: 민간단체(60%) > 자치정부(26%) > 민간업체(9%) > 축제전담기관(4%) > 공동(1%) 순
- 축제조직의 일관성, 체계성, 전문성, 참여성 결여
 - 서울시와 자치구 내 축제 전담 부서의 부재, 하이서울페스티벌 축제 전

담조직의 부재

- 자치단체장의 정책 의지와 문화마인드에 따른 잦은 계획변경, 축제의 정부주도 과다
- 주민참여의 부재, 지역상인, 지역문화단체, 주민자생조직의 축제 주체화 절실

○ 축제 예산 정책

- 소예산(1억 미만, 70%) > 중소예산(1억~3억, 17%) > 중예산(3억~5억, 6%) > 대예산(7억~12억, 3%), 국제규모예산(12억 이상, 3%) > 중대예산(5억~7억, 2%) 순
- 시 관여 축제: 상위 6개 축제(하이서울페스티벌, 불꽃축제, 공연예술제, 세계통과의례, 여성영화제, 미디어아트비엔날레) 모두 문화국 주관(약 10억에서 20억 사이)
- 구 관여 축제: 동대문패션페스티벌(중구), 단오한마당(영등포구), 은평사랑한마음축제(은평구), 서울약령시축제(동대문구), 한성백제문화제(송파구), 아리랑축제(성북구) 순(3억에서 4억 사이)
- 유형별 축제 예산규모는 시민화합형 > 자연친화형 > 순수예술형 > 역사전통형 > 산업경제형 순이며, 서울시 축제는 시민화합형 > 순수예술형 > 역사전통형 > 산업경제형 > 자연친화형 순서의 축제 예산 규모를 나타내지만 자치구 축제의 경우는 역사전통형 > 시민화합형 > 산업경제형 > 순수예술형 > 자연친화형 순서의 축제 예산 규모를 보임.

○ 축제 관리운영 정책

- 개최 횟수는 10회 미만(77%) > 10회~20회(17%) > 20회~50회(5%) > 50회 이상(1%) 순이며, 대부분 10회 미만임.
- 축제 전문인력은 순환보직제로 인하여 매우 부족한 상태임. 또한 명망

가 문화예술인 위주의 축제기획자 및 연출자 선발로 인한 축제의 차별화 미비

- 축제 대행업체 선발에도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 위주로 심사선정위원회 구성 운영하지만 지명도 높은 사회인사들로만 구성되고, 자원봉사자나 지역주민대표가 배제되는 등의 문제가 있음.

○ 축제 평가 정책

- 정식 평가 의뢰 축제 6개. 하이서울페스티벌만 내부평가와 외부평가 병행
- 축제 평가 대부분이 양적 평가 위주. 질적 평가와 축제 프로세스 단계별 유기적 평가 필요

3. 서울형 축제 컨셉 및 평가지표 개발

○ 서울형 축제 컨셉 및 평가지표 개발(SFAI: Seoul Festival Assessment Index)

- 서울형 축제 컨셉: '서울성(Seoul Identity)'과 '축제성(Festival Identity)'이 결합된 축제로서, '서울다움'과 '축제다움'이 겸비되면서 서울을 대표하는 축제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축제
- 서울형 축제 평가지표: '서울성 평가지표(SAI)'와 '축제성 평가지표(FAI)'로 구성 (총 15개 지표)

[표 ii] 서울형 축제 평가지표(1): 서울성 평가지표(SAI)

| 서울성 | | 세부지표 |
|-----------------|------------------------------|---|
| 지리적 차원 | 국제성 |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 |
| | | 국내외 외국인과 함께 만들거나 즐기는 교류프로그램 존재 여부 |
| | | 중앙정부 및 시민단체 차원의 지원 여부 |
| | 전국성 | 전국의 문화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잠재력 |
| | | 서울 이외 지역과 함께 만들거나 즐기는 교류프로그램 존재 여부 |
| | | 서울 이외 지방정부 및 시민단체 차원의 지원 여부 |
| 장소성 | 서울 내 특정 지역의 장소성 반영 여부 | |
| | 축제 프로그램과 시민들의 일상생활과의 밀접한 관련성 | |
| | 자치구 및 주민단체 차원의 지원 여부 | |
| 시간적 차원 | 역사성 | 서울의 역사적 콘텐츠 활용 여부 |
| | | 역사적 요소의 현대적 재구성 여부 |
| | | 문화유산으로서의 발전 잠재력 |
| | 현대성 | 서울의 현대적 콘텐츠의 활용 여부 |
| | | 첨단기술의 문화적 활용 여부 |
| | | 사이버공간의 활용 여부 |
| 사회 문화적 차원 | 다양성 |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향수 욕구 충족에 대한 기여도 |
| | | 문화소외계층을 타깃으로 한 프로그램 존재 여부 |
| | | 비주류 문화, 소수문화, 언더그라운드 문화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 |
| | 역동성 |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의사 반영 달성 여부 |
| | | 축제발전을 위한 정부 및 민간단체와의 협의 채널 존재 여부 |
| | | 축제 평가를 통한 문제점 보완 여부 |
| 공간 환경적 차원 | 거리 이용성 | 축제 장으로서 거리나 광장 등의 공공공간의 활용도 |
| | | 거리퍼레이드의 효과적 수행 여부 |
| | | 거리 이미지 및 거리문화환경의 변화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도 |
| | 일상 공간성 | 축제의 장으로서 시민의 일상생활공간의 활용도 |
| | | 일상생활공간의 문화적인 공간화 기여도 |
| | | 시민들의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축제의 시간, 장소, 프로그램 배치의 적절성 |

[표 iii] 서울형 축제 평가지표(II): 축제성 평가지표(FAI)

| 축제성 | 세부지표 |
|-----|----------------------------------|
| 의례성 | 축제 개최 목적의 명확성 |
| | 참가자들의 축제를 통한 소망 및 기원하는 바의 명확성 |
| | 참가자들의 소망 기원 프로그램의 존재 여부 |
| 집단성 | 축제 구성원들의 능동적, 자발적 참여도 |
| | 축제의 기획, 운영, 평가 과정에의 구성원 참여도 |
| | 축제 주최자와 참가자들의 집단적인 축제 즐김 정도 |
| 현장성 | 축제 개최 장소의 고유성 및 역사성 소유 여부 |
| | 축제를 즐기고 체험을 하기 위한 축제 공간 설정의 적절성 |
| | 축제 공간과 개최주체들의 삶의 현장과의 관련성 |
| 유희성 | 축제 프로그램의 즐거움과 재미 및 흥미 유발 여부 |
| | 축제 참가자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적 요소 존재 여부 |
| | 기획되지 않은 즉흥적인 연행과 사건의 존재 여부 |
| 일탈성 | 일상에서 접할 수 없는 새로운 체험의 기회 제공 여부 |
| | 일상생활에서의 억눌림을 표출하는 해방감 유발 효과 |
| |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성찰의 기회 제공 여부 |
| 창조성 | 다양한 실험과 도전 시도의 여부 |
| | 첨단기술과 테크놀로지의 적절한 활용도 |
| | 축제참가자들에게 새로운 꿈과 상상력을 고무시키는 정도 |

4. 서울형 축제 선정 및 분석

○ 후보축제 선정 및 평가

- 총 145개의 서울축제 중 선정기준에 따라 전문가 자문을 통해 35개의 후보축제 선정하고 후보축제를 역사전통형, 순수예술형, 시민화합형, 산업경제형, 자연친화형으로 유형화함. 35개 후보축제를 대상으로 축제 관련 전문가 15인(교수, 연구원, 축제기획자, 축제행정가 등) 가 서울성과 축제성을 평가함.

○ 평가지표 우선순위 도출

- 각 축제별 SAI와 FAI 15개 지표별 우선순위 평가. 지표별 가중치 부여에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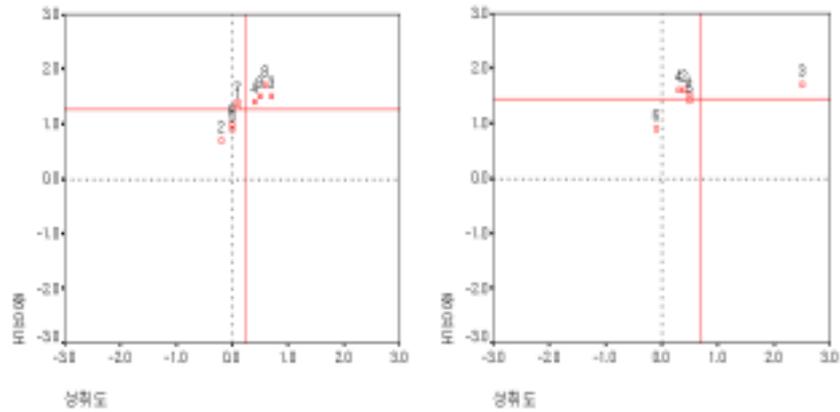
[표 iv] 서울성 우선순위 평가

| 항목 | 국제성 | 전국성 | 장소성 | 역사성 | 현대성 | 다양성 | 역동성 | 거리 이용성 | 일상 공간성 |
|------|-----|-----|-----|-----|-----|-----|-----|-----------|-----------|
| 우선순위 | 7 | 8 | 1 | 4 | 6 | 2 | 5 | 3 | 9 |

[표 v] 축제성 우선순위 평가

| 항목 | 의례성 | 집단성 | 현장성 | 유희성 | 일탈성 | 창조성 |
|------|-----|-----|-----|-----|-----|-----|
| 우선순위 | 5 | 3 | 1 | 2 | 4 | 5 |

○ 후보축제 분석(1):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그림 i] 서울성(좌)과 축제성(우)의 IPA

- 서울성의 경우, '거리이용성'과 '장소성'은 현상유지관리, '국제성'과 '역동성'은 집중육성관리 필요하며, 축제성의 경우, '현장성'은 현상유지관리, '유희성'과 '집단성'은 집중육성관리 필요함.

○ 후보축제 분석(2): PPA(Priority-Performance Analysis)

- 평가지표별 '우선도-성취도' 매트릭스: 15개 평가지표별 4분면내 배치함과 동시에 상대적 위상을 고려한 우선순위를 도출함.

[표 vi] 축제유형별 서울성과 축제성 우선순위

| 유형 | 집중육성 관리 | | | 현상유지 관리 | | | |
|-------|---------|-------|----------------------------|-------------------|------------------------------|-------------------|-----|
| | 단기 집중지원 | 장기 지원 | 단기 집중지원 | 비예산 지원 | 비예산 관리 | | |
| | I - 1 | I - 2 | II - 1 | II - 2 | II - 3 | II - 4 | |
| 역사 전통 | 서울성 | - | 전국성 현대성 다양성 | 국제성 역동성 | 장소성 역사성 거리이용성 일상공간성 | - | - |
| | 축제성 | - | 창조성 | 유희성 | 의례성 집단성 현장성 | 일탈성 | - |
| 순수 예술 | 서울성 | - | 전국성 역사성 | 국제성 다양성 역동성 | 장소성 현대성 거리이용성 일상공간성 | - | - |
| | 축제성 | - | - | 유희성 일탈성 | 집단성 창조성 | 의례성 현장성 | - |
| 시민 화합 | 서울성 | - | - | 국제성 다양성 역동성 | 장소성 거리이용성 일상공간성 | 전국성 역사성 현대성 | - |
| | 축제성 | - | - | - | 집단성 유희성 일탈성 | 의례성 현장성 창조성 | - |
| 산업 경제 | 서울성 | - | 국제성/전국성 역사성/현대성 /다양성 | 역동성 | 장소성 거리이용성 일상공간성 | - | - |
| | 축제성 | - | 창조성 | 유희성 | 집단성 현장성 | 일탈성 | 의례성 |
| 자연 친화 | 서울성 | - | 국제성/전국성 /역사성/현대성 | 다양성 역동성 | 장소성 거리이용성 일상공간성 | - | - |
| | 축제성 | - | 창조성 | 집단성 유희성 | 일탈성 | 의례성 | 현장성 |

○ 후보축제 분석(3): SFA(Seoulity-Festivity Analy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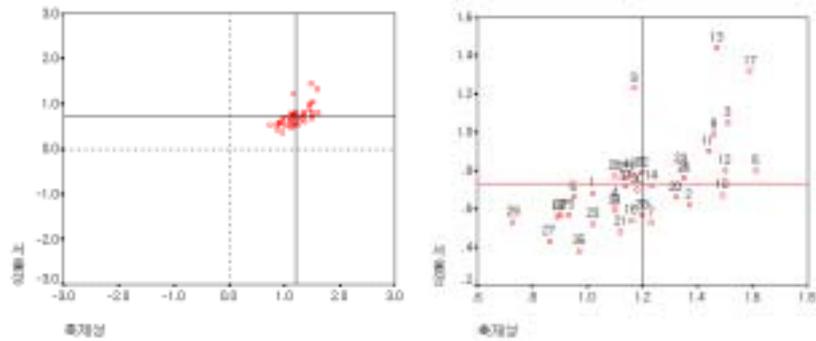
- 축제별 SF(서울성-축제성) 분석: PPA 분석을 통한 축제성/서울성 각각 지표의 평균값 산출하여 '서울성-축제성' 매트릭스 구성하고 4분면 내에 35개 축제 배치하는 것을 통하여 사분면 각각의 속성에 따라, 축제유형 별로 축제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축제지원 방안을 차별화함.



[그림 ii] SFA 매트릭스 예시 및 축제발전단계

- 서울형 축제 선정: 35개 후보 축제 모두 축제 성숙기에 해당됨([그림 iii].¹⁾ 특히,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한 축제는 서울프린지페스티벌, 하이서울페스티벌, 인사전통문화축제, 드림페스티벌, 홍대거리미술전, 이태원 지구촌축제, 명동축제, 세계통과의례, 지구촌한마당 등 9개 축제로 나타남.

1) 1.서울약령시축제 2.한성백제문화제 3.인사전통문화축제 4.벚꽃축제 5.종묘대제 6.명동축제 7.선농제향 8.홍대거리미술전 9.연등축제 10.서울국제공연예술제 11.서울드림페스티벌 12.이태원지구촌축제 13.서울프린지페스티벌 14.강동선사문화축제 15.조선조과거재현 16.석촌호수에 메탈드축제 17.하이서울페스티벌 18.남산골단오민속축제 19.고궁축제 20.동대문패션페스티벌 21.송과다리밟기 22.사직대제 23.국악로문화축제 24.세계통과의례 25.서울세계불꽃축제 26.지구촌한마당 27.청룡문화제 28.서울여성영화제 29.고종명성후가례재현 30.송과백중놀이 31.서울국제미디어아트비엔날레 32.남산골한옥마을추석행사 33.정동문화축제 34.월드컵공원역세축제 35.남이장군대제



[그림 iii] 서울형 축제의 SFA

5. 서울형 축제 지원 방안

○ 국내외 축제지원정책 사례

- 축제 홍보와 관련하여. 철저한 수요 및 욕구조사. 다양한 채널을 통한 축제홍보, 축제캐릭터 및 브랜드 개발하여야 함.
- 축제 예산과 관련하여서는 안정된 입장료 수익, 스폰서 활용의 용이함, 축제재정 안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하고 축제경영 내실화를 통한 축제 재정 충당의 다각화를 꾀하여야 함.
- 축제의 조직은 민간화를 통한 축제 운영의 안정성, 전문성, 자율성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 축제발전을 위한 축제 평가는 축제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하여 평가를 계획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통한 평가의 안정화를 추구하여야 하며, 유형별 평가지표의 설정과 다각적인 평가단 구성으로 입체적인 축제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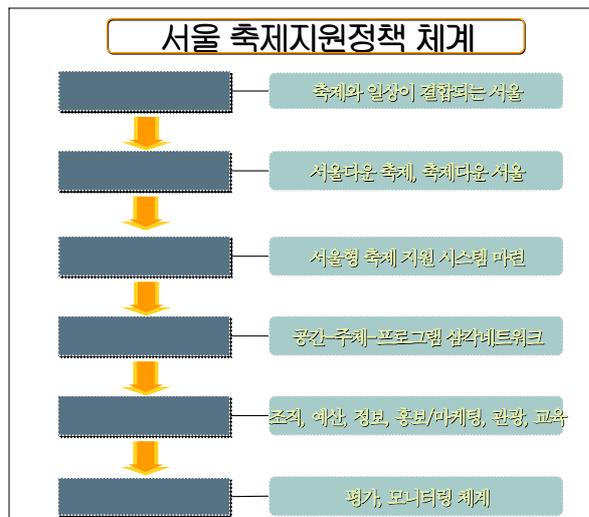
○ 축제유형별 지원 초점 차별화

- 역사전통형 축제는 전통성과 원형의 복원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 프로젝트

트 장려하고 범정부적인 연계 지원을 통한 국가적 문화행사로의 역사자
원화 및 관광코스로 해당 축제들을 구성하거나 관련 기념품을 개발하는
등의 축제관광상품화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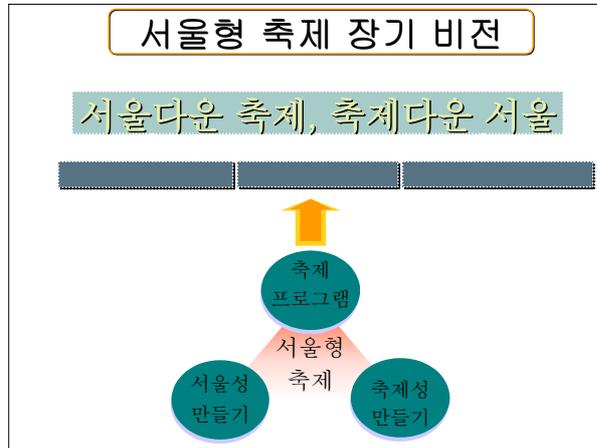
- 순수예술형 축제는 축제조직의 재단화를 통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축제전담 조직을 구성하여야 하며, 축제전용시설 및 공간지원을 통한
축제정체성의 확보를 도모함과 동시에 축제의 주제 및 소재에 따른 축
제예산 지원의 적정화 및 효율화가 이루어져야 함.
 - 시민화합형 축제는 삶의 문화적 질적 향상을 위한 일상적 커뮤니티와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동시에 일상문화활동으로 축제가 정
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 산업경제형 축제는 축제 상설조직화를 통한 주민(상인)참여 및 민관네
트워크를 지원하여 상권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함. 결과적으로 이
를 통한 축제의 역동성이 강화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
록 하여야 함.
 - 자연친화형 축제는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친환경적인 축제 자
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축제 추진조직의 전문성 제고에 힘
써야 함. 더불어 민간 부문이 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비율을 높임으로
써 일상의 축제문화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또한 축제개최의 교통
환경 및 안전 보장을 위한 정부협의체를 구성하는 축제 행정 지원이 이
루어져야 함.
- 문화도시 서울 선포 원년을 맞이하여, 대형축제 정례화 및 축제 서울성 확립,
전통문화 축제 거행, 디지털 기술활용 예술축제 정착화, 순수예술축제 개최 및
자치구 특화 축제 개발 등이 축제 정책으로 제시됨. 따라서 현재의 미흡한 축
제지원정책을 보완하기 위하여 서울축제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통한 축제지원

정책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서울축제지원정책의 체계는 [그림 iv]와 같음. 서울축제지원정책은 ‘임무(mission)’, ‘비전(vision)’, ‘목표(goal)’, ‘전략(strategy)’, ‘실행계획(action plan)’, ‘실행 및 피드백(execution & feedback)’ 등 6개 요소로 이루어 짐.



[그림 iv] 서울축제지원정책의 체계

- 축제지원정책의 임무는 축제와 일상이 결합되는 서울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임. 축제를 통하여 시민의 일상을 경험할 수 있고 또 표현할 수 있도록 축제지원정책의 방향이 설정되어야 함.
- 축제지원정책의 비전은 서울다운 축제, 축제다운 서울을 만드는 것임. 장기비전으로 하고 ‘서울성 만들기’, ‘축제성 만들기’ 그리고 ‘다양한 축제 프로그램 개발’을 세 가지 기본방향으로 하여, 세계 일류 문화도시 서울 달성을 궁극적인 목표로 함([그림 v] 참조).



[그림 v] 축제지원정책의 비전

- 축제지원정책의 목표는 서울형 축제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함. 이를 위해 서울형 축제의 컨셉을 마련하고, 다양한 축제들을 이러한 컨셉에 맞게 유형화하여 차별화된 지원정책을 수립하도록 해야 함.
- 축제지원정책의 전략은 ‘공간-주체-프로그램’으로 구성되는 삼각네트워크 지원정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서울형 대표축제 개발을 통한 마케팅 브랜드를 설정하고 공공 공간을 축제공간으로 활용하며 전문적이고 자율적인 축제조직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서울형 축제지원시스템 구축에 있음([표 vii], [그림 vi]).
- 축제지원정책의 실행계획은 삼각체계에 따른 실행계획으로, 조직 및 민관 파트너십 체계 마련, 예산 지원 방안, 홍보마케팅 지원 방안 및 신규 축제 개발 지원 방안으로 구성됨([표 viii]).

[표 vii] 축제지원정책의 전략

| 구분 | 전략 |
|----------|----------------------|
| 공간 | 공공공간의 축제공간화 전략 |
| | 축제 인프라 지원전략 |
| 주체 | 축제추진조직의 안정화 전략 |
| | 타깃별 수요자 중심의 지원전략 |
| | 축제 소양 교육 지원 전략 |
| 프로 그램 | 서울성과 축제성의 고려한 지원전략 |
| | 유형별 목표달성을 고려한 지원전략 |
| | 축제일상화를 위한 지원전략 |
| | 대표축제 개발을 통한 장소마케팅 전략 |



[그림 vi] 축제지원정책의 삼각네트워크

[표 viii] 축제지원정책의 실행계획

| 구분 | 실행계획 | | |
|--------------|------------------|--------------------------------------|----------------|
| 공간 | 거리퍼레이드 지원 | 퍼레이드 활성화 지원 퍼레이드 코스 개발 지원 | |
| | 공공문화시설 축제 공간 활용 | 공공문화시설 활용정보 제공 | |
| | 숙박시설 등 인프라 지원 | 다양한 숙박시설 개발 지원 | |
| 주체 | 상설조직화 지원 | 축제조직위 육성 지원 | |
| | 전담조직/부서 마련 | 서울시 축제 전담 부서 마련 축제전문직 공무원 배치 | |
| | 민관 파트너십 구축 | 서울축제위원회 조직 지역축제 자문단 구성 | |
| | 타깃별 지원 | 시민여가형 축제 지원 | 시민여가형 축제 지원 |
| | | 관광 관련 기업활동 지원 | 관광 관련 기업활동 지원 |
| | | 관광객 타깃 관광축제 지원 | 관광객 타깃 관광축제 지원 |
| | 교육 프로그램 지원 |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
| | | 예비기획자 교육 프로그램 | 예비기획자 교육 프로그램 |
| 전문가 재교육 프로그램 | | 전문가 재교육 프로그램 | |
| 전문인력 양성 지원 | 축제기획 전문가 양성 지원 | 축제기획 전문가 양성 지원 | |
| | 축제행정 전문가 양성 지원 | 축제행정 전문가 양성 지원 | |
| 프로그램 | 축제 유형별 지원 | 전통형, 예술형, 화합형, 산업형, 자연형 축제활성화 지원 | |
| | 계절별, 월별, 시간대별 지원 | 여름, 겨울 페스티벌 육성 지원 | |
| | | 야간페스티벌 육성 지원 | |
| | 대표축제 개발 지원 | 하이서울페스티벌 업그레이드 전통축제, 자연축제, 장소특화축제 | |
| | 신규축제 개발 지원 | 드라마/미디어페스티벌, 한강축제 | |
| | 축제 정보지원 | 서울축제 가이드북 제작 | |
| 축제지원 매뉴얼 제작 | | | |
| 관광마케팅 지원 | 축제마케팅 전략 수립 | | |
| 공통 | 예산 지원 | 축제유형별/기능별 지원차등화시스템 축제보조금 지원개성 | |
| | 제도 지원 | 서울축제지원 조례 제정 | |
| | 평가 지원 | 입체적 축제평가 시스템 개발 | |

- 축제지원정책의 실행 및 피드백은 축제평가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써, 축제 유형별 축제 평가지표를 구성하고 이를 통하여 입체적인 축제
평가를 실시함과 동시에 축제 성과관리 체계를 평가하고 지원하기 위한
매뉴얼 개발을 통하여 축제평가시스템을 체계화함([표 ix]).

[표 ix] 축제유형별 축제평가지표

| 서울성 | 세부지표 | 역사 | 순수 | 시민 | 산업 | 자연 |
|--------|----------------------------------|-----|-----|-----|-----|-----|
| | | 전통형 | 예술형 | 화합형 | 경제형 | 친화형 |
| 국제성 |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 | ○ | ○ | | ○ | |
| | 외국인과 함께 만들거나 즐기는 교류프로그램 존재 여부 | ○ | ○ | | ○ | |
| | 중앙정부 및 시민단체 차원의 지원 여부 | ○ | ○ | | ○ | |
| 장소성 | 서울 내 특정 지역의 장소성 반영 여부 | ● | ○ | ● | ● | ● |
| | 축제 프로그램과 시민들의 일상생활과의 밀접한 관련성 | ● | ○ | ● | ● | ● |
| | 자치구 및 주민단체 차원의 지원 여부 | ● | ○ | ● | ● | ● |
| 역사성 | 서울의 역사적 콘텐츠 활용 여부 | ● | | | | |
| | 역사적 요소의 현대적 재구성 여부 | ● | | | | |
| | 문화유산으로서의 발전 잠재력 | ● | | | | |
| 현대성 | 서울의 현대적 콘텐츠의 활용 여부 | | ● | | ● | |
| | 첨단기술의 문화적 활용 여부 | | ● | | ● | |
| | 사이버공간의 활용 여부 | | ● | | ● | |
| 다양성 |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향수 욕구 충족에 대한 기여도 | | ● | ● | | |
| | 문화소외계층을 타깃으로 한 프로그램 존재 여부 | | ● | ● | | |
| | 비주류/소수/ 언더그라운드 문화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 | | ● | ● | | |
| 역동성 |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의사 반영 달성 여부 | ○ | ○ | ○ | | ○ |
| | 축제발전을 위한 정부 및 민간단체와의 협의 채널 존재 여부 | ○ | ○ | ○ | | ○ |
| | 축제 평가를 통한 문제점 보완 여부 | ○ | ○ | ○ | | ○ |
| 거리 이용성 | 축제 장소로서 거리나 광장 등의 공공공간의 활용도 | ○ | ○ | ○ | | ● |
| | 거리퍼레이드의 효과적 수행 여부 | ○ | ○ | ○ | | ● |
| | 거리 이미지 및 거리문화환경의 변화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도 | ○ | ○ | ○ | | ● |
| 일상 공간성 | 축제의 장소로서 시민의 일상생활공간의 활용도 | | ○ | ● | | |
| | 일상생활공간의 문화적인 공간화 기여도 | | ○ | ● | | |
| |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시간, 장소, 프로그램 배치의 적절성 | | ○ | ● | | |
| 축제성 | 세부지표 | | | | | |
| 의례성 | 축제 개최 목적의 명확성 | ● | | | | ● |
| | 참가자들의 축제를 통한 소망 및 기원하는 바의 명확성 | ● | | | | ● |
| | 참가자들의 소망 기원 프로그램의 존재 여부 | ● | | | | ● |
| 집단성 | 축제 구성원들의 능동적, 자발적 참여도 | ○ | ○ | ● | | |
| | 축제의 기획, 운영, 평가 과정에의 구성원 참여도 | ○ | ○ | ● | | |
| | 축제 주최자와 참가자들의 집단적인 축제 즐김 정도 | ○ | ○ | ● | | |
| 현장성 | 축제 개최 장소의 고유성 및 역사성 소유 여부 | ● | | ○ | ● | ○ |
| | 축제를 즐기고 체험을 하기 위한 축제 공간 설정의 적절성 | ● | | ○ | ● | ○ |
| | 축제 공간과 개최주체들의 삶의 현장과의 관련성 | ● | | ○ | ● | ○ |
| 유희성 | 축제 프로그램의 즐거움과 재미 및 흥미 유발 여부 | ○ | ● | ○ | ○ | |
| | 축제 참가자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적 요소 존재 여부 | ○ | ● | ○ | ○ | |
| | 기획되지 않은 즉흥적인 연행과 사건의 존재 여부 | ○ | ● | ○ | ○ | |
| 일탈성 | 일상에서 접할 수 없는 새로운 체험의 기회 제공 여부 | | ○ | ● | | ● |
| | 일상생활에서의 억눌림을 표출하는 해방감 유발 효과 | | ○ | ● | | ● |
| |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성찰의 기회 제공 여부 | | ○ | ● | | ● |
| 창조성 | 다양한 실험과 도전 시도의 여부 | | ● | | ● | |
| | 첨단기술과 테크놀로지의 적절한 활용도 | | ● | | ● | |
| | 축제참가자들에게 새로운 꿈과 상상력을 고무시키는 정도 | | ● | | ● | |

*●:핵심지표 ○:가중지표

목 차

| | |
|-----------------------------------|-----------|
| 제 I 장 연구개요 | 3 |
|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3 |
|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 6 |
| | |
| 제 II 장 이론연구 | 11 |
| 제1절 축제론 | 11 |
| 1. 축제에 대한 기존 논의들 | 12 |
| 2. 축제의 개념 및 정의 | 15 |
| 3. 축제의 유형 | 28 |
| 제2절 현대도시축제론 | 37 |
| 1. 현대도시축제의 의의 | 38 |
| 2. 현대도시축제의 속성들 | 44 |
| 3. 현대도시축제의 유형 | 56 |
| 제 III 장 서울시 축제 현황 분석 | 59 |
| 제1절 축제 개최 현황 | 59 |
| 1. 주체별 현황 | 60 |
| 2. 유형별 현황 | 65 |
| 3. 시기별 현황 | 70 |
| 4. 지역별 현황 | 71 |
| 5. 규모별 현황 | 73 |
| 제2절 축제 정책 현황 | 75 |
| 1. 축제의 조직 | 75 |

| | |
|--|------------|
| 2. 축제의 예산 | 79 |
| 3. 축제 관리 운영 정책 현황 | 84 |
| 4. 축제 평가 정책 현황 | 90 |
| 제IV장 서울형 축제 분석 | 95 |
| 제1절 서울형 축제 정의 | 95 |
| 1. 서울형 축제 개념 | 95 |
| 2. 서울형 축제 평가지표(SFAI, Seoul Festival Assessment Index) 개발 | 104 |
| 제2절 서울형 축제 평가 | 106 |
| 1. 서울형 축제 후보 축제의 선정 | 106 |
| 2. 서울형 축제 평가 분석의 틀 | 109 |
| 제3절 서울형 축제 분석 | 117 |
| 1. 서울형 축제 전문가 설문조사에 관한 일반사항 | 117 |
| 2. 서울형 축제 평가의 우선순위 평가 | 119 |
| 3. 서울형 축제 평가의 중요도-성취도 분석(IPA) 결과 | 121 |
| 4. 서울형 축제 평가의 서울성-축제성 분석(SFA) 결과 | 154 |
| 제V장 서울형 축제 지원 방안 | 163 |
| 제1절 축제지원정책의 현황 | 163 |
| 1. 축제지원정책 이론 | 164 |
| 2. 축제 홍보 지원 정책 | 171 |
| 3. 축제 예산 지원 정책 | 175 |
| 4. 축제 조직 지원 정책 | 179 |
| 5. 축제 평가 지원 정책 | 183 |
| 제2절 국내외 축제 지원 정책 사례 | 185 |
| 제3절 축제 유형별 사례 분석 | 193 |
| 1. 산업경제형: 이태원지구촌축제 | 193 |

| | |
|-------------------------------|------------|
| 2. 시민화합형: 지구촌한마당 | 194 |
| 3. 역사전통형: 종묘대제 | 195 |
| 4. 순수예술형: 서울국제미디어아트비엔날레 | 197 |
| 5. 자연친화형: 여의도 벚꽃축제 | 198 |
| 제4절 축제지원정책 시스템 마련 | 200 |
| 1. 축제지원정책 시스템의 필요성 | 200 |
| 2. 축제지원정책의 체계 | 202 |
| 참 고 문 헌 | 219 |
| 부 록 | 227 |

표 목 차

| | |
|---------------------------------------|----|
| [표 1-1] 연구의 내용적 범위 | 7 |
| [표 2-1] 축제의 분류기준에 따른 유형화 | 29 |
| [표 2-2] 축제의 분류주제에 따른 유형화 | 29 |
| [표 2-3] 현대도시축제의 효과 | 47 |
| [표 3-1] 시주관 축제 현황 | 60 |
| [표 3-2] 자치구별 축제 현황 | 62 |
| [표 3-3] 주체별 서울시 축제 개최 현황(1) | 63 |
| [표 3-4] 주체별 서울시 축제 현황(2) | 64 |
| [표 3-5] 서울시 축제의 유형별 구분 | 66 |
| [표 3-6] 유형별 서울시 정부 축제 현황 | 67 |
| [표 3-7] 유형별 자치구 축제 현황 | 68 |
| [표 3-8] 권역별 축제 개최 현황 | 72 |
| [표 3-9] 참가인원 규모별 서울시 축제 현황 | 74 |
| [표 3-10] 서울시 축제의 조직 유형 및 현황 | 76 |
| [표 3-11] 예산 규모별 서울시 축제 개최 현황 | 80 |
| [표 3-12] 서울시 축제 예산 순위 | 81 |
| [표 3-13] 서울시 축제 전체의 유형별 예산 현황 | 82 |
| [표 3-14] 서울시 정부 축제의 유형별 예산 현황 | 82 |
| [표 3-15] 서울시 정부 축제의 유형별 예산 순위 | 83 |
| [표 3-16] 자치구 축제의 유형별 예산 현황 | 83 |
| [표 3-17] 자치구 축제의 유형별 예산 순위 | 84 |
| [표 3-18] 서울시 축제의 개최회수별 현황 | 85 |
| [표 3-19] 개최회수별 시 정부 및 자치구 축제 현황 | 86 |
| [표 3-20] 참여 축제 문제점(복수응답) | 87 |
| [표 3-21] 주요 축제 인지율과 참여율 | 88 |

| | |
|--|-----|
| [표 3-22] 과거시험 재현 주관 대행사 선정 심사위원회 | 90 |
| [표 4-1] 서울의 이미지(2000년) | 97 |
| [표 4-2] 서울의 랜드마크(2000년) | 98 |
| [표 4-3] 서울의 이미지(2001년) | 98 |
| [표 4-4] 서울의 랜드마크(2001/2003년) | 100 |
| [표 4-5] 서울性(Seoul Identity) 종합 | 101 |
| [표 4-6] 서울성을 토대로 한 서울형 축제 발전방향 | 102 |
| [표 4-7] 축제성을 토대로 한 서울형 축제 발전방향 | 103 |
| [표 4-8] 서울형 축제 평가지표(I): 서울성 평가지표(SAI) | 105 |
| [표 4-9] 서울형 축제 평가지표(II): 축제성 평가지표(FAI) | 106 |
| [표 4-10] 서울형 축제 평가 후보 축제 | 108 |
| [표 4-11] 전문가 설문조사 일반사항 | 117 |
| [표 4-12] 서울성 우선순위 평가 | 119 |
| [표 4-13] 축제성 우선순위 평가 | 121 |
| [표 4-14] 서울형 축제 평가 후보 축제의 유형별 구분 | 122 |
| [표 4-15] 역사전통형 축제들의 서울성 분석 | 126 |
| [표 4-16] 역사전통형 축제들의 축제성 분석 | 127 |
| [표 4-17] 순수예술형 축제들의 서울성 분석 | 131 |
| [표 4-18] 순수예술형 축제들의 축제성 분석 | 133 |
| [표 4-19] 시민화합형 축제들의 서울성 분석 | 135 |
| [표 4-20] 시민화합형 축제들의 축제성 분석 | 137 |
| [표 4-21] 산업경제형 축제들의 서울성 분석 | 140 |
| [표 4-22] 산업경제형 축제들의 축제성 분석 | 142 |
| [표 4-23] 자연친화형 축제들의 서울성 분석 | 146 |
| [표 4-24] 자연친화형 축제들의 축제성 분석 | 149 |
| [표 4-25] 중요도-성취도 매트릭스 내의 상대적 위치에 따른 지원방향 | 152 |
| [표 4-26] 축제유형별 서울성과 축제성 우선순위 | 153 |

| | |
|---------------------------------------|-----|
| [표 4-27] 서울형 축제 평가의 서울성-축제성 평균 | 155 |
| [표 4-28] 서울형 축제의 항목별 순위 : 서울성 | 159 |
| [표 4-29] 서울형 축제의 항목별 순위 : 축제성 | 160 |
| [표 5-1] 문화정책과 축제 지원 정책의 흐름 | 164 |
| [표 5-2] 2004년도 상반기 문화관광축제 선정기준 | 166 |
| [표 5-3] 광역시 축제관련 조례 현황 | 168 |
| [표 5-4] 기타 지방자치단체 축제관련 조례 현황(1) | 171 |
| [표 5-5] 기타 지방자치단체 축제관련 조례 현황(2) | 171 |
| [표 5-6] 국내외 축제 홍보 지원 정책 사례(1) | 185 |
| [표 5-7] 국내외 축제 홍보 지원 정책 사례(2) | 186 |
| [표 5-8] 국내외 축제 예산 지원 정책 사례 | 188 |
| [표 5-9] 국내외 축제 조직 지원 정책 사례(1) | 190 |
| [표 5-10] 국내외 축제 조직 지원 정책 사례(2) | 191 |
| [표 5-11] 국내외 축제 평가 지원 정책 사례 | 192 |
| [표 5-12] 축제지원정책의 전략 | 206 |
| [표 5-13] 축제지원정책의 삼각체계 실행계획 | 207 |
| [표 5-14] 지역축제 자문단 구성안 | 209 |
| [표 5-15] 축제 행위와 구성조직의 역할구조 | 211 |
| [표 5-16] 축제 조직 부문별 갈등 유형 | 212 |
| [표 5-17] 서울시 축제 보조금 지원 개선방안 | 213 |
| [표 5-18] 축제유형별 축제평가지표 | 216 |

그림목차

| | |
|--|-----|
| [그림 1-1] 연구흐름도 | 8 |
| [그림 2-1] 지향성에 따른 축제 분류 | 33 |
| [그림 3-1] 서울시 주관 축제 현황 | 61 |
| [그림 3-2] 자치구별 축제 현황 | 62 |
| [그림 3-3] 주체별 서울시 축제 현황(1) | 64 |
| [그림 3-4] 주체별 서울시 축제 현황(2) | 65 |
| [그림 3-5] 서울시 축제의 유형별 구분 | 66 |
| [그림 3-6] 유형별 자치구 축제 현황 | 69 |
| [그림 3-7] 시기별 서울시 축제 개최 현황 | 70 |
| [그림 3-8] 권역별 축제 개최 현황 | 73 |
| [그림 3-9] 참가인원 규모별 서울시 축제 현황 | 74 |
| [그림 3-10] 참가인원 규모별 시정부 및 자치구 축제 현황 | 75 |
| [그림 3-11] 서울시 축제 주관의 추진주체 유형 | 77 |
| [그림 3-12] 서울시 축제 주최의 추진주체 유형 | 77 |
| [그림 3-13] 예산 규모별 서울시 축제 개최 현황 | 79 |
| [그림 3-14] 개최회수별 축제 현황 | 85 |
| [그림 3-15] 개최회수별 시 정부 및 자치구 축제 현황 | 86 |
| [그림 3-16] 주요축제의 인지율과 참여율 | 88 |
| [그림 4-1] I-P(중요도·성취도) 분석 도형 | 111 |
| [그림 4-2] 서울형 축제 선정 프로세스 | 112 |
| [그림 4-3] 서울형 축제 평가의 PPA | 115 |
| [그림 4-4] 서울형 축제 평가의 SFA | 116 |
| [그림 4-5] 서울형 축제 평가를 위한 우선순위평가표 - 서울성 | 117 |
| [그림 4-6] 서울형 축제 평가를 위한 우선순위평가표 - 축제성 | 118 |

| | |
|---|-----|
| [그림 4-7] 서울형 축제 평가를 위한 중요도-성취도 평가 : 서울성 | 118 |
| [그림 4-8] 서울형 축제 평가를 위한 중요도-성취도 평가 : 축제성 | 119 |
| [그림 4-9] 서울성 우선순위 평가 | 120 |
| [그림 4-10] 축제성 우선순위 평가 | 121 |
| [그림 4-11] 서울형 축제의 서울성(1) | 122 |
| [그림 4-12] 서울형 축제의 서울성(2) | 123 |
| [그림 4-13] 서울형 축제의 축제성(1) | 124 |
| [그림 4-14] 서울형 축제의 축제성(2) | 125 |
| [그림 4-15] 역사전통형 축제의 서울성 매트릭스(1) | 126 |
| [그림 4-16] 역사전통형 축제의 서울성 매트릭스(2) | 127 |
| [그림 4-17] 역사전통형 축제의 축제성 매트릭스(1) | 128 |
| [그림 4-18] 역사전통형 축제의 축제성 매트릭스(2) | 129 |
| [그림 4-19] 역사전통형 축제의 서울성 우선도-성취도 분석 | 130 |
| [그림 4-20] 순수예술형 축제의 서울성 매트릭스(1) | 131 |
| [그림 4-21] 순수예술형 축제의 서울성 매트릭스(2) | 132 |
| [그림 4-22] 순수예술형 축제의 축제성 매트릭스(1) | 133 |
| [그림 4-23] 순수예술형 축제의 축제성 매트릭스(2) | 134 |
| [그림 4-24] 시민화합형 축제의 서울성 매트릭스(1) | 136 |
| [그림 4-25] 시민화합형 축제의 서울성 매트릭스(2) | 136 |
| [그림 4-26] 시민화합형 축제의 축제성 매트릭스(1) | 138 |
| [그림 4-27] 시민화합형 축제의 축제성 매트릭스(2) | 139 |
| [그림 4-28] 산업경제형 축제의 서울성 매트릭스(1) | 140 |
| [그림 4-29] 산업경제형 축제의 서울성 매트릭스(2) | 141 |
| [그림 4-30] 산업경제형 축제의 축제성 매트릭스(1) | 142 |
| [그림 4-31] 산업경제형 축제의 축제성 매트릭스(2) | 143 |
| [그림 4-32] 산업경제형 축제의 서울성 우선도-성취도 분석 | 144 |
| [그림 4-33] 산업경제형 축제의 축제성 우선도-성취도 분석 | 145 |

| | |
|---|-----|
| [그림 4-34] 자연친화형 축제의 서울성 매트릭스(1) | 147 |
| [그림 4-35] 자연친화형 축제의 서울성 매트릭스(2) | 148 |
| [그림 4-36] 자연친화형 축제의 축제성 매트릭스(1) | 149 |
| [그림 4-37] 자연친화형 축제의 축제성 매트릭스(2) | 150 |
| [그림 4-38] 서울형 축제의 유형별 중요도-성취도 분석: 서울성 | 151 |
| [그림 4-39] 서울형 축제의 유형별 중요도-성취도 분석: 축제성 | 151 |
| [그림 4-40] 중요도-성취도 매트릭스 내의 상대적 위치에 따른 지원방향 | 152 |
| [그림 4-41] 서울형 축제의 서울성-축제성 분석(1) | 156 |
| [그림 4-42] 서울성(지역성)-축제성 분석으로 본 축제발전단계 | 157 |
| [그림 4-43] 서울형 축제의 서울성-축제성 분석(2) | 158 |
| [그림 5-1] 축제추진위원회 조직도 | 182 |
| [그림 5-2] 서울 축제지원정책의 체계 | 203 |
| [그림 5-3] 축제지원정책의 비전 | 204 |
| [그림 5-4] 축제지원정책의 삼각네트워크 | 205 |
| [그림 5-5] 축제마케팅 전략 수립 프로세스 | 214 |

제 I 장 연구개요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축제(祝祭, Festival)는 어느 사회에서나 존재한다. 특히 ‘나는 누구인가’ 혹은 ‘나는 어디에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끊임없이 갈구하는 현대인들에게 삶의 공간의 역사와 전통에서 연원한 축제의 특성은 해답을 구하는데 있어서 대단히 매력적이다.

전통적으로 축제에 대한 연구는 서구의 종교학에서 먼저 출발하였고, 이후 역사학, 문화인류학, 민속학에서 그 뒤를 이었으며 최근에는 사회학, 교육학, 경제학, 민족학, 관광학, 경영학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현대적인 관점으로 축제연구를 시도하고 있다.

우리는 축제를 가지고 있지 않은 민족이 아니라 우리 식의 축제가 있었지만 그것을 제대로 계승하지 못했으므로 전승이 되지 못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축제에 대해서 빛을 지고 있는 셈이다. 또한 축제의 정서를 서양식으로 받아들여려는 고정관념 때문에 우리 민족은 축제가 없다는 말을 쉽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원시종합예술로 일컬어지는 고대 부족국가의 제천의례는 바로 우리 축제의 현장이었다. 우리의 전통 축제 속에는 외적으로 유희성 혹은 오락성이 두드러지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며, 축과 제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축제를 통해 풍요와 건강을 유지하고자 했던 바는 삶의 궁극적인 문제를 풀고자하는 것으로, 축제 속에 민족의 신앙적 심상이 담겨져 있음을 의미한다. 축제는 기본적으로 진지한 종교성을 지니고 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결코 논의가 힘들겠으나 진화론자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세상은 문명화의 길로 치닫고 있다고 말한다. 문명화란 공동체의식의 해체, 성스러운 의식의 세속화에 의해 점점 지배되며 인간의 이성적·합리적 사고가 증대되

는 과정을 말한다. 축제 역시 문명화의 단계를 거치면서 그 근원적 의미, 말하자면 제의성(祭儀性)이라든가 종교성(宗教性)은 약화되며 세속화에 따라 인간 본위의 이성적·합리적 사고에 따라 오락성이 가중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오늘날의 축제는 그 본래적 의미가 약화되었다. 그러한 과정에서 기능도 새로운 양상을 띄게 된다. 여기서 새롭다는 말은 과거에 전혀 없던 기능이 창조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강조되는 기능을 말한다. 이렇게 과거적 기능보다는 오늘날의 시대에 걸맞은 기능이 강조되었다 하더라도 본래적인 의미는 간과할 수 없다. 본래적인 의미야말로 인간의 생존과 직결된 것이다.(문화관광부, 1997)

현대 도시에서의 축제는 세계화의 트렌드 속에서 각 도시의 개성이나 독특한 매력물이 도시 정체성의 근본이 되는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됨에 따라 더욱 큰 의미를 부여받고 있다. 국가나 지역을 축제의 강력한 배경으로 하는 지역축제는 대부분 종교적 성격이나 배경을 가진 채 세계의 여러 문화, 문명 속에서 긴 역사동안 형성되어 온 것이어서 사회적 문화적 축제의 성격을 강하게 보인다.

또한 축제는 해당 구성원들이 축제에 참여하여 자신의 정체감을 확인하고 놀이와 어울림을 통한 즐거움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심리적인 치유기제로서 삶의 돌파구로 작용한다. 이와 같이, 축제는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지역적 통합성을 향상시키며 전통문화를 계승하며 오락적인 어울림이 가능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즉, 축제를 기획,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조성과 협동성이 일게 되고 축제에서는 사회적 결합과 공동체 의식의 강화와 전통문화 계승 및 교육, 그리고 놀이가 이루어진다. 이들은 궁극적으로 통화의 과정과 성취를 의미하는 축제의 기능이다. 개인이 사회에, 지역 문화 요소가 축제에 포함되는 과정은 현실이 전통과 신화에 통합되는 것과 동일한 과정이다. 기계적이고도 위계적인 사회 각 요소들이 한마당에 어우러져 하나 되는 체험이 축제에서 발생한다.

더불어 축제는 일상적인 시간이 아니라 거기서 벗어난 성스러운 특별한 시간이

다. 일상적인 사회규범과 질서 속에서 기계적으로 살아야 하는 인간은 축제의 순간에 현실과 격리되어 놀이와 의례, 상징을 경험한다. 이를 통하여 축제 참여자들에게는 신명이 발생하고 통합의 과정을 통하여 더욱 고조된다. 신명은 현실 사회의 이론적, 분석적, 기계적인 정신과는 달리 예술적 창조의 에너지이자 감성의 총체로서 작용한다. 이를 가지고 다시 현실로 돌아와 각자의 사회구성원은 개별적 사회적 삶에 임하게 된다.

축제를 통하여 경험하는 통합과 신명은 조화의 정신을 기저로 한다. 축제는 주기적으로 개최되어 인간의 삶과 사회를 조화롭게 만들어주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축제의 기능이 지니는 현대적 의의는 매우 중요하다. 축제는 고대로부터 이어져 온 일상적인 삶에 신명과 생기를 불어넣는 인간 본능의 자연스러운 분출구의 역할을 하였으며, 현대 사회의 활발한 축제 부흥운동을 통하여 인간은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탐색한다.

더군다나 명승고적을 찾는 고전적인 형태의 관광은 더 이상 의미 있는 여가가 되지 않는다. 생생한 삶의 현장이나 신명나는 축제의 장(場)을 방문하고자 하는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여가문화의 질적 전환으로 인해 축제의 신명과 화합을 체험하고 이를 통하여 개인적 삶을 전환하는 경험은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여주고 재방문 의사를 발생시키어 궁극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

이렇게 축제의 전통적인 의의와 현대적인 의의가 견고해 지는 가운데 서울시민과 서울을 찾는 방문객에게 제대로 된 축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점차적으로 서울성(서울性)을 지닌 서울형 축제를 개발하여 현대도시의 전략으로서 의미있는 축제를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그 동안 서울시 축제들은 전통적인 제의성을 지닌 축제들은 제대로 유지되지 못하였으며 새롭게 개발되고 추진되는 축제들은 지역의 성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보여왔다. 더군다나 서울시 문화과의 축제 예산 배정이 자치정부가 직접 주최하는 축제나 자치정부가 설립한 재단에 위탁하는 축제에 집중되어 있고, 실질적인 운영형태도 자치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축제의 개수가 월등히 많으며 서울시민 및 자치구민이 주도적으로 축제를

기획하고 운영하지 못하는 등 관주도적인 성격의 축제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도 축제에 대한 안내 및 홍보가 부족하고 축제 환경이 제대로 조성되지 않는 등 축제인프라와 관련된 문제 및 형식적인 축제평가의 문제가 산재하여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축제 전반에 관한 통찰력 있는 연구나 서울의 대표축제 개발을 위한 서울성 규정 및 현행 대표축제에 대한 면밀한 평가 연구의 부재 등 관련 연구가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서울의 이미지와 정체성을 반영하는 다양한 서울 축제들을 분석하여, 서울을 대표하는 서울형 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서울시민의 여가문화 활성화와 서울관광 및 도시마케팅 정책 수립에 활용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크게 문헌연구, 자료조사, 면담 및 현장 조사 등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문헌연구는 축제와 문화행사에 관한 기존 연구보고서와 논문 등을 토대로 축제와 현대도시축제 및 축제평가에 관한 개념 및 유형, 분류체계 등을 도출하고 문화행사 및 축제 관련 자료를 중심으로 자료조사를 실시하여 서울시 축제의 전반에 관한 분류기준별 현황을 파악하였다.

설문 및 인터뷰 조사에서는 서울시 축제 관련 행정담당자 및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서울시 축제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과 행정적인 어려움 및 서울형 축제 개발을 위한 의견 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현장조사는 서울시 축제 중 주요한 축제를 대상으로 직접 참여 관찰하여 해당 축제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현재 서울시 축제 현장의 실정을 밀접하여 관찰하였다. 우선, 서울시의 대표축제라 할 수 있는 하이서울페스티벌, 서울공연예술제, 서

월드컵페스티벌, 미디어시티서울(서울미디어아트비엔날레) 및 서울세계불꽃축제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며 기타 서울시정부나 자치구에서 주최하는 축제들 중 역사성이 있거나 대동성이 강한 축제들을 중심으로 파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축제의 장기적인 비전 수립과 서울형 축제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 워크숍 및 공개토론회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였다.

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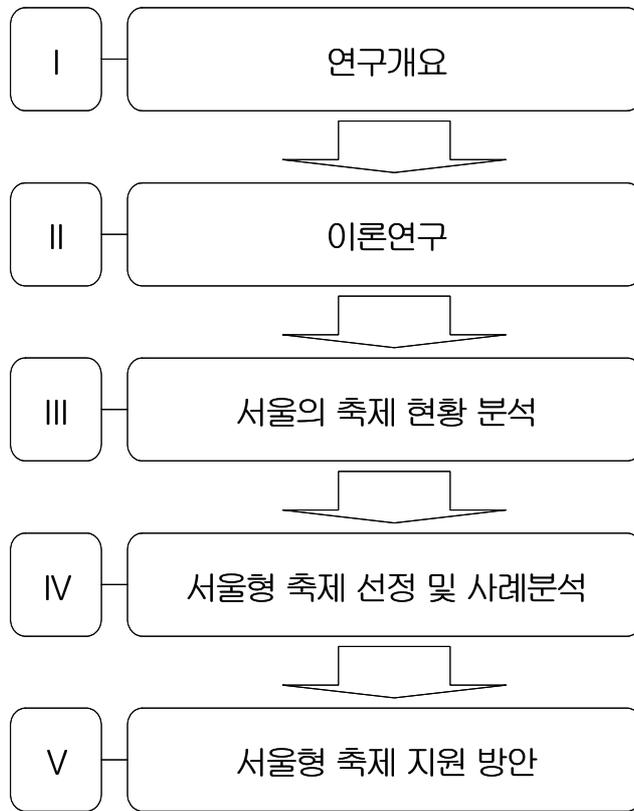
시간적 범위는 2004년부터 2005년에 걸쳐 진행된 축제를 포함한 문화행사를 대상으로 한다.

공간적 범위는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면적 605.52km²)를 대상으로 한다.

내용적 연구 범위는 [표 1-1]과 같다.

[표 1-1] 연구의 내용적 범위

| 구분 | 해당 내용 |
|-------------------------|--|
| 이론연구 | 축제의 개념 및 유형 정립 축제와 도시발전의 관계 |
| 서울의 문화행사 및 축제 현황 | 유형, 명칭, 개최시기, 장소, 주체, 예산규모, 프로그램 등 |
| 서울형 축제의 개념, 유형, 평가지표 개발 | 서울의 장소정체성과 서울성 서울성 정립 및 그에 따른 서울형 축제컨셉 개발 |
| 서울형 축제 현황 및 평가 | 서울형 축제 평가지표에 의한 평가 |
| 서울형 축제 지원 방안 | 축제지원정책 시스템 (조직, 주체, 공간, 프로그램, 예산, 정보, 홍보·마케팅, 관광연계) |



[그림 1-1] 연구흐름도

제 II 장 이론연구

제1절 축제론

제2절 현대도시축제론

제1절 축제론

인간사회에서 축제(祝祭, Festival)가 언제부터 발생했는가를 명확하게 밝힐 수는 없다. 그러나 다양한 인간의 삶을 아우르는 종합예술적 행위로서의 축제를 살펴 보자면, 인간이 공동체 생활을 시작하고 자아와 세계와의 관계를 구별하는 의식으로 축제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고대 농경사회부터 계절적 변화와 연관된 다양한 의례들에서 종합적인 예술적 행위들이 발견되는 것 역시 축제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우리의 별신제를 비롯한 마을굿, 탈놀이 등 지역에서 해마다 같은 시기에 벌어지던 세시의례 역시 풍농을 예측하고 기리는 지역의 축제였던 것이다.(문화관광부, 1997) 그래서 축제는 놀이공간에서 벌어지는 세시행사적 관습의 형상화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대의 산업사회에서 농경사회의 제의성이라든가 종교성은 약화되었으며 세속화에 따라 인간 본위의 이성적·합리적 사고에 따른 오락성이 현대 축제의 주된 속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불어 현대사회에서는 체험하고 공감하고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새로운 미디어로서 축제를 인식하고 현대의 여러 공간들을 대상으로 하면서 대중들을 타깃으로 하는 공간전략으로 축제를 활용하여 현대사회의 대중성을 강화하고 있다.(정어지루, 2002) 축제는 일정한 생활공간을 바탕으로 해당 공간을 접하여 생활하는 구성원들이 놀이적 속성을 보이며 한데 어울리는 문화적 사회적 행위이기에 현대 사회의 소외 문제를 해소하고 정체성을 형성하는 도구화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문화적 속성을 동시에 지니는 전통적 축제와 현대적 축제의 구분 및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진정한 의미의 도시축제의 모색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인 축제와 현대도시에서의 축제에 관한 논의들을 통하여

현대도시축제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축제에 대한 기존 논의들

축제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은 매우 다양하다. 축제를 형식적인 특성에 의해 살펴봐기도 하고 내적으로 지닌 의미들을 통하여 살펴봐기도 하며, 축제의 사회적 역할에 관심을 두기도 한다. 축제에 대한 일차적인 관심은 축제가 지니는 주기적인 반복성과 축제를 담당하는 집단 및 축제행위의 의미와 상징, 그리고 축제의 시작과 종결까지의 과정 등으로부터 출발한다.(Andreas Bimmer, 1988)

또한 지역의 전통문화로서 축제를 바라보는 관점과 지역 내의 사회적 행위로서 축제를 바라보는 관점으로부터, 다양한 학문적 논의가 발생하기도 한다.

지역의 전통문화로서 축제를 다루는 민속학 또는 문화인류학과 같은 문화과학적 방법론에서는 축제의 드러나는 현상 그 자체 뿐만 아니라 그 속에 내포된 전통적 가치규범, 나아가 그것으로부터의 문화적 의미를 도출하고자 한다. 즉 축제의 원초적 형태와 구성, 실행과정에 대한 세부적 기술을 바탕으로 축제의 성격을 규명하는데 초점을 둔다. 그리고 축제의 변동에 대한 문제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사회경제적 상황의 변화로 야기되는 형태와 의미의 변화, 그 과정에서 소실되는 요소와 새로이 등장하는 변화양상을 분석해 낸다. 이러한 지역전통에 우선한 축제연구는 이론적, 비판적 관점보다 지역의 특성에 근거한 대상 분석을 위한 기술적 작업에 치중하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축제에 대한 포괄적인 개념형성이나 초지역적 일반화 및 범칙성의 발견에 대한 이론적 고려는 상대적으로 미약할 수밖에 없다.

한편 사회학적인 접근방법을 통하여 축제가 미치는 사회적 기능과 구조에 대한 문제제기는 인접학문과의 관계에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축제의 조직과 실행과정에서 구성원들은 일정한 위계 질서적 관계를 형성하고 그에 따른 역할과 행위가 요구되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행위를 통해서 사회유기체적 구조를 유지하는 문화현상으로 축제의 기능을 찾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는 조화로운 공동체 관습으

로만 이해되어 구성원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는 특정한 행사로서만 규정되는 것과 다르다. 사회학적 영향에 따른 축제의 접근방식은 관습적 행위에 대한 사회적 행위이론을 토대로 하여, 축제의 주기적, 반복적 상황에 내재된 구체적 행위 양식으로 축제 규범체계의 구체화를 촉구하게 된다. 사회적 집단의 의사교환과정 속에서 축제는 집단구성원들 사이의 내적결속을 이루도록 하거나 축제 행위를 통한 사회적 사실의 표면화의 두 가지 양상을 보인다. 집단구성원들의 내적결속에 대해서는, 축제의 다양한 행위들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을 통하여 축제의 특징적 상징으로서 내적결속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다. 또다른 양상으로는 축제 행위가 그 보유집단의 사회적 생활을 표현하는 사회적 사실 내지 표식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축제의 기능적, 구조적 요소를 해당 집단의 사회적 행동양식의 코드 속에서 해석한다는 관점이다.

축제를 바라보는 또다른 학문적 접근방법으로는 전통보전적 접근방식을 들 수 있다. 과거의 전통적 축제에 대한 기록 작업과 그를 바탕으로 한 전통적 축제의 재현을 모색하는데 관심을 둔다. 우선 관심의 초점은 과거 형태의 축제에 대한 원형을 파악하는데 두어지고, 이후에 현대사회의 복고적 경향과 그에 동조하는 정치적 의도 하에서 축제를 재건하는 것이다. 이론적으로는 민속주의(Folklorism)적 경향에 근거하여 과거 축제의 외형적 재현(Fakelore)이 된다. 민속주의란 축제를 포함한 과거 전통적 관습 내지 의례적 행위가 현대사회에서 원래의 민속담당 집단이 아닌 제 2의 집단에 의해 재현되는 현상을 말한다.(이승균, 2004)

축제와 관련된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이은봉은 축제가 예술, 문화, 그리고 놀이적인 의미가 가미된 한 형태로 구별될 수 있다고 정의했다. 축제에서 종교적인 요소를 배제할 수는 없지만 현대에 와서 세속화되었고, 축제와 비슷한 용어로 축전, 제전이 있지만 정확하게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영어권의 축제에 관련된 용어와 비교하여 축제의 용어 사용범위가 더욱 광범위함을 지적하였다.

이상일은 축제의 기원을 인류의 제의적 카오스(chaos)에서 찾고 있으며, 축제는 세속 사회의 중압을 이겨내고 태초의 어둠이라는 '창조적 난장판'으로 되돌아가서 근원으로부터 카오스의 활력과 생명감을 되찾는 문화적 장치라고 하였다. 축제를 통해 인물상과 시대상황 그리고 문화환경을 재현함으로써 과거와 현재의 정체성을 확인시키고 나아가 그 충만감, 긴장과 집약을 통한 세계의 긍정과 미래에 대한 믿음을 확인시키는 것이다. 모든 축제와 잔치가 인간사회의 제도적 질서 속에 베풀어지는 무질서의 순치이며 계절제의와 창조신화를 구체화시켜 제의를 축제로 전환함으로써 자연의 리듬과 삶의 리듬을 일치시키려했다고 한다.

김명자는 예술적 요소가 포함된 제의를 축제라고 언급하면서 모든 예술이 미분화 상태로 엮여 있는 종합예술의 성격을 지닌다고 하였으며, 김채현은 축제를 특별한 시기를 정해 공동체의 관심사를 축하하고 기원하는 의식 행사라고 개념 정의하고 있다. 축제는 매일 벌어지는 일상적 행사가 아니고 특별한 날에 벌어지는 행사이며 역사적 사건 등과 같은 기념할 가치가 있는 날이다. 또한 축제는 공동체의 관심사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공동체가 변하면 축제도 달라진다. 농경사회로부터 산업사회 또는 근대사회로 이행함으로써 축제는 문화예술축제로까지 개념이 확장되었다. 공동체의 관심사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축제는 지극히 인간적인 현상이요 인간 중심적인 현상이다.

류정아(1999)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축제들은 다음과 같은 3가지 관점에서 파악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첫째는 하나의 의례이자 일상 생활의 파괴로서 축제를 분석할 경우, 축제는 성/속의 구분이라는 의미에서 의례적인 사건 또는 집단적인 상징이 된다. 둘째, 사회변화에의 적응 기제로서 축제를 분석할 때는 축제가 가지는 의미의 시대적, 사회적 변화사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셋째는 전통 축제가 민속화되는 과정을 분석하는 것인데 여기서 축제의 형태는 여전히 전통적인 모습으로 남아 있기는 하지만 축제 그 자체의 내용과 의미는 그것이 본래 근원하고 있던 사회, 문화, 경제적 맥락과 괴리되어 나타나게 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오늘날 많은 축제들은 새로운 사회적 영향을 받아 새롭게 고안되고 변형되는데 이러한 과

정에서 축제는 점점 더 민속화된 모습을 나타내게 된다. 민속에 대한 이러한 계속적인 추구는 거대한 규모의 지방주의적 성격을 띤 축제로 발전되는 경향이 있다(류정아, 1999). 여기에서 비종교적인 제의성과 예술·놀이적인 요소를 함께 가지고 있는 지역축제(안경모, 1994)나 축제를 예술, 문화, 그리고 놀이적인 의미가 가미된 제의의 한 형태로 발전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이은봉, 1982)

이와 같은 축제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은 강조되는 축제의 속성들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축제에 대한 개념 및 정의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축제의 속성 및 기능에 의한 축제유형화를 통하여 현대도시의 문화로서의 축제를 밝혀보도록 한다.

2. 축제의 개념 및 정의

1) 축제의 개념 및 정의

축제는 흔히 ‘축’과 ‘제’가 포괄적으로 표현되는 문화현상이라고 정의된다. 종교는 성스럽고 궁극적인 가치와 연결되기 때문에 강력한 사회통합력을 가진 것이었다. 따라서 축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가지는 종교적인 의미와 기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축제를 의미하는 ‘festival’은 성일(聖日)을 뜻하는 ‘festivalis’라는 라틴어에서 유래한 말로, 이것은 축제의 뿌리는 종교의례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우넨뷔르게(Wunenburger)는 「축제와 놀이와 신성성(1988)」이라는 책에서 대부분의 축제는 특정한 복장이나 가면 등의 의례적인 특징을 드러내는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것은 의식이나 행렬, 음악, 춤 등을 통해서 특정한 형식을 따르게 된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이것은 계절적인 순환이나 종교의식, 특정한 역사적 사건의 기념식 등에서 보다 분명히 드러난다고 본다. 고대적인 제도적 형태에 기반하고 있는 ‘신성한 놀이’로 설명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파브르(Fabre)는 카니발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축제가 지니는 기능을 역사적인 연구와 상징기능적 연구로 나눈다. 역사적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축제는 특정한 사건을 통해

일상적인 흐름이 단절되는 경험과 금기가 해제되는 상황이 연출되는 축제를 말하며 중세 축제와 난장적인 축제가 포함된다. 상징적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축제를 분석할 경우에는 기존의 사회질서의 유지와 보존에 목적을 둔 축제가 연구 대상이 된다.

네덜란드의 역사학자 호이징하(Huizinga, Johan)는 「호모 루덴스」라는 책에서 인간의 유희적 본성이 문화적으로 표현된 것이 축제라고 정의하면서, 놀이는 비일상적, 비생산적인 것이지만 일상과 생산을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를 발전시킨 하비 콕스는 인간은 '사고하는 인간(Homo sapiens)'일 뿐만 아니라 '놀이하는 인간(Homo ludens)', '축제하는 인간(Homo festivus)', '환상적인 인간(Homo fantasia)' 이라고 말하면서 “축제는 억압되고 간과되던 감정표현이 사회적으로 허용된 기회 또는 인간은 일상의 이성적 사고와 축제의 감성적 욕망 사이를 넘나들면서 경험과 인식의 지평을 확대할 수 있고 또 그를 통해서 문화의 발달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았다. 거대한 현대적 대중소비사회에서의 놀이란 인간의 삶의 질을 측정해주는 척도로까지 간주되어서 보다 더 잘 '향유'되어야 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어 이와 같이 놀이에 대한 의미들은 인간 본성의 측면 이상의 매커니즘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축제는 이러한 인간의 유희적 본성을 충족시켜주는 놀이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 중의 하나이다.

축제의 본래적 의미를 살펴보면, 축전(祝典)과 제전(祭典)의 두 성격을 포함한다. 즉, 경사스런 날과 제사드리는 날이 합쳐진 개념으로서 지역 공동체의 고유 문화의 일환이자 일상성을 탈피한 재충전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이병훈, 2001) 또한 축제는 개인 또는 공동체에 특별한 의미가 있거나 결속력을 주는 사건이나 시기를 기념하여 의식을 행하는 행위로서, 계절적, 문화적, 역사적인 행사나 축일을 강조하고 기념하며 한데 어우러져 노래하고 춤을 추거나 신과 고장의 영웅들에게 경의를 표현하며 새로운 소망이나 묵은 소원을 기원하는 등의 계기가 되었다.(송태갑, 2001) 또한 축제는 생활공동체 혹은 일의 공동체를 기반으로 성립되어 생산과 노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함께 벌이는 제사이자 잔치이며 놀이라고 할 수 있다. 축제는 개인 또는 공동체를 주체로 하여 특별한 의미가 있거나 결속력을 주는 사건 또

는 시기를 기념하기 위한 동기로 인해 발생하는 의식 및 행위를 말한다. 본질적으로 축제는 신성한 시간의 개념에서 비롯된 축제와 계절적 변화와 관련된 축제로 대별된다. 시간의 개념에서 비롯된 축제는 시간을 순환적인 것으로 보는 종교나 문화에서 인간의 혼돈(chaos)에 대한 자연질서(cosmos)의 승리를 기념하는 특별한 기간에 축제라는 의식을 통해 부분적으로나마 우주에서의 그의 위상을 확인받고자 했다. 계절적 변화와 관련된 축제는 계절적 변화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양식이 지속적인 공급이 자연의 여러 가지 양상들을 조정하는 신성한 힘에 달려있다는 믿음과 관련된 의식들이 발전된 것으로 간주된다.²⁾ 또, 그 밖의 신성한 축제로 통과 의례, 즉 출생과 사춘기, 결혼, 죽음에 이르기까지 아득한 옛날부터 모든 인류에게 신성한 의미를 부여하는 축제가 있었다. 이는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과의 관계 및 개인에게 새로운 상태에 대한 실질적 상징적인 의미를 알려주는 신성한 국면과의 관계에서 개인의 위상이 변화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기에는 예로부터 축제가 이루어져왔다. 출생은 다양한 의식과 축제에 의해 기념되고, 성인으로 이행되는 과도기에 거행하는 성인식 같은 축제와 결혼과 관련된 다양한 축제들, 그리고 죽음에 이르러 거행되는 장례축제 등이 다양하게 열렸다.

축제가 지니는 현대적인 의미는 지역의 문화행사와 혼재되어 구분도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다. 더군다나 자유의지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즐기는 것이 아니라 즐긴도록 강요받는 인위적인 축제가 되는 것이다. 소수에 의해 이끌어지거나 공동체 구성원들의 참여가 적은 축제는 협동과 단결을 경험할 수 없는 축제는 진정한 축제적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없다.(이상일, 1998) 축제의 지향점은 공동체 의식의 형성과 철저히 노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전제라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아무런 조건없이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철저히 놀아질 때 그 축제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새로운 활력의 삶으로 바꾸어 놓는다. 축제는 삶의 무미건조한 흐름을 차단하여 그 삶을 다시 한번 윤기있는 모습으로 되돌려놓는 것이다. 철저히 노는 축제는 노는 가운데

2) 문화체육부, 1996, 한국의 지역축제/ 이원택, 1995,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문화축제운영방안, 한국문화정책개발원.

도취와 열광의 상태를 만들어낸다. 난장판의 카오스가 없으면 축제는 만들어진 축제가 되고 만다. 위와 같은 논의들을 통하여 ‘축제는 생활의 장(場)이 되는 공간을 중심으로 공동체 구성원들이 어울려 놀이적 속성을 창출해내는 창조적인 문화활동’이라고 개념화 할 수 있다.

축제의 사전적 정의는 ‘축하하여 벌이는 큰 규모의 행사’이다. 축제란 종교, 사회, 문화 등의 어떤 사건이나 절기를 기념하여 그것을 의례적으로 축하하는 일정한 날이나 기간으로 종교적인 연원을 갖는 공동체 의식을 통하여 지역의 역사성과 특수성을 기반으로 공감대를 형성하여 지역민의 관심과 호응을 얻어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은 물론 지역문화의 활성화,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경제적인 가치창출에 그 의의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정의한다.(이세섭, 1998) 즉, 축제란 개인 또는 공동체에 특별한 의미가 있거나 결속력을 주는 사건 또는 시기를 기념하여 의식을 행하는 행위 또는 공공적이며 테마를 가진 양식으로서 지역의 전통적 생활요소가 투영된 문화행사를 일컫는 것이다.(Getz, D., 1991)

2) 축제의 구성요소 및 성격

축제는 **개최의 주기성, 프로그램의 복합성, 개최목적의 공공성, 참여의 개방성** 등을 구성요소로 가지고 있다. 축제는 크게 **이미지 형성력과 주체 그리고 지역성**의 세 가지를 핵심적으로 하여 진행방향이 결정된다. 이미지 형성력은 축제를 만들어낸 신화적 인물의 부각이거나 역사를 압축한다. 해당 역사의 근원을 이미지로 집약시키는 극화, 행렬화, 디자인화가 이미지 형성력이다. 이때의 공동체가 해당 이미지 형성의 수렴과 집행에서 주체가 된다. 즉, 축제는 타인 혹은 타집단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들이 주체의식과 집약적 의지를 가지고 만들어가는 것이다.

더불어 축제의 주체가 살아가고 있는 지역을 배제하면 축제는 무대를 잃어버린

공연과도 같다. 아무리 역사가 있고 주체가 있다 하더라도 해당 축제의 전통이 발생할 수 있는 영역이 마련되지 않으면 정착이 불가능하다. 축제의 주체들이 친근감과 애착을 가지고 공유하는 공간적 범위가 있어야 하며, 이는 여러 가지 이유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도시 공간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현재 도시 공간에서 벌어지고 있는 축제들 중 인구의 도시집중화로 인하여 모인 사람들의 전통적인 삶의 의식과 도시 생활적인 행사가 결합한 축제 역시 도시 축제의 중요한 부분이다.(이상일, 1998)

위와 같은 요소들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축제들은 일상과는 차별되는 활동을 통한 상이한 경험과 즐거움 그리고 집단적인 공유를 제공하여 현실 생활 세계와의 유대를 역설적으로 증진시키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축제의 성격을 아래와 같은 몇 가지로 규정할 수 있다.

(1) 의례적 종교성

축제 속에는 모든 예술이 망라되어 있어 마치 종합예술의 성격을 지닌 문화활동으로 보이기 쉬우나, 축제의 원 의미 속에는 종교성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축제는 예술적 요소가 포함된 제의를 일컫는다. 축제는 애초 성스러운 종교적 제의에서 출발했으나 유희성을 강하게 지니게 되어 오늘날에는 종교적인 신성성이 거의 퇴색되었다. 하지만 축제라는 말 자체가 곧 제의와 놀이를 포괄하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종교적 요소를 떼어버릴 수만도 없다.

우리 축제의 고행이라 할 수 있는 제천의례만하더라도 제사의식과 놀이의 의식이 공존했다. 또한 축제보다 소규모의 행사를 일컫는 잔치의 사전적인 해석은 ‘기쁜 일이 있을 때 음식을 차리고 손님을 청하여 즐기는 일’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공공의 규모가 큰 행사에도 잔치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으며, 생일잔치 및 혼인잔치와 같은 일생의례를 지칭할 때에도 의례의 성격이 내포되어 있다.

(2) 유희적 놀이성

축제라는 용어가 상당히 일반화되어 있지만, 우리에게 놀이라는 표현이 더 익숙하다. 축제에는 항상 난장이 있지만 이 속에는 무질서 속의 질서가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축제와 난장을 혼동하고 있다. 난장은 창조를 위한 카오스이며 축제는 자연적 질서를 만들어나가는 매커니즘이다. 축제 속에 난장이 있지만 이것이 전부 아니다. 난장은 축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있어야 하겠으나 이것이 주인공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놀이는 몸을 가진 인간이 이 세계와 관계하는 방식이다. 놀이에는 인간의 몸이 지닌 구조와 욕망이 반영되어 있다. 비장한 현실의 문제와 재미를 추구하는 놀이가 서로 대립하지 않고 하나의 행위 속에 결합되어 있는 것이 낫다. 보이지 않는 세계와 관계하면서 음악과 몸짓을 그 중심에 둔다.

축제의 '놀이적 특성'에 대해, 네덜란드 출신의 역사학자 호이징하는 그의 저서 「호모 루덴스」에서 축제와 경박한 행위는 표면적으로는 때로 동일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들은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것이라고 했다. 그는 '놀이는 일상적 또는 본래의 삶은 아니다'하는 전제 아래 놀이는 첫째 자유로운 행위, 둘째 놀이는 그것의 고유한 성격 때문에 일상으로부터 어떤 일시적인 활동의 영역으로 건너뛰는 것, 즉 독자적 성격을 지닌 활동이 허구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며 셋째 일상생활 밖에 있는 놀이는 놀이가 시작됨으로써 일상적인 삶을 중요시했다는 것이다. 놀이는 일상성에서 벗어난 것이지만 결국 일상적인 삶을 위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미국 출신의 신학자 하비 콕스는 자신의 저서 「바보제」에서 '축제는 억압되고 간과되었던 감정 표현이 사회적으로 허용된 기회'라고 보면서 그 기회에는 세 가지의 본질적 요소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축제의 본질적 요소라는 측면에서 볼 수도 있다. 그가 제시한 세 가지 요소는 고의적(故意的) 과잉성·축의적(祝儀的) 긍정성·대국성(對局性)이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가 축제와 제축을 구분하고 있다는 점부터 밝혀야 한다. 그는 이 두 용어를 거의 비슷한 의미로 사용하

면서도 축제(festival)는 제축(festivity)과 환상(fantasy)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기에 제축은 이 기능을 가리키는 명사가 된다.

콕스가 제시한 첫 번째 본질인 **고의적 과잉성**이란 제축적 행위가 환락을 추구하는 행위로 표현된다는 의미다. 축제 때에는 언제나 지나친 짓을 한다. 그것도 일부러 그러는 것이다. 축제에서는 그저 흥청망청한다. 늦게까지 잠도 자지 않고 먹고 마시고 또 돈을 물 쓰듯이 한다. 여느 때 같으면 어렵도 없는 일이다. 어떤 문화권에서는 전통적 성도덕이나 음식물의 금기도 잠정적으로 그 구속력이 완화되기도 한다. 제축 때에는 성장을 한다. 이때 가지각색의 우스꽝스런 모자와 야회복, 화사하다 못해 정도를 넘는 의복 등, 평소에 그렇게 했다면 괴상하게 보이거나 남의 눈총을 받기에 알맞은 것들로 꾸민다. 그러므로 일상적 행동의 규범을 어기는 제 요소를 사회적으로 허용하는 관용이 없이는 제축다운 제축이 실현될 수 없다. 이처럼 제축 기간에는 평상의 인습적 과거로부터 잠정적으로 벗어나 지나친 행동을 취하는 것이다.

축의적 긍정성이란 제축은 언제나 기본적으로 ‘생을 긍정한다’는 자세를 필요로 한다는 뜻이다. 여기에는 가장 심오한 기쁨이 함축되어 있다. 이미 성취한 것으로 인하여 축의적 긍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직 희망에 불과한 것을 미리 축하하는 경우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미 어떠한 불길한 사태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의 측면을 축하하는 수도 있다. 말하자면 실패와 죽음의 사실이 엄존함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과 명량성을 긍정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대국성**이란 과잉의 요소와 관련되어 있다. 그것은 제축이 반드시 하나의 뚜렷한 대조성을 보여주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축제는 일상생활과 판이하게 다른 상황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제축을 단순히 일상과는 다른 것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 일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제축은 아니다. 제축

이 축제의 과잉성을 함축하고 있지만 축제를 실감하려면 일상생활의 요목인 작업·관례·중용성 등과의 대조가 잘 이루어져야만 한다. 축제는 일상의 모습과는 대별되는 것이어서 단순하게 받아들이면 난장의 연속으로 보일 수 있겠으나 이 난장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일 뿐 내면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

과잉성에서는 흔히 현재를 미래의 준비단계에 불과한 것으로만 보게 하려는 역사적 인간의 한계와 편협성을 비판한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긍정성의 요소에서는 우리가 평상시에 꺼리고 무시하고 거부하게 느낄지도 모르는 시간의 모든 영역을 긍정할 수 있다는 인간의 고귀함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대국성의 요소에서는 우리가 잠시 역사로부터 이탈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오히려 역사의 연속성을 한층 더 의식하게 만들어주는 점을 일깨워준다. 일상의 자질구레한 궁지에서 벗어나는 축제는 인간의 의사소통의 통로와 욕망의 배출구라 할 수 있다.(문화체육부, 1997)

(3) 창조적 일탈성

축제의 또 다른 중요한 성격으로는 즐거움과 쾌락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축제의 소재에서부터 축제의 진행과정과 축제의 마무리에 이르기까지 축제의 모든 국면은 즐거움을 동반한다. 현대도시축제에서 다양한 형태의 볼거리·놀거리·즐길거리가 요구되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스펙타클적 경관들이 연출되는 것도 이러한 축제의 성격과 관련되어 있다.

아울러 축제 현장에서는 상황이나 분위기에 따라, 의도되지 않았던 즉흥적인 연행들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축제의 재미를 더하여줄 뿐만 아니라 개인적 차원의 다양한 사고들을 위한 계기가 된다. 이는 창조적인 지적 생산 활동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부딪히게 되는 다양한 상황들에 대한 개인적 삶의 변이를 가능케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축제가 개최되는 동안 형성되는 다양한 행위방식들을 서로 관찰하고 사유하는 과정들은 창조적인 일탈인 것이다. 또한 축제의 다양한 연행들은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직접 경험할 수 없는 미래지

향적 가치들이 축제의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다양한 차원의 사회적 집단에게 재현된다. 따라서 축제에서는 현실세계에서 꿈꾸는 다양한 실험이 이루어지는 창조적 장이 된다. 현대도시사회에서의 새로운 테크놀로지들을 활용해 미래사회를 꿈꾸는 다양한 축제들이 이러한 축제의 창조성을 대변한다.

(4) 공간적 집단성

축제는 생활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축제공간을 창출하고, 능동적인 참여를 통해 서로 화합과 단결을 꾀하는 공동체적인 문화활동이다. 공동체성의 의미는 현대사회 구성원들의 속성에 맞게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획일성과 몰개성의 추구가 아니라 시민 개개인의 개성과 다양성이 살아나고,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해주면서 생성되는 사회적 효과를 유도하는 문화적 기재인 것이다. 이러한 이해를 통한 공동체성의 형성은 특정한 지역을 생활기반으로 하는 집단 간에 가능하다. 즉, 일정 지역을 기반으로 생활공동체를 꾸려온 지역주체들이 특정한 공간을 매개로 하므로, 해당 공동체 집단에게 의미가 있으며 공유되는 의미가 존속가능한 정통성을 지닌 특정 장소 및 현장이 축제공간이 된다.

따라서 축제의 공간들은 축제 연행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는 집단적인 함의를 도출하고 지향점을 제공하여 내적 범주화를 제공하며, 이러한 공간을 기반으로 진행되는 축제는 집단 외적 개인에게는 자신과 다른 타자를 경험하고 순환적으로 스스로의 정체성을 제고토록 하는 외적 범주화로 작용한다. 축제가 지니는 공동체적 의미는 특정 축제 장소와 분리되어서는 의미가 없으며, 동시에 고유성과 독특성을 지니는 공간이야말로 구성원 간의 집단적 상호 작용을 가능케 한다.

3) 축제의 기능

(1) 인간 내면적 차원

헤겔은 인간이 자기내면의 힘을 외부로 나타내는 것, 그리하여 아직 가능성으로

만 자기의 안에 있던 형상을 외계에 침투시켜 그 안에서 나타내는 것, 이른바 자기의 영상을 실현하는 것을 대상화(對象化)라고 표현한 바 있다. 예를 들자면,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그림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생각을 실제로 그리는 것을 말한다. 그에 의하면 자신의 내면세계는 어떻게든지 외화(外化)되어야 하며, 이를 중개하는 것이 노동이다. 사람들의 내적 세계는 노동을 통해서 그림·시·저작·노래 등을 통하여 밖으로 표출된다. 그러나 이런 결과물은 그 사람에 속하는 것이 아니며, 자체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사람들은 이런 독립체와 자아의 비교, 즉 자신의 내적인 상상의 세계와 자신의 실제적 능력의 한계비교를 통해 자아의 이해가 가능하다. 즉 새로운 자아를 발견하고, 자신에 대한 이해와 새로운 자신에 대한 추구가 나타난다. 축제는 이런 인간의 외화를 돕는다. 축제는 그 준비와 실행의 시간을 통해 자신의 감정과 의식을 외부에 표현하고 그를 통해서 카타르시스를 얻을 수 있다.

진정한 축제는 인간의 감정과 행동의 표출기회를 제공하여 ‘취한 영혼의 자유로운 풀어놓음과 어울림’이 이루어지는 마당이 되어야한다. 그것은 각 지역의 문화적 소산이며 그런 만큼 역사적 소산이다. 그것은 ‘이미 이루어져 내려온 것’ 속에서 찾아 확대하고 입체화 할 수 밖에 없고, 그것이 또한 가장 바른 태도이다. 이러한 축제의 기능은 우리 인간에게 많은 점을 일깨워 주는 것이다. 전통적이고 역사성 있는 축제는 과거와 현재를 인간들에게 이어주고 현재의 축제행위로부터 미래를 기약하게 하는 기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2) 일상공간적 차원

자연에 대한 적응과 극복의 노력이 문화를 발달시켰고, 인간은 생애동안 절대적 존재로부터 자신의 생명력을 지속적으로 보충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신성한 시간을 연출했다. 축제의 기능을 조화와 회복, 경제적 성취 및 공동체성의 회복으로도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조현호, 2004) 축제가 갖는 제의적 성격을 고려해보면 제의적 행위들로 인한 공간의 성화가 나타나며 이는 공간의 성화를 통하여 조화로운 질

서가 회복된다고 할 수 있다. 축제에서 경험하는 무질서와 비일상성은 인간의 본연의 위치를 발견하도록 한다. 축제 기간동안 일상의 일손을 멈추고 잠시나마 전통과 환상 속에 잠기는 것은 인간의 고귀함을 일깨워주게 되며 또한 역사의 연속성을 느끼게 하여 한 단계 높은 인간의 위치를 찾기 위해 축제 후 다시 노동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조화라는 질서가 회복된다는 것은 일상에서의 탈출로 보여지는 비일상적인 축제의 행위들이 궁극적으로는 일상과의 괴리에서 느껴지는 질서에 대한 발견을 가능케한다고 말할 수 있다. 즉, 축제는 허락된 또는 필수적인 난장트기요, 격식을 갖춘 금기의 파괴이다. 축제적 감정은 규례로서 금지되어 있던 것을 행할 수 있는 자유에 의해서 산출되며 그러기에 난장트기는 축제의 본질이다. 금기와 이에 대한 파괴로서의 축제의 구조는 브라질의 대표적인 축제인 카니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거리에서 이루어지게 된 이 축제에서는 금기와 위반의 구조를 공간의 구분에 의해 반영하고 있다. 거리가 혼란과 난장의 공간이라면 집은 안정과 질서의 공간인 것이다. 예측할 수 없는 사건과 행동이 있는 곳으로서의 '거리'와 모든 것이 제자리에 놓여 있는 통제된 우주로서 또는 조화와 따뜻함 그리고 조용함이 있는 곳으로서의 '집'이라는 상대적 개념이 설정되어 있는 곳이다. 따라서 거리에서 일어나는 축제는 집이라는 질서의 세계에서 탈출함으로써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혼란과 무질서에 대한 경험을 통하여 질서와 안정이 지니는 의미를 다시금 느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오늘날의 축제는 종교성을 상실한 채 유희적이고 놀이적인 모습만이 드러난다. 하지만 놀이는 제의와 상충적인 개념이 아니었다. 놀이는 그 원천적인 개념에 신성한 행위, 진지한 종교적 행위와 대립적인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흔히 산업화와 세속주의는 축제의 종교성을 박탈하고 세속화를 가속화시켰다고 한다. 이는 축제가 겪어야 하는 필연적인 운명일 수 있다. 그렇다고 하여 축제를, 제(祭)가 사라지고 축(祝)만이 남은 것이라 단언할 수 없다. 둘 중 어떤 면이 강조된다하더라도 축제는 분명히 축과 제가 포괄된 문화현상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현대 사회에서의 놀이문화에 대한 치유는 도시를 생태적 공간으로 만드는 것과 같은 방향에서 시작하여야 한다. 그리고 경제활동을 포함한 일상을 신명과 풍류의 원리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우리 사회와 우리의 몸은 풍류의 회복 또는 부활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굿’은 재해석화를 통하여 생태계와의 교감을 핵심으로 하는 놀이문화가 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축제를 일상화되고 난장의 개념이 도입되면 우리의 신명을 제대로 살려줄 수 있는 축제가 되는 것이다(김창호, 2000). 난장은 퍼포먼스를 통한 통각적인 소통이다. 난장은 일반적인 학습이나 대화를 통해서 얻어질 수 없는 드러냄과 인식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참여한 사람들의 깊은 관심을 얻어낼 수 있으며 몸의 경험을 통한 내면화가 가능하다. 이는 개인에게 ‘나를 위한 축제’가 되도록 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한다.

(3) 집단사회적 차원

축제가 지니는 또다른 기능은 공동체성의 회복이다. 축제는 집단사회적 충동을 전제하여 ‘자아’를 표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행위만이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의 동질성을 기본구조로 한다.(김태경, 1997) 공동체 의식의 강화기능은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는 집단을 형성하고 그 집단의 발전을 돕고 구성원에게 소속감과 일체감을 심어 줌으로써 그 집단의 융화와 통합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과거의 농업 기반의 협동사회와는 달리 분업에 의해 분적화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현대인은 복잡한 사회생활로 인하여 개인적인 문제를 갖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축제에 공동으로 참가함으로써 자신이 공동체의 중요한 일원임을 확인하고,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생명력을 나누는 존재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공동체 의식이 강화되면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개인적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것은 물론, 계급·신분·빈부 등 사회적 불일치에서 오는 모든 문제가 근원적으로 예방되거나 해소된다. 이 기능은 개인적 차원의 소외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발생하는 생산·소비·관계에서의 소외와 그에 대한 극복으로 나타날 수 있다.(강수

택, 1998)

지방자치 시대의 축제는 또한 공동체성의 확보와 문화자본의 매체로 작용한다. 지역축제는 지역공동체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여 공동체로서의 의식을 강화시키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줄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를 윤택하게 살찌우는 문화적 자원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역사적인 자산을 문화자본으로 바꾸는 노력과 결과가 지역축제로 드러나는 경우도 있다. 곧 축제는 지역 정체성의 확보와 문화자본으로의 전환을 이루어낼 수 있는 매개체인 것이다.

(4) 문화발전적 차원

문화의 보존과 창달에 있어서 축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축제는 여러 개인에 의한 다양한 가치추구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즉 사회구성원 각자가 자신을 위해 노력하는 새로운 가치창조는 결국 사회적으로 다양하고 균형잡힌 양적·질적 발전을 초래한다. 이런 축제는 한 사회에서 생활문화와 연결되고,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발전한다. 축제를 위한 통제는 처음에는 개인에 대한 외부적 규범이었지만, 점차 내면화되어 내면적 규범이 된다.(박미애 역, 1999) 따라서 축제에서 보여지는 개인의 행위양식은 한 사회의 부분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축제를 통한 개개인의 만남은 해당 사회의 특징적인 면이 된다.

또한 축제는 지역문화의 총체적 표현물이며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계승하는 공간체이기도 하다. 따라서 축제는 지역의 역사성을 반영하고 지역민의 삶과 관련된 지역민의 생활양식과 행동양식이 반영된다.(김창곤, 2000) 결국 축제문화는 인간의 감정과 행동을 표출하는 장이 되며 사회 비판성과 사회적·종교적 목적의 활동공간이 되기도 하고, 축제의 공간을 생활공간으로 했던 구성원과 방문객으로서의 축제 참여자가 만나는 과정을 통하여 축제에 대해 서로가 가지는 의식과 행위를 나눔으로써 문화간의 상호 교류가 발생한다. 이러한 과정을 축제가 지니는 문화발전적 차원에서의 문화교류의 통로적 역할이라 한다.

3. 축제의 유형

축제의 종류에 대해서는 그 분류방법이 학자들마다 서로 다르고 분류기준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양질의 예술 및 새로운 예술을 보여주기 위한 예술축제, 시민 등 참여자의 경연을 통해 시민축제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경연형 시민축제, 어린이 등의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펼쳐지는 타깃중심의 축제, 산업적 목적을 위해 개최되는 산업축제, 세시풍속이나 전통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전통형 축제 등 여러 가지 유형의 축제가 존재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축제들은 다음과 같이 분류되기도 한다. 첫째는 마을굿으로서의 축제가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는 강릉단오제, 하회별신굿탈놀이 등을 들 수 있다. 둘째는 지역정체성의 강화라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축제를 들 수 있는데 이는 지역전통을 중시하는 유형과, 지역의 자연적 특성을 강조하는 유형으로 세분화된다. 셋째는 관광과 여흥거리로서의 축제를 말하는 것으로 도자기축제나 문화예술제 등으로 불리는 축제들이 해당된다. 넷째는 도시적 성격의 축제로 명동거리축제, 신촌거리축제 등 유동인구가 많은 대도시에서 벌어지는 것으로 특정 세대나 계층 또는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가 많다.

문화체육부(1997)는 개최목적에 따라 크게 주민화합축제, 관광축제, 산업축제, 특수목적축제로 구분한 바가 있지만 유형구분의 기준이 모호한 부분이 많다. 한국관광연구원(김철원·이석호, 2002)의 연구 자료에 따르면 [표 2-1]과 같이 분류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가 가능하다. 아래의 구분은 축제의 복합적 성격을 반영하고 있지만 객관적인 기준으로 설명하기에는 불충분하다. 축제의 유형을 구분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현실적으로 객관적 구분은 아직 어려운 상황이다.

[표 2-1] 축제의 분류기준에 따른 유형화

| 분류기준 | 분류항목 |
|---------------|---|
| 개최 목적 | -주민화합축제, 관광축제, 산업축제, 특수목적축제 |
| 행사의 내용이나 구성형식 | -전통문화축제, 예술축제, 지역특산물축제, 지역특성화축제 |
| 역사적 시점 | -전통적 축제, 현대적 축제 |
| 자원 혹은 주제형태 | -농업특산물, 전통공업 특산물, 기후·지역적 특성, 인물, 음식 등 |
| 민족적 특성 | -단일민족축제, 다문화축제 |
| 지향성 | -내부지향성, 외부지향성 |
| 예산규모 | -국제규모 축제(10억 이상), 국내규모 축제(5억 이상), 시규모 축제(3억 이상), 지역규모 축제(1억 이상) |
| 프로그램 | -예술축제형, 전통재현형, 세시풍속형, 시민참가형(종합형) |
| 표현형식 | -전시형, 참가경연형 |

[표 2-2] 축제의 분류주제에 따른 유형화

| 분류 주제 | 명칭 | 내용 |
|----------|--------------------------------------|--|
| 소재 | 자연환경형 축제 | 지역의 자연물을 중요 소재로 선택하여 실시하는 축제 |
| | 조형물형 축제 | 지역에만 독특하게 있는 시설, 거리 등의 특정한 조형물을 소재로 하는 축제 |
| | 역사 및 인물형 축제 | 지역의 역사나 신화적 혹은 역사적 인물을 소재로 실시하는 축제 |
| | 음식형 축제 | 해당지역에만 있는 특성화된 음식을 주제로 하여 실시하는 축제 |
| | 문화행사형 축제 | 각종 문화예술을 중심으로 하여 실시하는 축제 |
| | 민속행사형 축제 | 지역의 전통제례나 민속행사를 소재로 하여 실시하는 축제 |
| 목표 | 내부지향형 축제 | 지역민들의 애郷심을 불러일으키거나 내 고장에 대한 역사의식을 고취시키며, 단결과 단합 및 공동체 의식 함양 등의 지역사회 내부를 목표로 하여 실시되는 축제 |
| | 외부지향형 축제 | 지역의 정체성을 기초로 하여 지역의 관광 및 산업발전 등 주로 지역 외적에서 그 효과를 거두려고 실시하는 축제 |
| | 쌍방형 축제 | 내부지향을 통하여 지역의 발전과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사회의 외적인 성장을 함께 추구하는 방식의 축제 |
| 운영 방식 | 국가중심형 축제 |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축제 |
| | 지방자치단체 중심형 축제 |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축제 |
| | 민간주도형 축제 | 추진위원회 등의 민간조직을 결성하여 민간조직이 중심이 되는 축제 |
| | 주민중심형 축제 | 주민스스로 만들고 운영하는 순수 주민형 축제 |
| | 대행사중심형 축제 | 전문대행사가 모든 행사를 기획 운영하는 축제 |
| 네트워크형 축제 | 주민, 자치단체, 대행사 등이 함께 팀워크를 이루어 운영하는 축제 | |

자료: 이강욱(1998). 「문화관광축제의 영향 및 운영효율화」. 한국관광연구원

축제는 또한 다양한 분류주제에 의해 유형화될 수 있다.([표 2-2] 참조) 실제적으로 하나의 축제는 여러 가지 유형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다. 단일한 예술장르 혹은 문화적 행사와는 달리 축제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공연예술, 전시, 영상, 문학, 음악 등을 복합적인 축제 프로그램으로 조직되어 복합적인 문화프로그램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이미 존재하고 있는 축제프로그램의 대상을 축제기획의도에 따라 ‘조직(organization)’하는 것에 있다. 어떠한 목적으로 조직했느냐에 따라 축제의 성격도 다양하게 구분된다. 축제 안에는 특정한 주제나 목적으로 조직된 주요 프로그램이 있으면서 그것을 보충하거나 풍부하게 해줄 다양한 부대행사들이 동시에 기획된다.

1) 목적적 분류

축제가 개최되는 목적이나 지향하는 바에 따른 목적성에 따라 축제를 분류해 볼 수 있다.

(1) 개최목적에 따른 분류

개최목적에 따라 축제는 주민화합축제, 관광축제, 산업축제, 특수목적축제 등으로 나눌 수 있다(문화체육부, 1996). **주민화합축제**는 주로 해당지역에서 전통적으로 개최되어 온 전통문화축제를 포함하여 최근에 많이 개최하고 있는 구민의 날이나 시·군민의 날과 같은 형태를 의미한다. 둘째, **관광축제**는 관광산업의 발전과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축제로서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문화관광축제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산업축제**는 관광산업의 발전을 제외한 다른 산업분야, 즉 농림축산업, 어업, 상업 등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축제를 의미한다. 넷째, **특수목적축제**는 환경보호 또는 역사적 인물이나 사실을 추모하거나 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개최하는 축제 등을 포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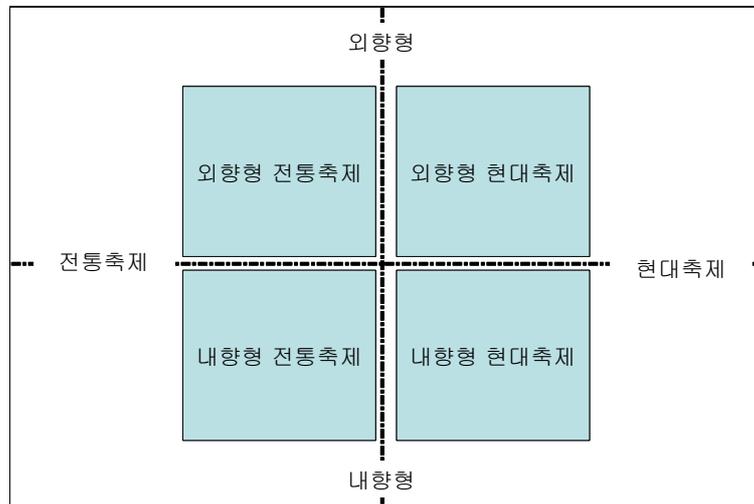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축제의 중심적 소재가 되며, 축제 운영을 통하여 중심을 두어 발전시키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따라 역사전통형 축제, 순수예술형 축제, 시민화합형 축제, 산업경제형 축제, 자연친화형 축제로 축제 유형을 구분하였다.

역사전통형 축제는 해당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축제의 주요 소재로 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관련 유적지나 특정 장소를 축제 공간으로 하여 개최되는 축제를 말한다. 따라서 역사적인 문화자원의 발굴 및 전통성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순수예술형 축제**는 문화예술과 관련된 인적, 물적 자원을 토대로 하여 축제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다양한 내용으로 축제를 구성할 수 있다. 특정 분야를 중심으로 하거나 복합적인 문화제의 형식으로 축제가 진행되기도 하며 자발적인 참여 수준의 축제에서부터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축제의 프로그램화하는 수준까지 상이한 축제가 가능하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문화향수의 기회를 증진시키고 나아가 삶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민화합형 축제**는 현대 도시에서 정치적 수단으로 주로 활용되는데, 해당 지역의 삶의 현장에서 일상생활을 통해 발생한 욕구들을 비일상적인 축제 프로그램들을 통하여 충족시키는 것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상생활세계의 의미 제고를 통한 역설적인 유대 관계 형성을 목적으로 한다. 다양한 행정단위의 축제가 가능하며, 단일 행정단위 내에서 일상을 영위하는 구성원들 간의 교류 뿐만 아니라 타 지역으로부터의 방문자 및 외국인들과의 교류가 가능한 공동체적 축제도 가능하다. **산업경제형 축제**는 관광특구 및 특수 상업지역 등의 산업경제적 자원을 축제의 구심점으로 하는 형태를 말한다. 대부분의 경우는 공공부문의 주도가 아닌 해당 지역의 상인단체의 주도로 진행된다. 따라서 축제를 통하여 사람들을 모으고 잠재적인 구매력을 증진시키어, 궁극적으로는 상권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또한 산업경제형 축제에서는 소비자만이 축제의 타깃이 되는 것이 아니라, 타 지역의 산업 활동 주체 및 관련 분야의 산업가들을 타깃으로 하는 박람회적 성격을 지니기도 한다. **자연친화형 축제**는 해당 지역에 존재하는 산림, 하천, 공원, 동·식물 등의 자연자원을 활용하여 축제로 구성하는 것으로서, 계절적 변화에 따른 시기별 축제가 가능하다. 일상 생활 공간과 근접한 자연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친환경적 삶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2) 지향성에 따른 분류

지향성에 따라서 축제를 분류한 김병철(1998)에 따르면 축제는 개최목적이나 목표대상에 따라 내부 지향형과 외부 지향형으로 구분된다. 내부 지향형은 축제 본연의 의미를 강조하고 사회적 효과를 목표로 하는 축제를 의미하고 외부 지향형은 관광상품으로서 축제의 경제적 가치를 지향하는 것을 의미한다. 첫째, 내부 지향형은 다시 축제의 소재나 프로그램 형식에 의해서 내향형 전통축제와 내향형 현대축제로 구분되며, 내향형 전통축제는 지역주민의 귀속감과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목적을 가지고 지역의 전통 문화적 배경을 토대로 개최되는 축제이다. 또한 내향형 현재 축제는 현대문화적 요소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되는 축제로 지역주민의 화합, 지역 문화 예술의 발전 등 사회·문화적인 목적을 가진 축제가 이 유형에 포함된다. 한편 외부 지향형 축제도 외향형 전통축제와 외향형 현대축제로 구분되어 지며, 외향형 전통축제는 전통 문화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형식의 축제로서 지역 경제에 대한 축제의 파급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축제를 의미하고 외향형 현대축제는 지역의 자연적 조건이나 사회경제적 환경을 중심으로 현대적 소재로 구성된 지역축제로 관광객 유치확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축제를 의미한다. (김철원·이석호, 2001)([그림 2-1] 참조)



[그림 2-1] 지향성에 따른 축제 분류

2) 내용적 분류

(1) 내용 및 구성 형식에 따른 분류

행사의 내용이나 구성형식에 따라서는 전통문화축제, 예술축제, 종합축제, 기타 축제로 구분하기도 한다. 첫째, **전통문화축제**는 지역의 전승설화나 풍습에 유래하여 개최되는 축제로 주요 프로그램의 구성형식이 전통 문화적인 요소를 강하게 포함한다. 둘째, **예술축제**는 현대적인 전시예술과 공연예술 위주로 구성된 축제 등 문화적인 소대와 예술적인 소재를 활용한 축제를 의미한다. 예술축제들은 공연예술축제, 시각예술축제, 영상예술축제로 다시 구분된다. 축제의 일반적 구성요소를 갖춘 축제 가운데서 특히 공연예술(performing arts) 장르인 연극, 무용 퍼포먼스, 뮤지컬, 인형극 등의 예술 장르가 복합적으로 구성되거나 단일한 공연예술 장르로 구성된 축제를 공연예술축제라고 한다. 시각예술축제는 미술, 퍼포먼스, 공예·미디어 등의 전시, 설치와 관련된 시각예술 장르를 축제의 주제와 주요 프로그램으로 삼고 있는 축제이다. 시각예술축제는 비엔날레와 같은 대규모 예산의 국제적 미술전시행사에

서부터 서울의 홍대 앞에서 거리축제로 행해지는 거리미술제와 같이 소규모의 미술 전시행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한편 비엔날레와 달리 중소규모의 미술행사나 축제성 행사들은 시각예술을 통해 사회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나 가치를 축제의 주제로 삼게 됨으로써 사회성이 강한 문화축제로 표현되기도 한다. 영화,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등의 영상예술장르를 축제의 주제와 주요 프로그램으로 조직한 문화예술행사를 영상예술축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영상예술축제는 장르적으로 구분되는 것과는 달리 미디어적으로 접근되기도 한다. 영화제는 다른 어느 축제보다도 대중적이며 문화산업의 실제적인 영역과 매우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세계적인 영화제 등은 영화의 기획, 제작, 배급 등의 산업적 기능도 담당하고 있으며 이와는 반대로 비주류적 주제로 만들어지는 영화제는 영화산업의 저변을 견고히 하는 역할을 한다. 영상예술축제는 다른 어느 축제보다도 매니아 관객층이 고정적으로 확보되어 있으며, 비교적 젊은 관객을 대상으로 축제화되고 있다.³⁾셋째, **종합축제**는 전통문화축제형식, 예술축제형식, 체육행사 및 오락 프로그램이 혼합되어 나타나는 축제를 의미한다. 넷째, **기타 축제**는 위에서 분류한 축제 이외에 체육행사를 비롯한 오락프로그램 위주의 축제를 뜻한다.

(2) 역사적 시점에 따른 분류

역사적 시점에 따라 분류하는 경우, 전통적 축제와 현대적 축제로 구분이 가능하다.(안경모, 1994; 김홍운, 1997) 전통축제와 현대축제는 의례대상의 유무와 축제를 대표하는 상징물의 존재여부에 의해 유형화할 수 있다. 전통축제는 전승축제와 복원축제로 세분화되며, 현대축제는 이벤트로서의 축제, 정치·사회적 도구로서의 축제, 경제적 도구로서의 축제, 문화적 매체로서의 축제로 세분화된다.

3) www.culture-arts.go.kr

첫째, **전통적 축제**는 주로 지역에 근거한 전통적인 축제로서 개화기 이후 흔히 향토축제로서 정의되어졌던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지역 주민의 일상적인 생활문화가 중심이 되어 이어져 오는 전통있고 개성있는 제의적 놀이마당의 성격이 강하다. 전통축제 중 **전승축제**는 과거에 존재하였다가 없어졌거나 과거로부터 계속적으로 이어져오고 있는 모든 축제가 포함되는데, 특히 공동체의 결속을 목적으로 하는 마을굿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전승축제는 공동적으로 특정한 의례의 대상 및 신격화된 존재가 있으며 축제를 대표하는 신앙적 상징물이 항상 등장한다. **복원축제**는 과거의 특정의례 대상을 정신적 중심으로 하고 신앙적 상징물을 수반하는 등의 전통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축제를 말한다. 정신의 중심이 되는 특정인물이나 자연물 혹은 기타의 물리적이거나 추상적인 대상은 공동체사회를 하나로 묶어주는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이것이 복원된 축제의 핵심이라고 하겠다.

둘째, **현대적 축제**는 지역의 전통문화가 아닌 인형극, 연극, 영화 등 현대적 감각의 컨셉을 내용으로 하는 ‘현대축제’를 의미한다. 현대축제는 새롭게 만들어진 형태의 축제로, 제의와 놀이적 특성이 뚜렷하게 나타나기는 하지만 이들이 전체축제의 커다란 절차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별행사의 수준에서 절차적 과정과는 상관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통축제의 행위나 내용은 과거의 전승축제에서 보여주던 특정목적의 성취를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통축제의 양상은 아니라고 하겠다. 대부분의 경우 현대축제에서는 의례 대상과 신앙적 상징물이 변형되어있거나 소실되어있기도 하다.(김태경, 1997) 현대축제 중 **이벤트로서의 축제**는 의도적인 축제공간의 조성이 이루어지는 것과 관련이 있다. 외부공간이 관심의 대상이 되면서 환경설계자들은 주제를 갖는 공간, 사람이 모이는 공간에 대해 눈길을 돌리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이벤트적 상황의 연출을 목적으로 하는 공간을 만들게 되었고, 이러한 공간 속에는 또 하나의 축제를 담게 되었다. **정치·사회적 도구로서의 축제**는 사회적 현실에 대한 긍정적인 의식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불만사항들이 동시에 표출될 수 있는 기회가 되므로,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축제가 정치·사회적인 측면에서 지배층에게는 필수적인 도구로, 피지배층에게는 필연

적인 상황으로 연출된다. 이렇게 뚜렷한 목적의식에 의해 벌어지는 양상들은 축제 행위 혹은 그의 재현이라는 측면보다는 축제구조의 특징을 이용하여 문제화된 사건을 덮거나 축소시키려는 의도로, 그리고 대상에 대한 집중을 유도할 경우에 사용되는 것이다. **경제적 도구로서 축제**를 바라보는 것은 현대사회,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군중 동원을 통한 경제적 성취를 목적으로 축제가 개최된다는 의미이다. 상설 축제장과 같은 주제공원의 건설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성만을 우선순위에 둔 축제에서는 지불가치가 있는 프로그램을 끌어가는 엔터테이너들이 부각되어 참여자들은 단순한 관람객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마지막 **문화적 매체로서의 축제**는 비교적 종교성이 약한 문화적 행위로서 전문화된 집단에 의해 연희되어 대부분이 지역축제의 부속요소가 되거나 모티브로 축소되어 있다. 이러한 축제의 세분화는 축제의 행위에서 제의적 요소가 사라지고 특정한 목적 성취를 위한 수단으로 혹은 상품으로 변질되었음을 전제로 한다.

(3) 축제 자원 및 주제 형태에 따른 분류

또한 축제는 자원 혹은 주제형태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다.(정강환, 1996) 축제의 주제는 일반적으로 농업 특산물, 전통 및 공업 특산물, 지역의 기후 및 지형적 특성, 꽃(식물), 음식·음료, 역사적 사건·인물, 문화(연극 및 음악 등)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러한 주제 혹은 자원의 유형에 따라 축제를 분류할 수 있다.

제2절 현대도시축제론

1995년 지방자치제의 실시 이후 각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 확립 및 경제적 활성화와 연계되어 개발된 지역특성화축제 및 관광축제가 급증하였다. 세계와의 물결 속에 지역의 생존전략과 결합된 각 지역에서의 ‘문화도시화 전략’은 문화를 매개한 도시(장소)마케팅을 추진하게 됨으로써 지역의 브랜드 이미지화와 연계된 대규모 예산의 메가 이벤트형 복합문화행사, 국제화를 표방하는 크고 작은 지역축제들을 양산시켰다. 또한 도시민의 삶에 질에 대한 의식 변화와 더불어, 여가 생활에 대한 수요가 양적·질적으로 변화한 것 역시 축제가 증가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이후, 한국의 축제 역사의 혁명적 전환이자 축제다움 실현의 가능성 발현으로 인식되는 것이 2002년 월드컵이다. 월드컵의 열기 속에서 붉은 악마 응원단을 중심으로 만들어낸 자발적 광장문화는 시청 앞과 대학 주변의 도로들을 축제의 광장으로 만들었다. 행사를 만들어 놓고 인원을 동원하는데 급급한 일부 축제와 달리, 2002년 월드컵에서는 시민들 스스로가 시청 앞을 비롯한 거리 곳곳을 메우고 그들이 차지한 공간과 시간을 문화적 향연의 코드로 바꾸어내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86 아시안게임’이나 ‘88올림픽’ 등의 대규모 국제 이벤트가 한국에서 축제나 문화이벤트의 양적 확장을 가속화한 계기였다면, ‘2002 월드컵’은 대규모 국제행사의 외연에 대한 사회적 효과를 뛰어넘어 행사 속에서 시민들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축제성에 대한 반향을 보여준 문화적 사건이었다⁴⁾.

이러한 역사적 과정을 거쳐 현대의 도시 축제들은 현대인의 일상에서 주요한 문화적 경험으로서 자리잡게 되었다. 현재의 축제는 도시 공간을 삶의 주체로서 점하고 스스로 기념할 만한 문화적·역사적 사건을 축하함으로써 현대 도시 문화를 나타내는 중요한 특성이 되었다.

4) www.culture-arts.go.kr

1. 현대도시축제의 의의

1) 현대사회에서의 축제 의의

현대에 올수록 축제의 개념은 확장되어 특정한 공간과 시간에 벌어지는 일상적인 삶의 형태도 축제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축제를 통한 공동체적인 합일 외에도 예술적이고 문화적인 요소들이 전면에 부각되어 새로운 의미의 문화이벤트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과거의 전통적인 제의적 형식만을 고집하기 보다는 현대생활을 영위해가는 우리들에게 생동감을 갖도록 하는 축제의 현대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서로 다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일과 놀이처럼 적극적 행위방식의 특수한 기본형식을 드러내는 축제는 리듬감, 삶의 고양, 표현능력 등을 통해 생활의 불안을 잊게 하고 충만감과 긴장 그리고 집약으로써 세계를 긍정케 할 뿐 아니라 인간의 뿌리에 대한 향수를 채워준다.(이상일, 1998) 이를 통하여 축제는 사회교양과 공동체 의식의 심화 및 강화에 기여하고 크고 작은 집단화에 이바지 한다.

우리나라 축제의 경우, 한 마을이나 부족국가가 바치는 집단적 제의와 축제는 국가체제로 수렴되어 제천행사, 팔관회, 연등행사, 종묘제례 등으로 전개되고 현대에 이르러 각종 기념 행사, 국제 대회, 개막제전, 아시안게임 및 올림픽 같은 문화행사의 개·폐막식 등으로 공식화되었다. 한편으로 민간의 마을굿이나 두레굿 등은 지방 단위의 향토축제, 주민체육대회, 문화예술제 등으로 전개되었다.

근대 이후 세계는 과학화, 산업화, 도시화로의 가속적인 변화를 거쳐 왔고 생활의 기반은 농경에서 도시산업으로 변화됨에 따라 문화자체도 하나의 산업이 되면서 농촌축제가 아닌 도시축제로, 생활공동체에 기반한 자연발생적인 축제가 아닌 의도를 가진 계획적인 이벤트로서의 축제가 기획된다. 현대의 축제는 분명 전통적 축제가 가진 종교적 제의성이나 자생적 공동체성을 상실하였고 현대 산업 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적 환경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기능과 구조를 가지고 분화되어 왔다.

축제는 이미 현대 산업사회의 문화적 행위로서의 새로운 기능과 구조로 정립되고 있으며 축제가 지닌 본래적인 기능은 현대적인 패러다임으로 새롭게 구성되어 가고 있다. 오늘날 시행되는 축제는 특정한 축제조직에 의해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연중의 일정한 시점에 짧게는 하루 길게는 일주일여 동안 특정한 의례 혹은 의식행위와 여러 가지 오락, 놀이, 문화·예술, 체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는 행사로 요약할 수 있다.(이승균, 2004)

축제에 대한 논의 중 제의성에 대한 논의 역시 현대적인 재해석이 요구된다. 제의로서의 특징까지 아우른 축제는 재생산을 목표로 하는 투자요, 삶의 풍요를 위한 문화적 기제가 되지만 재검토가 필요하다. 현대의 도시화한 지역의 축제에 대해서, 즉 도시화 및 산업화를 고려한 축제 제의성에 대한 논의가 새롭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축제의 현대적 제의성은 현대인들의 일상적 삶을 연결한 정체성 구현에 있다. 도시축제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의의가 지역정체성의 형성에 있다면, 지역 공동체와 관련된 '문화 복지'적인 축제는 현실적 삶과 관련된 중요한 의의를 지니게 된다. 질 높은 정신적 삶은 개인적으로는 행복감을 가져다주며, 나아가서는 사회 동질성을 확립시킨다. 결국, 동일한 의미를 지닌 사회 속에 통합되어 있다는 확신감과 소속감은 구성원 각자의 아이덴티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이는 사회나 국가에 대한 소속감을 확립시켜 구성원 각자에게 공동체에 대한 자긍심 내지는 자부심을 준다. 구성원의 자부심이 강할수록 그 사회가 건강하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확대된 소속감을 통한 사회 내지 국가 단위의 지역정체성 형성이 가능할 것이다.

현대 사회가 우리라는 통합적 개념보다는 나라는 해체적 개념이 강하고 나아가서는 너와 나라는 동위적 개념이기보다는 나는 나일뿐 그 외는 그것에 불과한 사회적 맥락에서 우리를 회복하고 사회 구성원의 동질성과 아이덴티티를 확보하려면 문화적 기제로서 지역 공동체를 바탕으로 한 축제의 활용이 최적일 수 있다.(문화체육부, 1997) 현대도시사회에서 도시문화의 향유와 관련된 사회적 불평등은 집단적 행위와 공간 점유가 가능한 축제를 통하여 해소될 수 있다. 이러한 공동체성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축제를 존재하게 하는 연속적인 시간적·공간적 축제 거리가 필요

하다. 즉, 도시문화환경을 조성하여 현대축제가 지향해야할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

2) 지역 발전 전략으로서의 도시 축제

현대 도시의 축제는 현대의 도시 이미지 향상을 통하여 경제적인 목적과 지역주민의 자긍심 및 애향심의 고취를 통한 지역정체성 형성 및 상징적 화합의 장을 제공하여 지역 발전을 도모한다. 하비(David Harvey, 1989)는 1970년대 이후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일련의 경제·사회적 현상들 속에서 도시스펙터클은 실업과 빈곤이 증대되고 계급양극화의 객관적 상황이 진전되는 것에서 부르조아의 통제 하에 이루어지는 공동체 화합의 상징이자 도구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인간은 공간 영유의 능동적 참여자임과 동시에 수동적인 구경꾼이 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지역이미지의 상품화를 통한 경쟁적 공간관리 방식으로서 혹은 도시를 활성화시키고 사회를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스펙터클이 논의되고 있다.

각각의 축제는 상징적인 문화적 요소를 통하여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상상적 경계를 형성한다. 축제의 상상적 경계는 실제적인 현실 공간보다 확대될 수도 있으며 축소되어 작용할 수도 있다. 즉, 각각의 축제가 주민들에게 축제를 주관하는 행정단위를 느끼고 이를 통해 자신을 확인하는 정체성 강화의 역할을 수행하지만 그 강도나 범위는 다양하다.

현대적인 행정단위는 매우 인위적인 것이지만, 축제는 행정단위가 과거부터 있었던 것처럼 만들어준다. 축제를 통해 행정단위를 배경으로 한 정체성 인식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이러한 점에서 축제와 같은 문화적 상징들은 최근에 현재의 모습을 띤 지역들을 원래부터 있었던 것처럼 인식시키며 주기적으로 자신이 그 행정단위 안에 있음을 확인하도록 하여 지역민이 행정단위와 연관된 지역정체성을 강화시킨다. 축제는 경계 내의 사람들 사이에서 외부와의 경계를 강조하여 경계 내에서는 상하구분이 사라지는 커뮤니티적 공동체(Turner, Victor, 1969, *The Ritual Process*, Chicago: Aldine)를 형성한다. 또한 이들 축제는 지역사람들이 자신의 지역

이 지녀야 하는 성격과 그에 따라 지역에 속한 구성원들의 역할을 규정해주는 기회가 된다. 따라서 축제는 즐거움과 지역상징이라는 문화적 기제를 통해 상징적 통합의 기능, 정체성 기능, 헤게모니 기능이 주민에게서도 관찰되도록 하는 효과를 나타낸다.(이정덕, 2003)

또한 도시 공간의 소비공간화는 축제의 성격과 의미를 변화시킨다. 생산과정의 유연화는 일상적 삶의 현상이 자본주의적 순환고리에 포섭됨으로써 ‘여가’와 ‘축제’ 또한 자본의 소비전략으로 전략하여 상품화시켰다.(Lefbvre, 1990, 1991) 노동과 생활, 즉 일상으로부터 분리된 놀이는 노동과 생활에서 유발된 억압을 소비적으로 풀게 함으로써 놀이와 축제가 자기생활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것을 방해하고 놀이를 통해 소외를 극복하는 것이 아닌, 놀이의 주체가 객체화되고 개별화되도록 끊임없이 소비적 놀이를 종용한다. 그러나 도시축제는 단순히 자본의 논리가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문화적인 장으로만 존재하지는 않는다. 축제가 형성되는 사회경제적 배경에는 자본의 이해와 이데올로기가 반영되어있지만 그것을 수용하는 주체의 상이한 경험과 해석 및 실천에 따라 그 의미는 새롭게 재현된다. 도시축제는 한 사회의 서로 다른 주체들 간의 갈등이 표출되고 충돌하는 차이의 정치가 이루어지는 장(場)이다. 잭슨(Jackson, 1988)은 현대 카니발의 상징적 형태에 관한 연구에서 카니발의 정치적 그리고 이데올로기적 갈등을 표현하는 저항적 사건으로서 상징적 공간을 구성하는 역할을 언급했다. 이러한 현대 축제의 의의는 프린지 페스티벌에서도 나타난다. 프린지 페스티벌은 문화적 실천이자 사회적 정체성 그리고 도시공간의 변화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급진적인 문화의 장이라는 의견을 통해 축제에 참가하는 관객 및 예술가, 주최자들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히 전개되고 상호교섭이 이루어짐으로써 축제공간을 하나의 비공식적인 담론장(informal discursive arena)으로 형성한다(Willems-Braun, 1994)

이와 같은 축제라는 상호 집단 활동을 통하여 갈등이 해소되고 발생된 욕구가 충족되는 것은 일상적 삶의 현상에 대한 주체적 제고가 가능토록 한다. 이는 궁극

적으로 현대 도시 사회에서 집단 간의 연대를 통한 유기체적 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또한 축제는 문화이벤트 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문화향수제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문화적 자원이므로 현대 도시 발전에 기여한다. 특별한 생산시설과 고정자본이 없이도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으며, 관광을 유발시키는 효과를 냄으로써 대체적으로 자연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산업 연관 효과를 가져다주기도 한다. 그러나 지역의 축제는 앞에서 언급된 가시적인 효과 외에도 해당지역의 이미지 제고라는 비가시적이고 복합적인 효과가 발생한다. 이와 같이 지역축제가 문화적 차원을 넘어 지역발전의 중요한 자원으로 부각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배경이 있다.

첫째, 문화수요와 문화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여가생활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문화적 삶을 추구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문화소비자(cultural consumer)들은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하기를 바랄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환경에서 살고 싶어 한다. 최근 들어 문화예술 관련 축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문화이벤트 관광객이 확대되고 있는 것도 기본적으로는 문화를 찾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한층 더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의 개성을 창출하고 지역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살린 지역축제를 개최함으로써 지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선명하게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역축제는 지방자치의 바탕이 되는 지역의 정체성과 지역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데도 유용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셋째, 세계화와 정보화가 진전되면서 국가간의 문화교류는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문화시장 개방에 대한 압력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여건에서 우리 문화를 세계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문화의 독특한 맛이 살아있는 지역문화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세계적인 규모의 축제들은 지역문화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간의 문화교류를 활성화시키는데 있어서 중요한 촉매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화 시대에 요구되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적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의 하나로 축제가 매우 적절한 문화행사로 인식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왔다. 따라서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문화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차별적 상징으로 만들려는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으로 각 지역에서 문화적 동질성을 찾기 위해 다양한 축제들이 개최된다.(이정덕, 2003)

우리나라의 지역축제는 1992년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 특히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의 주민에 의한 직접 선거 이후 우리나라 지역 문화 활성화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정책 대상이 되었다. 현상적으로 지방자치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되면서 지방화가 세계화 못지 않은 사회적 추세로 자리잡은 점도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저마다 자기 고장만의 독자적인 발전과 특성화된 정책을 고민하게 되면서 지역 축제를 고안, 육성, 지원하는 것을 주요 정책 가운데 하나로 선택하게 되었을 것이다. 지방자치시대의 향토축제는 대단히 소중한 지역의 문화자산이며, 지역주민의 유대를 굳건히 할 수 있는 동기가 된다.(송태섭, 2001) 현대의 축제는 단순히 행사 자체에만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축제를 통해서 지역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지역관광과 연계하며 나아가 지역생산품의 홍보 및 판매를 겨냥하는 등 지역발전을 모색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보다 광범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현대 도시인들이 여가 생활에 대한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게 되고 주말을 이용해서 가족단위로 타 지역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이 보편화된 현상도 지역 축제의 양적 증가와 무관하지 않다.(이현식, 2003) 도시의 개인 생활자들은 주말에 여가를 가치 있게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요구하게 되면서 축제는 그 대안으로 자연스럽게 대두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2. 현대도시축제의 속성들

1) 현대도시축제의 성격

현대 사회의 축제가 지니는 특성은 상징성과 유사종교성, 문화정체성 그리고 여가 향유의 세 가지로 규정할 수 있다.

(1) 상징성과 유사종교성

현대사회에서 문명의 혜택을 누리며 이윤극대화과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현대인은 세속화와 탈종교화, 도시화의 속성을 지닌다. 따라서 낭비적이고 파괴적이며 소비적인 축제가 지니는 종교적 신성성은 실제적 공감대와 중요성이 거의 상실되어 이제는 축제의 정당성을 보장해주는 하나의 명목으로만 남아있다. 축제 속에서 상징적으로 표현되는 성스런 영역은 일상적 삶의 세속적인 부분의 존재가치를 더욱 더 부각시켜 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현대 사회에서 연회되는 많은 축제들에서는 상징적인 성스러움과 상징적인 세속성이 의도적으로 구분되어 표현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고대 사회에서 연회되던 축제의 잔재와 같은 형태를 띠는 축제들로, 일상생활의 단절이라는 의미를 가지며 최소한 외적인 측면에서는 원형적인 형태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나타나는 축제들이 이와 같은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베니스 카니발이나 리오 카니발, 러시아의 겨울축제인 마슬렌니짜 등이 이에 해당된다.

(2) 문화정체성

축제는 또한 엄청난 정보의 홍수 속에서 개인이나 집단의 정체성 획득을 위한 유토피아적 상황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유토피아를 추구하는 과정에는 다양한 종류의 희열감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 자신의 정체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모든 인간의 고차원적 욕구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

본적인 토대 중의 하나가 바로 문화정체성의 확인이라고 볼 수 있다. 자신의 현재의 삶과 연결되어 있는 과거 삶의 인식, 즉 전통성을 확인하는 것을 통하여 삶의 정당성을 재확인하고 문화적 정체성을 더욱 견고히 할 수 있다. 거대도시보다는 소규모 마을 수준의 도시들에서 이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는데, 전통축제라는 이름 하에 계속 새로운 축제가 만들어지고 있다. 수레축제, 소놀이축제, 말축제, 전통의상축제, 전통음식축제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축제가 지역성이나 문화적 정체성의 표현기제가 되는 문화단위는 점차 국가적 단위에서 소지역적으로 축소되어 가고 있다. 축제를 연회하는 집단 주체들이 소규모로 나뉘어지게 되어서 국가 단위보다는 소규모 지역 단위로 연회되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다. 지역축제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등장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정치·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에 들어가 있거나 반대로 지극히 불안한 상황에서 한 집단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공동 구성원을 결집시키는 가장 효율적인 기제로서 문화적인 요소가 전면으로 부각되었고, 축제가 바로 이 기능을 가장 효율적이고 즉각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시작하였다.

(3) 여기향유

축제는 끊임없이 새로운 볼거리를 추구하는 현대인들의 욕구에 의해 지속적으로 공급이 유지되는 속성을 지닌다. PC통신, 인터넷, 가상현실에의 몰입 등을 통해서 현대인들의 개인화 또는 원자화 경향은 가속화되며 타자의 삶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러한 타자에 대한 호기심을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충족시키고자 하는 실천적 행위가 축제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축제의 대부분이 일종의 스펙터클이 되면서 수많은 전통적 요소들이 재창조되거나 재고안 되었다. 스펙터클의 양상을 띄고 있는 축제들은 본래적인 문화적 맥락에서 벗어나 관객을 대상으로 무대 위에 올려지게 되면서 본래의 축제적인 성격은 약화되었다. 축제적 연회자와 관람자, 즉 관객이 분리되는데 여기서 연회자는 연기자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많은 축제들이 참여하는 축제에서 관람하는 축제로 변질되고 있다. 각 지방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적 특색을 강조한 축제들이 다양하게 개최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지역정체성을 강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일반인들의 여가시간의 증가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2) 현대도시축제의 효과 및 기능

(1) 현대도시축제의 효과

최근 몇 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축제개최에 대한 열기가 한층 고조되어왔다. 이는 축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과거의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조직적·경제적·관광마케팅적 측면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정강환, 1996). 즉, 최근에 각 지방정부에서 축제를 개최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투입된 비용보다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경제적 효과에 대한 기대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Getz, 1996).

각 지역의 축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단면적으로 다뤄질 수 있는 문화현상이 아니다. 따라서 경제적 효과에만 초점을 맞추고 축제를 진행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며 나아가 축제는 경제적 효과 이외에 사회·문화적 효과, 정치적 효과, 교육적 효과 등 다양한 부문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Chacko & Schaffer, 1993). 아울러 지역축제의 다양한 파급효과들은 직접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다른 분야에 간접적인 효과를 미치기도 하고, 축제가 벌어지는 동안의 단기적 효과뿐만 아니라 축제 이외의 기간 동안 이어지는 장기적 효과도 존재한다.

축제의 효과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교육적인 긍정적 효과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효과도 있다. 따라서 [표 2-3]과 같이 축제의 다양한 효과를 이해하는 것은 지역축제를 기획하고 육성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표 2-3] 현대도시축제의 효과

| 분류 | 내용 |
|--------|--|
| 긍정적 효과 | 정치적 효과 ·국제사회에서 지위 및 이미지 향상 ·정치적·행정적 발전 ·민간외교의 진흥 |
| | 경제적 효과 ·관광객지출효과 (문화이벤트 지출, 숙박, 교통, 쇼핑, 인근 지역 관광에 대한 지출) ·지역주민에 대한 소득효과 ·고용효과 ·연관산업 파급효과 |
| | 사회적 효과 ·지역주민에게 자긍심 고취 ·지역의 지명도 제고 및 정체성을 형성 ·지역 공동체 의식 형성 ·지역과 지역 간의 교류 촉진의 매제 역할 |
| | 문화적 효과 ·지역의 문화예술 창작수준의 향상 ·지역주민의 문화생활 증진 ·지역의 문화 자원을 보호하고 강화 ·지역주민의 문화활동 참여 기회 제공 |
| | 교육적 효과 ·자체의 특성만으로 관람객의 문화 예술 감상 및 자연에 대한 지식 수준 증가의 기회 제공 ·미래의 잠재적인 문화관람객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교육적 효과가 있음 |
| 부정적 효과 | ·정치적 목적 이용 ·지역주민의 물질만능주의 확산 ·소비지향적 태도 형성 ·관광적 가치 강조로 문화유산 고유의 자원성 퇴색 ·문화의 상품화, 무대화된 고유성 형성 ·과다한 관광객 쇄도로 인한 유적지 파괴 ·문화변용(문화의 변질) ·범죄율 증가 ·교통혼잡 ·쓰레기 등 환경오염 |

(2) 현대도시축제의 기능

① 지역문화와 지방문화의 범주화

지역은 자연적으로 주어진 공간의 일정 부분에 대한 인위적인 범주화를 통하여

규정되어지고 구체화된다. 이는 정치·경제적, 사회·문화적 영역을 제공하는 틀로써 의의를 가진다. 지역을 행정구역명으로 나눌 수 있다 하더라도 지역의 문화 역시 동일한 범주로 나누어지는 것은 아니다. 지역 혹은 지방의 문화는 일정한 공간적 범위를 점유하고 생활하는 구성원의 생활양식 전반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어느 한 방면의 땅에서 사는 사람들에 의해 획득된 지식, 신앙, 예술, 법률, 관습 등 모든 능력과 관습들을 포괄하는 복합총체로서 일정 지역의 주민이 장구한 세월 속에 서로 결합하여 생활하는 과정에서 이루어 놓은 특징적인 생활양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 고유의 문화적 유산인 축제가 정통성을 지니며 유지될 때 해당 지역의 사회적·문화적 범위는 더욱 명확해 진다. 이는 다른 지역과의 차별성을 통한 지역 내부로의 결속을 강화하여 지역의 핵심적인 문화자원이 된다.

② 지역적 문화전통의 유지

지역축제는 지역적 문화전통의 회복과 보존, 전승, 새로운 문화의 창조를 통한 문화적 다양성의 유지와 지역별 균형 있는 문화발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 지역축제 육성을 위한 행정의 역할을 문화정책의 기능과 연관시켜 보면 목표달성을 위하여 재정수단, 행정수단, 조직수단 등을 통한 축제 전문 인력의 양성, 새로운 예술의 창작, 문화예술의 보급관련 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렇게 시민 문화향수권의 신장을 통해 급증하는 문화적 욕구를 문화행정으로 충족시켜 준다면 향토애와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하고 공고한 공동체의식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③ 지역축제를 통한 지역 정체성 형성

지역축제 육성의 기대효과는 지방문화가 국가발전 과정에 어떻게 기능하는가에 따라 그것을 유지할 때 기대되는 효과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문화는 주민의 결속을 강화시키고 동일성을 기함으로써 정신적 단합을 유도하고 나아가 향토애로 승화되어 자발적인 지역개발의욕을 고취시키는 힘으로 기능하게 된다. 또한 문화가 학습되고 항상 변한다는 속성은 지역별로 전통문화를 전승하고 시대에 맞게 개발하며,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여 지속적인 발전력을 키우게 된다

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이승균, 2004) 지역의 축제는 해당 지역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개인들에게 문화적 동질성을 유발하고 이를 통하여 개인을 일정한 공동체에 소속하도록 규정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지역정체성 형성의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축제는 문화적 기제를 통하여 자신의 지역을 차별화된 상징공간으로 만들고 그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차별화된 지역집단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특정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은 특정한 지리적 공간을 인간들의 교류를 통해 특정 의미로 상징화된 장소로 만드는 과정이기도 한다.(Tuan, 1996) 상징화된 장소는 축제가 실제적으로 벌어지는 현실적 경계와 상상을 통한 동질성을 유발하는 상상적 경계로 구성된다. 따라서 축제가 벌어지는 ‘공간’은 일정한 공동체와 관련된 특정한 성격을 지닌 ‘장소’로서, 해당 공동체에 속한 개인에게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1980년대 이후 지방자치기 시작된 이후 지방자치 단위에 알맞은 의식을 만들어 내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 이는 각 지역이 행정단위화 됨에 따라 과거 개인이 ‘고장’ 및 ‘마을’에서 찾을 수 있었던 공간적 개념의 독자적 존재의의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각 행정구역이 독립된 정치단위로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동질성 형성을 통한 내부적 결속 강화와 차별화된 지역 이미지 형성을 통한 외부적 차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독특성을 지닌 정치적 수단을 통하여 유리한 집단정체성을 포섭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포섭과정에는 축제, 의례주도자로서의 역할, 행사에의 출석, 행사에서의 발언, 세미나, 신문, 방송, 플래카드, 기념물, 안내탑, 그리고 각종 상징들이 총체적으로 작동하게 된다. 따라서 지역축제도 지역 주도세력이 의도된 집단정체성을 구축, 강화하려는 문화작전이 행해지는 장소로 볼 수 있다.

축제는 행정적 단위를 상징적으로 문화적으로 재현해내는 공간이다. ‘외부인’과 ‘내부인, 우리’를 상상적으로 구분해내는 경계를 형성한다. 축제에 참여하는 행태와 관심의 정도에 따라 객체로서의 ‘구경꾼’과 주체로서의 ‘참여자’로 나뉘어 상징적 경계가 된다. 따라서 행정적 단위로 이루어지는 축제는 행정적 단위를 같은 지역으로 경험하고 느끼게 하여 행정적 단위에 따른 지역정체감을 주민들에게 각인시키는 효

과를 가지고 있다. 특히 주기성을 가지고 반복됨으로써 서서히 집단 의식이 정착되어 간다. 집단 정체성은 다른 사람과 어떠한 관계인지를 규정해주어 일정한 사람과 사람을 응집시키는 접착제 역할을 한다. 즉, 응집성을 가진 집단화한다. 이러한 응집성은 주민들이 경제 활성화나 사회 활성화에 동참하게 하는데 그리고 축제와 같은 것들을 지역 활성화의 하나로 받아들이도록 하는데 도움을 준다. 개별적인 인간을 초월한, 지역에 대한 애郷심을 자극하여 지역에 대한 의식적, 무의식적 동일시가 강화된다. 이를 내부자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내적 결속’이라 할 수 있으며, 또 다른 차원으로 외부인들이 이중적으로 자신과 타자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 축제는 방문하는 것을 ‘외적 차별화’라 할 수 있다. 외적 차별화는 외부방문객들이 축제에서 타자인 축제주체집단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을 통하여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내적 결속’과 ‘외적 차별화’는 축제를 통하여 얻어지는 정체성의 형성 과정이라 할 수 있다.

④ 지역주민의 문화향수 제고

지역축제는 지역의 문화예술 창작 수준을 높임으로써 문화예술을 진흥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지역축제는 다양한 문화예술 장르를 포함하는 종합적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인들이 상호협력하고 교류하는 무대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문화예술인들의 참여는 그 지역의 문화예술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문화예술 경연 형태의 축제는 새로운 문화예술인을 양성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다.

문화예술의 주제로 하는 지역축제들은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문화생활을 증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지역주민들이 문화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문화예술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에 대한 경험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지역주민들은 자기 지역에서 열리는 문화예술 축제에 참여함으로써 지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된다. 그리고 지역축제가 지역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관광객을 끌

여 들어 지역의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지역문화에 대한 애정을 갖게 될 것이다. 지역주민들은 이러한 지역축제에 참여한 경험을 계기로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가능성도 그 이전에 비하여 훨씬 커진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지역의 문화축제가 지역주민들에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을 문화고객으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현대 문화사회에서는 이러한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⑤ 지역이미지 창출

흔히 현대는 ‘지방화 시대’이며, 현대 사회의 주요한 특징으로 ‘지역공동체 사회’라는 점을 꼽는다. 지방화 시대에 각 지역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이미지를 전략적으로 개발하고 ‘지역의 색깔’을 살려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지역문화, 특히 지역축제는 지역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 지역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와 매력을 창출할 필요가 있다. 현대의 지역축제는 지역의 특정 이미지를 더욱 선명하게 부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역의 이미지를 창출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지역주민들은 지역의 문화에 바탕을 둔 지역 이미지를 통하여 지역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을 한층 더 가지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 이미지는 그 지역의 상징으로 개발될 수 있으며 지역 및 지역상품에 대한 광고 효과를 타나낼 수 있을 것이다. 관광선진국에서 지역의 축제를 지역의 홍보에 활용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일 것이다. 축제는 매우 화려하고 생동감이 넘치기 때문에 특히 시각광고 매체에 적합한 측면이 있다(정강환, 1995)

한편 축제를 통해 지역의 이미지가 향상됨으로써 대내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자긍심이 높아지고, 대외적으로는 관광객의 관심을 끌어 방문을 유도하는 효과를 거두게 된다. 지역문화가 지역이미지를 얼마만큼이나 변화시킬 수 있으며, 또 이를 통해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애착과 긍지를 얼마나 높일 수 있는냐하는 문제는 해당 문화의 영향력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지역의 축제는 지역주민들에게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적 공감대와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기여함으로써 지역공동체의 발전에 긍정적인 기능을 한다.

지역주민들은 특정 문화예술 축제가 자기 고장에서 열리는 것에 대하여 자부심을 갖게 되고 그 결과 지역 사회 및 문화에 대하여 한층 더 애정을 갖게 된다.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자긍심은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지역에 대한 귀속감과 정체성을 갖도록 해 준다. 또한 지역주민들은 공동으로 이러한 지역문화축제를 준비하고 참여함으로써 서로간의 유대를 더 강화할 수 있고 지역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공동체 의식은 시민사회의 기본 규범이면서 동시에 지방화시대에 지역 사회를 가꾸어 나가는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공동체 의식은 시민사회의 기본규범이면서 동시에 지방화시대에 지역사회를 가꾸어 나가는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역문화축제는 지방자치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지역축제의 개최가 지역주민들의 자긍심을 형성하고 높이는데 기여함으로써 또 다른 여러 가지 부수 효과를 가져 올 수도 있다. 이를테면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연대감과 공동체 의식 형성, 나아가서는 정체감의 형성이 그것이다. 특히 지역문화축제가 그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면 그 지역의 전통적인 뿌리를 찾아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지역의 축제들을 통하여 지역의 참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외적으로는 관광객을 유치하는 관광유발 효과가 발생한다. 대부분의 축제는 지역 공동체에 만족을 주는 것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으며, 일부 축제는 축제의 부수적 효과로서 외부 관광객을 끌어들이기도 하였다. 축제가 만들어내는 이러한 관광 효과는 지방정부로 하여금 재정지원을 설득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지방정부가 문화예술축제의 발전 이면에 있는 중요한 힘으로 작용한다고 말할 수 있다. 문화이벤트와 축제는 지역의 이미지와 가시

성을 높임으로써 관광객들에게 관광매력을 한층 더 해 준다. 일반적으로 관광객은 관광지와 대상을 선택할 때 그 지역에 대한 이미지를 고려하기 마련이다. 축제는 그 지역에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그 지역에 대한 강렬한 이미지를 형성하고 관광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따라서 지역의 축제들이 이러한 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타 지역문화행사와의 차별성, 고유한 공간 환경, 해당 축제에 대한 안내 및 홍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반복 개최 등을 조건으로 치러져야 한다.

⑥ 문화교류 기능

지역축제는 지역과 지역 간의 교류를 촉진하는 매체역할을 할 수 있다. 예컨대 각 지역은 서로의 지역의 문화축제에 참여함으로써 상호간의 이해를 증진함으로써 친선도모는 물론 무역이나 여타 교류를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역축제는 일상생활에서 억압되고 간과되었던 인간의 감정과 행동을 표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축제 개최의 다양한 동기와 목적에도 불구하고 축제는 문화교류의 효과를 가져오며, 나아가서 문화교류의 증대는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과 타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에도 기여하게 된다. 특정한 지역에서 문화축제가 개최되면 우선 문화예술인들이 이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 내방할 때부터 이미 문화교류는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문화축제가 해당지역의 문화예술인들만으로 기획되고 연출되는 경우는 드물다. 특히 이들 문화예술인들이 전문화되고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지역사회에 보여주게 되면 이 지역의 문화예술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놓게 된다. 또한 특정지역의 문화축제를 보러오기 위해 인근 지역 사회 뿐만 아니라 먼 지역에서도 관람객들이 찾아오게 되면 여기에서도 문화교류는 시작되는 셈이다. 이 때의 문화라는 개념은 다분히 광의의 것이긴 하지만 그만큼 다양한 측면에서 복합적인 효과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잠재력이 있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예컨대 특정한 지역을 찾는 내방객의 주된 목적이 문화축제를 보러오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내방객은 해당 축제만을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사회의 관습과 규범, 나아가서는 생활양식을 포함한 문화 그 자체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험은 이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며, 또한 이 지역사회에 대한 이미지

형성에도 기여하게 된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지역의 축제가 가져다주는 문화교류 효과는 그 자체로서도 의미를 갖는 것이지만 다른 사회 문화적인 효과와 엄밀하게 구분짓기 힘들 정도로 서로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 복합적인 성격의 것임을 알 수 있다. 문화교류효과는 지역 사회의 문화예술진흥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이미지 향상 나아가서는 관광유발 효과, 그리고 지역사회의 경제적인 파급효과와도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⑦ 교육적 기능

일반적으로 축제는 일정한 정도의 교육적 효과를 지닌다. 모든 문화축제들은 관련 행사들과 이벤트에 대한 접근 기회를 넓힘으로써 가장 넓은 의미에서 관중들을 교육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또한 축제가 성공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새롭고 더 젊은 관중들이 계속 충원되어야 한다는 당위적인 명제 때문에 축제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관심은 더욱 더 중시되는 추세이다. 지역의 문화 축제에 포함될 수 있는 교육적 요소는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는 대표적인 형태 중의 하나로는 문화축제를 개최하는 목적의 하나로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효과를 제시한 사례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Rolfe(Rolfe, Heather. 1992)의 연구에 따르면, 문화축제가 교육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에 공공부문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형태로는 공식적으로 교육적인 효과를 문화축제의 개최목적으로 설정하지는 않았지만 부수적으로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축제를 통한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굴, 그리고 그것을 통한 현대문화의 창조는 지역공동체 주민들에게 새로운 문화상징으로 인식될 수 있을 것이며, 자연공동체를 재형성시키는 수단이 된다. 한편, 축제는 잠재 문화 소비자인 청소년층에게 문화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평소 문화예술을 체험하기 힘든 지역의 주민들에게도 문화예술의 생활화를 위한 기초를 제공하는 등 교육적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김창곤, 2000)

3. 현대도시축제의 유형

현대서구사회에서 벌어지는 축제의 유형은 종교적 축제가 잔존하는 형태, 종교성과 역사성 및 유희성이 결합된 형태, 지역민의 화합과 문화정체성의 표현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형태, 혹은 지역홍보와 관광자원으로서의 형태로 나뉘어 진다.

(1) 종교적 축제가 잔존하는 형태의 현대도시축제

현대에서 벌어지는 축제의 대부분이 그 기원에 있어서는 종교적인 의미를 가진 것이 많지만 현재는 종교적 신성성 보다는 세속적 여흥거리로 대부분 그 본래의 성질이 변화되었다. 각 종교들의 종교력(宗敎曆)을 보면 다양한 축일 및 기념일이 있어 축제로 전승되고 있다.

(2) 종교성과 역사성 및 유희성이 결합된 형태의 현대도시축제

두 번째 유형이라 할 수 있는 종교성, 역사성 및 유희성이 결합된 축제들은 적당한 종교성이 축제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근거로 작용하는 동시에 현대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연희형태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실 대부분의 축제들이 종합적으로 여러 다양한 복합적인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분명한 경계를 지어 구분하는 것에는 무리가 따른다. 흔히 카니발이라는 명칭으로 불리는 축제들이 이 부류에 속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 볼 수 있다. 본래 기독교적 사육제와 관련을 가진 카니발은 보통 중세시대의 교회와 세속 권력과의 갈등이 축제 속에서 표현된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현재 연희되고 있는 카니발의 상당수는 이러한 기독교적 전통과는 상당히 거리를 두고 있거나 아니면 상관관계가 없다.

(3) 지역민의 화합과 문화정체성의 표현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형태의 현대도시축제

주의 깊게 보아야하는 축제의 유형으로 지역민의 화합과 문화정체성의 표현을 위한 축제를 들 수 있다. 사실 많은 축제들이 개최되고 있지만 현재적이고 실질적인 지역주민들의 삶을 직접 반영하고 있는 축제는 그 중요성에 비하면 그다지 알려져 있지 않은 편이다.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홍보를 통해서 널리 알려진 축제들과 달리 이 부분에서 소개될 축제들은 비교적 역사적 전통도 깊으면서 지역주민들의 직접적인 참여 정도가 대단히 높은 것이 특징이다.

(4) 지역홍보와 관광자원으로서의 형태의 현대도시축제

마지막 유형으로 지역 홍보와 관광자원으로서의 축제를 살펴보면, 관광객으로서 특정 지역을 방문했을 때 가장 흔히 발견되는 축제가 이에 해당하며 역사적 유래는 오래지 않았지만 지역적 특성, 즉 특산물이나 자연물, 민속적 요소 등이 다양한 축제적 여흥거리와 결합되어서 하나의 축제연회 형태로 개발된 것이 해당한다.(류정아, 2003) 이러한 범주에 포함되는 대부분의 축제는 비교적 역사가 짧지만 흥미 유발성이나 사람들의 참여 비율이 대단히 높아서 지역의 중요한 관광 상품임과 동시에 지역의 문화정체성을 높이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제Ⅲ장 서울시 축제 현황 분석

제1절 서울시 축제 개최 현황

제2절 서울시 축제 정책 현황

제1절 축제 개최 현황

현재 서울시에서 얼마나 많은 축제가 개최되는지에 대한 답은 축제의 정의와 축제 주체의 설정, 또는 축제의 연속성 등에 따라 다양해진다. 1장에서도 논의했듯이, 문화관광부의 축제 선정에 따라서는 서울시 축제에서는 32개의 축제가 개최되고 있으며 문화연대에서는 46개, 서울시 업무계획 상⁵⁾으로는 45개로 추정된다. 그러나 ‘축제’라는 이름으로 개최되는 다양한 차원의 문화행사들을 고려한다면 축제의 현황을 수적으로 헤아리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민간차원에서 주도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연속성 있는 축제들만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적지 않은 수의 축제가 개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축제에 대한 상이한 정의들과 그 목적 및 경과에 따른 축제 현황 파악은 무척이나 다양하여 정확한 현황 파악의 기준이 없이는 그 수적 파악이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울형 축제의 발전과 체계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을 쫓아 서울시의 축제 개최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서울형 축제가 서울시의 문화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시민의 여가문화 활성화 및 서울관광의 촉진을 위한 도시마케팅의 수단으로 활용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바, 서울시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축제의 역할분담에 참여하고 있는 축제를 대상으로 현황 파악을 진행하였다. 이는 축제 지원 정책의 수립을 통한 축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의도와도 부합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본 연구의 축제 현황은 서울시 문화과에서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다. 서울시 문화과에서는 서울시의 각종 문화행사 중 아래의 선정기준을 만족하는 축제를 대상으로 2004년에 개최된 축제와 2005년에 개최 예정인 축제들

5) 서울시, 2005, 2005년도 업무계획

을 대상으로 현황 조사를 실시하였다.

서울시 정부와 25개 자치구의 문화행사 중 다음의 기준을 만족하는 문화행사만을 축제로 조사하였다.

- ◆ 국가에서 지원하는 축제
- ◆ 지자체 주관(주최)하는 축제
- ◆ 지자체에서 경비 지원 또는 후원하는 축제
- ◆ 민간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최하는 축제
- ◆ 2005년도에 이미 개최한 축제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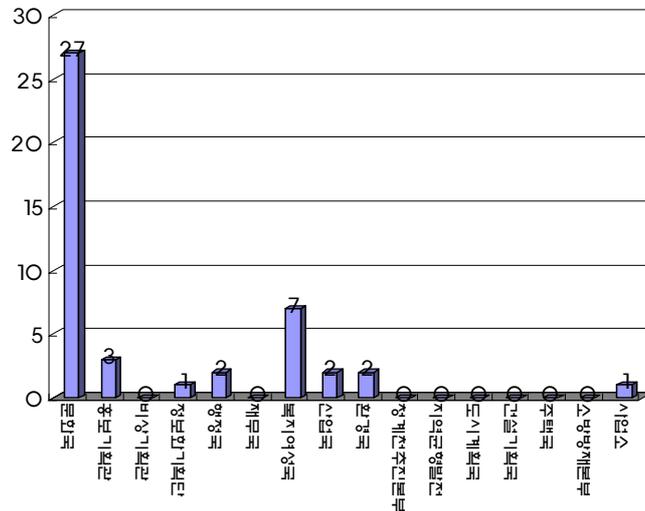
위의 기준에 따라 조사된 서울시 축제는 전체 145개로, 시정부에서 직접 관여하는 축제가 45개, 자치구가 관여하는 축제가 100개로 파악되었다. 본 자료를 바탕으로 주체별, 유형별, 시기별, 지역별 축제 현황을 살펴볼 수 있다.

1. 주체별 현황

서울시 문화과에서 조사한 서울시 및 자치구의 축제 현황은 다음과 같다. 시정부에서 주관하는 축제 중 27개가 문화국에서 주관한다.([표 3-1], [그림 3-1] 참조)

[표 3-1] 시주관 축제 현황

| 주무부서 | 개수 | 주무부서 | 개수 |
|--------|-----------|---------|---------|
| 문화국 | 27(60.0%) | 환경국 | 2(4.4%) |
| 홍보기획관 | 3(6.7%) | 청계천추진본부 | 0 |
| 비상기획관 | 0 | 지역균형발전 | 0 |
| 정보화기획단 | 1(2.2%) | 도시계획국 | 0 |
| 행정국 | 2(4.4%) | 건설기획국 | 0 |
| 재무국 | 0 | 주택국 | 0 |
| 복지여성국 | 7(15.6%) | 소방방재본부 | 0 |
| 산업국 | 2(4.4%) | 사업소 | 1(2.2%) |



[그림 3-1] 서울시 주관 축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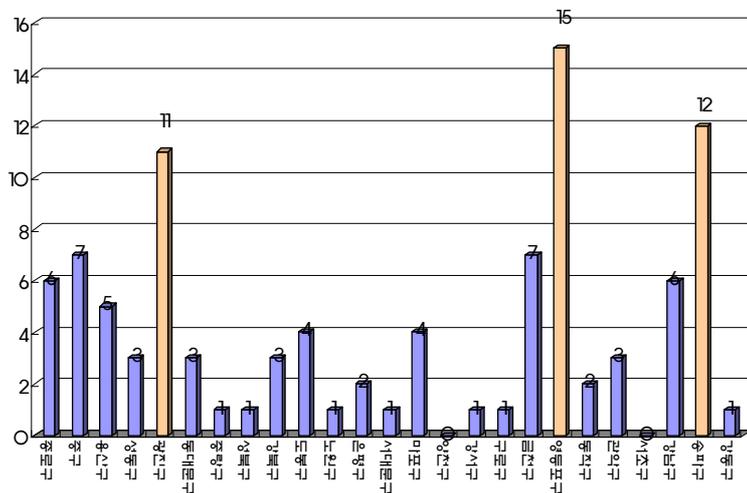
문화국은 문화과, 관광과, 문화재과 3개의 부서가 하부조직으로 편성되어 있어 서울시의 문화자원 관련 문화행사들의 주무부서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문화국은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는 축제 혹은 문화예술자원을 활용하고 관련 시설을 축제 공간으로 하는 축제, 서울시의 관광 정책과 연동되는 축제 및 시민의 문화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개최되는 축제 등 과반수 이상의 축제에서 업무조직으로 파악되었다. 문화국 다음으로 축제를 개최하고 있는 주무부서는 복지여성국으로, 다양한 시민 계층의 문화적 욕구를 수용하고 이를 충족시키는 것을 통하여 서울시민으로서의 정체성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통합형 축제들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 시민통합을 현대 도시 축제의 주요한 역할로 규정할 때, 서울시정부가 이러한 축제들을 지원하고 개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현재 서울시정부가 주관하는 축제 중 15.6%를 복지여성국이 담당하고 있다. 이는 유형별 축제 개최 현황 분석에서 축제 개최 유형별 주무부서 현황 분석에서 자세히 다루어질 것이다. 또한 홍보기획관에서도 축제를 개최 중에 있는데, 도시 마케팅의 수단으로서의 현대 도시 축제 목적과 더불어 개최되는 서울시 축제들을 담당하고 있다. 그 밖에도 한강관리사업소 및 산업

국 등에서도 현대 도시 축제의 성격과 부합되는 해당 부서의 업무가 연계된 축제들을 개최하고 있다.

자치구별로는 영등포구(15개), 송파구(12개), 광진구(11개) 순으로 축제가 개최되고 있다.([표 3-2], [그림 3-2] 참조)

[표 3-2] 자치구별 축제 현황

| 자치구 | 개수(%) | 자치구 | 개수(%) |
|------|-----------|------|-------------|
| 종로구 | 6 (6.0) | 마포구 | 4 (4.0) |
| 중구 | 7 (7.0) | 양천구 | 0 (0.0) |
| 용산구 | 5 (5.0) | 강서구 | 1 (1.0) |
| 성동구 | 3 (3.0) | 구로구 | 1 (1.0) |
| 광진구 | 11 (11.0) | 금천구 | 7 (7.0) |
| 동대문구 | 3 (3.0) | 영등포구 | 15 (15.0) |
| 중랑구 | 1 (1.0) | 동작구 | 2 (2.0) |
| 성북구 | 1 (1.0) | 관악구 | 3 (3.0) |
| 강북구 | 3 (3.0) | 서초구 | 0 (0.0) |
| 도봉구 | 4 (4.0) | 강남구 | 6 (6.0) |
| 노원구 | 1 (1.0) | 송파구 | 12 (12.0) |
| 은평구 | 2 (2.0) | 강동구 | 1 (1.0) |
| 서대문구 | 1 (1.0) | 합계 | 100 (100.0) |



[그림 3-2] 자치구별 축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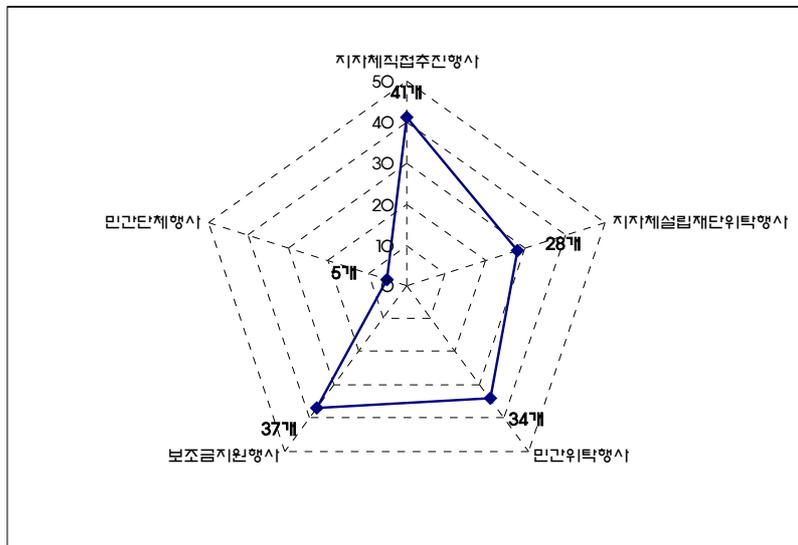
각 자치구별로는 통합형 축제가 주로 개최된다. 이는 축제를 통하여 지역 주민이 지역 내의 특정장소에 모여 축제 프로그램을 즐기므로써 해당 자치구에 대한 소속감과 공동체의 주체로서의 자주성을 갖도록 하는 목적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자치구 축제 중에서도 지역 내의 고유한 역사문화자원이나 문화예술 자원을 활용하는 축제가 있다. 이러한 축제들은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제고시키고 대외에 알리는 역할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내적 정체성 함양에도 기여하는바, 자치구의 축제들은 점차 축제 개최 수나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위의 145개 축제를 주체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표3-3]과 같다. 축제추진주체는 지자체직접추진행사, 지자체설립 재단 위탁행사, 민간위탁행사, 보조금지원행사, 민간단체 행사로 나뉜다. 전체 축제 중 41개의 축제가 지자체직접추진행사로 개최되었으며 보조금지원행사와 민간위탁행사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3-3] 참조)

[표 3-3] 주체별 서울시 축제 개최 현황(1)

| 구분 | 지자체 직접추진 | 지자체설립 재단위탁 | 민간위탁 | 보조금지원 | 민간단체 |
|----|----------|------------|------|-------|------|
| 개수 | 41 | 28 | 34 | 37 | 5 |
| % | 28.3 | 19.3 | 23.4 | 25.5 | 3.4 |

그러나 지자체가 설립한 재단에 위탁하는 축제나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행사보다는 서울시나 자치구 정부가 직접 추진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하는 행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서울시 축제가 민간차원에서 개최되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림 3-3] 주체별 서울시 축제 현황(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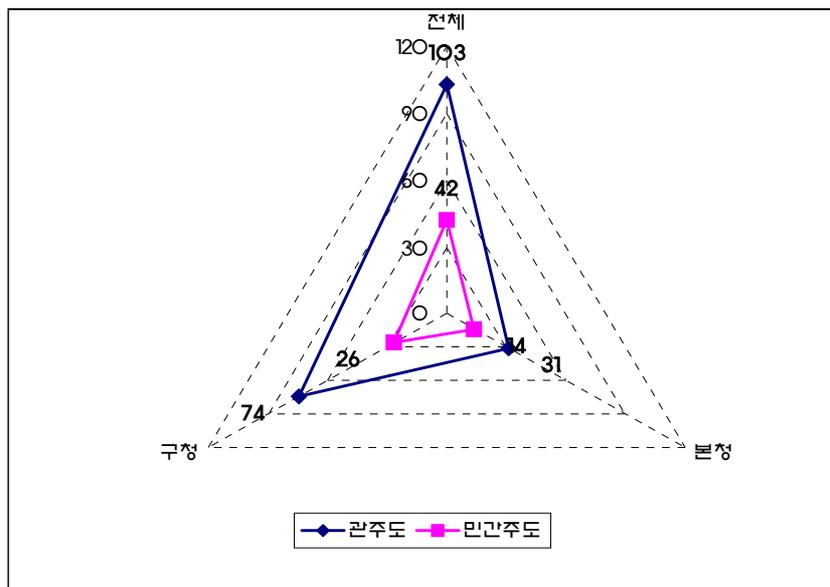
[그림 3-4]를 살펴보면, 전체 축제에 대한 축제 주체의 성격을 살펴 볼 수 있다. 전체 축제의 71.0%에 해당하는 축제가 공공기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관 주도적인 축제라고 할 수 있다.

[표 3-4] 주체별 서울시 축제 현황(2)

| 구분 | 관주도 | | 민간주도 | | 합계 |
|----|-----|------|------|------|-----|
| | 개수 | % | 개수 | % | |
| 전체 | 103 | 71.0 | 42 | 29.0 | 145 |
| 본청 | 31 | 68.9 | 14 | 31.1 | 45 |
| 구청 | 74 | 74.0 | 26 | 26.0 | 100 |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구청)의 축제들이 시 정부가 개최하는 축제보다 관주도로 치러지는 축제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4] 참조) 이는 민간에 예산 전체를 운용토록 하고 관리·감독만을 하기에는 그 예산 수준이 적절하지 않아 무대설치 및 출연자, 참여자 섭외까지 구청의 담당 부서가 직접 담당하는 것으로 대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산 상 대행수수료를 확보하지 못한 자치구 축제들

은 자치구 담당 공무원들이 직접 나서서 축제를 개최하고 있어, 관주도적인 축제 운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원인이 된다. 임시적으로라도 민간운영주체를 유지하고 축제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통하여 다양한 민간집단들이 참여토록 하기위해서는 재정보호를 통한 민간주도형 축제로의 유도가 필요하다.



[그림 3-4] 주체별 서울시 축제 현황(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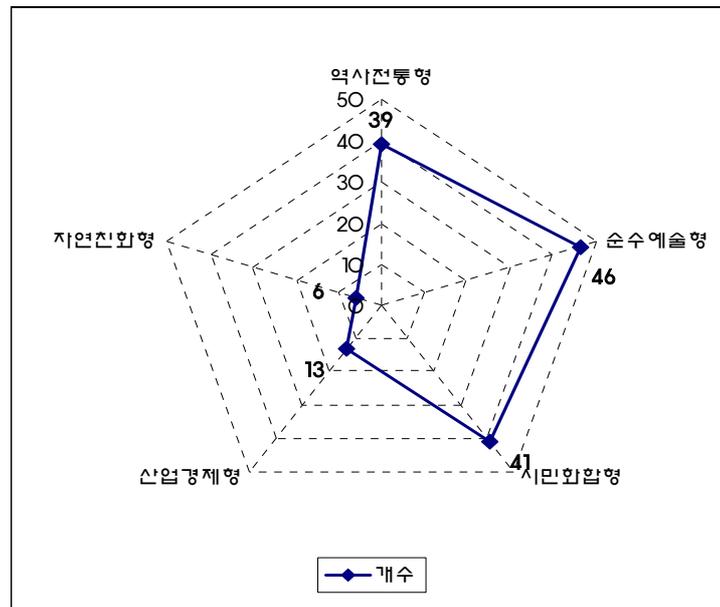
2. 유형별 현황

서울시의 축제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축제개최목적에 따라 역사전통형, 순수예술형, 시민화합형, 산업경제형 그리고 자연친화형으로 나눌 수 있다. 현재 서울시 축제는 순수예술형 > 시민화합형 > 역사전통형의 순서로 유형별 분포를 보이고 있다. 문화예술자원을 활용하고 문화예술 활동의 질적 성장을 위한 매개체로서 개최되는 순수예술형 축제는 '동대향 창작 및 애송시 낭송대회'에서부터 '서울국제미디어아트 비엔날레'와 같은 규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차원으로 개최된다. 자치구 및 시민들

의 문화예술활동의 증진을 위한 순수예술형 축제인지 시민들의 회합을 통한 공동체성의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시민화합형 축제인지 명확히 구분이 어려운 축제들이 있으나, 축제의 주된 내용과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들의 목적을 살펴 [표 3-5]와 같이 구분해볼 수 있다.

[표 3-5] 서울시 축제의 유형별 구분

| 축제유형 | 개수 | 비율(%) |
|-------|-----|-------|
| 역사전통형 | 39 | 26.9 |
| 순수예술형 | 46 | 31.7 |
| 시민화합형 | 41 | 28.3 |
| 산업경제형 | 13 | 9.0 |
| 자연친화형 | 6 | 4.1 |
| 합계 | 145 | 100.0 |



[그림 3-5] 서울시 축제의 유형별 구분

특히, 서울시 축제 중 산업경제형이나 자연친화형에 해당하는 축제는 거의 없다. 산업경제형 축제는 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관광특구 및 상인연합회에서 개최하는 축제들을 포함하여 서울시가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과 관련된 축제들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자연친화형 축제에는 한강사업소에서 개최되는 축제 및 지역별 자연환경 자원을 활용한 축제가 해당된다. 서울시가 지니고 있는 산림과 공원, 하천 자원을 고려해보았을 경우 현재의 자연친화형 축제 개최 현황은 이들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유형별 현황은 축제 주체별로도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시정부가 담당하는 축제와 자치구가 담당하는 축제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시정부 조직이 주무부서가 되는 축제의 유형별 현황은 [표 3-6]과 같다.

[표 3-6] 유형별 서울시 정부 축제 현황

| 주무부서 | 유형구분 | | | | | | | | | | 합계 | |
|---------|-------|-------|-------|-------|-------|-------|-------|-------|-------|-------|----|-------|
| | 역사전통형 | | 순수예술형 | | 시민화합형 | | 산업경제형 | | 자연친화형 | | 개수 | % |
| | 개수 | % | | |
| 공원녹지사업소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1 | 50.0 | 1 | 2.2 |
| 문화국 | 13 | 100.0 | 7 | 87.5 | 7 | 38.9 | 0 | 0.0 | 0 | 0.0 | 27 | 60.0 |
| 복지여성국 | 0 | 0.0 | 0 | 0.0 | 6 | 33.3 | 1 | 25.0 | 0 | 0.0 | 7 | 15.6 |
| 산업국 | 0 | 0.0 | 0 | 0.0 | 1 | 5.6 | 1 | 25.0 | 0 | 0.0 | 2 | 4.4 |
| 정보화기획단 | 0 | 0.0 | 0 | 0.0 | 0 | 0.0 | 1 | 25.0 | 0 | 0.0 | 1 | 2.2 |
| 행정국 | 0 | 0.0 | 1 | 12.5 | 1 | 5.6 | 0 | 0.0 | 0 | 0.0 | 2 | 4.4 |
| 홍보기획관 | 0 | 0.0 | 0 | 0.0 | 1 | 5.6 | 1 | 25.0 | 1 | 50.0 | 3 | 6.7 |
| 환경국 | 0 | 0.0 | 0 | 0.0 | 2 | 11.1 | 0 | 0.0 | 0 | 0.0 | 2 | 4.4 |
| 합계 | 13 | 100.0 | 8 | 100.0 | 18 | 100.0 | 4 | 100.0 | 2 | 100.0 | 45 | 100.0 |

시정부 축제 전체로는 역사전통형 축제가 가장 많이 개최되고 있다. 서울시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해당 자원을 관리하는 문화국이 이 유

형의 축제를 전담하여 운영하고 있다. 순수예술형 축제와 시민화합형 축제도 문화국에서 전담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 주무부서별로 나누어 살펴봤을 경우, 문화국에서 담당하는 축제 중에서는 역사전통형 축제가 가장 많았으며, 복지여성국에서 담당하는 축제들은 시민화합형 축제가 가장 많았다. 주무부서의 관장하는 업무와 연계된 축제들이 개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축제가 공공 주도 하에서 운영될 때 축제추진조직이 개최 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과 부합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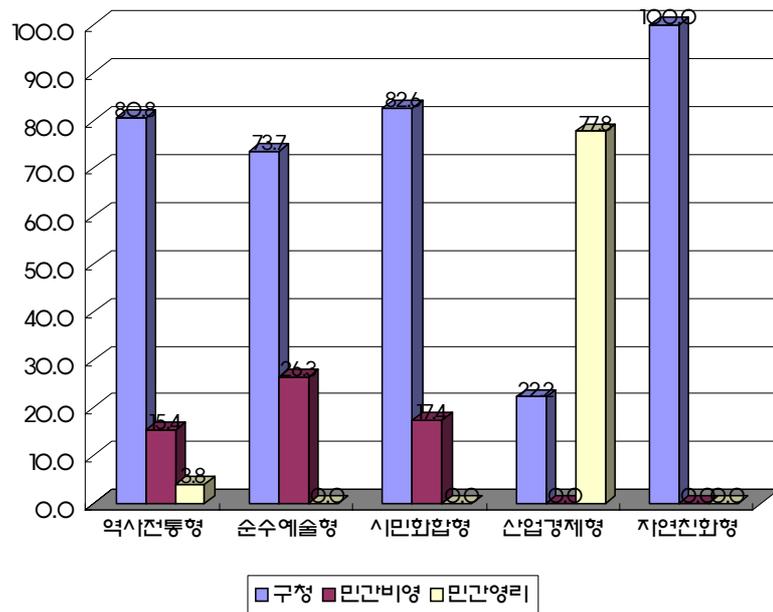
자치구에서 개최되는 축제들을 살펴보면, [표 3-7]에서 볼 수 있듯이 순수예술형 축제가 가장 많은데, 이는 자치구민들의 문화예술 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규모의 축제가 개최되고 있기 때문이다.

[표 3-7] 유형별 자치구 축제 현황

| 주관별 유형 | | 유형구분 | | | | | | | | | | 합계 | |
|--------|---------|-------|-------|-------|-------|-------|-------|-------|-------|-------|-------|-----|-------|
| | | 역사전통형 | | 순수예술형 | | 시민화합형 | | 산업경제형 | | 자연친화형 | | | |
| | | 개수 | % | 개수 | % |
| 주관 | 구청 | 21 | 80.8 | 28 | 73.7 | 19 | 82.6 | 2 | 22.2 | 4 | 100.0 | 74 | 74.0 |
| | 민간비영리단체 | 4 | 15.4 | 10 | 26.3 | 4 | 17.4 | 0 | 0.0 | 0 | 0.0 | 18 | 18.0 |
| | 민간영리단체 | 1 | 3.8 | 0 | 0.0 | 0 | 0.0 | 7 | 77.8 | 0 | 0.0 | 8 | 8.0 |
| 합계 | | 26 | 100.0 | 38 | 100.0 | 23 | 100.0 | 9 | 100.0 | 4 | 100.0 | 100 | 100.0 |

특히 자치구 축제는 구청 문화관련 부서가 직접 축제를 담당하는 경우와 문화원 및 보존회 등의 민간비영리단체가 담당하는 경우 그리고 상인연합회와 같은 민간영리단체가 주관하는 축제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주관별로는 구청에서 축제를 담당하는 비율이 유형별로 나누어보았을 때에도 산업경제형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축제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여전히 높은 수준의 관주도적인 축제 운영을 보이고 있다. 자치구의 문화원은 민간비영리 축제주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사실상 자치구의 문화관련 부서와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거나 진행 및 동호회 등의 관내 자치문화활동단체를 섭외하는 정도의 역할만을 담당하고

있어, 여전히 공공주도적인 성격의 축제 추진 주체로 작용하거나 비주류적인 민간 차원의 역할만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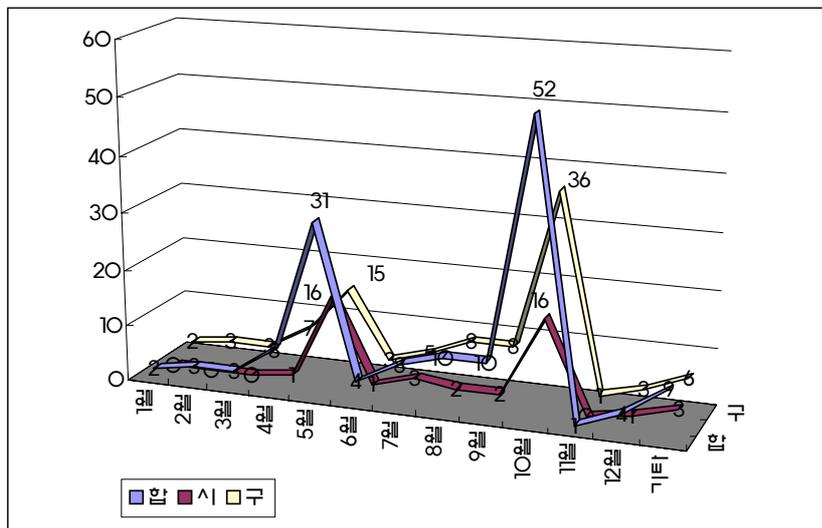
[그림 3-6] 유형별 자치구 축제 현황

그러나 이러한 실정을 반영하더라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문화활동이 주요한 축제 내용이 되는 순수예술형 축제에서도 구청이 주관하는 축제비율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나 축제추진 주체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 자연친화형 축제의 경우에도, 개최수가 4개에 그치지만 비율적으로는 자연친화형 축제 전부가 구청이 주관하여 개최하고 있다. 이는 축제의 장소가 되는 수변공간이나 공원 등의 자연환경 시설의 관리 및 사용이 공공부문의 허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구청이 주관하는 축제만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4개의 자연친화형 축제는 아차산 해맞이 축제를 제외하고 모두 벚꽃축제로서, 계절적으로도 봄에 편중되어 있다. 따라서 일상생활공간으로서 자연환경 자원을 활용하고자 하는 축제의 취지 상 계절적 변화에 따른 다양

한 축제 요소의 발굴 및 활용이 가능하다.([그림 3-6] 참조)

3. 시기별 현황

서울시 전체의 축제 개최 현황을 시기별로 살펴보면, 초여름인 5월과 6월, 가을인 10월에 계절적으로 집중되어 있다. 이는 기후변화로 인하여 야외활동에 제약을 받는 겨울과 여름에는 실내에서 진행이 가능한 몇몇 행사를 제외하고 개최하지 않기 때문이다.([그림 3-7] 참조)



[그림 3-7] 시기별 서울시 축제 개최 현황

따라서 계절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자연환경을 활용하거나 일몰시간의 변동에 따라 축제 진행시간을 효율적으로 설정하는 등의 전략이 필요하다. 더불어 서울시민이나 자치구의 주민들이 축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야간시간대를 활용하거나 주5일근무제 확대 등의 축제 참여자들의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시간적 전략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하겠다. 현재 대부분의 서울시 축제들은 주말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평균 3일 정도의 축제 기간으로 진행된다. 현재 가족단위의 시민들이 도시축

제를 여가적인 차원에서 접하고자 하는 문화활동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욕구가 증가되는 만큼, 어린이날 등의 공휴일과 주말이 포함된 축제 기간의 설정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후가 좋은 4월에서부터 6월까지 혹은 9월에서 10월까지의 기간 동안에 축제들이 집중적으로 개최되고 있어 축제 참가자들이 양적으로 분산되는 결과가 초래되기도 한다. 따라서 일괄적으로 동일한 기간 내에 다수의 축제들이 집중되어 개최될 것이 아니라 축제 개최 시기 설정에서도 틈새시장을 공략할 수 있어야 한다. 야외활동이 어려운 때에는 실내에서 참여 가능한 축제들로 전환하여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효과적인 시간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시민들의 생활의 시공간적 확대에 따라 근무시간 이후의 일상에서도 축제적인 요소를 접할 수 있도록 축제프로그램들을 야간 시간대에도 배치하고, 지방에서 서울시를 방문하는 사람들도 반드시 숙박을 하지 않고도 축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야간 시간대를 활용한 축제 시간 전략이 필요하다.

따라서 축제의 개최 시기를 시간 단위, 하루 단위, 혹은 개최 기간 전체를 단위로 하는 입체적인 현황 파악은 효율적인 축제의 진행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축제의 발전적인 시간 전략으로서 매우 유의미하다.

4. 지역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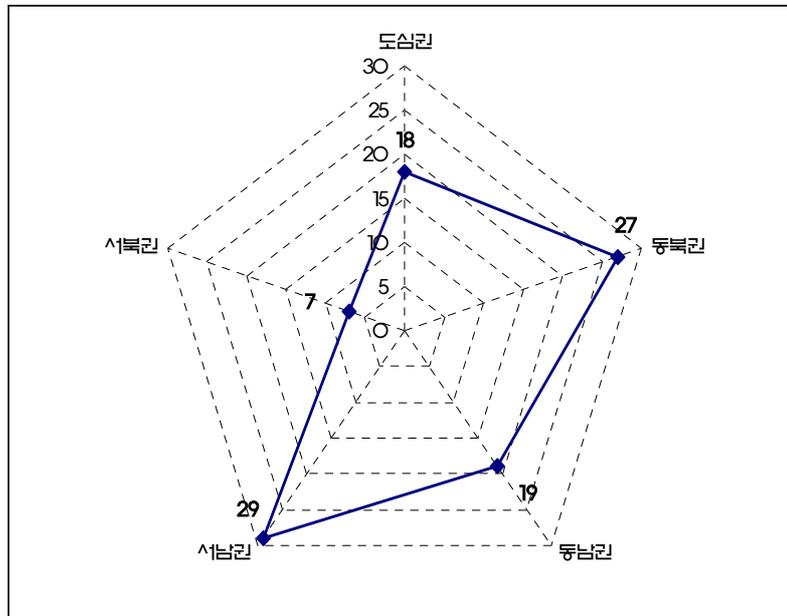
서울시가 조사한 축제자료에 의하면 자치구에서 개최되는 100개의 축제를 권역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그림 3-8]과 같이 동북권과 서남권에서 가장 많이 개최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각 권역별로 속한 구와 수적인 비교를 해보면 문화자원의 향유와 관련하여 불균형적인 분포를 나타냄을 알 수 있다. 중구, 종로구, 용산구의 도심권은 18개의 축제 개수를 보이지만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의 서북권은 7개의 축제만이 개최되고 있다. 또한 무려 8개의 구가 포함된 동북권은 27개의 축제가 개최되고 있으나 4개 구로 이루어진 동남권은 19개의 축제가 개최되어 불균등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인구밀도가 높은 노원구, 은평구 등의 생활기반의 자치구들에

서 개최되는 축제의 수도 매우 적어, 시민들의 일상과 연계된 삶의 현장에서의 축제 역시 부족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3-8] 권역별 축제 개최 현황

| 권역 | 자치구 | 개수 | 권역 | 자치구 | 개수 | |
|---------|------|-----|---------|---------|-----|---|
| 도심권(18) | 종로구 | 6 | 서남권(29) | 양천구 | 0 | |
| | 중구 | 7 | | 강서구 | 1 | |
| | 용산구 | 5 | | 구로구 | 1 | |
| 동북권(27) | 성동구 | 3 | | 금천구 | 7 | |
| | 광진구 | 11 | | 영등포구 | 15 | |
| | 동대문구 | 3 | | 동작구 | 2 | |
| | 중랑구 | 1 | | 관악구 | 3 | |
| | 성북구 | 1 | | 동남권(19) | 서초구 | 0 |
| | 강북구 | 3 | | | 강남구 | 6 |
| 도봉구 | 4 | 송파구 | 12 | | | |
| 노원구 | 1 | 강동구 | 1 | | | |
| 은평구 | 2 | | | | | |
| 서북권(7) | 서대문구 | 1 | | | | |
| | 마포구 | 4 | | | | |

물론 개최되는 축제의 수가 지역의 문화적 수준이나 축제에 만족도와 반드시 일치해야하는 것은 아니나 문화 인프라 보완 및 구축의 차원에서 기회의 균형을 좀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성을 제기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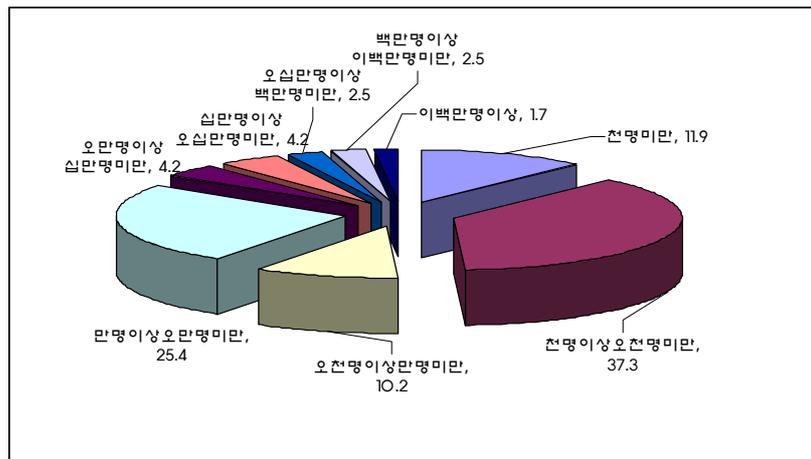
[그림 3-8] 권역별 축제 개회 현황

5. 규모별 현황

서울시 축제의 규모를 참가인원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소형, 중소형, 대형, 초대형 축제로 구분할 수 있다. 서울시 축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천명이 상 오천명 미만의 축제가 가장 많았으며 만명 이상 오만명 미만은 참가인원의 축제도 많았다. 참가인원 규모에 따른 축제 구분으로는 소형 축제가 70개로 가장 많았으며 중소형 축제는 35개로 나타났다.([표 3-9]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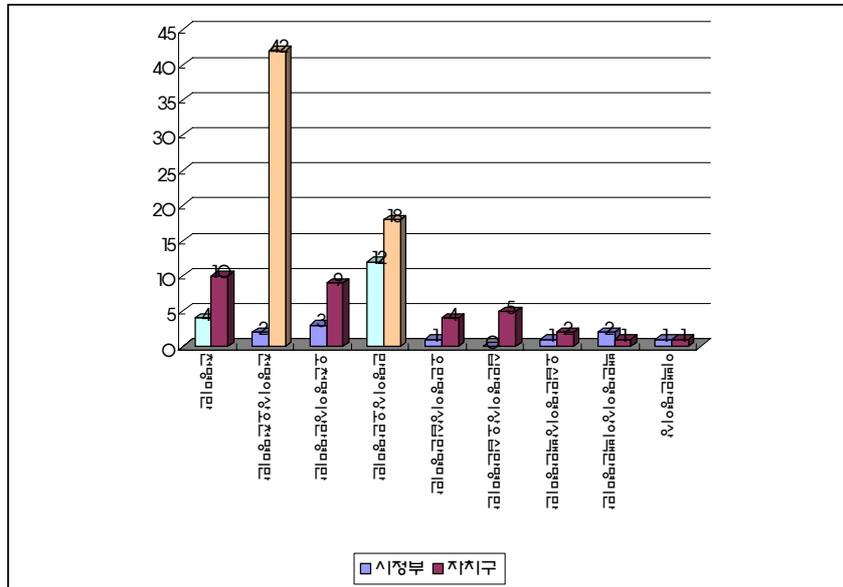
[표 3-9] 참가인원 규모별 서울시 축제 현황

| 구분 | 해당항목 | 축제개수 | 비율 |
|---------|--------------|------|-------|
| 소형(70) | 천명미만 | 14 | 11.9 |
| | 천명이상 오천명미만 | 44 | 37.3 |
| | 오천명이상 만명미만 | 12 | 10.2 |
| 중소형(35) | 만명이상 오만명미만 | 30 | 25.4 |
| | 오만명이상 십만명미만 | 5 | 4.2 |
| 대형(8) | 십만명이상 오십만명미만 | 5 | 4.2 |
| | 오십만명이상 백만명미만 | 3 | 2.5 |
| 초대형(5) | 백만명이상 이백만명미만 | 3 | 2.5 |
| | 이백만명 이상 | 2 | 1.7 |
| 합계 | | 118 | 100.0 |



[그림 3-9] 참가인원 규모별 서울시 축제 현황

참가인원 규모별 현황을 다시 시 정부와 자치구로 나누어 살펴보면, 자치구에서 개최하는 축제는 천명이상 오천명 미만의 규모가 가장 많으며 시 정부는 만명이상 오만명 미만의 규모가 가장 많았다. 또한 자치구는 오만명 이상 규모의 축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데, 이는 축제재정의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 즉, 대규모 예산의 축제들은 대형 축제참가인원을 유발하므로 예산의 작은 축제들을 주로 개최하는 자치구들의 축제 참가인원 역시 소형 혹은 중소형 축제인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다.



[그림 3-10] 참가인원 규모별 시정부 및 자치구 축제 현황

제2절 축제 정책 현황

1. 축제의 조직

1) 축제의 전담조직별 축제 정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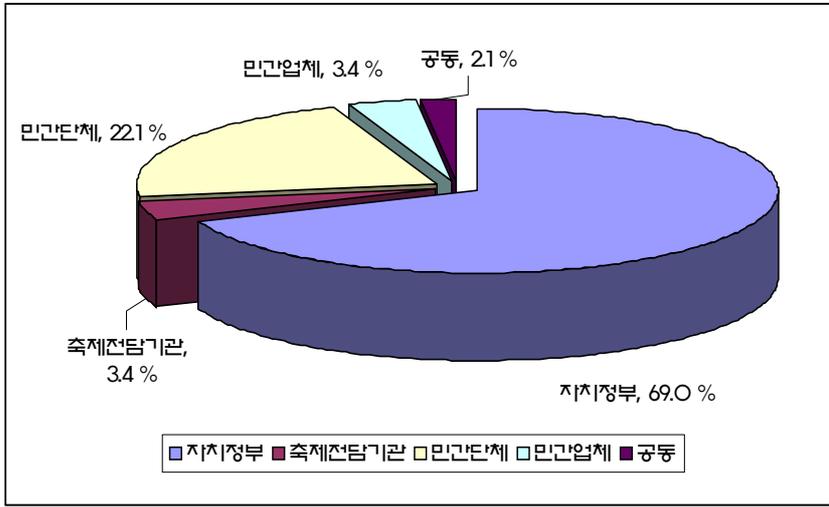
축제의 조직에 관하여서는 축제 주체를 유형화하는 것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다. 축제를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축제추진주체는 자치정부가 직접 축제추진주체가 되는 경우와, 축제전담기관의 설치, 민간단체, 민간업체, 공동의 축제추진주체 등으로 구분된다. 민간단체는 서울문화재단이나 무형문화재단과 같은 시민단체와 협의회 및 상인회 등의 협회를 의미하며, 민간업체는 이벤트회사나 한국방송공사 등의 언론사 등이 추진주체가 되는 경우가 해당된다.

서울시 문화과에서 조사한 축제의 주관 및 주최를 살펴보면, 시 정부나 자치구에서 직접 주관하는 축제가 전체 조사된 축제의 69.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최하는 축제추진주체는 민간단체가 59.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8] 참조) 이를 통하여 대부분의 축제는 지방자치정부에 의해 주관되고 기획되며 실질적인 프로그램의 운영 등은 공공의 성격을 지닌 민간단체가 주로 담당하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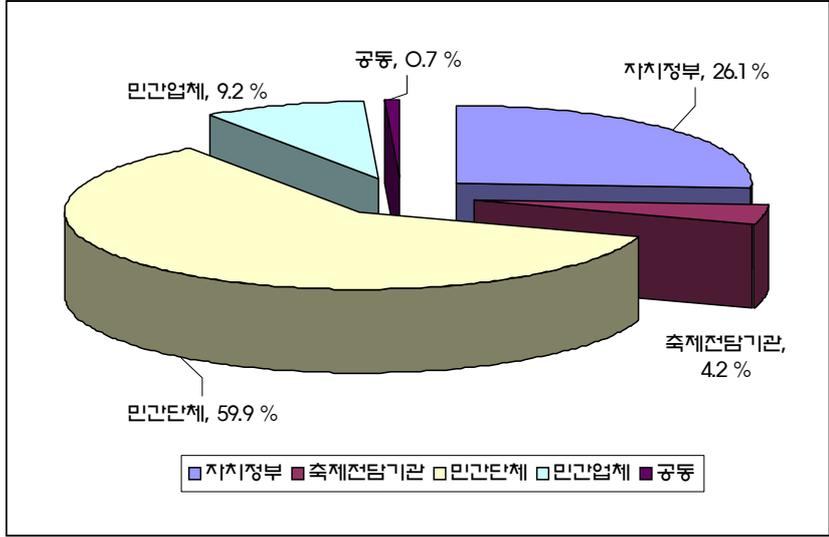
[표 3-10] 서울시 축제의 조직 유형 및 현황

| 주관 | | | 주최 | | |
|---------------------|-----|-------|---------------------|-----|-------|
| 구분 | 개수 | 비율(%) | 구분 | 개수 | 비율(%) |
| 자치정부 | 100 | 69.0 | 자치정부 | 37 | 26.1 |
| 축제전담기관 | 5 | 3.4 | 축제전담기관 | 6 | 4.2 |
| 민간단체 (재단 및 협회 등) | 32 | 22.1 | 민간단체 (재단 및 협회 등) | 85 | 59.9 |
| 민간업체 (이벤트회사 등) | 5 | 3.4 | 민간업체 (이벤트회사 등) | 13 | 9.2 |
| 공동 | 3 | 2.1 | 공동 | 1 | 0.7 |
| 합계 | 145 | 100.0 | 합계 | 142 | 100.0 |

그러나 축제가 독립성을 유지하고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도록 하는 전제조건인 축제전담기관이 설치되고 축제를 주체적으로 관리하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다. 결론적으로, 서울시 축제의 대부분은 축제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추진주체 없이 지방자치정부의 예산이나 기획, 정책적 의지에 의해 구성되고 개최되어 여전히 관주도의 축제 정책 성격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그림 3-11], [그림 3-12] 참조)



[그림 3-11] 서울시 축제 주관의 추진주체 유형



[그림 3-12] 서울시 축제 주최의 추진주체 유형

2) 축제의 상부조직 구성의 축제 정책 현황

축제조직과 관련된 문제점은 주민참여와 관련된 문제이다. 지역주민은 해당 지역의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축제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여 장기적인 비전을 수립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서는 주민들이 축제의 준비 단계에서부터 사후 평가단계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관 주도적인 성격의 서울시 축제들은 주민화합을 개최목적으로 하는 지역축제들마저 자치정부가 직접 기획하고 평가하거나, 형식적으로는 주민참여가 이루어지나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축제의 주체에서 배제되어 있다. 주민참여의 문제는 추진주체 및 상부조직의 측면과 시민대표 구성의 측면에서 접근해볼 수 있다.

추진주체 및 상부조직의 문제는 크게 자치단체장 변경에 따른 행사의 일관성 부족과 행사추진조직 및 시민참여의 문제로 나뉜다. 자치단체장의 정책적 의지 및 문화마인드가 지역축제의 체계적 육성의 저해요인이 되는 조직의 문제는 잦은 계획변경이 축제 육성에 장애로 드러난다. 시장이나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전임 기관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하여 온 행사가 ‘무의사 결정’에 의하여 축소 조정되거나 또는 폐지되고, 신임 기관장의 선거공약이나 취향, 출신지역 등에 따라 신규 축제를 개최하는 등 축제존폐가 기관장의 임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한 서울을 대표하는 시장 마크도 시장이 바뀔 때 마다 변화되어 체계적인 해외 홍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시 슬로건 또한 시장이 바뀔 때 마다 새로 제정되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홍보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시의 대표축제라 할 수 있는 하이서울페스티벌과 같은 대규모 예산과 광범위한 시민참여가 요구되는 행사는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연중 내내 체계적인 행사준비를 기하여야 완벽한 행사를 치를 수 있다. 그러나 현재는 행사시기가 임박하면 3개월 내외의 짧은 기간동안 10명 내외의 추진반을 구성하여 행사를 기획·진행하는 방식이다. 한시적 추진반 가동으로 행사를 시행하다 보니 행사를 통한 시민참여, 지역경제 유발 효과, 관광객 유치 등 축제개최를 통한 다양한 연관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자치정부가 축제의 주체가 되느냐 민간이 주체가 되느냐는

여전히 논란거리로 남아있다. 자치정부가 축제의 주체가 되는 경우, 축제 예산의 확보 및 집행이 효율적이라는 장점이 있으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전문인력 배출이 어려움에 따른 축제 노하우 축적이 어렵고 기부금품규제법상의 각종 제약으로 인한 협찬금 확보가 쉽지 않아 축제규모나 내용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창조적인 아이디어의 생산이 어려우며 따라서 축제의 대중성이나 흥행성의 확보가 쉽지 않다. 더불어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개최의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 행사로서 축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지역주민들을 위주로 조직된 축제의 민간주체가 지역문화에 대한 강한 애착과 축제에 대한 의지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과 같은 맥락이다.

축제의 또 다른 추진주체 및 상부조직은 시민대표 모임이다. 그러나 시민의 참여를 위한 시민대표 구성에 있어서도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전문성 부족과 참여준비시간의 부족으로 인해 시민들의 욕구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참여 시민대표들도 지역주민 위주가 아니라 지명도 높은 문화예술인이나 시민단체 위주로 선정되어 구성되므로 실제로 축제에 참여하여 즐기는 시민들의 욕구와는 괴리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문화축제의 주체가 될 지역 지역상인 조합, 지역 문화단체, 각종 주민자생조직의 발달이 시급하다.

2. 축제의 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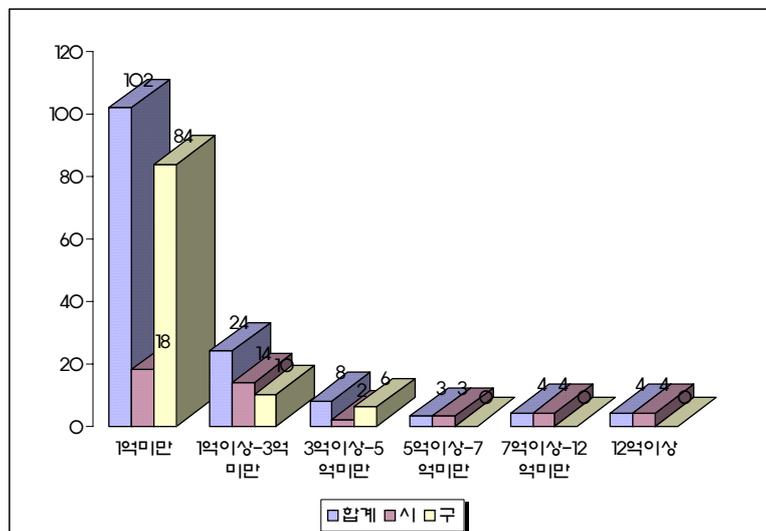
1) 예산규모별 축제 현황

예산규모별 축제 현황을 살펴보면 [표 3-11]과 같이, 1억원 미만의 소규모 축제,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의 중소규모 축제,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중규모 축제, 5억원 이상 7억원 미만, 7억원 이상 12억원, 12억원 미만의 대규모 축제 그리고 12억원 이상의 국제적 규모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축제로 나누어 진다. 시에서 주관하는

축제는 비교적 소규모 축제에서부터 국제적 규모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축제까지 다양하다. 그러나 자치구에서 개최하는 축제는 1억원 미만의 소규모 축제가 절대적으로 많다. 또한 축제의 예산이 5억원 이상인 대규모 축제는 개최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하도록 하며 제도적인 개선을 통하여 민간기업 등 다양한 시민주체들로부터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 유기적인 상호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그림 3-13] 참조)

[표 3-11] 예산 규모별 서울시 축제 개최 현황

| 유형 | 예산규모 | 합계 | 시 정부 축제 | 자치구 축제 |
|-----------|--------------|-----|---------|--------|
| 소규모 예산 | 1억 미만 | 102 | 18 | 84 |
| 중소규모 예산 | 1억 이상-3억 미만 | 24 | 14 | 10 |
| 중규모 예산 | 3억 이상-5억 미만 | 8 | 2 | 6 |
| 대규모 예산 | 5억 이상-7억 미만 | 3 | 3 | 0 |
| | 7억 이상-12억 미만 | 4 | 4 | 0 |
| 국제적 규모 예산 | 12억 이상 | 4 | 4 | 0 |
| 합계 | | 145 | 45 | 100 |



[그림 3-13] 예산 규모별 서울시 축제 개최 현황

서울시에서 개최되는 축제의 예산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시 정부 주관 축제 중 최대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상위 6개의 축제는 모두 문화국이 주관하며, 서울 세계불꽃축제와 단일 예술 장르를 중심으로 개최되는 축제 중 서울국제공연예술제가 12억원 이상의 국제적 규모의 예산으로 치러진다.([표 3-12] 참조) 또한 자치구가 주관하는 축제 중에서는 산업축제로서 동대문 패션페스티벌이 4억원의 예산으로 치러지는 가장 큰 규모의 축제이다. 자치구가 주관하는 상위 6개의 축제 중 단오한마당, 서울약령시 축제, 한성백제문화제 등은 전통과 역사를 주제로 한 전통 축제이다. 자치구 상위 6개 축제 중 시민의 화합이나 생활을 주제로 하는 축제는 은평구의 '2004 은평 사랑 한마음 축제'가 포함되어 있어 시민을 위한 축제개발이 더 요구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3-12] 서울시 축제 예산 순위

| 담당부서 | 축제명 | 예산 (천원) | 자치구 | 축제명 | 예산 (천원) |
|------|-----------------------|------------|------|--------------------|------------|
| 문화국 | Hi Seoul 페스티벌 | 1,712,907 | 중구 | 동대문 패션페스티벌 | 400,000 |
| 문화국 | 서울세계 불꽃축제 | 1,648,000 | 영등포구 | 단오한마당 | 395,710 |
| 문화국 | 서울국제공연 예술제 | 1,350,000 | 은평구 | 2004은평사랑 한마음 축제 | 344,127 |
| 문화국 | 세계통과의례 | 1,203,039 | 동대문구 | 서울약령시 축제 | 344,039 |
| 문화국 | 서울여성 영화제 | 976,000 | 송파구 | 한성백제 문화제 | 315,614 |
| 문화국 | 서울국제 미디어아트 비엔날레 | 962,050 | 성북구 | 아리랑축제 | 300,000 |

2) 유형별 축제 예산 현황

축제의 유형별로 예산 현황을 살펴보는 것 또한 예산 정책을 통하여 현 축제의 위치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방법이 된다. 축제의 유형별로 살펴볼 경우 서울시 축제 전체에 대하여 순수예술형 축제가 가장 많이 개최되고 있으나, 예산정책 현황 상 시민화합형 축제가 평균예산배정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이서울페스티

발과 같은 대규모 예산의 시민화합형 축제가 포함되어 있고, 전체 예산배정액 대비 축제의 수가 상이한 데서 나타난 결과이다.([표 3-13] 참조)

[표 3-13] 서울시 축제 전체의 유형별 예산 현황

| 구분 | 역사전통형 | 순수예술형 | 시민화합형 | 산업경제형 | 자연친화형 | 계 |
|----------|-----------|-----------|-----------|-----------|---------|------------|
| 예산총액(천원) | 4,848,654 | 5,791,648 | 7,768,212 | 1,383,500 | 926,659 | 20,718,673 |
| 평균예산액 | 124,324 | 125,905 | 189,469 | 106,423 | 154,443 | 700,565 |
| 평균순위 | 4 | 3 | 1 | 5 | 2 | - |

유형별 상위 3순위의 축제들의 예산평균액을 살펴보면, 시민화합형> 순수예술형> 역사전통형> 산업경제형> 자연친화형의 순위로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예산 현황을 통하여 살펴본 서울시 정부의 축제는 ‘공동체성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시민화합형 축제’에 초점을 두고 있는 축제 정책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

서울시 축제 중 시정부가 주관하는 축제의 유형별 예산순위를 살펴보면 [표 3-14]에서 볼 수 있듯이, 시민화합형 축제의 예산 배정이 가장 크다. 이는 하이서울 페스티벌 및 세계꽃축제와 같은 대형 시민화합 축제가 시민화합형 축제에 포함되어 있어 가장 큰 전체 예산 규모를 나타낸 것이다. 서울시 정부 축제의 유형별 전체 예산 현황을 보면, 시민화합형> 순수예술형>역사전통형>산업경제형>자연친화형의 순이다. 그러나 평균예산액을 보면, 순수예술형 축제가 축제당 예산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4] 서울시 정부 축제의 유형별 예산 현황

| 구분 | 역사전통형 | 순수예술형 | 시민화합형 | 산업경제형 | 자연친화형 | 계 |
|----------|-----------|-----------|-----------|---------|---------|------------|
| 예산총액(천원) | 2,890,514 | 4,845,158 | 5,863,688 | 677,500 | 580,000 | 14,856,860 |
| 평균예산액 | 222,347 | 605,645 | 325,760 | 169,375 | 290,000 | 1,613,127 |
| 평균순위 | 4 | 1 | 2 | 5 | 3 | - |

서울시 정부가 주관하는 축제들을 유형별로 나누어 예산규모 상위 3개 축제의 주무부서와 축제예산을 살펴본 결과, [표 3-15]에서와 같이 산업경제형 축제와 자연친화형 축제를 제외한 나머지 유형의 축제들은 문화국이 담당하고 있다.

[표 3-15] 서울시 정부 축제의 유형별 예산 순위

| 구분 | | 1순위 | 2순위 | 3순위 | |
|------------------|-----------|----------------------------|----------------------|-----------------------|---------|
| 역사 전통형 | 주관 | 문화국 | 문화국 | 문화국 | |
| | 축제명 | 연등축제 | 고종 명성후 가례 재현행사 | 증모대제 | |
| 순수 예술형 | 주관 | 문화국 | 문화국 | 문화국 | |
| | 축제명 | 서울국제공연 예술제 | 서울여성영화제 | 서울국제 미디어아트 비엔날레 | |
| 시민 화합형 | 주관 | 문화국 | 문화국 | 문화국 | |
| | 축제명 | Hi Seoul 페스티벌 | 서울세계 불꽃축제 | 세계통과의례 | |
| 산업 경제형 | 주관 | 산업국 | 복지 여성국 | 정보화 기획단 | |
| | 축제명 |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 션페스티벌(SICAF) | Hi Seoul 서울사랑음식축제 | Hi seoul e- 페스티벌 | |
| 자연 친화형 | 주관 | 홍보 기획관 | 공원복지 관리사업소 | - | |
| | 축제명 | 한강마라톤대회 | 월드컵공원 역새축제 | - | |
| 상위 3순위 유형별 예산평균액 | | | | | |
| 구분 | 역사전통형 | 순수예술형 | 시민화합형 | 산업경제형 | 자연친화형 |
| 총액 | 1,901,039 | 3,288,050 | 4,563,946 | 672,000 | 580,000 |
| 평균 | 633,680 | 1,096,017 | 1,521,315 | 224,000 | 193,333 |
| 순위 | 3 | 2 | 1 | 4 | 5 |

자치구 축제를 살펴보면, [표 3-16]에서 알 수 있듯이 축제 전체의 예산을 고려한 결과 자연친화형 축제가 가장 큰 예산 평균액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산총액은 역사전통형 축제와 시민화합형 축제가 가장 큰 규모이다. 두 유형에 해당하는 축제의 수가 많아서 예산평균액 순위가 낮아지게 된다.

[표 3-16] 자치구 축제의 유형별 예산 현황

| 구분 | 역사전통형 | 순수예술형 | 시민화합형 | 산업경제형 | 자연친화형 | 계 |
|----------|-----------|---------|-----------|---------|---------|-----------|
| 예산총액(천원) | 1,958,140 | 946,490 | 1,904,524 | 706,000 | 346,659 | 5,861,813 |
| 평균예산액 | 75,313 | 24,908 | 82,805 | 78,444 | 86,665 | 348,135 |
| 평균순위 | 4 | 5 | 2 | 3 | 1 | - |

유형별로 상위 3순위의 축제들을 살펴보면 [표 3-17]과 같다. 자치구 정부의 축제 유형 중 역사전통형 축제가 가장 높은 예산평균액을 보이며, 시민화합형 축제가 차순위의 예산평균액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순수예술형 축제는 전체 예산 총액에서는 최하위이며 상위 3순위의 예산평균액에서도 4순위를 차지해, 순수예술형 축제에 대한 예산 지원이 미비한 것을 알 수 있다. 상위 3순위의 유형별 예산평균액 순위로는 역사전통형 축제가 가장 높은 예산평균액을 보이는데, 이는 자치구에서는 해당 자치구의 역사문화적 자원을 발굴하고 활용하여 자치구의 차별적인 특성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축제들을 개최하고 있음으로 해석된다.

[표 3-17] 자치구 축제의 유형별 예산 순위

| 구분 | | 1순위 | 2순위 | 3순위 | |
|------------------|-----------|---------------------|-------------|---------------|---------|
| 역사 전통형 | 주관 | 영등포구 | 동대문구 | 송파구 | |
| | 축제명 | 단오한마당 | 서울 약령시 축제 | 한성백제 문화제 | |
| 순수 예술형 | 주관 | 용산구 | 관악구 | 금천구 | |
| | 축제명 | 토요일예술무대 | 청소년 음악축제 | 여름별밤 야외음악회 | |
| 시민 화합형 | 주관 | 은평구 | 성북구 | 은평구 | |
| | 축제명 | 2004 은평사랑 한마음 축제 | 아리랑 축제 | 은평 사랑 한마음축제 | |
| 산업 경제형 | 주관 | 중구 | 용산구 | 강남구 | |
| | 축제명 | 동대문 패션 페스티벌 | 이태원지구촌 축제 | 압구정 문화축제 | |
| 자연 친화형 | 주관 | 관악구 | 영등포구 | 광진구 | |
| | 축제명 | 관악산철쭉제 | 벚꽃축제 | 아차산 해맞이 축제 | |
| 상위 3순위 유형별 예산평균액 | | | | | |
| 구분 | 역사전통형 | 순수예술형 | 시민화합형 | 산업경제형 | 자연친화형 |
| 총액 | 1,055,363 | 351,000 | 907,127 | 650,000 | 306,659 |
| 평균 | 351,788 | 117,000 | 302,376 | 216,667 | 102,220 |
| 순위 | 1 | 4 | 2 | 3 | 5 |

3. 축제 관리 운영 정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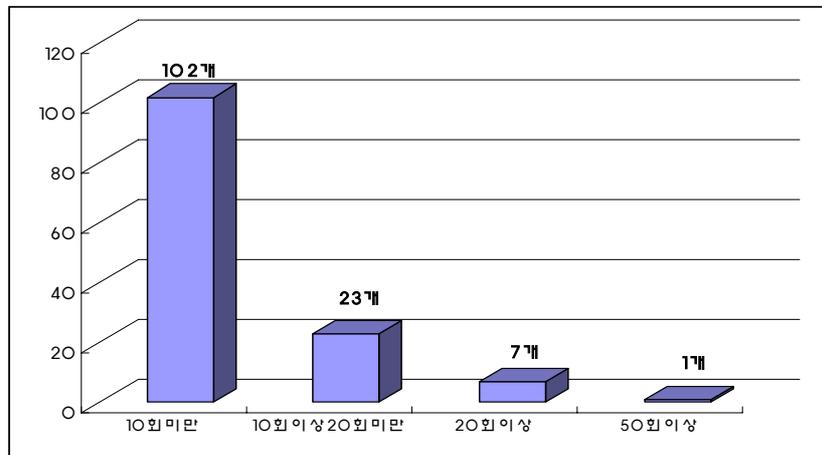
1) 축제 개최의 연속성

서울시와 자치구가 개최하는 축제 중 개최회수를 조사한 결과, 10회 미만의 축

제가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2004년도 기준으로 10회 미만의 역사를 지닌 축제가 102개로 전체(133개)의 76.7%를 차지하고 있다. 10회 이상 20회 미만의 축제가 23개로 차순위로 나타났다. 또한 20회 이상의 축제도 8개로, 종묘대제와 같은 역사적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행사나 보신각타종 행사(52회)와 같은 축제도 있다. 그러나 계절별 문화행사나 정기적인 시민축제 등의 몇 가지의 경우를 제외하고 연 1회 개최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한다면, 서울시 대부분의 축제는 10년이 안되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지속적인 관리와 장기적인 축제 발전 방안 등을 수립하여 축제의 정통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겠다.([표 3-18], [그림 3-14] 참조)

[표 3-18] 서울시 축제의 개최회수별 현황

| 개최회수 | 개수 |
|---------------|-----|
| 10회 미만 | 102 |
| 10회 이상 20회 미만 | 23 |
| 20회 이상 | 7 |
| 50회 이상 | 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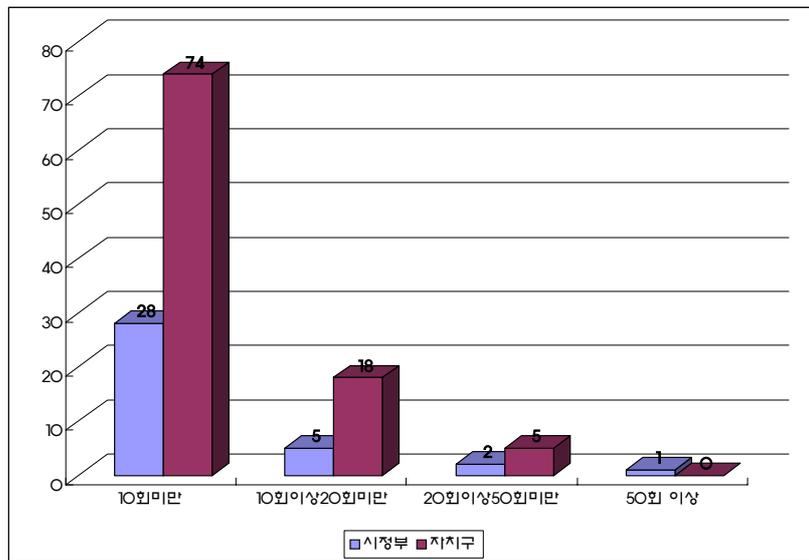


[그림 3-14] 개최회수별 축제 현황

좀 더 세분화 하여 살펴보면, 시정부와 자치구 모두 10회 미만으로 개최된 축제가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표 3-19] 참조) 그러나 자치구의 몇몇 축제들은 역사성과 전통성을 지닌 민속 문화행사나 제례에서 유래한 축제로서 비교적 상당한 개최회수를 나타내는 축제들도 있다. 따라서 지역마다 고유한 문화적 전통성을 지닌 행사들을 발굴하고 기존의 축제행사들을 보존하여 축제 자원으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그림 3-15] 참조)

[표 3-19] 개최회수별 시 정부 및 자치구 축제 현황

| 개최회수 | 시정부 | 자치구 |
|---------------|-----|-----|
| 10회 미만 | 28 | 74 |
| 10회 이상 20회 미만 | 5 | 18 |
| 20회 이상 50회 미만 | 2 | 5 |
| 50회 이상 | 1 | 0 |



[그림 3-15] 개최회수별 시 정부 및 자치구 축제 현황

2) 축제 관련 전문인력의 확보

축제관련 전문인력이 부족한 것도 축제 관리운영상의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서울시 공무원 인사 원칙이 순환보직 위주이기 때문에 축제 및 문화행사와 관련하여 전문성을 지닌 인력 확보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는 축제 부실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공무원과 문화예술 전문인은 역할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분하지 아니함으로써 업무 시 혼선과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시의 각종 문화행사시 일부 명망 있는 문화예술인 위주의 공연기획가를 선발 연출을 전담케 함으로써 전국의 다른 행사와의 차별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렇게 매년 다른 연출가나 이벤트를 선발함으로써 내부 전문인력 육성이 어렵고, 공연의 기본개념이 매년 달라지는 등 축제의 주제가 일관성이 없는 종합 축제화되어 특성있는 서울의 대표축제 육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이승균, 2004)

3) 시민의 축제 참여 관리

서울시의 축제에 대해 시민이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으며, 축제에 참여하는가 역시 축제 관리 및 운영 정책에서 주요한 부분이다.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개최하는 축제에 관한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2)의 연구 결과, 참여하여 경험했던 축제가 지니는 문제점으로 시민참여부족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다.([표 3-19] 참조)

[표 3-20] 참여 축제 문제점(복수응답)

| 응답 | 사례수 | 시민참여 부족 | 홍보의 부족 | 축제시설과 환경 미비 | 교통의 불편 | 프로그램 부실 | 관주도의 일방적 운영 | 지나친 상업성 | 기타 |
|----|------|---------|--------|-------------|--------|---------|-------------|---------|-----|
| 전체 | (82) | 41.6 | 39.0 | 37.0 | 24.9 | 23.1 | 15.4 | 13.0 | 3.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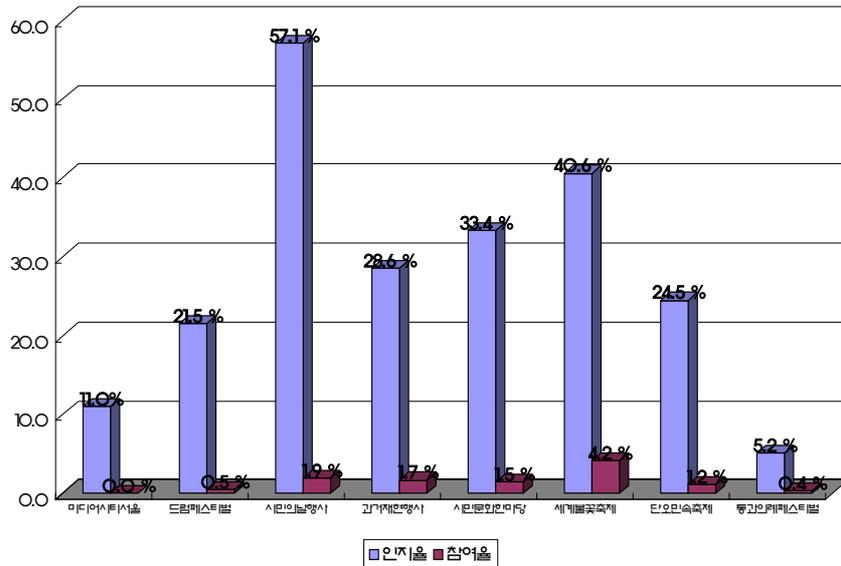
자료 :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2), 「서울시민의 문화욕구 및 향유실태 조사」, p.88.

또한, 서울시에서 개최하고 있는 축제의 인지율과 참여율은 [표 3-21]에서 보이는 것처럼 아주 낮았다.

[표 3-21] 주요 축제 인지율과 참여율

단위 : %(명)

| 구분 | 인지율 | 참여율 | |
|-----------|------------|------|-----|
| 서울시 축제 | 미디어시티서울 | 11.0 | - |
| | 서울드림페스티벌 | 21.5 | 0.5 |
| | 서울시민의 날 행사 | 57.1 | 1.9 |
| | 조선조과거재현행사 | 28.6 | 1.7 |
| | 시민문화한마당 | 33.4 | 1.5 |
| | 서울세계불꽃축제 | 40.6 | 4.2 |
| | 서울단오민속축제 | 24.5 | 1.2 |
| | 서울동과의레페스티벌 | 5.2 | 0.4 |
| 모든 행사 비인지 | 23.9 | - | |



[그림 3-16] 주요축제의 인지율과 참여율

응답자 중 위의 서울시 축제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관한 인지율에서는 서울시민의 날 행사(현 하이서울페스티벌)가 가장 높은 인지율을 보이며, 위의 8개 축제를 전혀 모르고 있는 비율도 23.9%나 되었다. 축제를 실제로 참여했는지에 관한 질문에서는 서울세계불꽃축제가 가장 많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수가 워낙 적어서 실제적으로 당시에 축제에 대한 서울시민의 참여율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

다.([그림 3-16] 참조) 이는 축제의 홍보 부족과 프로그램의 흡인적 요소 부족 및 시민들의 미흡한 축제 의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으며, 현재 축제 참여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서울시 축제에 대한 시민 참여의 면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4) 축제 대행사 선발

축제의 관리운영과 관련된 또 다른 문제점은 축제대행사 선발의 문제이다. 축제를 주관할 행사 대행사 선정은 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기본적인 전제조건과도 같다. 행사대행업체 선정을 위하여 관계전문가 및 공무원 위주로 심사선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제 대행사 선발 시스템은 아래와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민간 심사위원은 주로 문화계, 학계, 시민단체가 지명도 높은 사회인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축제의 주된 참가대상인 축제 자원봉사자나 지역주민대표는 소외되어 왔다. 이들의 참여는 행정편의주의나 사회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단체로 인해 출발단계부터 소외되어 왔다.(이승균, 2004) 전문적인 내용을 축제 프로그램으로 구성하는 예술형 축제나 전통형 축제들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축제의 내용을 진행하는 대행사를 선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시민의 화합이나 일상공간의 자연환경 자원을 활용하는 축제들의 경우에는 축제 진행을 위한 전문적인 기획력을 심사하는 것 이외의 부분들, 예를 들자면 축제의 목적에 얼마나 부합하는 축제의 내용과 진행 일정을 가지고 세부 진행계획을 구성했는지에 관한 항목들에 대해서는 시민단체나 해당 지역의 주민 대표들이 심사에 참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시의원들의 심사위원회 참여도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분리하여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하는 제도상의 취지를 제대로 실현시키지 못하고, 집행단계에서부터 참여하여 대행사 선발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상호 평가 시 견제기능의 약화를 초래하는 문제점도 제기된다.([표 3-22] 참조)

[표 3-22] 과거시험 재현 주관 대행사 선정 심사위원회

| 구분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
| 계 | 7인 | 7인 | 7인 | 7인 | 7인 |
| 학계 | 중앙대, 이화여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 성균관대, 시립대, 중앙대 | 시립대, 성균관대 | 시립대 | 고려대 |
| 언론계 | 세계일보 논설위원 | - | - | 전 서울신문논설위원 | 전 서울신문논설위원 |
| 문화계 | 문화정책 개발연구원 | 문화정책 개발연구원 | 세종문화회 관, 의례전문가 | 세종문화회관, 의례전문가, 시문화재위원 | 연출가, 의례전문가 |
| 시의회 | - | 문교보사위원 | 문교보사위 원 | 문교보사위원 | 문교보사위원 |
| 공무원 | 서울시 문화과장 | 서울시 문화과장 | - | - | - |
| 기타 | - | 관광공사 | 관광진흥위 원, 창경궁 관리소장 | 관광공사 | 관광공사, 창경궁관리소장 |

자료출처 : 이승균, 2004, 지역축제의 행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서울시 시정연구논문

4. 축제 평가 정책 현황

축제의 개최 후 축제 전반에 대한 평가는 축제의 장기적인 발전과 운영을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된다. 서울시 축제 중 문화과에서 주최하는 축제들은 대부분 외부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서울시 문화과에서 주최하는 축제들은 관광과와 같은 대학의 관련학과 및 전문가 단체에 의뢰한 의탁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정식으로 축제 평가를 의뢰한 경우를 포함하여 총 6 개의 축제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차후의 발전방향에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문화관광부가 문화연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각 지역축제 평가 자료 중 서울시 축제 관련 부분을 활용하며 대학의 자발적인 평가자료 역시 서울시 축제 평가 정책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서울의 대표축제인 하이서울페스티벌의 평가를 위하여서는 1차와 2차에 걸친 워크숍을 실시하여 입체적인 축제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1차 워크숍에서는 축제 총감독 등 실제 축제 담당자들이 자체적으로 내부평가를 실시하는 형식이고 2차 위

크샵에서는 정식평가기관 및 담당자와 문화관광부 평가기관, 그리고 자체평가 단체가 모두 참석하여 외부평가의 일환으로 하이서울페스티벌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이는 내부평가와 외부평가를 동시에 실시하면서도 내부평가를 통한 문제점을 진단한 뒤 외부평가를 실시하는 바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입체적으로 평가를 운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또한 서울시의 대표축제 중 하나인 서울드림페스티벌 역시 외부평가를 실시하여 축제 전반에 대한 강점과 약점, 그리고 개선방안 등을 강구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축제 평가의 대부분이 참여자 규모 조사 및 예산감독, 참여자 대상 설문 등을 통한 만족도 조사 등 양적 평가에 머무르고 있어 질적으로 축제에 대한 의견조사 및 운영에 관한 평가 등은 미비한 실정이다. 축제에 대한 평가는 축제의 외형적 특성에 관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축제 내용 전반에 대한 타당성 평가와 축제의 중심적 테마와의 조화성, 주민참여의 실태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야 한다. 이는 축제의 장기적인 비전 수립과 더불어 세부 프로그램의 설정과 주민참여의 증진 등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축제의 평가는 축제가 진행되는 기간에만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축제 준비단계와 축제 사후단계에 까지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축제 준비단계에서는 기획의 축제지원현황에 관한 평가와 조직에 대한 타당성 평가 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사후단계에서는 축제 전반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 및 제도적인 문제점과 예산 집행의 균형성, 축제조직의 효율성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야 한다.

제Ⅳ장 서울형 축제분석

제1절 서울형 축제 정의

제2절 서울형 축제 평가

제3절 서울형 축제 분석

제1절 서울형 축제 정의

1. 서울형 축제 컨셉

서울형 축제는 서울의 정체성, 즉 ‘서울성’(Seoulity)과 축제의 정체성, 즉 ‘축제성(Festivity)’이 결합된 축제로서, 한마디로 **서울의 성격을 잘 반영하면서 서울을 대표하는 축제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축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서울형 축제를 선정하기에 앞서, 먼저 서울성과 축제성은 다음과 같이 규정할 수 있다.

1) 서울성

지금까지 진행된 서울성에 대한 논의를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60년대 영화에서는 ‘서울은 만원이다’라는 이미지가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이미지는 1970년대의 영화 ‘영자의 전성시대’에서도 여전히 남아있어, ‘숨가쁘고 혼잡하고 삭막한 도시 서울’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부정적인 이미지들은 1980년대의 영화⁶⁾에서나 1990년에 서울에 관하여 논한 출판물⁷⁾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1993년 서울의 이미지에 관한 서울시 시민여론조사(‘서울을 사랑하십니까?’)에서는 서울의 이미지로, 색깔로는 회색(50%) > 파란색(11%) > 검정색(9%), 계절로는

6) 영화 ‘바보선언’, ‘고래사냥’ : 괴물같은 근대화 도시 서울

7) 도서 「서울성과 역사성」, 김진애, 1990 : 도대체 남아있는게 없고 살릴 것이 없다/모든 것이 너무나 빠르고 새롭고 거대하다

겨울(31%) > 가을(28%)으로 조사되었다. 서울의 별명으로는 회색도시(7%) > 교통지옥(4%) > 인간시장(3%) > 무질서(2%) > 안개도시(2%) 순이었으며, 서울에서 가장 보존해야 할 것은 자연(41%) > 문화유산(35%)으로 조사되었다. 서울의 가장 큰 문제는 교통(35%) > 환경오염(34%) > 인구문제(8%)로 나타나 교통과 환경, 인구 등에 대한 이미지가 서울성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서울에 대한 이미지, 서울성을 파악하기 위한 여론 조사는 2000년에도 실시되었다. 수도권 거주 대학생 157명을 대상으로 하여 서울의 이미지와 랜드마크를 설문 조사한 결과 총 51개의 이미지와 총 34개 랜드마크가 조사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서울의 이미지는 복잡하다(25%), 답답하다(25%) > 분주하다(6%) > 시끄럽다(4%), 혼란스럽다(4%), 지저분하다(4%), 혼탁하다(4%) > 어지럽다(3%) 순([표 4-1])으로 나타나, 부정적 이미지의 비중이 큰 상태에서 긍정적인 이미지와 부정적인 이미지의 혼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서울의 이미지가 기존보다 다양해졌음을 반영하는 것이며, 동시에 다양성 자체가 서울의 이미지라고 말 할 수 있다. 따라서 긍정적인 이미지의 강화와 부정적 이미지의 대체가 서울성을 제고하는데 있어서의 과제이다. 특히 부정적 이미지의 대부분이 공간환경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임으로, 공간환경을 문화적으로 조성하는 것과 동시에 정서적으로 풍요한 커뮤니티를 창출하는 것이 긍정적인 서울성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표 4-1] 서울의 이미지(2000년)

| 구분 | 긍정 | 중립 | 부정 |
|----|---|--|---|
| 구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의 수도 ·이쁜 여자들 ·잘 꾸며진 가로수와 공원 ·변화가 ·운택한 환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높고 뻣뻣한 ·고층건물 ·공사중 건물 ·밀집된 건물들 ·사람많은 거리 ·지하철 ·패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표정한 사람들 ·무질서한 건물들 ·오염된 환경 ·중심부만 잘 꾸며져 있다 ·지하철의 혼잡한 사람들 |
| 추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하다 ·밝다 ·생동감있다, ·활동적이다 ·넓다 ·세련되다, 유행 선도 ·도시 ·재미있다, 즐겁다 ·깨끗하다 ·볼거리가 많다 ·질서, 체계적이다 ·자유롭다 ·편리하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주하다 ·최고와 최저의 혼재 ·평범한 곳 ·화려하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잡하다 ·답답하다, 갑갑하다 ·혼잡하다, 어지럽다, ·현란하다 ·더럽다, 혼탁하다, ·회색도시 ·시끄럽다 ·차갑다 ·딱딱하다, 삭막하다, ·목마름 ·방황 ·쓸쓸하다, 외롭다 ·늘립다 |

서울의 랜드마크로는 63빌딩이 전체 답변의 16%를 차지해 가장 상징적인 건물로 나타났으며, 남산타워(12%) > 한강(7%) > 남대문(6%) > 경복궁(5%) > 한강고수부지(4%), 국회의사당(4%), 잠실주경기장(4%), 남산(4%), 여의도(4%) > 청와대(3%), 명동(3%), 동대문시장(3%), 남대문시장(3%) > 동대문(2%), 롯데월드(2%), 서울역(2%), 강남(2%) > 광화문, 동대문운동장, 달동네, 봉천동, 이태원, 서울시로고, 서울톨게이트, 압구정동, 잠실, 지하철, 종로, 한강변아파트들, 아파트, 여의도공원, 도로 야경, 인 서울 톨게이트(이상 각 1%) 순으로 나타났다.([표 4-2]) 서울의 랜드마크는 전통적인 요소와 현대적인 요소가 공존하면서, 강북에는 전통적 요소가 강남에는 현대적 요소가 강하게 부각되고 있다. 특히 한강, 남산 등 자연적 요소와 고궁, 남대문, 재래시장 등 전통문화적 요소, 63빌딩, 명동, 동대문시장 등 산업경제적 요소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문화예술시설물의 랜드마크는 부재한 상황이며, 또한 서울의 이미지와 랜드마크가 불일치하고 있어, 그만큼 서울의 정체성이 랜드마크적인 측면에서 부재함을 알 수 있다.

[표 4-2] 서울의 랜드마크(2000년)

| 구분 | 강북 | 강남 | 기타 |
|----|--|---|---|
| 전통 | ·고궁/경복궁 ·광화문 ·남대문 ·남대문시장 ·동대문 ·서울역 ·남산 | ·봉천동 | ·달동네 ·한강, 한강고수부지 |
| 현대 | ·남산타워 ·동대문시장 ·동대문운동장 ·명동 ·이태원 ·종로거리 ·청와대 | ·강남, 압구정동 ·국회의사당 ·롯데월드, 잠실 ·63빌딩 ·여의도, 여의도공원 ·잠실주경기장 | ·한강시민공원 ·고층빌딩 ·서울시 로고 ·인서울 톨게이트 ·아파트, 한강변 아파트 ·도로 야경 ·지하철 |

긍정적 이미지와 부정적 이미지가 혼재되어 있던 서울성은 2001년 서울시가 2002 월드컵 개최를 위한 홍보전략 수립을 위하여 실시한 설문조사⁸⁾ 결과, 서울의 이미지를 한마디로 “다양하고 역동적인 삶이 숨쉬는 도시”로 규정하고 있다.

[표 4-3] 서울의 이미지(2001년)

| 구분 | 대표이미지 | 세부이미지 |
|----|-------------------|---|
| 긍정 | ·역동성 | ·한국의 중심지, 발전적, 활력, 활기참 ·다양한 문화활동, 분주, 에너지 |
| | ·다양성 | ·다양한 계층 공존, 다양한 음식문화 ·다양한 종교, 현대와 전통의 공존 ·동서양문화의 공존 |
| | ·공존성(전통과 현대) | ·현대적 건물, 역사가 깊은 도시 ·첨단도시, 문화유산이 많은 도시 |
| | ·자연성 | ·뚜렷한 4계절, 산이 많은 서울 ·아름다운 한강 |
| 부정 | ·복지시설과 행정서비스 미비 | - |
| | ·환경친화적이지 못한 도시 | ·환경오염, 복잡함, 지저분한 거리 |
| | ·안전하지 못한 도시 | ·무질서한 교통 |
| | ·삶의 질이 보장되지 않는 도시 | ·심심한 주말 |
| | ·자유와 평화 | ·세계유일 분단국가의 수도, 한국전쟁 |
| | ·변화성 | ·급속한 변화, 여유가 없다 |

8) 2001, 서울시, 「2002년 월드컵 계기 서울홍보전략 연구」

즉 동적인 이미지의 역동성과 정적인 이미지의 다양성이 서울의 대표이미지로 나타났다.([표 4-3]) 서울의 이미지에 대한 이와 같은 변화는 2002년 서울시정개발 연구원의 외국인 대상 설문조사⁹⁾ 결과, 친절하고 활기찬 시민(26%) > 급성장한 한국의 수도(18%) > 음식이 맛있는 아름답고 재미있는 도시(16%) > 독특한 문화를 가진 친근한 도시(14%) > 혼잡하고 오염된 도시(12%) > 거리가 깨끗한 도시(9%) > 월드컵과 붉은 악마의 도시(5%) > 생소하고 불안한 미지의 도시(1%)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긍정적으로 전향되었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 실시한 설문조사 중 2003년에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서울의 공간 환경 중 상징적인 공간에 대하여 설문 조사¹⁰⁾를 실시한 결과, 한강 및 한강시민공원이 전체 응답의 60%를 차지해 서울의 대표적인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남산·인왕산·북한산(30%) > 고궁·종묘(26%) > 남대문시장·동대문시장(19%) > 월드컵경기장(15%) > 63빌딩(10%), 인사동(10%) > 시청앞광장(9%) > 삼성동·코엑스몰·아셈타워(6%) > 남산한옥마을(5%) > 패션거리(4%) > 이태원(1%), 홍대앞클럽(1%) 순으로 나타났다.([표 4-4]) 따라서 한강과 남산을 비롯한 자연적 요소와 고궁, 재래시장 등의 전통문화적 요소의 비중이 크고, 월드컵경기장, 시청앞광장, 코엑스몰, 홍대앞 클럽 등 새롭게 형성된 공간과 문화시설이 랜드마크로 부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9) 2002,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2FIFA 월드컵기간 중 서울방문 외국인 대상 설문조사결과보고서」, 월드컵 서울방문 외국인(9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울의 이미지 조사

10) 2003,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형 서베이시스템 구축」, 서울시민(4만7천여명) 대상 서울상징공간 조사

[표 4-4] 서울의 랜드마크(2001/2003년)

| 구분 | 강북 | 강남 | 기타 |
|----|--|--|---|
| 전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궁/경복궁, 종묘 ·광화문 ·남대문 ·남대문시장 ·동대문 ·인사동 ·서울역 남산, 인왕산, 북한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봉천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달동네 ·한강, 한강고수부지 |
| 현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산타워 ·동대문시장 ·동대문운동장 ·명동 ·이태원 ·종로거리 ·청와대 ·월드컵경기장 ·시청앞광장 ·홍대앞 클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남, 압구정동 ·국회의사당 ·롯데월드, 잠실 ·63빌딩 ·여의도, 여의도공원 ·잠실주경기장 ·삼성동 ·코엑스몰, 아셈타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강시민공원 ·고층빌딩 ·서울시 로고 ·인서울 톨게이트 ·아파트, 한강변 아파트 ·도로 야경 ·지하철 |

한편, 1995년에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실시한 「서울 도시문화 발전방안」 연구에서는 서울의 위상과 역할을 세계도시로서 서울 및 지역사회로서 서울로 규정하고, 지리적 차원에서 서울은 세계도시(국제성), 수도(전국성), 수도권 중심(광역성), 지자체(장소성)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으며, 시간적 차원에서는 서울은 정도 600년의 도읍지로서 역사성과 최첨단 현대도시문화의중심으로서 현대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사회문화적 차원에서의 서울은 공간과 사회적 인적 구성, 라이프스타일에 있어서 다양성을 지니고 있으며 공간환경적 차원에서는 전통과 현대의 공존과 시공간 변화의 가속화 등 역동성을 지닌다고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서울의 정체성, 즉 서울성을 요약하면 [표 4-5]와 같다. 서울형 축제는 이러한 서울성의 긍정적인 측면을 발전시키고, 부정적인 측면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서울의 문화정체성을 구현하는 축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표 4-5] 서울성(Seoul Identity) 종합

| 서울성 | | 특징 |
|-------------|-----|--|
| 지리적 차원 | 국제성 | 세계도시로서 서울 |
| | 전국성 | 수도로서 서울 |
| | 광역성 | 수도권의 중심으로서 서울 |
| | 장소성 | 지역사회로서 서울, 25개 자치구 포함 다양한 장소성 |
| 시간적 차원 | 역사성 | 정도 600년의 도읍지 서울 |
| | 현대성 | 최첨단 현대도시문화의 중심, 세련됨, 편리함, 화려함 |
| | 고속성 | 빨리빨리 사회, 압축적 근대화, 분주함과 생동감 |
| 사회문화적 차원 | 다양성 | 공간적 다양성, 사회구성과 라이프스타일의 다양성, 즐거움, 재미, 볼거리, 혼잡함 |
| | 소외성 | 쓸쓸함, 외로움, 방황 |
| | 역동성 | 전통과 현대의 공존, 시공간 변화의 가속화, 생동감, 자유로움, 어지러움, 시끄러움 |
| 공간환경적 차원 | 고밀성 | 초고밀도 도시, 복잡하고 답답함, 만원 서울 |
| | 거대성 | 삭막함, 딱딱함 |

그런 의미에서 서울성을 토대로 지리적·시간적·공간문화적·공간환경적 차원에서 서울형 축제의 발전 방향을 정립해보면 [표 4-6]에서와 같이, ‘지리적 차원’에서는 세계도시 서울로서 국제성 강화, 국토 전체의 균형적 문화발전을 위한 전국성 강화, 수도권 문화발전을 위한 광역성 강화, 지방도시로서 서울문화의 내실을 위한 장소성 강화 등을 달성할 수 있는 축제를 발전시킨다. ‘시간적 차원’에서는 정도 600년 서울의 역사성을 살리고, 새롭게 부상하는 현대문화를 적극 수용하며, 삶의 여유를 빼앗아가는 급속한 변화를 억제할 수 있는 축제를 발전시키며, ‘사회문화적 차원’에서는 문화적 다양성을 확대시키고, 역동적인 참여프로세스를 구축하며, 문화소외를 극복할 수 있는 축제를 발전시킨다. 마지막으로 ‘공간환경적 차원’에서는 고밀성과 거대성이 주는 부정적인 측면을 극복할 수 있는 공간환경의 문화와 축제와 생활문화환경 조성 축제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표 4-6] 서울성을 토대로 한 서울형 축제 발전방향

| 서울성 | | 서울형 축제 발전 방향 |
|-------------|-----------|---|
| 지리적 차원 | 국제성 | 세계문화도시로서 정체성 제고 및 세계문화교류를 확대하는 축제 서울 대표이미지와 랜드마크가 되는 축제 중앙정부와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축제 |
| | 전국성 | 전국의 문화균형발전을 위한 문화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는 축제 중앙정부, 시민단체와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축제 |
| | 장소성 | 서울내의 장소성 개발 및 생활 속 문화환경을 조성하는 축제 자치구, 주민단체와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축제 |
| 시간적 차원 | 역사성 | 역사성을 현대적으로 회복하는 축제 도시문화유산의 친밀성을 회복하는 축제 |
| | 현대성 | 첨단기술을 문화적으로 활용하는 축제 사이버공간을 활용하는 축제 비주류문화축제, 대안문화축제 |
| 사회문화적 차원 | 다양성 | 시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는 축제 생활 속 문화예술활동을 활성화하는 축제 소수문화축제, 하위문화축제 |
| | 역동성 | 시민참여와 합의를 이루는 축제, 문화거버넌스를 이루는 축제 |
| 공간환경적 차원 | 거리 이용성 | 공간환경을 문화화하는 축제 공공공간을 활용한 거리축제 |
| | 일상 공간성 | 생활공간을 문화·생태공간화하는 축제 |

2) 축제성

‘축제다움’을 의미하는 축제의 정체성, 즉 ‘축제성’은 제1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크게 여섯가지 속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속성들을 최대한 발전시킬 수 있는 축제가 되어야 한다([표 4-7]).

[표 4-7] 축제성을 토대로 한 서울형 축제 발전방향

| 축제성 | | 서울형 축제 발전 방향 |
|-----|--------------------|--|
| 의례성 | 기원성 제의성 종교성 | -개인 혹은 집단의 소망과 염원을 표출하는 장 -개·폐막식 등의 의식(儀式) 및 소망기원, 물입 |
| 집단성 | 대동성 공동체성 사회성 | -생활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축제공간을 창출. 능동적인 참여를 통한 화합과 단결 -시민 개개인의 개성과 다양성 생성 및 공유를 통한 사회적 효과 |
| 장소성 | 현장성 지역성 역사성 | -공통된 이해관계를 지닌 주체들에 의해 그들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특정장소 및 현장에서 개최 |
| 유희성 | 오락성 신명성 놀이성 | -다양한 형태의 볼거리·놀거리·즐길거리가 존재 -즐거움과 재미 제공 |
| 일탈성 | 전도성 성찰성 심미성 | -일상적인 삶의 틀에서 잠시 벗어나, 억눌린 욕망과 정서를 풀어헤치는 일탈과 전도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일탈성 -일상에 대한 재음미와 성찰의 계기 |
| 창조성 | 상상성 신화성 신성성 | -꿈과 상상력을 펼치는 창조적 세계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미래지향적 가치실험의 장 |

먼저, ‘의례성·기원성·제의성·종교성’이다. 축제는 무언가 바라고 소망하고 기원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축제의 목적이 뚜렷해야 한다.

둘째로, ‘집단성·대동성·공동체성·사회성’이다. 축제는 참여자의 개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민주적 절차에 의해 구성원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면서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축제의 운영이 투명하고, 축제 조직이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

셋째로, ‘장소성·현장성·역사성·지역성’이다. 축제는 특정한 지역이나 장소를 기반으로 생활공동체를 꾸려온 지역주체들이 특정한 공간을 매개로 함께 만들어간다. 그런 의미에서 축제는 그 장소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성들을 지녀야 한다.

넷째로, ‘유희성·오락성·신명성·놀이성’이다. 축제는 즐겁고 재밌어야 하고, 즉흥적이며 일탈적인 체험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축제 프로그램이 참여자를 몰입하여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다섯째로, ‘일탈성·진도성·성찰성·심미성’이다. 축제는 일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체험을 주어야 하고, 일상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축제는 억눌리고 잠재된 욕망을 적극적으로 표출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창조성·상상성·신화성·신성성’이다. 축제는 꿈과 상상력을 펼치는 창조의 세계이기 때문에, 현실세계에서 꿈꾸는 다양한 실험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상상력과 창의력을 자극하는 다양한 테크놀로지를 활용해야 한다.

2. 서울형 축제 평가지표(SFAI, Seoul Festival Assessment Index) 개발

앞에서 살펴본 서울성과 축제성을 토대로 서울형 축제에 대한 평가지표(일명, 스파이 SFAI)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SFAI는 크게 서울성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가 하는 ‘서울성 평가지표(SAI)’와 축제성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가 하는 ‘축제성 평가지표(FAI)’로 구성된다.

SAI의 경우는, 12개의 서울성 요소 중에서, 고속성과 소외성은 부정적인 요소이기도 하고, 다른 지표를 통해 그것을 완화하는 방안을 평가할 수 있어 제외하였고, 공간환경적 차원의 고밀성과 거대성은 축제 발전 방향에 맞추어 각각 ‘거리성’과 ‘생활성’으로 변경하였다. 따라서 SAI는 4가지 차원(지리적, 시간적, 사회문화적, 공간환경적)과 10개의 지표(국제성, 전국성, 광역성, 장소성, 역사성, 현대성, 다양성, 역동성, 거리성, 생활성)로 구성되어 있다([표 4-8] 참조).

[표 4-8] 서울형 축제 평가지표(I): 서울성 평가지표(SAI)

| 서울성 | | 서울형 축제 발전 방향 |
|-------------|------------------------------|---|
| 지리적 차원 | 국제성 |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 |
| | | 국내외 외국인과 함께 만들거나 즐기는 교류프로그램 존재 여부 |
| | | 중앙정부 및 시민단체 차원의 지원 여부 |
| | 전국성 | 전국의 문화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잠재력 |
| | | 서울 이외 지역과 함께 만들거나 즐기는 교류프로그램 존재 여부 |
| | | 서울 이외 지방정부 및 시민단체 차원의 지원 여부 |
| 장소성 | 서울 내 특정 지역의 장소성 반영 여부 | |
| | 축제 프로그램과 시민들의 일상생활과의 밀접한 관련성 | |
| | 자치구 및 주민단체 차원의 지원 여부 | |
| 시간적 차원 | 역사성 | 서울의 역사적 콘텐츠 활용 여부 |
| | | 역사적 요소의 현대적 재구성 여부 |
| | | 문화유산으로서의 발전 잠재력 |
| | 현대성 | 서울의 현대적 콘텐츠의 활용 여부 |
| | | 첨단기술의 문화적 활용 여부 |
| | | 사이버공간의 활용 여부 |
| 사회문화적 차원 | 다양성 |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향수 욕구 충족에 대한 기여도 |
| | | 문화소외계층을 타겟으로 한 프로그램 존재 여부 |
| | | 비주류 문화, 소수문화, 언더그라운드 문화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 |
| | 역동성 |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의사 반영 달성 여부 |
| | | 축제발전을 위한 정부 및 민간단체와의 협의 채널 존재 여부 |
| | | 축제 평가를 통한 문제점 보완 여부 |
| 공간환경적 차원 | 거리 이용성 | 축제 장소로서 거리나 광장 등의 공공공간의 활용도 |
| | | 거리퍼레이드의 효과적 수행 여부 |
| | | 거리 이미지 및 거리문화환경의 변화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도 |
| | 일상 공간성 | 축제의 장소로서 시민의 일상생활공간의 활용도 |
| | | 일상생활공간의 문화적인 공간화 기여도 |
| | | 시민들의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축제의 시간, 장소, 프로그램 배치의 적절성 |

FAI의 경우는 6가지의 축제성 요소를 그대로 활용하여, 6개의 지표(의례성, 집단성, 장소성, 유희성, 일탈성, 창조성)로 구성되어 있다([표 4-9] 참조).

[표 4-9] 서울형 축제 평가지표(II): 축제성 평가지표(FAI)

| 지표 | 세부지표 |
|-----|----------------------------------|
| 의례성 | 축제 개최 목적의 명확성 |
| | 참가자들의 축제를 통한 소망 및 기원하는 바의 명확성 |
| | 참가자들의 소망 기원 프로그램의 존재 여부 |
| 집단성 | 축제 구성원들의 능동적, 자발적 참여도 |
| | 축제의 기획, 운영, 평가 과정에의 구성원 참여도 |
| | 축제 주최자와 참가자들의 집단적인 축제 즐길 정도 |
| 장소성 | 축제 개최 장소의 고유성 및 역사성 소유 여부 |
| | 축제를 즐기고 체험을 하기 위한 축제 공간 설정의 적절성 |
| | 축제 공간과 개최주체들의 삶의 현장과의 관련성 |
| 유희성 | 축제 프로그램의 즐거움과 재미 및 흥미 유발 여부 |
| | 축제 참가자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적 요소 존재 여부 |
| | 기획되지 않은 즉흥적인 연행과 사건의 존재 여부 |
| 일탈성 | 일상에서 접할 수 없는 새로운 체험의 기회 제공 여부 |
| | 일상생활에서의 억눌림을 표출하는 해방감 유발 효과 |
| |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성찰의 기회 제공 여부 |
| 창조성 | 다양한 실험과 도전 시도의 여부 |
| | 첨단기술과 테크놀로지의 적절한 활용도 |
| | 축제참가자들에게 새로운 꿈과 상상력을 고무시키는 정도 |

SFAI의 각 유형별 구분과 중요지표의 설정은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한 중요도 분석을 통해 설정하고자 한다.

제2절 서울형 축제 평가

1. 서울형 축제 후보 축제의 선정

이상에서 살펴본 서울형 축제 평가지표를 활용해, 현재 서울시에서 개최되고 있는 145개 축제(서울시가 주관하고 있는 45개 축제와 자치구 주관 100개 축제)를 대상으로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해, 서울형 축제를 선정하고자 한다. 설문조사는 다음 절에서 살펴 볼 I-P(중요도·성취도) 분석을 통해, 집중적으로 육성·지원할 필요성이 있거나 현상유지를 위한 지원이 필요한 축제를 선정하여, 각 축제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 평가 및 분석이 이루어질 것이다.

후보 축제 선정을 위해 서울시가 조사한 전체 145개의 축제를 대상으로 연구진의 주관에 의해 71개 축제(서울시정부가 주최하는 축제 22개 및 자치구가 주최하는 축제 49개)를 1차 선정하였다. 1차 선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i) 1회 이상 개최된 축제
- ii) 특정 주제 및 소재를 지니고 있는 축제
- iii) 역사적으로 오래된 축제의 유래를 가지고 있거나 차별적인 장소성을 지닌 축제
- iv) 축제개최 목적이 분명한 축제

그러나 진정한 축제다움을 지닌 서울시를 대표하는 ‘서울형 축제’로 규정하고 발전방안을 마련하기에는 무리가 있는바, 축제 전문가들이 2차로 후보 축제를 선정하도록 하였다. 서울형 축제의 2차 선별을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참여자주도형 축제 혹은 참여자주도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축제
- 축제 개최의 목적이 분명한 축제
- 서울시나 해당 지역의 성격을 반영하고 있거나 반영할 가능성이 있는 축제

축제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2차 선정에서는 총 35개의 축제가 ‘서울형 축제’의 후보 축제로 선정되었다. 전문가들이 부여한 점수의 평균값은 5점 척도를 기준으로 1.9점이었다. 전문가 설문을 통하여 후보 축제로 선정된 축제는 다음과 같다.([표 4-10] 참조)

[표4-10] 서울형 축제 평가 후보 축제

| 연번 | 주최 | 축제명 | 평균 |
|----|-----------|----------------|-----|
| 1 | 동대문구 | 서울약령시축제 | 4.6 |
| 2 | 송파구 | 한성백제문화제 | 4.6 |
| 3 | 종로구 | 인사전통문화축제 | 4.2 |
| 4 | 영등포구 | 여의도 벚꽃축제 | 4.2 |
| 5 | 문화국 | 종묘대제 | 3.8 |
| 6 | 중구 | 명동축제 | 3.8 |
| 7 | 동대문구 | 신능제향 | 3.8 |
| 8 | 마포구 | 홍대거리미술전 | 3.8 |
| 9 | 문화국 | 연등축제 | 3.6 |
| 10 | 문화국 | 서울국제공연예술제 | 3.6 |
| 11 | 문화국 | 서울드림페스티벌 | 3.6 |
| 12 | 용산구 | 이태원지구촌축제 | 3.6 |
| 13 | 마포구 | 서울프린지페스티벌 | 3.6 |
| 14 | 강동구 | 강동선사문화축제 | 3.6 |
| 15 | 문화국 | 조선조과거재현 | 3.4 |
| 16 | 송파구 | 석촌호수에메달드축제 | 3.4 |
| 17 | 문화국 | Hi Seoul 페스티벌 | 3.2 |
| 18 | 문화국 | 남산골단오민속축제 | 3.2 |
| 19 | 문화국 | 고궁축제 | 3.2 |
| 20 | 중구 | 동대문패션페스티벌 | 3.2 |
| 21 | 송파구 | 송파다리밟기 | 3.2 |
| 22 | 문화국 | 사직대제 | 3.0 |
| 23 | 종로구 | 국악로문화축제 | 3.0 |
| 24 | 문화국 | 세계통과의례 | 2.8 |
| 25 | 문화국 | 서울세계불꽃축제 | 2.8 |
| 26 | 산업국 | 지구촌한마당 | 2.8 |
| 27 | 동대문구 | 청룡문화제 | 2.6 |
| 28 | 문화국 | 서울여성영화제 | 2.4 |
| 29 | 문화국 | 고종 명성후 가례 재현행사 | 2.4 |
| 30 | 송파구 | 송파백중놀이 | 2.4 |
| 31 | 문화국 | 서울국제미디어아트비엔날레 | 2.0 |
| 32 | 문화국 | 남산골한옥마을추석행사 | 2.0 |
| 33 | 문화국 | 정동문화축제 | 2.0 |
| 34 | 공원복지관리사업소 | 월드컵공원역새축제 | 2.0 |
| 35 | 용산구 | 남이장군대제 | 2.0 |

따라서 전문가의 2차 선별을 통해 선정된 후보 축제들에 대하여, 각 축제별로 서울형 축제 내의 위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서울성과 축제성에 대한 중요도-성취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서울형 축제 평가’는 일반적인 축제의 평가와는 달리 서울성과 축제성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축제전문가들이 35개의 개별적인 축제에 대해 서울성과 축제성에 대한 중요도-성취도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는 다음 절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선정된 서울형 축제는 역사전통형, 순수예술형, 시민화합형, 산업경제형, 자연친화형 등 축제의 목적에 따른 유형별로 다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이는 축제의 유형별 평가지표의 개발하는데 매우 유의미하며, 이를 통하여 축제유형별 구체적인 지원 정책의 수립에 중요한 방향을 제공하는 바, 위에서 제시한 5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서울형 축제의 현 위치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2. 서울형 축제 평가 분석의 틀

서울형 축제 평가는 축제 관련 전문가(교수, 연구원, 축제기획자 및 축제행정가 등)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현 서울시 축제의 문제점과 개선 사항을 도출하기 위하여 축제전문가 및 주요관련자를 대상으로 심층 설문조사를 설계하였다. 조사는 서울시 축제관련 행정 공무원 및 25개 자치구 축제관련 행정 공무원, 관련 학계 교수진, 한국관광공사 축제관련 종사원, 서울문화재단 축제관련 담당자, 관련 연구원 축제전문연구원 및 그 외 축제전문가를 대상으로 하여 유의표본추출법(purposive sampling method)을 사용하여 조사대상을 선정한다.

서울시의 축제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중요도·성취도(Importance-Performance)를 평가·분석하였다. I-P 분석을 통하여 서울시 축제의 육성에 중요한 항목들을 파악하고, 그 항목들에 대한 서울시 축제의 실태를 실제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서울시 축제 육성을 위해서는 어떠한 사항들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는가를 판단할 수 있다.

이 분석은 매트릭스(matrix)로 4가지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중요도-성취도 분석(IPA)은 다속성 모델의 개념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Martilla와 James(1977)가 자동차 사업의 성취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IPA 모형을 적용한 것이 최초의 연구였다. 이어서 건강진단, 교육, 스포츠 심리학(Dolinsky & Cupto, 1991; Cunningham & Gaeth, 1989; Alberty & Mihalik, 1989; Smith & Dattilo, 1989) 등 다양한 연구분야에 적용되었다. IPA 분석의 기본 가정은 만족도 속성에 대한 고객의 수준은 상품이나 서비스 성취도의 기대와 판단에 의해 주로 파생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 IPA는 이용자의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이용 전에는 각 속성의 중요도, 이용 후에는 성취도를 이용자 스스로가 평가하게 함으로써 각 속성의 상대적인 중요도와 성취도를 동시에 비교·분석하는 평가 기법이다(Hammitt, et al., 1996). IPA는 최근 다양한 산업에서 상표, 상품, 서비스 및 소매상에 대한 강점과 약점을 판명하는데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호텔산업에 있어서도 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Bush and Ortinau, 1986). 일반적으로 환대산업 서비스의 질을 측정하는 전통적인 SERVQUAL 모형(Parasuraman, et al., 1988)이 각광을 받아 왔으나 점차 그 대안을 모색하던 중 IPA 모형에 대한 접근이 시도되면서 관광서비스 분야에도 적용하기 시작하였다(Ennew, et al., 1993). Martin(1995)은 호텔산업의 서비스 질에 대하여 고객의 기대와 공급자의 인식을 평가하기 위해 IPA 기법을 사용하였으며, Andorka(1996)는 그 모형의 유용성을 입증하였다.

이러한 IPA모형의 특성은 중요도와 만족도(성취도)의 속성별 비교 평가 값에 의하여 4가지의 다면적 의사결정을 내린다는 데 있다. IPA의 해석 및 격자 모형이 [그림 4-1]에 제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분면으로 나누어진 격자를 그래픽으로 나타내며 y축은 사전 제품에 대한 고객의 선택속성 인식에 관한 중요도, x축은 사후 이러한 속성과 관련된 상품이나 서비스의 만족도 즉, 성취도를 보여준다. 4개의 분면의 해석은 중, 유지, 낮은 우선 순위 및 낭비가능성을 의미하며 관광지의 경우는 관광전과 관광경험 후 관광자원에 대한 고객의 평가 값으로 그 가치를 평가하게 되는 것이다.

| | | |
|-------------|--|---|
| 중 요 도 | I사분면 높은 중요도 낮은 성취도 (고도의 집중력 필요) | II사분면 높은 중요도 높은 성취도 (현재 좋은 상태 유지 필요) |
| | III사분면 낮은 중요도 낮은 성취도 (우선순위 낮음) | IV사분면 낮은 중요도 높은 성취도 (과잉낭비 가능성) |
| | 성 취 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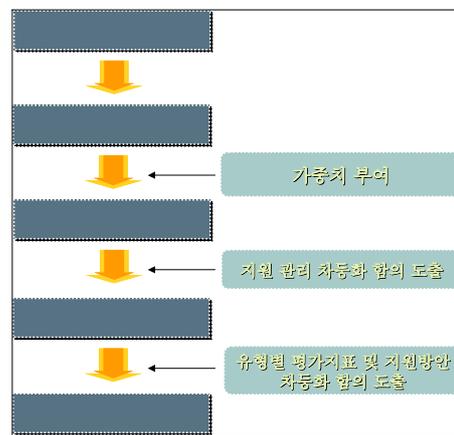
[그림 4-1] I-P(중요도-성취도) 분석 도형

I 사분면은 속성들이 응답자에게는 대단히 중요하게 인식되지만 성취도는 매우 낮다. 이 부분은 개선의 노력이 집중되어야 한다는 것은 직접적으로 의미한다. II사 분면은 응답자에게 매우 중요한 속성으로 인식되며, 동시에 조직은 이러한 행위에 대한 높은 수준의 실행을 가지게 된다. III 사분면은 중요도도 낮고 성취도도 낮은 속성이다. 비록 이 부분은 성취도가 낮을 지라도, 경영자는 과도하게 집중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 부분의 속성은 그리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낮은 우선 순위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된 자원이 소비되어야 한다. 마지막 IV사분면은 낮은 중요도의 속성을 가지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성취도를 가지고 있다. 응답자들은 조직의 성취도에 대해 만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경영자는 과도하게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의 속성에 대해 현재의 노력을 고려해야 된다.

따라서 중요도 평가 결과 값이 주는 본질적 의미는 고객이 속성을 중요하다고 인식했을 때 당연히 고객은 속성이 상품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믿는데서 출발한다. 더욱이 최근에 중요도 용어는 '속성의 인식된 중요도와 연관되어 사용되어 왔으며, 그것은 상품이나 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사전 중요도에 의한 고객의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질적 평가는 고정적 이미지 평가나 직관적인 의사결정 연구에는 필요하나 실제로

고객이 경험하고 인식한 만족도평가 값과 비교 함으로써 내재되어 있는 복합적인 속성의 가치 평가를 내릴 수 있어 IPA모형의 유용성을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특히 Hemmasi(1994) 등의 학자들은 중요도 평가는 속성의 실행에 관한 고객인식에 근거를 둔 만족도 평가의 전제하에 있어야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다. 즉, 중요도가 높고 성취도에 관한 인식이 좋으면 좋을수록 유사한 대안들 가운데 가장 성취도가 높은 대안이 선택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요도-성취도 평가를 적용한 본 연구의 서울형 축제 평가는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로 진행된다.([그림 4-2] 참조)



[그림 4-2] 서울형 축제 선정 프로세스

1) 서울형 축제 평가의 중요도-성취도 분석(IPA)

개별 축제들의 서울성과 축제성에 대한 중요도-성취도 평가의 결과는 그 평균 값을 기준으로 서울성 9개 지표의 27개 세부항목과 축제성 6개 지표의 18개 세부항목들의 최종적인 배치로 나타난다. 축제의 개최목적에 따라 축제의 속성들에 주어지는 중요도의 점수는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개별 축제별로 서울성과 축제성의 상

이한 중요도 점수 분포가 나타나게 된다. 또한 개별 축제들이 각 축제속성 항목을 얼마나 성취하고 있는가의 점수 역시 후보 축제들의 현 주소를 나타내는데 중요한 지표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형 축제 평가 후보 축제들의 IPA에 따라 7구간 척도¹¹⁾ 중 '보통'에 해당하는 0점의 산술평균선과 축제 속성들 간의 실질 평균값을 나타내는 실질 평균선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중요도와 성취도의 실질 평균선의 교차점이 해당 축제의 현 위치가 된다고 말할 수 있다. 중요도와 성취도 모두 높은 점수를 받을 경우에는 양의 사분면, 제2사분면에 위치하게 되고 모두 낮은 점수를 받을수록 음의 사분면, 제3사분면에 위치하게 된다.

이를 다시 실질 평균선으로만 살펴보면, 해당 축제들의 속성들 간의 우열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축제의 개최목적에 따라 집중적으로 발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항목 및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항목들을 파악할 수 있다. 이는 개별 축제의 발전 방향 및 발전을 위한 지원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2) 서울형 축제 평가의 유형별 우선도-성취도 분석(PP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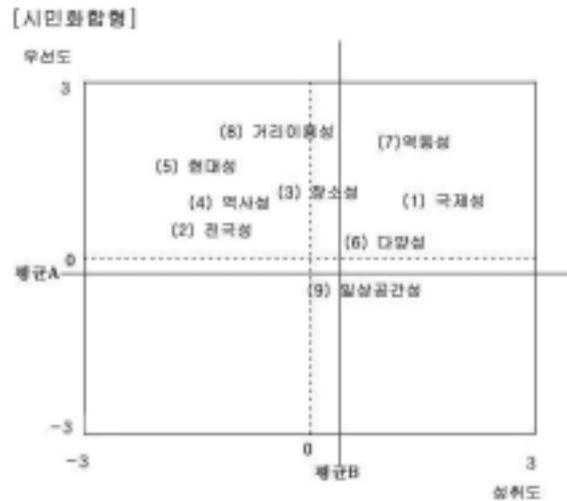
서울형 축제 평가의 후보가 되는 개별 축제들을 기존에 조사된 개최 목적에 따라 분류한 결과, 5개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다. 유형별로 해당 축제들을 분석해본 결과, '비교적 그렇다'에 해당하는 2점¹²⁾ 이상의 평균값을 지니는 항목들을 해당 유형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하는 축제속성으로 규정할 수 있으며 이를 가중치화 할 수 있다.

11) 분석 매트릭스에서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하여 평가의 7구간을 -3점에서부터 3점까지로 함.

12) -3점: 전혀 그렇지 않다/ -2: 비교적 그렇지 않다/ -1: 그렇지 않다/ 0: 보통/ 1: 그렇다/ 2: 비교적 그렇다/ 3: 매우 그렇다

유형별로 해당하는 축제들의 서울성과 축제성의 각 항목들을 중심으로 우선도-성취도 매트릭스를 작성한 예시는 [그림 4-3]과 같다. 따라서 축제 유형별로도 해당하는 축제속성의 현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위의 개별 축제의 IPA와 마찬가지로, '보통'에 해당하는 0점의 산술평균선과 실질 평균선의 교차점의 위치를 비교하여 각 축제유형들이 어느 사분면에 위치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 위치한 사분면에 따라 해당 유형에 적용될 축제 정책 및 발전전략은 달라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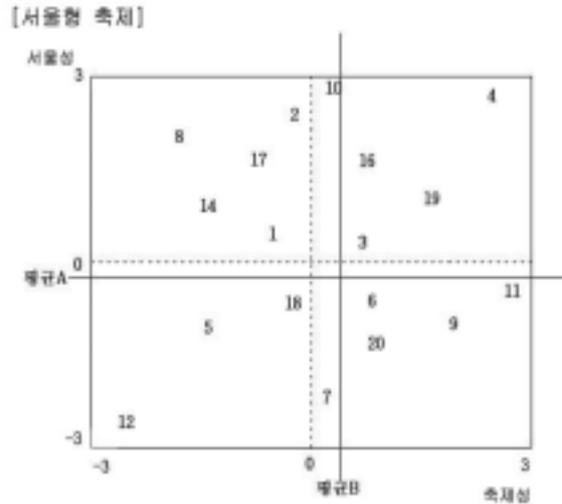
유형별 축제평가는 각 유형별로 중점을 두어서 개발해야하는 축제 속성들의 위치를 더욱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역사전통형의 경우에는 역사성의 항목이 높은 점수로 나타나며, 실제적인 축제 지원정책의 수립이나 발전전략의 수립에도 역사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이다. 또한 순수예술형 축제들은 창조성 항목이 높게 나타나야 하며, 이를 강화하기 위한 축제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주민화합형은 경우에는 주민의 일상생활에서 해당 축제를 접하게 됨으로써, 주민간의 접촉의 기회를 높이고 나아가 접근이 어려운 주민의 일상자치공간을 활용하는 것을 통하여 축제참여자들의 집단적 회합을 통한 정체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와 같은 축제목적에 고려하여, 장소성, 역동성, 일상공간성 및 집단성 등의 축제속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축제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일반적인 유형별로 차별적인 축제 속성에 초점을 두고, 개별 축제마다의 상세한 축제 발전 전략 및 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지원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



[그림 4-3] 서울형 축제 평가의 PPA

3) 서울형 축제 평가의 서울성-축제성 분석(SFA)

서울형 축제 평가의 서울성-축제성 분석(SFA, Seoulity Festivity Analysis)은 IPA와 PPA를 통하여 구하여진 개별축제의 서울성 지수와 축제성 지수를 하나의 매트릭스 위에 배치하도록 하여, 해당 지역 혹은 자치정부의 축제 전체가 보이는 현재의 위치를 알아내는 것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한다. IPA 및 PPA와 마찬가지로 0점의 산술 평균선과 실질 평균선의 교차점을 비교하여, 실질적인 축제의 상태를 규정할 수가 있다.(예시 [그림 4-4] 참조)



[그림 4-4] 서울형 축제 평가의 SFA

특히 해당 지역의 축제들을 배치해보았을 때, 음의 사분면, 즉 제3사분면에 위치하는 축제들은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 지역 단위의 속성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동시에 축제적인 속성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축제로 규정할 수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축제들은 축제 지원 정책의 대상에서 제외해도 무관하겠다. 또한 축제들이 위치한 사분면의 성격에 따라, 제1사분면의 경우에는 서울성은 높게 나타나지만 축제성은 낮은 상태로 나타나므로, 축제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축제 발전 전략이 수립되어야 하며, 이외는 반대로 제4사분면의 경우에는 축제성은 높지만 낮은 서울성을 나타내는 상태이므로 서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축제 발전 전략 수립이 적합하다.

또한 산술 평균선이 만들어내는 양의 사분면, 즉 제2사분면에 위치하나 실질적인 축제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축제들은 해당 속성들을 유형별로 강조되어야 하는 축제 속성들과 비교하여 효율적인 축제정책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한다.

제3절 서울형 축제 분석

1. 서울형 축제 전문가 설문조사에 관한 일반사항

본 연구에서는 서울형 축제 후보 축제들에 대한 축제 관련 전문가들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에 대한 일반사항은 [표 4-11]과 같다.

[표 4-11] 전문가 설문조사 일반사항

| 구분 | 내용 |
|---------|-------------------------------------|
| 설문조사 대상 | 축제 관련 전문가(교수, 연구원, 축제 기획자 및 축제 행정가) |
| 설문조사 부수 | 15부 |
| 설문조사 기간 | 2005년 10월 1일 - 31일 |
| 설문조사 방법 | 우편을 통한 설문지법 |

해당 설문조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축제유형별 우선도를 측정하기 위한 우선순위 평가와 개별 축제의 서울성, 축제성에 관한 중요도-성취도 평가이다. 축제의 우선순위 평가는 서울성의 9개 항목과 축제성의 6개 항목들에 순위를 부여하여, 전체 축제에 대한 축제속성별 위상을 파악하고 유형별로 어떠한 축제 속성 항목이 강조되어야 하는지를 판단하고자 함이다.([그림 4-5], [그림 4-6] 참조)

| 순위 | 항목명 | 서울성 | | | | | 축제성 | | | | | | | |
|----|-----------|-----|---|---|---|---|-----|---|---|---|---|--|--|--|
| | | 1 | 2 | 3 | 4 | 5 | 1 | 2 | 3 | 4 | 5 | | | |
| 1 | 서울인성(정신) | | | | | | | | | | | | | |
| 2 | 도시문화유형 | | | | | | | | | | | | | |
| 3 | 도시인문(역사) | | | | | | | | | | | | | |
| 4 | 예술(문화) | | | | | | | | | | | | | |
| 5 | 문화(문화) | | | | | | | | | | | | | |
| 6 | 자연(문화) | | | | | | | | | | | | | |
| 7 | 자연(문화) | | | | | | | | | | | | | |
| 8 | 문화(문화) | | | | | | | | | | | | | |
| 9 | 자연(문화) | | | | | | | | | | | | | |
| 10 | 서울형축제(문화) | | | | | | | | | | | | | |
| 11 | 서울형축제(문화) | | | | | | | | | | | | | |

[그림 4-5] 서울형 축제 평가를 위한 우선순위평가표 - 서울성

| 구분 | 특성 | 중요도 | | | | | |
|----|---------|------|------|------|------|------|------|
| | | 중요도1 | 중요도2 | 중요도3 | 중요도4 | 중요도5 | 중요도6 |
| 1 | 서울형축제성 | | | | | | |
| 2 | 문화체육관광성 | | | | | | |
| 3 | 도시재생개발성 | | | | | | |
| 4 | 복합성 | | | | | | |
| 5 | 방문성 | | | | | | |
| 6 | 당첨성 | | | | | | |
| 7 | 선호성 | | | | | | |

[그림 4-6] 서울형 축제 평가를 위한 우선순위평가표 - 축제성

개별 축제의 서울성, 축제성에 관한 중요도-성취도 평가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35개의 후보 축제들을 대상으로 7점 척도화하였다.([그림 4-7], [그림 4-8] 참조)

| 구분 | 특성 | 설명 | 중요도 (Mean Score) | | | | | | | 성취도 (Performance) | | | | | | | |
|-----|-----|----------------------------------|------------------|-----|-----|-----|-----|-----|-----|-------------------|-----|-----|-----|-----|-----|-----|-----|
| | | | 1 | 2 | 3 | 4 | 5 | 6 | 7 | 1 | 2 | 3 | 4 | 5 | 6 | 7 | |
| 서울성 | 축제성 | 서울형의 형태로 발전할 수 있는 축제성 | 4.8 | 4.1 | 3.5 | 3.0 | 2.5 | 2.0 | 1.5 | 1.0 | 0.5 | 0.0 | 0.0 | 0.0 | 0.0 | 0.0 | 0.0 |
| | | 전통의 요소를 통해 전통적인 축제는 서울형으로의 축제 성향 | 4.8 | 4.1 | 3.5 | 3.0 | 2.5 | 2.0 | 1.5 | 1.0 | 0.5 | 0.0 | 0.0 | 0.0 | 0.0 | 0.0 | 0.0 |
| | 문화성 | 문화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축제성 | 4.8 | 4.1 | 3.5 | 3.0 | 2.5 | 2.0 | 1.5 | 1.0 | 0.5 | 0.0 | 0.0 | 0.0 | 0.0 | 0.0 | 0.0 |
| | | 서울의 문화와 전통을 통해 서울의 문화 발전 | 4.8 | 4.1 | 3.5 | 3.0 | 2.5 | 2.0 | 1.5 | 1.0 | 0.5 | 0.0 | 0.0 | 0.0 | 0.0 | 0.0 | 0.0 |
| | 도시성 | 서울의 도시 재생에 기여할 수 있는 축제성 | 4.8 | 4.1 | 3.5 | 3.0 | 2.5 | 2.0 | 1.5 | 1.0 | 0.5 | 0.0 | 0.0 | 0.0 | 0.0 | 0.0 | 0.0 |
| | | 문화의 도시 재생을 통해 서울의 도시 재생 발전 | 4.8 | 4.1 | 3.5 | 3.0 | 2.5 | 2.0 | 1.5 | 1.0 | 0.5 | 0.0 | 0.0 | 0.0 | 0.0 | 0.0 | 0.0 |
| | 복합성 | 서울의 도시 재생에 기여할 수 있는 축제성 | 4.8 | 4.1 | 3.5 | 3.0 | 2.5 | 2.0 | 1.5 | 1.0 | 0.5 | 0.0 | 0.0 | 0.0 | 0.0 | 0.0 | 0.0 |
| | | 문화의 도시 재생을 통해 서울의 도시 재생 발전 | 4.8 | 4.1 | 3.5 | 3.0 | 2.5 | 2.0 | 1.5 | 1.0 | 0.5 | 0.0 | 0.0 | 0.0 | 0.0 | 0.0 | 0.0 |
| | 방문성 | 서울의 도시 재생에 기여할 수 있는 축제성 | 4.8 | 4.1 | 3.5 | 3.0 | 2.5 | 2.0 | 1.5 | 1.0 | 0.5 | 0.0 | 0.0 | 0.0 | 0.0 | 0.0 | 0.0 |
| | | 문화의 도시 재생을 통해 서울의 도시 재생 발전 | 4.8 | 4.1 | 3.5 | 3.0 | 2.5 | 2.0 | 1.5 | 1.0 | 0.5 | 0.0 | 0.0 | 0.0 | 0.0 | 0.0 | 0.0 |
| | 당첨성 | 서울의 도시 재생에 기여할 수 있는 축제성 | 4.8 | 4.1 | 3.5 | 3.0 | 2.5 | 2.0 | 1.5 | 1.0 | 0.5 | 0.0 | 0.0 | 0.0 | 0.0 | 0.0 | 0.0 |
| | | 문화의 도시 재생을 통해 서울의 도시 재생 발전 | 4.8 | 4.1 | 3.5 | 3.0 | 2.5 | 2.0 | 1.5 | 1.0 | 0.5 | 0.0 | 0.0 | 0.0 | 0.0 | 0.0 | 0.0 |
| | 선호성 | 서울의 도시 재생에 기여할 수 있는 축제성 | 4.8 | 4.1 | 3.5 | 3.0 | 2.5 | 2.0 | 1.5 | 1.0 | 0.5 | 0.0 | 0.0 | 0.0 | 0.0 | 0.0 | 0.0 |
| | | 문화의 도시 재생을 통해 서울의 도시 재생 발전 | 4.8 | 4.1 | 3.5 | 3.0 | 2.5 | 2.0 | 1.5 | 1.0 | 0.5 | 0.0 | 0.0 | 0.0 | 0.0 | 0.0 | 0.0 |

[그림 4-7] 서울형 축제 평가를 위한 중요도-성취도 평가 : 서울성

서울형축제평가 : 중요도-성취도 평가

[비 중요도 : 점 '중대한' 핵심 키워드 '중요한' / 성취도 : 점 '합격' 핵심 키워드 '합격' / 성취도 : 점 '합격']

| 구분 | 항목 | 세부항목 | 중요도(Importance) | 성취도(Achievement) |
|-----|-----|---------------------------------|-----------------|------------------|
| 축제성 | 축제성 | 축제 장소 위치의 양적성 | -5 | -2 |
| | | 축제장소의 특색성, 공간, 수량 및 고형되는 내외 양적성 | -5 | -2 |
| | | 축제장소의 소양, 조형 요소로서의 양적 성취 | -5 | -2 |
| | 공간성 | 축제 장소의 양적성, 양적, 양적 양적성 | -5 | -2 |
| | | 축제 장소의 양적, 양적, 양적 양적성의 양적 양적성 | -5 | -2 |
| | | 축제 장소의 양적 양적성의 양적 양적성의 양적 양적성 | -5 | -2 |
| | 양적성 | 축제 장소의 양적 양적성의 양적 양적성의 양적 양적성 | -5 | -2 |
| | | 축제 장소의 양적 양적성의 양적 양적성의 양적 양적성 | -5 | -2 |
| | | 축제 장소의 양적 양적성의 양적 양적성의 양적 양적성 | -5 | -2 |
| | 양적성 | 축제 장소의 양적 양적성의 양적 양적성의 양적 양적성 | -5 | -2 |
| | | 축제 장소의 양적 양적성의 양적 양적성의 양적 양적성 | -5 | -2 |
| | | 축제 장소의 양적 양적성의 양적 양적성의 양적 양적성 | -5 | -2 |

[그림 4-8] 서울형 축제 평가를 위한 중요도-성취도 평가 : 축제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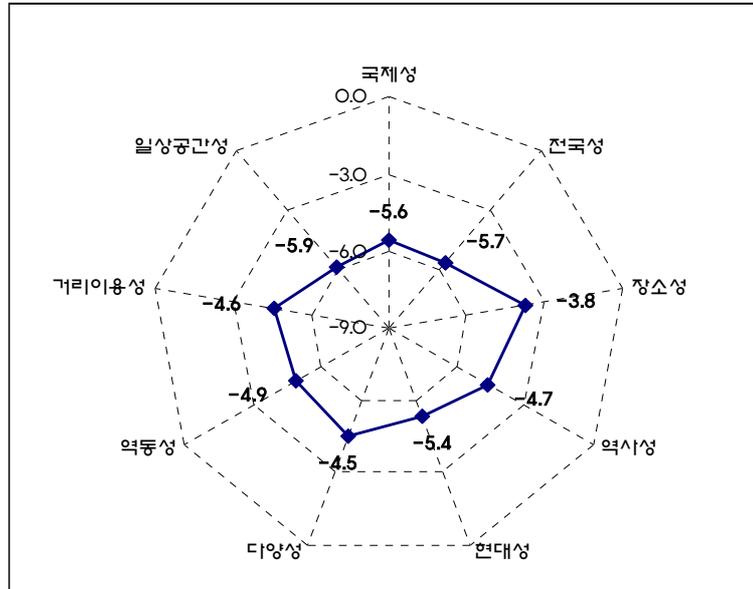
2. 서울형 축제 평가의 우선순위 평가

1) 서울성 우선순위 평가

서울성 우선순위 평가는 9개 항목들에 대해 순위를 부여하도록 하여, 개별 항목들에 대한 전체 축제의 평균을 점수화한 것이다. 1순위부터 9순위까지 기입된 결과를 -1점부터 -9점으로 하여 값의 차등화를 주었다. 그 결과, 서울성 축제 속성 중에서는 장소성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중요한 축제 항목으로 나타났다.([표 4-12]. [그림 4-9] 참조) 따라서 서울형 축제들은 서울내의 장소성을 개발하고 생활 속의 문화환경을 개발하는데 기여하며, 주민단체와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역할을 서울형 축제에게 가장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4-12] 서울성 우선순위 평가

| 항목 | 국제성 | 전국성 | 장소성 | 역사성 | 현대성 | 다양성 | 역동성 | 거리 이용성 | 일상 공간성 |
|----------|------|------|------|------|------|------|------|-----------|-----------|
| 평균 | -5.6 | -5.7 | -3.8 | -4.7 | -5.4 | -4.5 | -4.9 | -4.6 | -5.9 |
| 우선 순위 | 7 | 8 | 1 | 4 | 6 | 2 | 5 | 3 | 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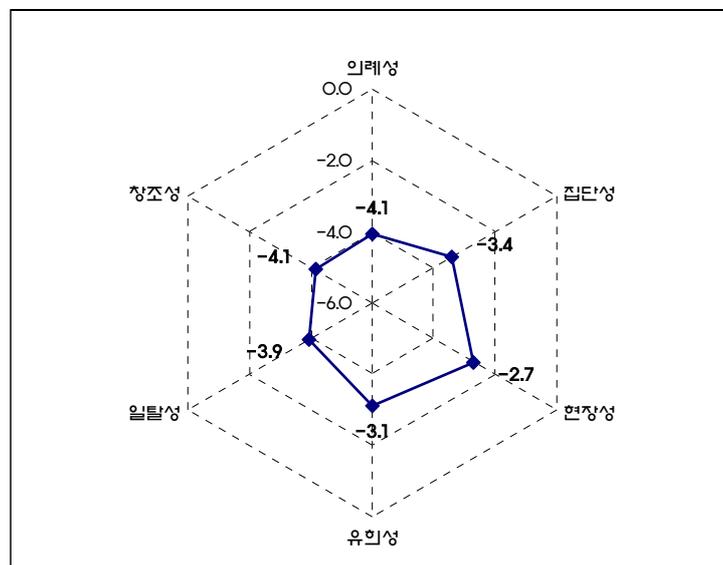
[그림 4-9] 서울성 우선순위 평가

2) 축제성 우선순위 평가

축제성 우선순위 평가는 6개 항목들에 대해 순위를 부여하도록 하여, 개별 항목들에 대한 전체 축제의 평균을 점수화한 것이다. 1순위부터 6순위까지 기입된 결과를 -1점부터 -6점으로 하여 값의 차등화를 주었다. 그 결과, 축제성 축제 속성 중에서는 현장성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중요한 축제 항목으로 나타났다.([표 4-13]. [그림 4-10] 참조) 따라서 서울형 축제들은 공통된 이해관계를 지닌 주체들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특정장소 및 현장에서 축제가 진행되어야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되며, 축제 개최 장소가 고유성과 역사성을 가지는 곳에서 개최되어야함을 중요시하고 있다. 나아가 축제 공간과 개최주체들의 삶의 현장이 분리되지 않고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축제성에서 가장 강조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표 4-13] 축제성 우선순위 평가

| 항목 | 의례성 | 집단성 | 현장성 | 유희성 | 일탈성 | 창조성 |
|----------|------|------|------|------|------|------|
| 평균 | -4.1 | -3.4 | -2.7 | -3.1 | -3.9 | -4.1 |
| 우선 순위 | 5 | 3 | 1 | 2 | 4 | 5 |



[그림 4-10] 축제성 우선순위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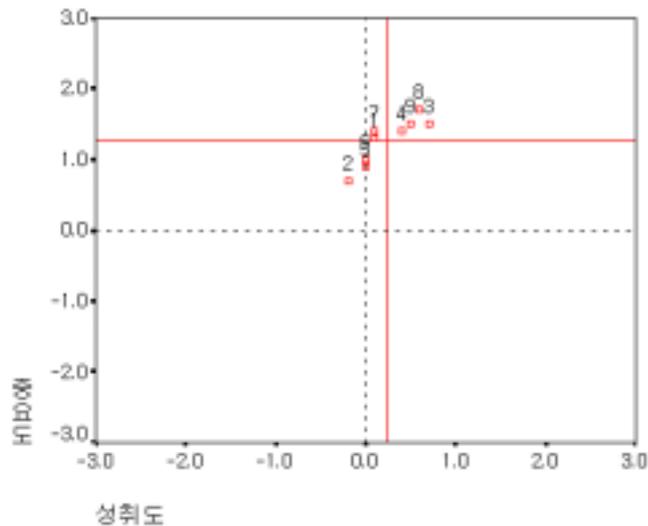
3. 서울형 축제 평가의 중요도-성취도 분석(IPA) 결과

서울형 축제 평가의 후보축제를 축제유형별로 구분하여 보면, [표 4-14]와 같다. 역사전통형, 순수예술형, 시민화합형, 산업경제형, 자연친화형으로 나뉘며 역사전통형 축제가 전체 35개 축제 중 16개로 가장 많았다.

[표 4-14] 서울형 축제 평가 후보 축제의 유형별 구분

| 축제유형 | 해당축제 |
|---------------|---|
| 역사전통형 (16) | 한성백제문화제/ 인사전통문화축제/ 종묘대제/ 선농제향/ 연등축제/ 강동선사문화축제/ 조선조과거재현/ 남산골단오민속축제/ 고궁축제/ 송파다리밟기/ 사직대제/ 국악로문화축제/ 고종명성후가례재현행사/ 송파백중놀이/ 남산골한옥마을추석행사/ 남이장군대제 |
| 순수예술형 (7) | 홍대거리미술전/ 서울국제공연예술제/ 서울드림페스티벌/ 서울프린지페스티벌 /서울여성영화제 서울국제미디어아트 비엔날레/ 정동문화축제 |
| 시민화합형 (6) | 석촌호수에메랄드축제/ 하이서울페스티벌/ 세계통과의례/ 서울세계불꽃축제/ 지구촌한마당/ 청릉문화제 |
| 산업경제형 (4) | 서울약령시축제/ 명동축제/ 이태원지구촌축제/ 동대문페스티벌 |
| 자연친화형 (2) | 벚꽃축제/ 월드컵공원역새축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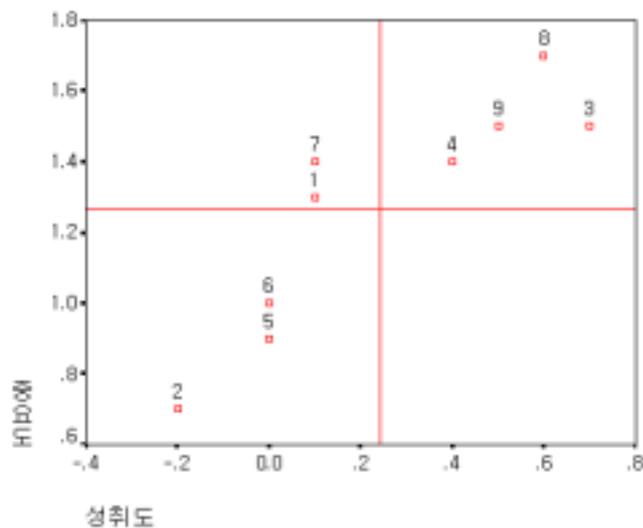
서울형 축제 평가 후보 축제들의 서울성¹³⁾은 [그림 4-11]와 같다.



[그림 4-11] 서울형 축제의 서울성(1)

13) 서울성 항목 구분 : 1.국제성/ 2.전국성/ 3.장소성/ 4.역사성/ 5.현대성/ 6.다양성/ 7.역동성/ 8.거
리이용성/ 9.일상공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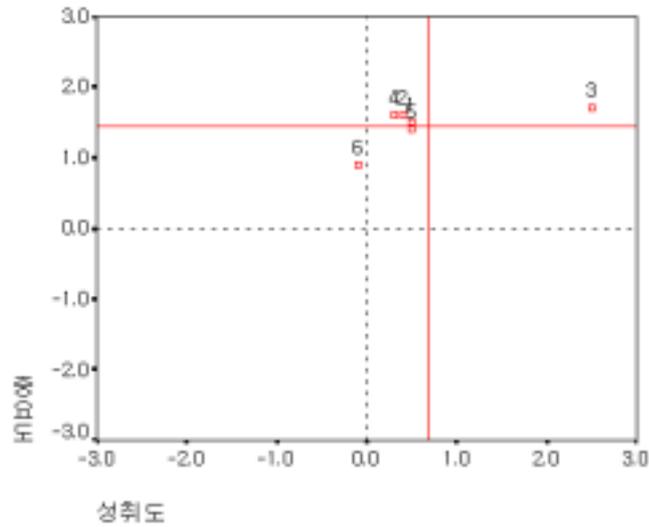
현재 서울형 축제들의 서울성의 각 항목들을 모두 중요하게 고려해야하며, 평균적으로는 양호한 성취도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국성 항목은 음의 성취도를 나타내며 동시에 중요도 측면에서도 다른 서울성 항목들에 비해 낮은 수준을 나타내는 바, 서울성 항목 중에서 열위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를 상세히 살펴보면, 서울성 항목 중에서는 거리이용성(8)이 가장 중요한 항목임을 알 수 있다. 성취도 측면에서는 장소성(3)이 가장 성취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들 사이의 상대적인 우열을 비교할 경우, 실질 평균선을 중심으로 제3사분면에 있는 전국성(2), 현대성(5), 다양성(6) 항목이 비교적 열악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역동성과 국제성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만 성취가 낮은 항목으로 나타났으며, 역사성(4), 거리이용성(8), 일상공간성(9) 및 장소성(3) 항목은 중요하면서도 성취도가 높은 항목으로 나타났다.([그림 4-12] 참조)



[그림 4-12] 서울형 축제의 서울성(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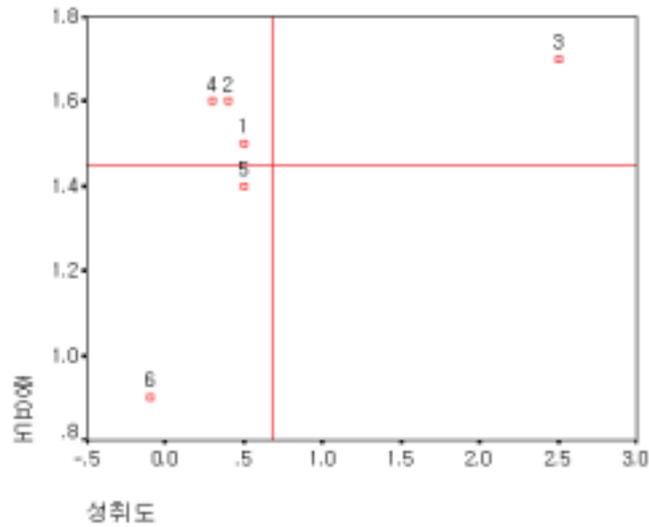
서울형 축제 평가 후보 축제들의 축제성¹⁴⁾은 [그림 4-13]와 같다.

14) 축제성 항목 구분 : 1.의례성/ 2.집단성/ 3.현장성/ 4.유희성/ 5.일탈성/ 6.창조성



[그림 4-13] 서울형 축제의 축제성(1)

현재 서울형 축제들의 축제성의 각 항목들 역시 모두 중요하게 고려해야하며, 평균적으로는 양호한 성취도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창조성(6) 항목은 음의 성취도를 나타내며 동시에 중요도 측면에서도 다른 축제성 항목들에 비해 낮은 수준을 나타내는 바, 축제성 항목 중에서 열위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를 상세히 살펴보면, 축제성 항목 중에서는 현장성 항목이 가장 중요한 항목임을 알 수 있다. 성취도 측면에서도 현장성(3)이 가장 성취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들 사이의 상대적인 우열을 비교할 경우, 실질 평균선을 중심으로 제3사분면에 있는 일탈성(5)과 창조성(6) 항목이 비교적 열악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집단성(2)과 현장성(3), 의례성(1)이 상대적으로 중요하지만 성취가 낮은 항목으로 나타났으며, 현장성 항목만이 중요하면서도 성취도가 높은 항목으로 나타났다.([그림 4-14] 참조)



[그림 4-14] 서울형 축제의 축제성(2)

1) 서울형 축제 평가의 우선도-성취도 분석(PPA) - 역사전통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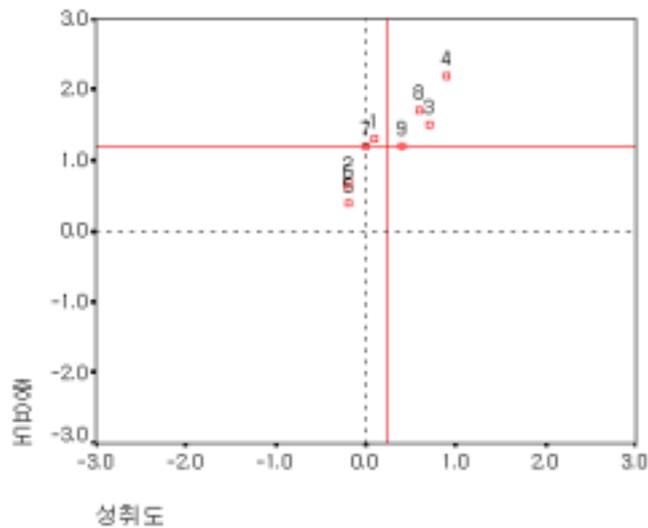
서울형 축제 평가의 후보 축제 중 역사전통형에는 16개의 축제가 해당된다.([표 4-14] 참조) 역사전통형 축제는 서울의 역사문화적 자원을 활용하여 축제의 핵심 내용으로 하고, 해당 축제들을 통하여 역사문화자원을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축제 참가를 통한 시민들의 문화향수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역사전통형 축제들의 서울성은 [표 4-15]에서 살펴볼 수 있다. 역사전통형 축제의 서울성 중요도 점수는 1.2이며 성취도 점수는 0.2이다. 따라서 서울성의 속성들이 중요도를 따르지 못하는 수준에서 성취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은 역사성이며, 동시에 가장 성취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역사전통형 축제의 개최목적은 고려하면 이와 같은 결과는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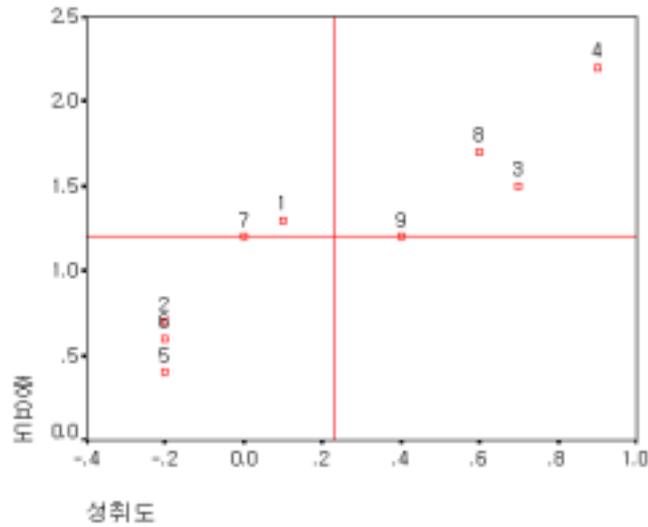
[표 4-15] 역사전통형 축제들의 서울성 분석

| 구분 | 항목 | 국제성 | 전국성 | 장소성 | 역사성 | 현대성 | 다양성 | 역동성 | 거리 이용성 | 일상 공간성 | 전체 평균 |
|-----|----|-----|------|-----|-----|------|------|-----|-----------|-----------|----------|
| 중요도 | 평균 | 1.3 | 0.7 | 1.5 | 2.2 | 0.4 | 0.6 | 1.2 | 1.7 | 1.2 | 1.2 |
| | 순위 | 4 | 6 | 3 | 1 | 8 | 7 | 5 | 2 | 5 | |
| 성취도 | 평균 | 0.1 | -0.2 | 0.7 | 0.9 | -0.2 | -0.2 | 0.0 | 0.6 | 0.4 | 0.2 |
| | 순위 | 5 | 7 | 2 | 1 | 7 | 7 | 6 | 3 | 4 | |

이를 중요도-성취도 매트릭스 내에서 살펴보면 [그림 4-15]과 같다. 역사전통형 축제의 서울성 항목의 실질 평균점은 제2사분면에 위치해, 비교적 양호한 상태라고 분석할 수 있겠다. 그러나 전국성이나 현대성, 다양성 항목들은 음의 성취도를 나타내고 있다. 서울성의 모든 항목들이 서울형 축제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축제속성이기는 하나, 역사전통형 축제에서 가장 초점을 두어야 하는 축제속성은 아니므로 이 항목들에 지나치게 치중하는 축제 발전 전략이나 지원 정책의 수립이 다른 축제 정책들에 우선하는 것은 아니다.([그림 4-16] 참조)



[그림 4-15] 역사전통형 축제의 서울성 매트릭스(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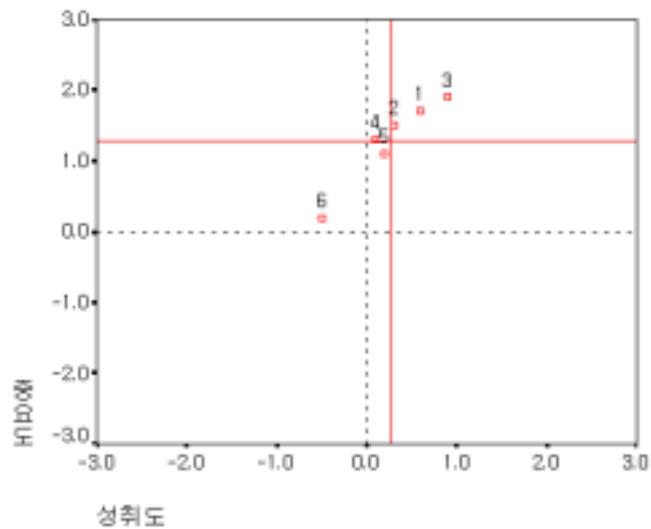
[그림 4-16] 역사전통형 축제의 서울성 매트릭스(2)

역사전통형 축제들의 축제성은 [표 4-16]에서 살펴볼 수 있다. 역사전통형 축제의 축제성 중요도 점수는 1.3이며 성취도 점수는 0.3이다. 따라서 축제성의 속성들이 중요도를 따르지 못하는 수준에서 성취되고 있으며, 이중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은 현장성이며, 동시에 가장 성취도도 높다. 특히, 현장성/ 집단성/ 의례성 순으로 축제성의 중요도가 규정되고 동일한 순위로 성취도가 평가됨으로써, 역사전통형 서울형 축제들은 축제개최 장소의 고유성과 역사성을 중요시하며 축제 주최 및 참가자들의 집단적인 축제의 즐거움과 더불어 소망 기원을 체험하는 것을 명확한 개최목적으로 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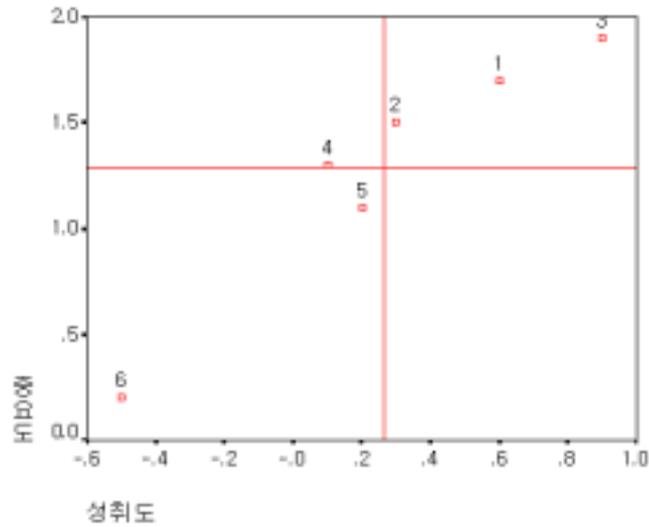
[표 4-16] 역사전통형 축제들의 축제성 분석

| 구분 | 항목 | 의례성 | 집단성 | 현장성 | 유희성 | 일탈성 | 창조성 | 전체 평균 |
|-----|----|-----|-----|-----|-----|-----|------|-------|
| 중요도 | 평균 | 1.7 | 1.5 | 1.9 | 1.3 | 1.1 | 0.2 | 1.3 |
| | 순위 | 2 | 3 | 1 | 4 | 5 | 6 | |
| 성취도 | 평균 | 0.6 | 0.3 | 0.9 | 0.1 | 0.2 | -0.5 | 0.3 |
| | 순위 | 2 | 3 | 1 | 5 | 4 | 6 | |

이를 중요도-성취도 매트릭스 내에서 살펴보면 [그림 4-17]과 같다. 역사전통형 축제의 축제성 항목의 실질 평균점 역시 제2사분면에 위치해, 비교적 양호한 상태라고 분석할 수 있겠다. 그러나 창조성 항목은 음의 성취도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축제속성들 간의 상대적인 위치를 파악해보았을 때, 유희성/ 일탈성/ 창조성 항목의 성취도가 낮게 나타나는데 역사전통형의 유형적 속성 상 축제 운영에서 간과되었다고 추측된다. 그러나 역사적인 성격의 축제 자원들을 현대적으로 재현하거나 참신한 축제 체험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른 축제성 항목들과의 차이를 줄일 수 있다([그림 4-18]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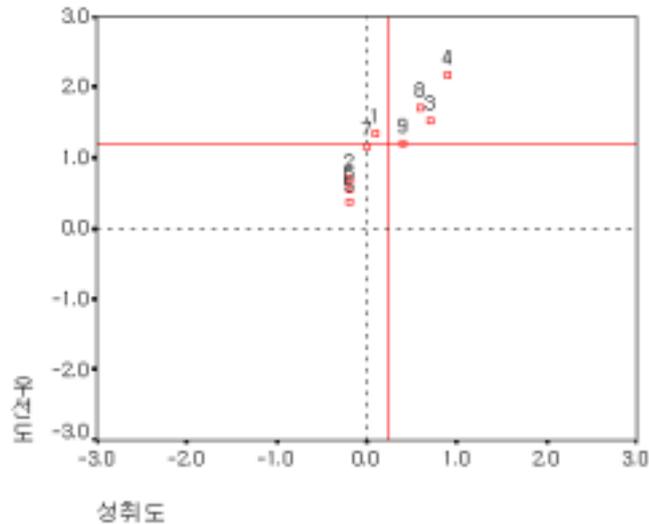
[그림 4-17] 역사전통형 축제의 축제성 매트릭스(1)



[그림 4-18] 역사전통형 축제의 축제성 매트릭스(2)

특히 서울형 축제 평가의 우선도-성취도 평가는 ‘비교적 중요함’에 해당하는 2점 이상의 평균점수를 나타내는 중요도 항목을 대상으로 우선도를 설정하며, 역사전통형 축제에서 우선도가 주어지는 축제속성은 전체 항목 중 서울성의 역사성¹⁵⁾ 지표이다. 따라서 이를 반영할 경우 비록 미미하나 축제 유형별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항목들을 파악할 수 있고 이를 반영한 축제 유형의 실질적인 위치를 알 수가 있어 좀더 현실적인 축제 발전 전략과 축제 정책의 수립이 가능하다. 이를 반영한 우선도-성취도 분석(PPA)을 실시한 결과는 [그림 4-19]과 같다.

15) 역사전통형 축제의 경우, 역사성 항목이 평균 2.2점으로, 우선도-성취도 분석 시 소수들째자리에 ‘0.02’를 가중치로 주었다. 즉, ‘우선도 = 중요도 + {(2점 이상의 평균점을 받은 항목의 평균 점-2) ÷ 10}’ 가 된다.



[그림 4-19] 역사전통형 축제의 서울성 우선도-성취도 분석

2) 서울형 축제 평가의 우선도-성취도 분석(PPA) - 순수예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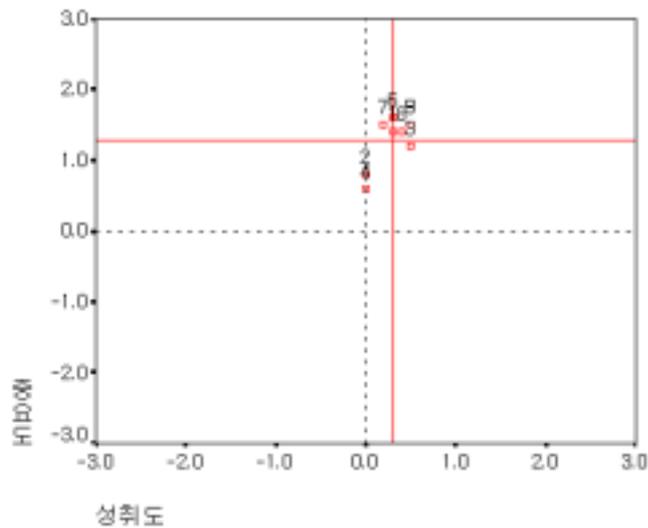
서울형 축제 평가의 후보 축제 중 순수예술형에는 7개의 축제가 해당된다.([표 4-14] 참조) 순수예술형 축제는 서울의 다양한 문화예술 자원을 활용하여 축제의 핵심 내용으로 하고, 해당 축제들을 통하여 서울시의 문화예술의 현주소를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축제참가를 통한 시민들의 문화향수를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순수예술형 축제들의 서울성은 [표 4-17]에서 살펴볼 수 있다. 순수예술형 축제의 서울성 중요도 점수는 1.3이며 성취도 점수는 0.3이다. 따라서 서울성의 속성들이 중요도를 따르지 못하는 수준에서 성취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은 다양성이며, 가장 성취도도 높은 항목들은 장소성과 현대성, 일상 공간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속성이라고 파악된 다양성은 실질적인 성취도에서 5위로 나타나고 있어 개최목적 및 주요 초점과 일관되는 방향으로 축제의 서울성을 발전시키는 축제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

[표 4-17] 순수예술형 축제들의 서울성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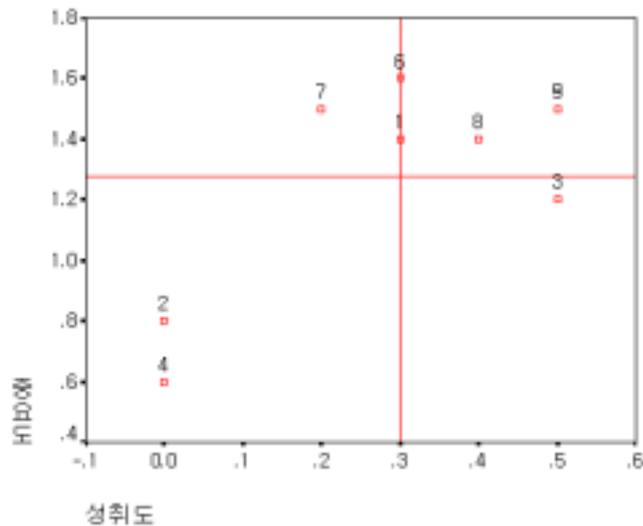
| 구분 | 항목 | 국제성 | 전국성 | 장소성 | 역사성 | 현대성 | 다양성 | 역동성 | 거리 이용성 | 일상 공간성 | 전체 평균 |
|-----|----|-----|-----|-----|-----|-----|-----|-----|-----------|-----------|----------|
| 중요도 | 평균 | 1.4 | 0.8 | 1.2 | 0.6 | 1.5 | 1.6 | 1.5 | 1.4 | 1.5 | 1.3 |
| | 순위 | 5 | 8 | 7 | 9 | 2 | 1 | 2 | 5 | 2 | |
| 성취도 | 평균 | 0.3 | 0.0 | 0.5 | 0.0 | 0.5 | 0.3 | 0.2 | 0.4 | 0.5 | 0.3 |
| | 순위 | 5 | 8 | 1 | 8 | 1 | 5 | 7 | 4 | 1 | |

이를 중요도-성취도 매트릭스 내에서 살펴보면 [그림 4-20]과 같다. 순수예술형 축제의 서울성 항목의 실질 평균점은 제2사분면에 위치해, 비교적 양호한 상태라고 분석할 수 있겠다. 그러나 전국성이나 역사성 항목은 다른 서울성 항목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중요도와 성취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순수예술형에 해당하는 축제들이 다양한 서울의 문화예술자원을 활용하여 축제 프로그램화 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어 다양성과 역동성 및 현대성이 강조되고 이에 따라 역사성이 축소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그림 4-21] 참조)



[그림 4-20] 순수예술형 축제의 서울성 매트릭스(1)

또한 순수예술형 축제들이 전국의 문화발전에 기여하지 못하며 서울 이외의 지역과의 교류 프로그램이 부재하는 등의 이유로 ‘전국성’ 항목이 낮은 성취도를 나타내고 있다. 비록 전국성과 역사성 두 항목 모두 낮은 중요도와 성취도를 나타내고 있으나, 수도로서의 서울시가 지니는 역할을 고려한다면 전국의 문화발전을 위한 문화예술 교류 프로그램의 확대와 같은 전국적 차원의 노력을 순수예술형 서울형 축제에서 기대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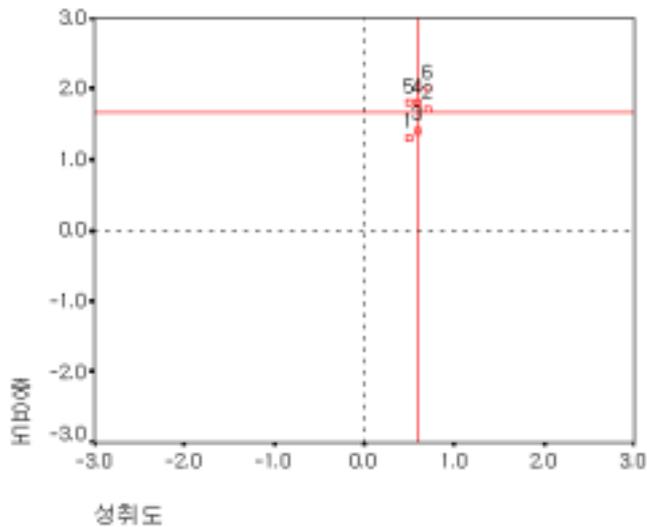
[그림 4-21] 순수예술형 축제의 서울성 매트릭스(2)

순수예술형 축제들의 축제성은 [표 4-18]에서 살펴볼 수 있다. 순수예술형 축제의 축제성 중요도 점수는 1.7이며 성취도 점수는 0.6이다. 따라서 축제성의 속성들의 중요도와 성취도 역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중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은 창조성이며, 집단성과 동시에 성취도도 가장 높게 나타났다. 창조적인 문화예술 활동의 축제 자원 특성상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창조성 항목의 중요도와 성취도 사이에 1.0 이상의 차이가 나타나는 바, 순수예술형 서울형 축제들의 창조성은 현재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표 4-18] 순수예술형 축제들의 축제성 분석

| 구분 | 항목 | 의례성 | 집단성 | 현장성 | 유희성 | 일탈성 | 창조성 | 전체 평균 |
|-----|----|-----|-----|-----|-----|-----|-----|-------|
| 중요도 | 평균 | 1.3 | 1.7 | 1.4 | 1.8 | 1.8 | 2.0 | 1.7 |
| | 순위 | 6 | 4 | 5 | 2 | 2 | 1 | |
| 성취도 | 평균 | 0.5 | 0.7 | 0.6 | 0.6 | 0.5 | 0.7 | 0.6 |
| | 순위 | 5 | 1 | 3 | 3 | 5 | 1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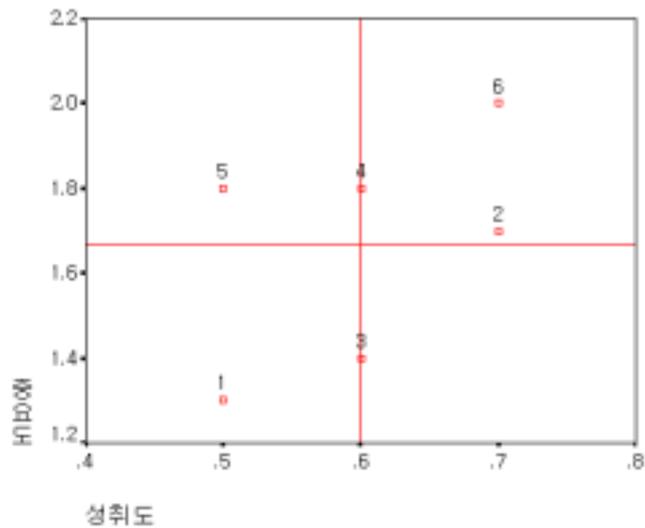
이를 중요도-성취도 매트릭스 내에서 살펴보면 [그림 4-22]과 같다. 순수예술형 축제의 축제성 항목의 실질 평균점 역시 제2사분면에 위치해, 비교적 양호한 상태라고 분석할 수 있겠다. 특히 축제성 항목들이 실질 평균점을 중심으로 집중하고 있어 축제성 항목 전체를 유지·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축제 발전 전략 및 축제 정책 수립이 요구된다.



[그림 4-22] 순수예술형 축제의 축제성 매트릭스(1)

축제속성들 간의 상대적인 위치를 파악해보았을 때, 의례성과 일탈성 항목의 성취도가 낮게 나타나며, 이외는 반대로 집단성과 창조성 항목은 상대적으로 높은 성취도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의례성보다는 일탈성이 더 중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문화예술 축제 자원의 관람자로서 축제 참여가 이루어지는 유형적 속성 상 축제 참여자들이 축제 프로그램을 통하여 소망하거나 기원하는 바가 실현되기 어렵기 때문에 의례성 항목이 다른 축제성 항목들에 비해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유사한 수준의 낮은 성취도를 보이지만 실질 평균보다 높은 중요도를 보이는 일탈성 항목은 창조적이고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들을 통하여 새로운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일상생활에서의 해방감을 느낄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으로 파악할 수 있다.([그림 4-23] 참조)



[그림 4-23] 순수예술형 축제의 축제성 매트릭스(2)

순수예술형 축제에서는 '비교적 중요함'으로 판단된 항목이 부재하는 관계로 우선도-성취도 분석을 실시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축제성 중 창조성 항목이 2.0으로 평가되어 잠재적인 우선도 항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유형별 축제 평가 지표의 설정 시 이를 반영하여 '순수예술형 서울형 축제 평가 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서울형 축제 평가의 우선도-성취도 분석(PPA) - 시민화합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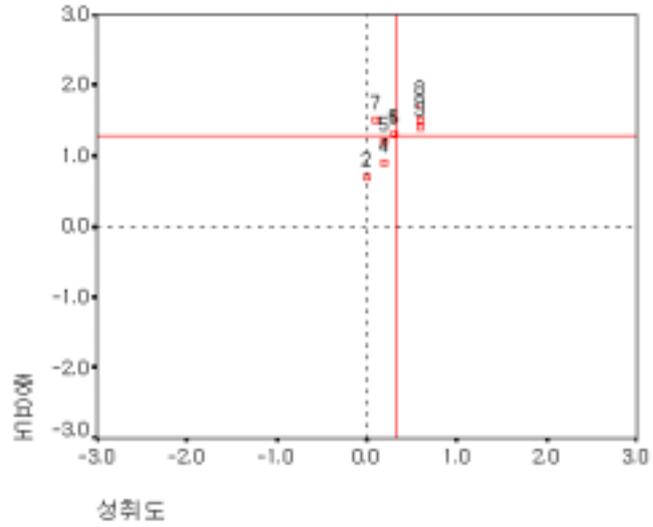
서울형 축제 평가의 후보 축제 중 시민화합형에는 6개의 축제가 해당된다.([표 4-14] 참조) 시민화합형 축제란 축제 프로그램을 통하여 서울시의 일상생활 공간이나 공공공간을 활용하여 시민들을 회합하고 이러한 기회를 통하여 서울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제고하여 시민생활의 삶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서울이 광의의 문화도시가 되도록 하는데 기여할 있다.

시민화합형 축제들의 서울성은 [표 4-19]에서 살펴볼 수 있다. 시민화합형 축제의 서울성 중요도 점수는 1.3이며 성취도 점수는 0.3이다. 앞의 두 서울형 축제 유형과 마찬가지로 시민화합형 축제 역시 중요도와 성취도 사이에 음의 차이가 존재한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은 거리이용성이며, 가장 성취도도 높은 항목들은 거리이용성, 일상공간성 및 장소성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민화합형 축제가 시민의 일상생활 공간 및 대표거리 등의 공공 공간을 중심으로 시민의 일상생활의 역동성을 경험하는 것을 통하여 축제가 기반으로 하고 있는 서울시 내의 지역과 나아가 서울시 전체에 소속되어 있음을 경험하고 정체성을 제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거리이용성의 중요도와 성취도 간에도 1.0 이상의 음의 차이가 존재하는 바, 축제의 개최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축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표 4-19] 시민화합형 축제들의 서울성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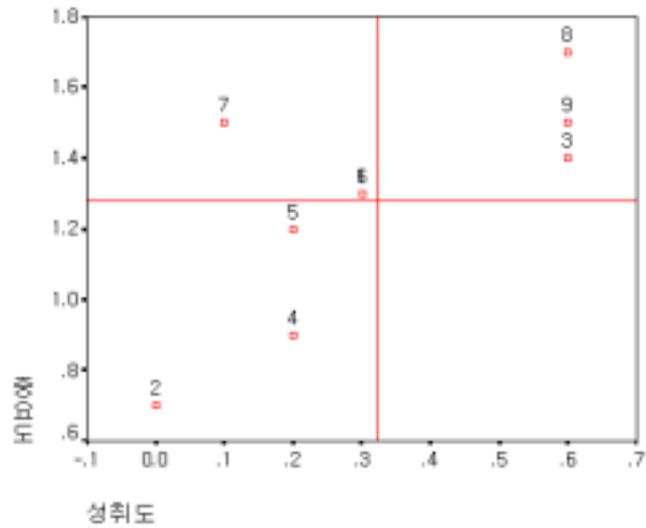
| 구분 | 항목 | 국제성 | 전국성 | 장소성 | 역사성 | 현대성 | 다양성 | 역동성 | 거리이용성 | 일상공간성 | 전체 평균 |
|-----|----|-----|-----|-----|-----|-----|-----|-----|-------|-------|-------|
| 중요도 | 평균 | 1.3 | 0.7 | 1.4 | 0.9 | 1.2 | 1.3 | 1.5 | 1.7 | 1.5 | 1.3 |
| | 순위 | 5 | 9 | 4 | 8 | 7 | 5 | 2 | 1 | 2 | |
| 성취도 | 평균 | 0.3 | 0.0 | 0.6 | 0.2 | 0.2 | 0.3 | 0.1 | 0.6 | 0.6 | 0.3 |
| | 순위 | 4 | 9 | 1 | 6 | 6 | 4 | 8 | 1 | 1 | |

이를 중요도-성취도 매트릭스 내에서 살펴보면 [그림 4-24]와 같다. 시민화합형 축제의 서울성 항목의 실질 평균점은 제2사분면에 위치해, 비교적 양호한 상태라고 분석할 수 있겠으나, 거리이용성과 일상공간성 항목을 제외한 시민화합형 축제의 서울성 항목들은 전반적으로 낮은 성취도를 보이고 있다.



[그림 4-24] 시민화합형 축제의 서울성 매트릭스(1)

시민화합형 축제의 서울성 항목들의 상대적인 중요도와 성취도를 살펴보면, 시민화합형 축제가 지향해야할 바를 좀더 명확하게 알 수 있다.([그림 4-25] 참조)



[그림 4-25] 시민화합형 축제의 서울성 매트릭스(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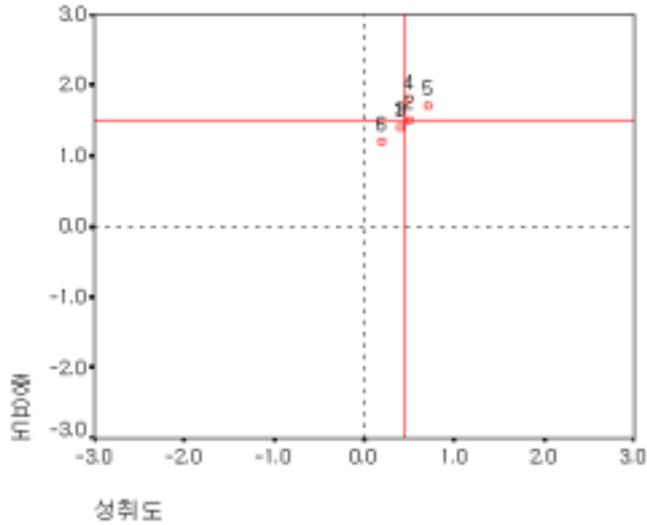
특히 현대 도시 생활공간으로서의 서울의 다양한 일상공간을 활용과 서울시민으로서의 정체성 제고를 축제 개최 목적으로 하는 바, 전국성과 역사성 등의 항목은 상대적으로 낮은 중요도를 보이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거리이용성과 일상공간성, 장소성 등의 항목은 높은 중요도를 보이고 있어 서울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상생활 공간들을 활용하고 축제를 통하여 거리문화환경의 긍정적인 변화 등을 도모하고자 함을 축제 목적으로 하는 축제 정책을 수립해야 하겠다. 시민화합형 축제의 또다른 중요한 축제 정책의 지향점으로는 해당 지역 주민의 조직적 참여가 가능하며 시민들의 라이프스타일을 고려를 언급할 수 있다. 이러한 축제 정책의 방향들은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축제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해당 지역의 장소성을 반영한 축제 공간을 발굴하고 활용토록 하여, 진정한 의미의 시민통합에 기여하게 된다.

시민화합형 축제들의 축제성은 [표 4-20]에서 살펴볼 수 있다. 시민화합형 축제의 축제성 중요도 점수는 1.5이며 성취도 점수는 0.5이다. 따라서 축제성의 속성들의 중요도와 성취도 역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은 유희성이며, 성취도에서는 일탈성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이는 축제를 통하여 시민들이 모이는 기회를 창출하고, 이와 동시에 즐거움과 재미 및 흥미를 유발하는 프로그램들을 통하여 일상생활에서의 해방감을 경험하고 나아가 일상생활을 재생산을 도모하는 시민화합형 축제의 속성과 부합하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유희성 항목의 중요도와 성취도 간에 1.3의 음이 차이가 있어 축제 목적에 부합하는 축제 발전 전략이 시급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4-20] 시민화합형 축제들의 축제성 분석

| 구분 | 항목 | 의례성 | 집단성 | 현장성 | 유희성 | 일탈성 | 창조성 | 전체 평균 |
|-----|----|-----|-----|-----|-----|-----|-----|-------|
| 중요도 | 평균 | 1.4 | 1.5 | 1.4 | 1.8 | 1.7 | 1.2 | 1.5 |
| | 순위 | 4 | 3 | 4 | 1 | 2 | 6 | |
| 성취도 | 평균 | 0.4 | 0.5 | 0.4 | 0.5 | 0.7 | 0.2 | 0.5 |
| | 순위 | 4 | 2 | 4 | 2 | 1 | 6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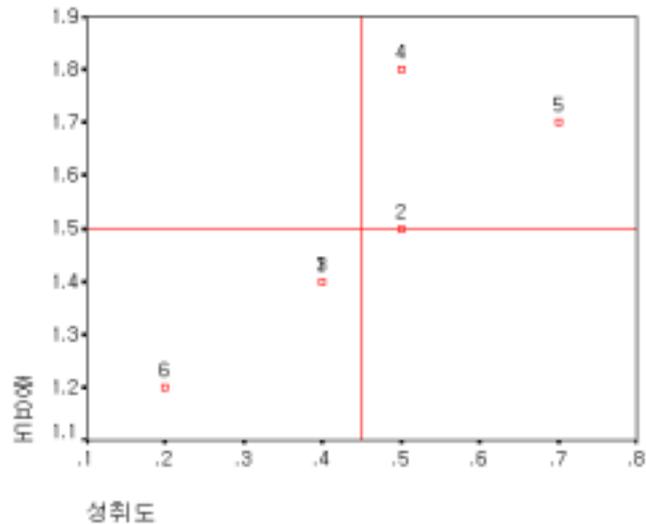
이를 중요도-성취도 매트릭스 내에서 살펴보면 [그림 4-26]과 같다.



[그림 4-26] 시민화합형 축제의 축제성 매트릭스(1)

시민화합형 축제의 축제성 항목의 실질 평균점 역시 제2사분면에 위치해, 비교적 양호한 상태라고 분석할 수 있다. 이들의 상대적인 위치들을 살펴보면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축제성 항목이 뚜렷하게 드러난다.([그림 4-27] 참조)

서울형 축제 중 시민화합형 축제들은 유희성과 일탈성을 주요한 축제성으로 하고 있다. 의례성과 현장성, 창조성 등은 실질 평균보다 낮은 중요도를 나타내어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수준으로 축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면, 일탈성과 유희성 및 집단성 항목은 현재 상태보다 더 비중을 두는 방향으로 축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유형의 축제를 통하여 시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집단적인 소망이나 욕구들이 해소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여 의례성 항목 역시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현장성 역시 축제가 개최되는 장소가 시민생활과 연계된 의미를 지니도록 발굴하거나 창조적인 프로그램이나 스토리를 부여하는 등의 과정을 통하여 창조성을 가미한 축제 공간의 적절성을 부여하는 것을 통하여 이들 세 항목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4-27] 시민화합형 축제의 축제성 매트릭스(2)

시민화합형 축제 역시 2.0 이상의 점수를 얻은 축제 속성이 부재하여 시민화합형 축제의 우선도-성취도 매트릭스를 도출해낼 수 없었다. 그러나 잠재적인 우선도 항목으로 서울성 항목 중 거리이용성과 축제성 항목 중 유희성 항목을 언급할 수 있다. 따라서 유형별 축제 평가 지표의 설정 시 이 두 항목을 반영하여 '시민화합형 서울형 축제 평가 지표'를 작성할 수 있다.

4) 서울형 축제 평가의 우선도-성취도 분석(PPA) - 산업경제형

서울형 축제 평가의 후보 축제 중 산업경제형에는 4개의 축제가 해당된다.([표 4-14] 참조) 산업경제형 축제란 축제 프로그램을 통하여 특정 지역의 대표산업을 육성하고 알리는 바, 상권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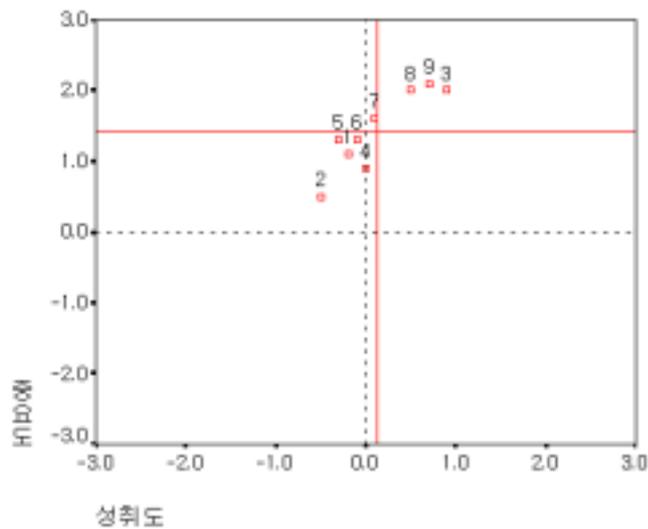
산업경제형 축제들의 서울성은 [표 4-21]에서 살펴볼 수 있다. 산업경제형 축제의 서울성 중요도 점수는 1.4이며 성취도 점수는 0.1이다. 앞의 서울형 축제 유형들과 비교하여 산업경제형 축제는 가장 큰 폭의 중요도와 성취도 사이의 음의 차이가

존재한다. 이중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은 경제생활의 축제공간화를 통한 일상공간성이며, 가장 성취도도 높은 항목들은 장소성과 더불어 일상공간성 및 거리이용성으로 나타났다. 3순위까지의 중요도와 성취도 항목은 장소성, 거리이용성, 일상공간성으로서 축제 공간의 적절성이라는 지리적 차원의 축제 속성으로 범주화되는데, 이들 항목의 중요도와 성취도 간에는 모두 1.0 이상의 음의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들 축제가 축제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4-21] 산업경제형 축제들의 서울성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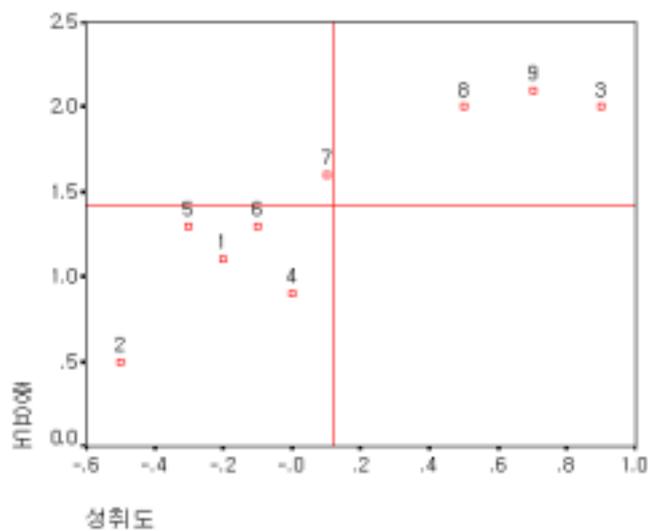
| 구분 | 항목 | 국제성 | 전국성 | 장소성 | 역사성 | 현대성 | 다양성 | 역동성 | 거리이용성 | 일상공간성 | 전체평균 |
|-----|----|------|------|-----|-----|------|------|-----|-------|-------|------|
| 중요도 | 평균 | 1.1 | 0.5 | 2.0 | 0.9 | 1.3 | 1.3 | 1.6 | 2.0 | 2.1 | 1.4 |
| | 순위 | 7 | 9 | 2 | 8 | 5 | 5 | 4 | 2 | 1 | |
| 성취도 | 평균 | -0.2 | -0.5 | 0.9 | 0.0 | -0.3 | -0.1 | 0.1 | 0.5 | 0.7 | 0.1 |
| | 순위 | 7 | 9 | 1 | 5 | 8 | 6 | 4 | 3 | 2 | |

이를 중요도-성취도 매트릭스 내에서 살펴보면 [그림 4-28]와 같다.



[그림 4-28] 산업경제형 축제의 서울성 매트릭스(1)

산업경제형 축제의 서울성 항목의 실질 평균점은 제2사분면에 위치하고 있으나, 0에 가까운 성취도를 보이고 있어 축제의 서울성 항목들에 대한 성취도 증진을 위한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들 서울성 항목의 상대적인 중요도-성취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그림 4-29]에서와 같이 항목들 간의 중요도, 성취도의 현저한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높은 중요도를 나타내는 항목은 장소성과, 거리이용성, 일상공간성이며, 낮은 중요도를 나타내는 것은 전국성이다. 그러나 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성취도로서 가장 높은 성취도를 보이는 장소성 항목과 가장 낮은 성취도를 보이는 전국성 항목과의 거리는 현저하다. 또한 국제성과 역사성, 현대성 및 다양성, 역동성의 항목 역시 음의 성취도를 보이고 있어 이들을 보완하여 실질 평균점의 위치를 좀더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서울성 관련 축제 정책이 시급하다.



[그림 4-29] 산업경제형 축제의 서울성 매트릭스(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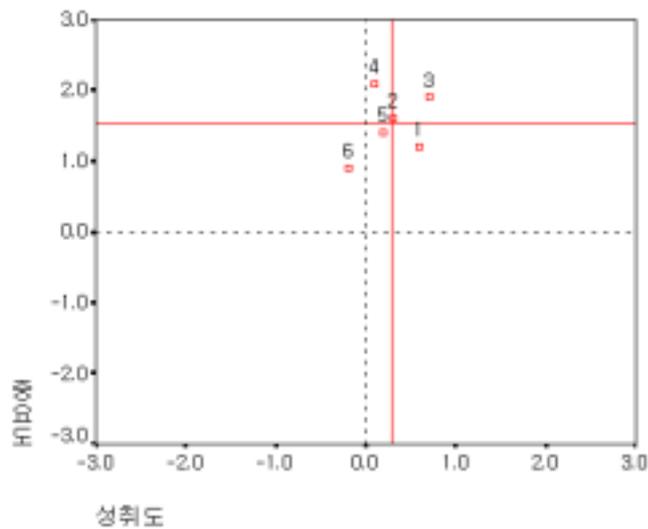
산업경제형 축제들의 축제성은 [표 4-22]에서 살펴볼 수 있다. 산업경제형 축제의 축제성 중요도 점수는 1.5이며 성취도 점수는 0.3이다. 따라서 축제성의 속성들

의 중요도와 성취도 역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중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은 유희성이며, 성취도에서는 현장성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산업경제형 축제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항목은 유희성과 현장성, 집단성이나 실질적인 축제는 현장성과 의례성 및 집단성에 집중하고 있음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축제 개최 목적을 지금보다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고려한 일관성 있는 축제 발전 전략 및 지원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특히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된 유희성은 성취도와 2점 이상의 음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산업경제형 축제 전반에 대한 방향 설정이 매우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표 4-22] 산업경제형 축제들의 축제성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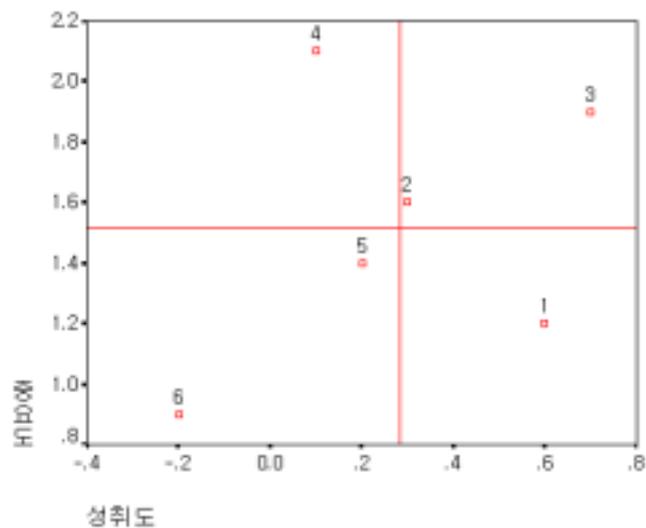
| 구분 | 항목 | 의례성 | 집단성 | 현장성 | 유희성 | 일탈성 | 창조성 | 전체 평균 |
|-----|----|-----|-----|-----|-----|-----|------|-------|
| 중요도 | 평균 | 1.2 | 1.6 | 1.9 | 2.1 | 1.4 | 0.9 | 1.5 |
| | 순위 | 5 | 3 | 2 | 1 | 4 | 6 | |
| 성취도 | 평균 | 0.6 | 0.3 | 0.7 | 0.1 | 0.2 | -0.2 | 0.3 |
| | 순위 | 2 | 3 | 1 | 5 | 4 | 6 | |

이를 중요도-성취도 매트릭스 내에서 살펴보면 [그림 4-30]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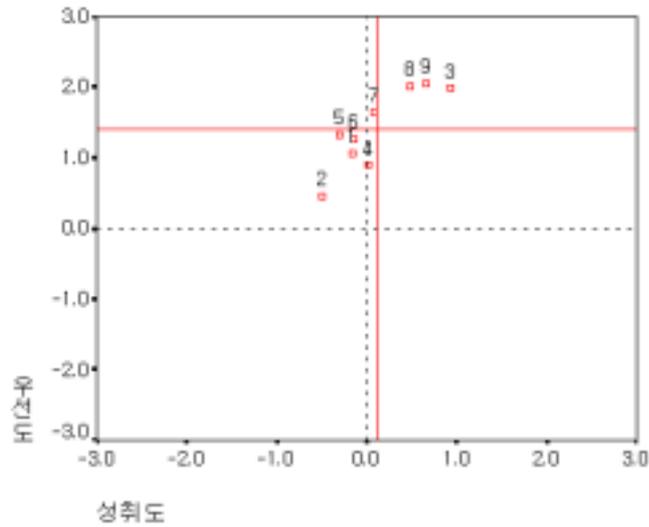
[그림 4-30] 산업경제형 축제의 축제성 매트릭스(1)

산업경제형 축제의 축제성 항목의 실질 평균점은 역시 양의 사분면에 위치한다. 축제성 항목 중 음의 성취도를 나타내는 것은 창조성 항목으로, 이들의 상대적인 위치들을 살펴보면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축제성 항목이 뚜렷하게 드러난다.([그림 4-3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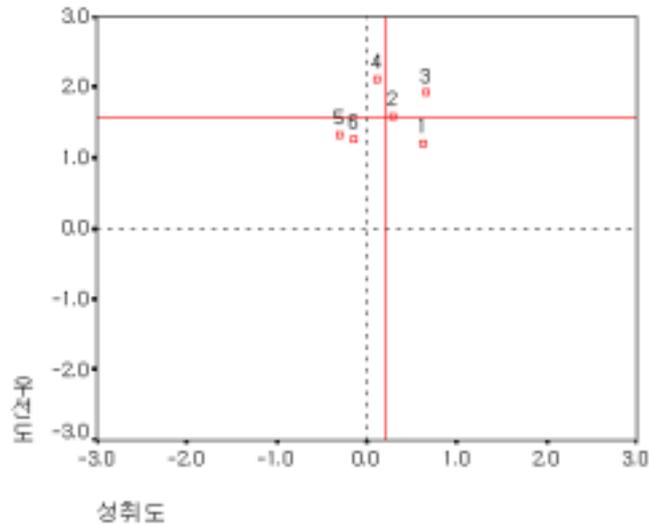
[그림 4-31] 산업경제형 축제의 축제성 매트릭스(2)

산업경제형 축제에서는 창조성과 의례성 및 일탈성 보다는 유희성과 현장성 및 집단성에 상대적으로 집중해야 한다고 분석되었다. 그러나 유희성은 성취도가 낮아 집중적으로 관리 육성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례성의 경우에는 비교적 중요치 않으나 축제 진행 과정에서 지나치게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산업경제활동의 장으로서 지역 특성을 축제 프로그램들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노력들을 통하여 산업경제형 축제의 축제성 항목들의 실질적인 상태를 발전시켜야 한다. 산업경제형 축제는 서울성과 축제성 모두에서 2.0 이상의 항목이 존재한다. 따라서 서울성 우선도-성취도 분석과 축제성 우선도-성취도 분석이 모두 가능하다.



[그림 4-32] 산업경제형 축제의 서울성 우선도-성취도 분석

산업경제형 축제의 서울성 우선도-성취도 분석을 보면, 일상공간성 항목의 중요도에 가중치가 주어짐에 따라 중요도의 실질 평균이 변하여 매트릭스 내의 서울성 항목의 배치가 달라졌다. 여기에서는 다양성과 의례성 지표의 위치가 미미하나마 달라졌다.([그림 4-32] 참조) 또한 축제성 우선도-성취도 분석을 보면, 유희성 항목에 가중치가 주어짐에 따라 매트릭스 내의 일탈성과 창조성 지표의 위치가 변화되었다.([그림 4-33] 참조) 즉, 축제 유형별로 서울성과 축제성의 지표들 중 초점을 두어야 할 지표가 선정되고 나면, 이를 반영한 우선도-성취도 분석에 의해 축제 항목들 간의 상대적인 위상이 변화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반영한 축제 유형의 실질적인 위치를 알 수가 있어 좀더 현실적인 축제 발전 전략과 축제 정책의 수립해야 한다.



[그림 4-33] 산업경제형 축제의 축제성 우선도-성취도 분석

5) 서울형 축제 평가의 우선도-성취도 분석(PPA) - 자연친화형

서울형 축제 평가의 후보 축제 중 자연친화형에는 2개의 축제가 해당된다.([표 4-14] 참조) 자연친화형 축제란 서울시의 자연환경자원을 축제 장소로서 활용하고 자연친화적인 축제 프로그램을 통하여 심미적인 만족감을 경험하고 생활의 질을 높이며, 나아가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친환경적인 시민성을 육성하는데 축제의 개최목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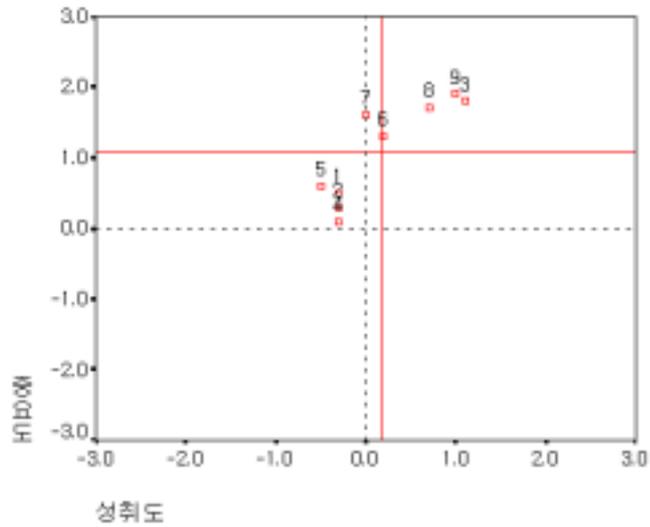
자연친화형 축제들의 서울성은 [표 4-23]에서 살펴볼 수 있다. 자연친화형 축제의 서울성 중요도 점수는 1.1이며 성취도 점수는 0.2이다. 자연친화형 축제 역시 중요도에 성취도가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은 일상공간성이며, 가장 성취도도 높은 항목은 장소성이다. 자연친화형 축제의 서울성은 3순위까지의 중요도와 성취도가 장소성과 공간환경적 차원의 거리이용성 및 일상공간성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연친화형 축제가 일상 생활에서 접하는 서울시의 하천, 공원,

산림, 수목 등의 자연환경 자원을 친환경적인 삶의 질적 향상에 대한 요구와 부합하여 축제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바와 부합한다. 따라서 이러한 자연친화형 축제들은 서울시의 자연환경적인 특성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시간적·공간적으로 효율적인 전략을 수립하도록 해야한다. 또한 앞의 서울형 축제 유형들과 비교해보았을 때, 중요도와 성취도 간의 차이가 가장 작게 나타났다. 특히 가장 중요한 일상공간성의 항목과 장소성 항목의 중요도와 성취도 간의 차이도 작게 나타났다.

[표 4-23] 자연친화형 축제들의 서울성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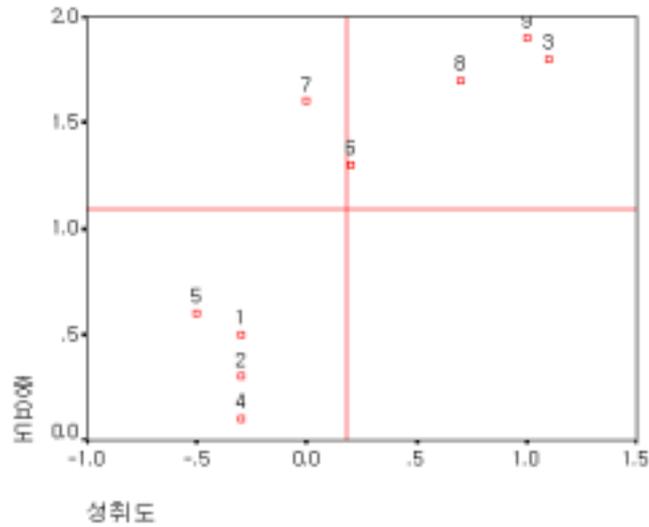
| 구분 | 항목 | 국제성 | 전국성 | 장소성 | 역사성 | 현대성 | 다양성 | 역동성 | 거리 이용성 | 일상 공간성 | 전체 평균 |
|-----|----|-----|------|-----|-----|-----|-----|-----|-----------|-----------|----------|
| 중요도 | 평균 | 0.5 | 0.3 | 1.8 | 0.1 | 0.6 | 1.3 | 1.6 | 1.7 | 1.9 | 1.1 |
| | 순위 | 7 | 8 | 2 | 9 | 6 | 5 | 4 | 3 | 1 | |
| 성취도 | 평균 | 0.3 | -0.3 | 1.4 | 0.9 | 0.0 | 0.0 | 0.1 | 1.1 | 1.1 | 0.2 |
| | 순위 | 8 | 9 | 1 | 4 | 6 | 6 | 5 | 2 | 2 | |

이를 중요도-성취도 매트릭스 내에서 살펴보면 [그림 4-34]와 같다. 자연친화형 축제의 서울성 항목의 실질 평균점은 제2사분면에 위치해, 비교적 양호한 상태라고 분석할 수 있겠으나, 국제성, 전국성 및 역사성과 현대성의 성취도가 낮게 나타났다.



[그림 4-34] 자연친화형 축제의 서울성 매트릭스(1)

또한 장소성과 일상공간성, 거리이용성 항목은 역시 양의 사분면에 위치하여 본 유형의 축제에서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서울성 항목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역동성 항목은 서울성 지표들의 상대적인 위치를 비교해볼 때, 중요하지만 성취도가 낮아 추후에 집중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항목으로 분석되었다.([그림 4-35] 참조) 이는 축제에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욕구가 충족되는 과정과 이를 위한 협의 채널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성취되지 못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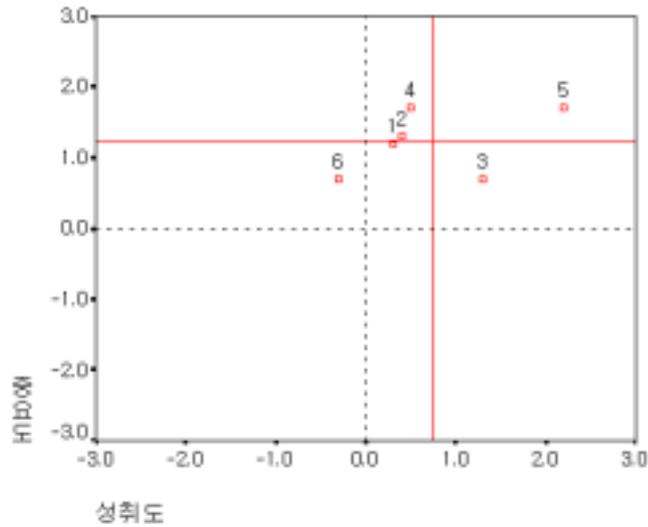
[그림 4-35] 자연친화형 축제의 서울성 매트릭스(2)

자연친화형 축제들의 축제성은 [표 4-24]에서 살펴볼 수 있다. 자연친화형 축제의 축제성 중요도 점수는 1.2이며 성취도 점수는 0.7이다. 따라서 본 유형의 축제성 속성들은 비교적 중요도와 성취도 사이의 차이가 작다고 할 수 있다. 이중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은 유희성과 일탈성이며, 성취도에서는 현장성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이는 축제를 통하여 즐거움과 재미 및 흥미를 경험하고 생계를 위한 업무공간으로부터 자연환경으로의 물리적인 환경변화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억눌림을 포출하고, 자연 속에서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성찰의 기회로서 축제에 참여하는 것을 중요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 자연환경을 활용하는 프로그램과 시간적인 적절성으로 인하여 현장성 항목이 가장 높은 성취도를 보이고 있다.

[표 4-24] 자연친화형 축제들의 축제성 분석

| 구분 | 항목 | 의례성 | 집단성 | 현장성 | 유희성 | 일탈성 | 창조성 | 전체 평균 |
|-----|----|-----|-----|-----|-----|-----|------|----------|
| 중요도 | 평균 | 1.2 | 1.3 | 0.7 | 1.7 | 1.7 | 0.7 | 1.2 |
| | 순위 | 4 | 3 | 5 | 1 | 1 | 5 | |
| 성취도 | 평균 | 1.1 | 0.8 | 1.5 | 0.6 | 0.9 | -0.1 | 0.7 |
| | 순위 | 2 | 4 | 1 | 5 | 3 | 6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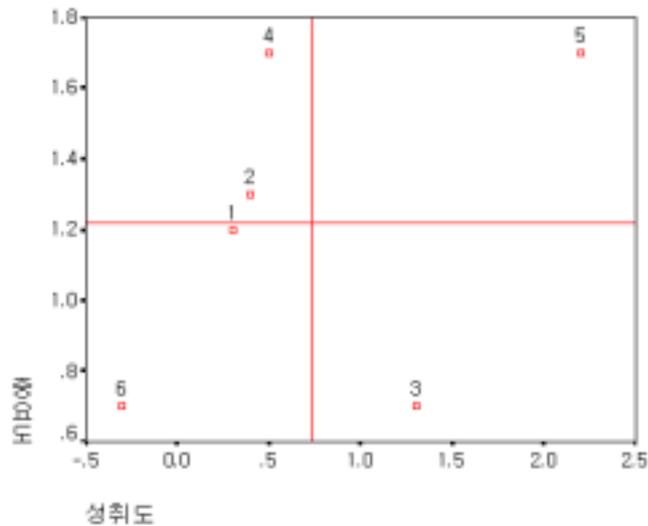
이를 중요도-성취도 매트릭스 내에서 살펴보면 [그림 4-36]과 같다. 자연친화형 축제의 축제성에 해당하는 실질 평균점은 양의 사분면에 있으나, 창조성 항목은 제 1사분면에 위치하여 중요도에 비해 낮은 성취도를 보이고 바, 집중적인 관리와 노력이 필요하다.



[그림 4-36] 자연친화형 축제의 축제성 매트릭스(1)

이들 항목 간의 상대적인 위치를 살펴보면, [그림 4-37]과 같이 큰 폭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중요도에서는 유희성과 일탈성에 비해 창조성과 현장성이 비교적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항목으로, 성취도에서는 일탈성과 현장성의 항목에 비해 창조성과 의례성 등이 제대로 성취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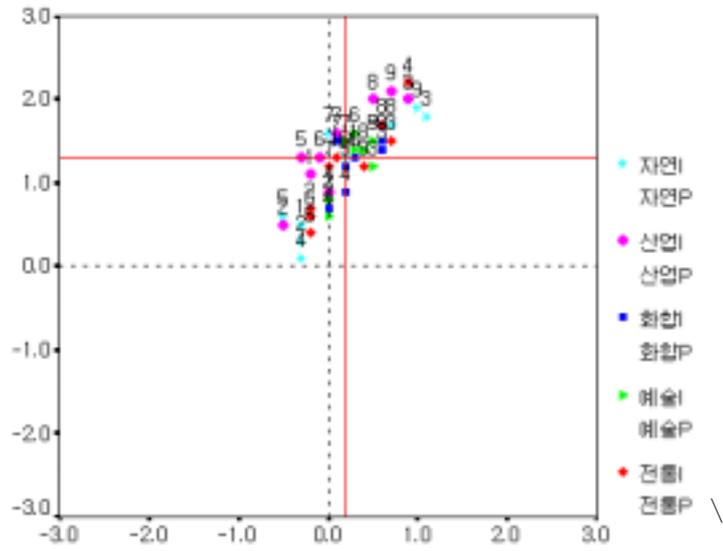
희성 항목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성취도가 실질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시급한 노력과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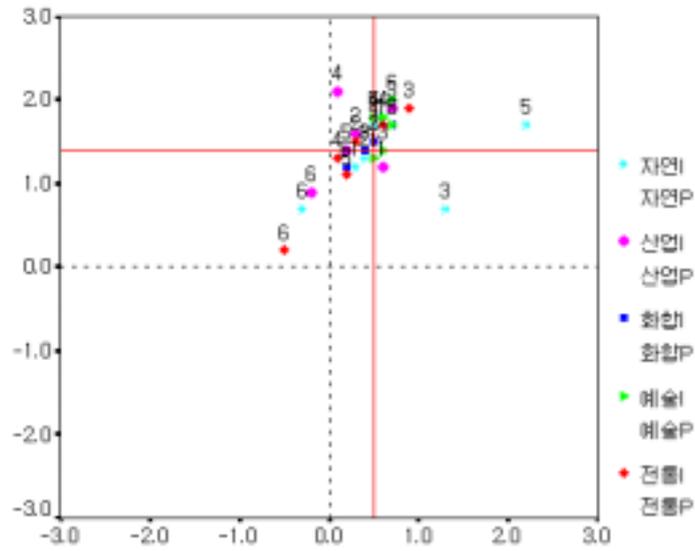
[그림 4-37] 자연친화형 축제의 축제성 매트릭스(2)

자연환경형 축제 역시 2.0 이상의 점수를 얻은 축제 속성은 없었다. 그러나 서울성 항목 중 공간환경적인 차원의 거리이용성과 일상공간성을, 축제성 항목에서는 일탈성과 유희성 항목을 잠재적인 우선도 항목으로 언급할 수 있다. 따라서 유형별 축제 평가 지표의 설정 시 이 두 항목을 반영하여 '자연친화형 서울형 축제 평가 지표'를 작성할 수 있다.

위의 유형들의 서울성과 축제성의 중요도-성취도 분석을 종합해보면, 서울성 항목 중에서는 다양성과 의례성이 유형 전체에 대해 낮은 성취도를 보이면서, 집중적인 관리와 노력을 필요로 하는 항목으로 나타났다. 축제성 항목 중에서는 창조성이 대체적으로 집중적인 관리와 노력을 필요로 하는 항목으로 나타났다.([그림 4-38], [그림 4-39]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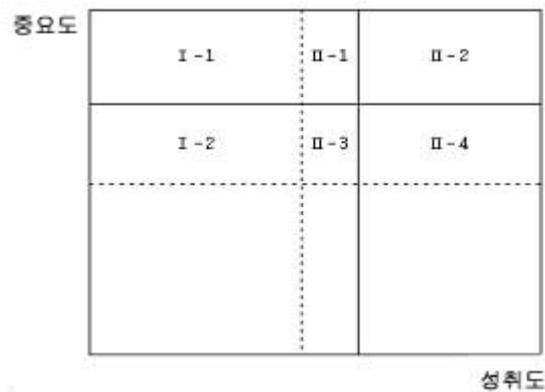


[그림 4-38] 서울형 축제의 유형별 중요도-성취도 분석: 서울성



[그림 4-39] 서울형 축제의 유형별 중요도-성취도 분석: 축제성

이들을 종합하여 말하면, 절대적인 평균점과 상대적인 평균점을 중심으로 각 유형별로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할 서울성과 축제성의 요소들이 구분된다.([그림 4-40 참조]) 특히 절대적 기준선 이상에 해당하는 중요도를 지니는 항목들 중 성취도의 정도에 따라 지원의 방향이 달라진다.([표 4-25] 참조)



[그림 4-40] 중요도-성취도 매트릭스 내의 상대적 위치에 따른 지원방향

[표 4-25] 중요도-성취도 매트릭스 내의 상대적 위치에 따른 지원방향

| 구분 | 의미 | 지원방향 |
|--------|--------------|---------|
| I - 1 | 절대·상대 육성 | 단기 집중지원 |
| II - 1 | 절대 유지/상대 육성 | 단기 집중지원 |
| I - 2 | 절대 육성/상대 불필요 | 장기지원 |
| II - 2 | 절대·상대 유지 | 비예산 지원 |
| II - 3 | 절대 유지/상대 불필요 | 비예산 관리 |
| II - 4 | 절대 유지/상대 중단 | 비예산 관리 |

이에 따라, 현 서울형 축제 후보 축제들의 서울성과 축제성의 우선순위를 살펴

보면, [표 4-26]과 같이 유형별로 지원의 방향이 달리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표 4-26] 축제유형별 서울성과 축제성 우선순위

| 유형 | 집중육성 관리 | | 현상유지 관리 | | | | |
|-------|---------|-------|------------------------------------|----------------------------|------------------------------|-------------------|-----|
| | 단기 집중지원 | 장기 지원 | 단기 집중지원 | 비예산 지원 | 비예산 관리 | | |
| | I -1 | I -2 | II -1 | II -2 | II -3 | II -4 | |
| 역사 전통 | 서울성 | - | 전국성 현대성 다양성 | 국제성 역동성 | 장소성 역사성 거리이용성 일상공간성 | - | - |
| | 축제성 | - | 창조성 | 유희성 | 의례성 집단성 현장성 | 일탈성 | - |
| 순수 예술 | 서울성 | - | 전국성 역사성 | 국제성 다양성 역동성 | 장소성 현대성 거리이용성 일상공간성 | - | - |
| | 축제성 | - | - | 유희성 일탈성 | 집단성 창조성 | 의례성 현장성 | - |
| 시민 화합 | 서울성 | - | - | 국제성 다양성 역동성 | 장소성 거리이용성 일상공간성 | 전국성 역사성 현대성 | - |
| | 축제성 | - | - | - | 집단성 유희성 일탈성 | 의례성 현장성 창조성 | - |
| 산업 경제 | 서울성 | - | 국제성/전 국성 역사성/현 대성/다양 성 | 역동성 | 장소성 거리이용성 일상공간성 | - | - |
| | 축제성 | - | 창조성 | 유희성 | 집단성 현장성 | 일탈성 | 의례성 |
| 자연 친화 | 서울성 | - | 국제성/전 국성/역사 성/현대성 | 다양성 역동성 | 장소성 거리이용성 일상공간성 | - | - |
| | 축제성 | - | 창조성 | 집단성 유희성 | 일탈성 | 의례성 | 현장성 |

중요도가 평균이상인 항목들 중 성취도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난, I-1과, II-1에 해당하는 항목들에 대해 단기적으로 집중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이는 축제의 전체적인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중요도의 상대적인 차이에 따라,

장기적 지원인지 단기적 지원인지가 결정되며, 성취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나는 항목들에 대해서는 예산지원 이외의 정책적인 관리 방안이 요구된다. 서울시의 현 축제들은 서울성에서는 국제성 항목이나 역동성, 다양성 등의 항목이 중요도에 비해 낮은 성취도를 보였다. 또한 축제성에서는 전반적으로 유희성이 단기집중을 받아야 하는 항목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은 현 축제들에서 공통적으로 취약한 부분을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성취도가 높은 항목들을 파악하여 소모적인 지원행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데 예도 의미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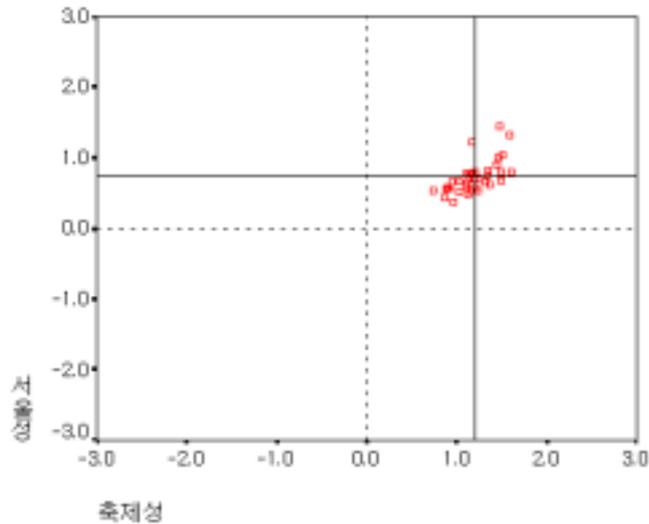
4. 서울형 축제 평가의 서울성-축제성 분석(SFA) 결과

서울형 축제 평가의 후보 축제들의 9개 항목의 서울성 점수와 6개 항목의 축제성 점수는 [표 4-27]와 같다. 상위 3순위의 서울성 점수를 받은 축제는 서울프린지 페스티벌>하이서울페스티벌>연등축제 순이며, 축제성은 명동축제>하이서울페스티벌>인사전통문화축제 순이다.

[표 4-27] 서울형 축제 평가의 서울성-축제성 평균

| 연번 | 축제명 | 서울성 | 축제성 | 연번 | 축제명 | 서울성 | 축제성 |
|----|--------------|-------------|-------------|----|----------------|------|------|
| 1 | 서울악령시축제 | 0.68 | 1.02 | 18 | 남산골 단오민속축제 | 0.78 | 1.16 |
| 2 | 한성백제문화제 | 0.62 | 1.37 | 19 | 고궁축제 | 0.56 | 0.89 |
| 3 | 인사전통 문화축제 | 1.05 | 1.51 | 20 | 동대문패션 페스티벌 | 0.66 | 1.32 |
| 4 | 벚꽃축제 | 0.63 | 1.10 | 21 | 송파다리밟기 | 0.48 | 1.12 |
| 5 | 종묘대제 | 0.66 | 0.95 | 22 | 사직대제 | 0.57 | 0.90 |
| 6 | 명동축제 | 0.80 | 1.61 | 23 | 국악로문화축제 | 0.52 | 1.02 |
| 7 | 선농제향 | 0.53 | 1.23 | 24 | 세계통과의례 | 0.81 | 1.34 |
| 8 | 홍대 거리미술전 | 0.99 | 1.46 | 25 | 서울세계 불꽃축제 | 0.76 | 1.14 |
| 9 | 연등축제 | 1.23 | 1.17 | 26 | 지구촌한마당 | 0.76 | 1.35 |
| 10 | 서울국제 공연예술제 | 0.67 | 1.49 | 27 | 청룡문화제 | 0.43 | 0.86 |
| 11 | 서울드림 페스티벌 | 0.90 | 1.44 | 28 | 서울여성영화제 | 0.77 | 1.10 |
| 12 | 이태원 지구촌축제 | 0.80 | 1.50 | 29 | 고종명성후 가례재현행사 | 0.53 | 0.73 |
| 13 | 서울프린지 페스티벌 | 1.44 | 1.47 | 30 | 송파백중놀이 | 0.70 | 1.18 |
| 14 | 강동선사 문화축제 | 0.72 | 1.23 | 31 | 서울국제미디어 아트비엔날레 | 0.72 | 1.14 |
| 15 | 조선조과거재현 | 0.57 | 0.93 | 32 | 남산골한옥마을 추석행사 | 0.79 | 1.20 |
| 16 | 석촌호수 에메랄드축제 | 0.54 | 1.16 | 33 | 정동문화축제 | 0.57 | 1.20 |
| 17 | HiSeoul 페스티벌 | 1.32 | 1.59 | 34 | 월드컵공원 역사축제 | 0.59 | 1.10 |
| | | | | 35 | 남이장군대제 | 0.38 | 0.97 |

서울형 축제 평가의 후보 축제 35개를 서울성-축제성 분석 매트릭스에 배치해 본 결과 실질 평균점은 현상 유지 관리가 필요한 제2사분면에 위치한다. 따라서 현재 서울형 축제들은 비교적 서울성과 축제성이 양호하게 반영되는 축제의 현주소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그림 4-41] 참조)



[그림 4-41] 서울형 축제의 서울성-축제성 분석(1)

서울성-축제성 분석 매트릭스의 음의 사분면, 즉 제3사분면에 위치하게 된다면 축제의 서울성과 축제성도 미흡한 상태이므로, 아직 서울형 축제라고 분류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태를 ‘축제 태생기’라 명명할 수 있다. 즉, 축제가 존재하되 지역적 정체성이나 축제성 모두 결핍되어 있어 존재만이 의미있는 상태이다. 지속적인 축제 발전의 노력을 통하여 지역적 정체성이 갖추었으나 축제적 성격이 결여되어 있어 실질 평균점이 제1사분면에 위치하거나, 혹은 반대로 축제적 성격은 갖추었으나 지역적 정체성이 반영되지 못하여 제4분면에 실질 평균점이 위치하게 되는 경우들은 ‘축제 과도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서울성, 즉 지역성과 축제성 실질 평균점이 양의 사분면, 즉 제2사분면에 위치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축제 성숙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축제의 유형에 따라 초점을 둔 항목들을 유지·관리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중요도 성취도 간의 차이를 줄여나갈 수 있는 축제 발전 전략 및 문화자원이 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축제 지원 정책의 지속적인 평가와 관리가 요구된다.([그림 4-4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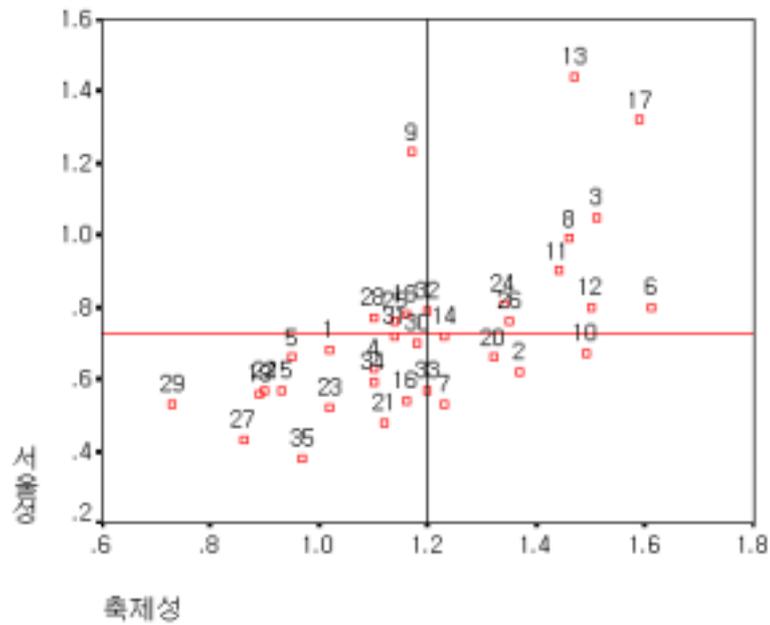


[그림 4-42] 서울성(지역성)-축제성 분석으로 본 축제발전단계

서울형 축제 분석의 서울성-축제성 분석 결과를 상대적인 비교를 통하여 살펴 보면, 서울프린지페스티벌(13)¹⁶⁾과 하이서울페스티벌(17)이 현 서울형 축제 중 가장 성숙한 단계의 축제로 나타난다. 또한 서울성에 비해 축제성이 미흡한 축제로는, 고궁축제(19), 남산골한옥마을추석행사(32)와 남산골한옥마을단오민속축제(18), 서울 여성영화제(28), 세계불꽃축제(25), 서울국제미디어아트비엔날레(31)가 포함되었다. 반대로 축제성에 비해 서울성이 미흡한 축제로는 한성백제문화제(2), 선농제향(7), 서울국제공연예술제(10) 및 동대문패션페스티벌(20)이 포함되었다. 또한 35개 중 11

16) 1.서울약령시축제 2.한성백제문화제 3.인사전통문화축제 4.벚꽃축제 5.종묘대제 6.명동축제 7.선농제향 8.홍대거리미술전 9.연등축제 10.서울국제공연예술제 11.서울드림페스티벌 12.이태원지구촌축제 13.서울프린지페스티벌 14.강동선사문화축제 15.조선조과거재현 16.석촌호수에메탈드축제 17.하이서울페스티벌 18.남산골단오민속축제 19.고궁축제 20.동대문패션페스티벌 21.송파다리밟기 22.사직대제 23.국악로문화축제 24.세계통과의례 25.서울세계불꽃축제 26.지구촌한마당 27.청룡문화제 28.서울여성영화제 29.고종명성후가례재현 30.송파백중놀이 31.서울국제미디어아트비엔날레 32.남산골한옥마을추석행사 33.정동문화축제 34.월드컵공원역새축제 35.남이장군대제

개의 축제가 상대적으로 서울성과 축제성 모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들 중 역사전통형 축제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서울형 축제의 실질적인 평균점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좀더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기 위하여 절실히 요구된다.([그림 4-43] 참조)



[그림 4-43] 서울형 축제의 서울성-축제성 분석(2)

서울성과 축제성의 각 항목별 순위는 [표 4-28], [표 4-29]과 같다.

[표 4-28] 서울형 축제의 항목별 순위 : 서울성

| 서울성 | | | | | | | | | |
|-----|-----------------|--------------|------------|--------------|-----------------|-----------------|--------------|-------------|-------------|
| 순위 | 국제성 | 전국성 | 장소성 | 역사성 | 현대성 | 다양성 | 역동성 | 거리이용성 | 일상공간성 |
| 1 | 지구촌한마당 | 조선조 과거재현 | 사직대제 | 선농제향 | 서울국제 미디어아트 비엔날레 | 서울여성 영화제 | HiSeoul 페스티벌 | 벚꽃축제 | 벚꽃축제 |
| 2 | 이태원 지구촌축제 | 고종명성후 가례재현행사 | 서울약령시축제 | 한성백제 문화제 | 서울국제 공연예술제 | 서울프린지 페스티벌 | 서울드림 페스티벌 | 홍대거리 미술전 | 월드컵공원역새축제 |
| 3 | 세계통과의례 | 연등축제 | 송파다리밟기 | 남이장군대제 | 서울세계 불꽃축제 | 서울국제 공연예술제 | 서울프린지 페스티벌 | 명동축제 | 명동축제 |
| 4 | 서울국제 공연예술제 | 서울국제 공연예술제 | 월드컵공원 역새축제 | 고궁축제 | 서울여성 영화제 | 정동문화축제 | 홍대거리 미술전 | 정동문화축제 | 석촌호수 에메랄드축제 |
| 5 | 서울세계 불꽃축제 | 국악로 문화축제 | 고궁축제 | 고종명성후 가례재현행사 | 동대문패션 페스티벌 | HiSeoul 페스티벌 | 동대문패션 페스티벌 | 석촌호수 에메랄드축제 | 정동문화축제 |
| 6 | 서울국제 미디어아트 비엔날레 | 종묘대제 | 선농제향 | 종묘대제 | 석촌호수 에메랄드축제 | 지구촌한마당 | 서울여성 영화제 | 월드컵공원 역새축제 | 서울약령시축제 |
| 7 | 인사전통 문화축제 | 서울드림 페스티벌 | 한성백제 문화제 | 송파백중놀이 | 서울드림 페스티벌 | 서울국제 미디어아트 비엔날레 | 명동축제 | 연등축제 | 송파다리밟기 |
| 8 | 종묘대제 | 사직대제 | 강동선사 문화축제 | 남산골단오민속축제 | 홍대거리 미술전 | 서울드림 페스티벌 | 서울세계 불꽃축제 | 인사전통 문화축제 | 홍대거리 미술전 |
| 9 | 서울드림 페스티벌 | 선농제향 | 남산골단오 민속축제 | 조선조 과거재현 | 정동문화축제 | 세계통과의례 | 지구촌한마당 | 국악로 문화축제 | 인사전통 문화축제 |
| 10 | 고궁축제 | 서울여성 영화제 | 종묘대제 | 강동선사 문화축제 | 서울프린지 페스티벌 | 홍대거리 미술전 | 석촌호수 에메랄드축제 | 동대문패션 페스티벌 | 남이장군대제 |

[표 4-29] 서울형 축제의 항목별 순위 : 축제성

| 순위 | 의례성 | 집단성 | 현장성 | 유희성 | 일탈성 | 창조성 |
|----|-----------------|-----------|-----------|----------------|-------------------|-------------------|
| 1 | 종묘대제 | 남산골단오민속축제 | 월드컵공원역새축제 | 석촌호수 에메랄드축제 | 서울세계불꽃축제 | 서울국제공연예술제 |
| 2 | 고종명성후 가례재현행사 | 송파다리밟기 | 고궁축제 | 벚꽃축제 | 서울여성영화제 | 서울프린지페스티벌 |
| 3 | 사직대제 | 선농제향 | 인사전통문화축제 | 서울세계불꽃축제 | 서울프린지페스티벌 | 서울국제미디어아트 비엔날레 |
| 4 | 선농제향 | 사직대제 | 이태원지구촌축제 | 명동축제 | HiSeoul 페스티벌 | 홍대거리미술전 |
| 5 | 조선조과거재현 | 연등축제 | 서울약령시축제 | 서울드림페스티벌 | 서울드림페스티벌 | 서울여성영화제 |
| 6 | 송파다리밟기 | 서울약령시축제 | 정동문화축제 | HiSeoul 페스티벌 | 명동축제 | 서울국제공연예술제 |
| 7 | 강동선사문화축제 | 청룡문화제 | 강동선사문화축제 | 이태원지구촌축제 | 홍대거리미술전 | 정동문화축제 |
| 8 | 남이장군대제 | 종묘대제 | 홍대거리미술전 | 정동문화축제 | 석촌호수 에메랄드축제 | 동대문패션페스티벌 |
| 9 | 고궁축제 | 강동선사문화축제 | 명동축제 | 서울프린지페스티벌 | 지구촌한마당 | 세계통과의례 |
| 10 | 송파백중놀이 | 조선조과거재현 | 한성백제문화제 | 지구촌한마당 | 서울국제미디어아트 비엔날레 | 지구촌한마당 |

제 V장 서울형 축제 지원 방안

제1절 축제지원정책의 현황

제2절 국내외 축제 지원 정책 사례

제3절 축제 유형별 사례분석

제4절 축제지원정책 시스템 마련

제1절 축제지원정책의 현황

현재 우리나라 전역에서 개최되는 축제 중 통계분석이 가능한 지역축제만 1,197개에 달한다.(장병권, 2000) 1992년 지방자치제도의 도입 이후, 특히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게 된 이후에 중요한 정책 대상으로 축제는 그 양적 증가를 계속하고 있다.

또한 국민 소득의 증가와 더불어 삶의 질적 향상에 대한 욕구가 여가 생활의 비중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도 축제의 양적 증가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주5일 근무제가 확대 실시되고 자가 차량 보유의 수가 늘어나고 있어,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역 활성화의 수단으로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역축제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공적 부분의 지원을 위한 기준 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축제의 운영과 진행에 관한 부분 뿐만 아니라 축제를 개최하기 이전의 준비단계에서 필수적인 예산 배정이나 지역 사회의 역할 분담에 관한 법적 근거 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축제의 개최와 진행을 위한 축제환경조차 미흡한 상태로 운영되는 축제도 적지 않다. 축제가 제대로 치러지기 위해서는 준비단계에서부터 사후단계까지 입체적이고 유기적인 축제의 운영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한 지방 정부의 체계적인 축제 지원 정책의 수립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형 축제의 발전을 위하여, 기존 연구들의 축제 지원 정책에 관한 논의들을 통하여 현 축제 지원 정책의 주소를 파악하고 축제 홍보, 축제 예산, 축제 조직 및 축제 평가를 중심으로 하는 축제 지원 정책 이론을 논하고자 한다.

1. 축제지원정책 이론

정부의 정책 분야 중에서 문화정책의 비중이 증대됨에 따라, 축제 지원 정책 역시 함께 그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다.([표 5-1] 참조) 특히 중앙정부의 문화정책과 축제 지원 정책은 지방자치정부의 문화정책과 축제 지원 정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표 5-1] 문화정책과 축제 지원 정책의 흐름

| 구분 | 문화정책 | 지역문화정책 | 축제정책 | 비고 | |
|-----|----------------------------|--------------------|--------------------|--------------------|-------------|
| 생성기 | 1·2공화국 국민계몽 | 특이사항 없음 | 특이사항 없음 | - | |
| 발아기 | 3·4공화국 민족문화강조 | 전통문화보존 | 민속경연대회 지방문화제 실시 | - | |
| 도약기 | 5·6공화국 문화에 대한 중요성 인식 | 지방문화진흥 5개년계획수립 | 지역문화행사지 원 | 86아시아게임 88올림픽게임 | |
| 성장기 | 문민정부 | 문화복지 개념도입 | 지역문화활성화 정책수립 | 문화관광축제 지원시작 | 지방자치제 실시 |
| | 국민의 정부 | 문화산업 중시 민간참여활성화 | 지역문화의 해 선포 | 문화관광축제 지원 본격화 | 2002월드컵 |
| | 참여정부 | 문화개념확장 등 진행중 | 지역균형개발 등 진행중 | 미정 | - |

우리나라의 축제 지원 정책은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과 지방자치정부 차원의 정책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중앙정부 차원의 축제 정책은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이후에도 지방자치정부의 축제 정책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현재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역축제에 대한 지원정책은 크게 관광개발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문화관광축제’와 전통지역문화과에서 주관하는 ‘특성화사업(지역민속축제)’으로 나뉘어진다. 문화관광축제는 관광상품성이 큰 축제를 선정하여 지원·육성하고 있는 사업이고, 특성화사업은 지역적으로 기획력이 우수하고 지역 고유의 민속을 반영하거나 민속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축제를 후원하는 사업이다. 즉, 지역 축제에 대한 중앙정부의 정책은 관광의 측면과 전통 민속 보존으로 나누어 집행된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정책적 관심은 관광적 측면이 강조된 문화관광축제 육성성에 더 기울어져 있다.

이러한 성격은 세 가지의 축제 지원 정책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축제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문화관광축제 육성에 책정된 2004년 예산은 약 20억원인데 비해 지역민속예술제에 대한 지원은 5억에 그치고 있다. 둘째, 정책목표를 살펴보면 민족 예술제에 대한 지원 역시 관광자원화라는 목적을 함께 내세우고 있어 결국 지역축제 지원에 대한 목적은 관광, 지역경제 활성화에 집약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에서도 중심 축제 선정과정에 관광분야 전문가가 선정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어, 관광상품화 가능성이 미약한 축제들은 탈락되거나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된다. 문화관광축제 선정은 기준은 [표 5-2]와 같다.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됨에 따라 획득되는 예산의 지원과, 한국관광공사 및 문화관광부를 통하여 전국 혹은 해외로 소개되는 특전 등은 각 지방자치정부에게 매우 매력적인 요소가 된다. 따라서, 정부에서 요구하는 선정 기준에 축제의 컨셉과 내용을 맞추려는 노력이 가열화되고, 애초 지역 문화 활성화와 거리가 먼 이벤트성 행사로 변질되도록 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이현식, 2004)

이러한 축제 지원 정책의 문제점은 평가 방식을 통하여서도 드러난다. 문화관광부의 축제 평가는 축제 방문객 설문조사와 문화관광부 직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의 참관 평가, 외래객 유치실적 으로 구성된다. 방문객 설문조사는 만족도와 지출 및 방문동기 등의 공통평가항목을 의무적으로 조사하게 되는데, 해당 평가는 축제 추진 기관이 위촉한 평가기관에 의해서 수행된다. 결국 평가자 선정의 객관성을 신뢰할 수 없는데 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한다.(이현식·진대현, 2004)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축제 지원 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준이 실질적으로 부재하다는 점이다. 축제의 운영에 관한 세부 항목에 대해 모두 법적 기준과 준거를 둘 수는 없지만, 일련의 법이나 제도적 규정이 있음에서 발생하는 안정성은 고려해야만 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앙정부의 축제 지원 정책이 지방자치정부의 축제 지원 정책에 주는 영향을 고려한다면, 축제 지원 정책에 관한 정비는 더욱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표 5-2] 2004년도 상반기 문화관광축제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세부내용 |
|-----------------------------|---|
| 1.국내외 관광객 유치 가능성 (관광상품화가능성) | ○ 구체화된 홍보·마케팅 전략 및 상품화 계획 - 상품화를 목적하지 않은 단순 홍보는 지양 |
| 2.축제기획의 전문성 확보 (축제의 콘텐츠) | ○ 지역의 특성과 문화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마련 ○ 축제 주제와 연관된 프로그램 마련 - 주제와 무관한 프로그램 지양 ○ 축제 방문객을 위한 지역의 특이한 참여·체험프로그램 ○ 타 지역 축제와 차별화된 프로그램 - 그 지역만의 전통/민속적 내용이 담긴 프로그램 ○ 체류관광을 위한 야간 프로그램 개발 ○ 축제의 콘텐츠에 있어 만족도 제고를 위한 개선의지 - 전문가 집단에 의한 축제 컨설팅 계획 ○ 축제만을 위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축제조직체 구성 - 비전문적인 축제 조직위원회 지양 |
| 3.주최기관의 축제 육성의지 | ○ 광역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 광역자치단체의 충분한 예산지원이 확보된 축제를 우선적으로 선정 ○ 문화관광축제 추천을 위한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체심사 |
| 4.문화관광축제 기반시설 | ○ 행사장내 고정된 축제 시설물 - 공연장, 화장실, 전시장 등 ○ 방문객을 위한 편의시설(주차장, 휴식공간 등) ○ 고정된 축제 시설물 확보 축제 우선 선정 ○ 기반시설에 관한 장기계획 수립 축제 우선 선정 |
| 5.축제의 부가가치창출 효과 | ○ 지역경제 활성화 (고유의 먹거리, 지역의 전통적 물품·특산품, 캐릭터 상품 등) ○ 수익성 및 시장성 - 수익성 : 관광수입기여도, 지속판매 가능성 - 시장성 : 주시장 확보여부, 시장크기 |
| 6. 2003년 축제 개최 실적 | ○ 축제의 성공적 개최 정도 - 축제 개최 결과 및 축제 참관평가 |
| 7.기타 | ○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 관광활성화 ○ 먹거리 장터, 잡상인 통제 의지, 주민참여도 등 |

자료 : 문화관광부 홈페이지(www.mct.go.kr) '2004'하반기 문화관광축제 선정계획 ' 자료

한편, 지방정부의 축제 지원 정책은 일반적인 정책의 기준이 약하고, 특정 제를 위한 정책 수립으로 시행되어 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더욱 필요한 실정이다. 현재 지방정부의 축제 지원 정책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지나친 관의 개입으로 인한 자율성과 전문성의 상실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아예 행사를 직접 주관하는 경우

도 적지 않으며, 민간 조직의 축제 형식으로 진행되지만 실제적인 운영이나 내용적인 면에 지방정부가 개입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이는 지역축제의 다양성과 자율성 및 창의성 상실에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이현식, 2004) 특히, 문화의 영역인 축제를 행정적으로 다루는 과정에서 대중 동원형의 전시행정적 결과물로서 축제가 전략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지역축제의 자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 지원과 독자적인 축제 추진 조직의 설치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논의거리들은 지역축제가 지역문화의 총체적인 발현이기에, 축제를 통한 지역의 문화적 역량의 강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축제 지원 정책에 대한 제언이 가능하다.

우선, 축제와 관련된 법적, 제도적 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 즉, 축제의 일관적인 운영에 법률적 권한을 부여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의 지침으로 한다. 현재의 지방 자치 단체의 축제 관련 조례는 [표 5-3], [표 5-4], [표 5-5]와 같다. 둘째, 축제의 조직과 관련하여 축제위원회의 설치해야 한다. 지방정부가 축제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축제위원회 같은 별도의 민간조직을 구성하여 축제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축제를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행정기관 조직 하의 부서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공익법인의 형태로 축제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통하여 자생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 현재의 지역 축제들은 지방정부의 재정 지원에 많은 의존을 하고 있다. 따라서 축제 추진 주체가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통하여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민간 조직의 형태로 구성된 축제 추진 조직을 통하여 다양하고 융통성 있는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금 조성 기회의 폭을 넓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축제의 평가를 통하여 장기적인 축제 발전에도모하되, 객관성을 지닌 평가 주체를 설정함과 동시에 축제의 개최 목적과 성격에 따른 다양한 평가가 실시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개별 축제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하는 축제별 지향점과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표 5-3] 광역시 축제관련 조례 현황

| 구분 | 개수 | 제정처 | 명칭 | 구성 | 내용 |
|----|----|-----|------------------|------------------|---|
| 부산 | 3 | 부산시 | 영화영상진흥기금 설치및운용조례 | 제4조 (기금의 용도) | 부산지역에서 개최되는 국제영화제관련사업에 기금사용 |
| | | 남구 |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2조(기능) | 위원회 목적 및 기능 : (문화예술축제추진, 문화예술축제의 기본계획에 관한사항) |
| | | 동래구 | 동래총렬제에관한조례 | 독립조례 (총 11조) | 목적,행사내용및시기,위원회설치기능구성,분과위원회설치,협조,위탁 |
| 인천 | 4 | 인천시 | 법시민축제지원에관한 조례 | 독립조례 (총 8조) | 목적,사업비보조및감독,공무원파견,위원회설치기능구성,사업계획서제출 |
| | | 부평구 | 문화예술진흥조례 | 제5장 (문화예술 축제지원) | 목적,사업비보조및감독,위원회설치기능구성,사업계획서제출,위원임기해촉,고문및자문위원위촉,기획단운영,협조 |
| | | 연수구 | 문화예술진흥조례 | 제4장 (문화예술 축제지원) | 목적,축제대상사업,사업비보조및감독,위원회설치기능구성,사업계획서제출,위원임기해촉,고문및자문위원위촉,기획단운영,협조 |
| | | 서구 | 문화예술진흥조례 | 제5장 (문화예술 축제지원) | 목적,사업비보조및감독,위원회설치기능구성,사업계획서제출,위원임기해촉,고문및자문위원위촉,상임위원회운영,협조 |
| 광주 | 3 | 광주시 | 재단법인광주비엔날레지원조례 | 독립조례 (총 12조) | 목적,협조및지원,보조금교부,출자,시유재산의사용허가,공무원파견,사업계획서제출,사업정산보고서제출,잔여재산의귀속,회장사용,권한위탁 |
| | | | 시립미술관관리운영조례 | 제42조 (대관료감면) | 광주비엔날레행사 대관료 전액감면 |
| | | 동구 | 동구서석문화축제운영에관한조례 | 독립조례 (총 15조) | 목적,행사시기,주관,위원회설치기능구성,위원임기및임무,고문및자문위원위촉,행사경비지원 |

2003년 자료.

*서울시와 대구광역시의 경우 언급 할 만한 축제관련조례 없음.

*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시민·구민·군민의날 조례 제외.

[표 5-4] 기타 지방자치단체 축제관련 조례 현황(1)

| 구분 | 개수 | 제정처 | 명칭 | 구성 | 내용 |
|----|----|-----|------------------------|----------------|---|
| 경기 | 7 | 과천 | 재단법인과천한마당축제설립및지원조례 | 독립조례 (총 15조) | 목적,법인격,사무소,사업,재원,공유재산사용허가,공무원파견,사업계획서제출,사업정산보고서제출,감독,잔여재산귀속,법인의조직및운영,위탁 |
| | | | 한마당축제육성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 독립조례 (총 10조) | 목적,기금조성및사용,운영관리및계획,기금결산, |
| | | 이천 | 도자기축제추진위원회조례 | 독립조례 (총 10조) | 목적,위원회기능구성,위원임기및임무해촉,간사 별도의 조례시행규칙 제정(총8조) |
| | | 광주 | 남한산성문화제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 독립조례 (총 8조) | 목적,위원회기능구성,위원임기및임무,전문가의견청취 |
| | | 부천 | 문화의거리조성조례 | 제7조 (관련문화예술행사) | 문화예술축제행사 년1회이상 개최, 문화단체의 축제개최 유도 및 지원 |
| | | 연천군 | 전곡리구석기문화축제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 독립조례 (총 10조) | 목적,위원회기능구성,위원임기및임무해촉,간사 별도 조례시행규칙 제정(총16조) |
| | | 가평군 | 연인산축제추진위원회운영조례 | 독립조례 (총 8조) | 목적,위원회기능구성,위원임기및임무,협조요청,간사 |
| 강원 | 3 | 강릉 | 국제만화축제조직위원회지원육성조례 | 독립조례 (총 8조) | 목적,설립운영,출연금지원,공유재산대부,공무원파견,행정지원 |
| | | | 국제관광민속제추진위원회지원조례 | 독립조례 (총 8조) | 목적,설립운영,출연금지원,공유재산대부,공무원파견,행정지원 |
| | | | 지역 축제발전위원회조례 | 독립조례 (총 17조) | 목적,위원회기능구성,위원임기및임무해촉,실무위원회,간사,안건제출및심의,축제결과평가 |
| 경남 | 1 | 통영 | 재단법인통영국제음악제지원조례 | 독립조례 (총 11조) | 목적,협조및지원,출자,보조금교부,사유재산사용허가,공무원파견,사업계획서및정산보고서제출,잔여재산귀속,시설물위탁관리 |

2003년 자료.

[표 5-5] 기타 지방자치단체 축제관련 조례 현황(2)

| 구분 | 개수 | 제정처 | 명칭 | 구성 | 내용 |
|----|----|------|----------------------------|--------------------------------|---|
| 전북 | 6 | 김제 | 지평선축제조례 | 독립조례 (총 5조) | 목적,사업내용,사업추진,위원회설립 및기능 |
| | | 전주 | 풍남제조례 | 독립조례 (총 5조) | 목적,축제시기,위원회설립 별도의 위원회규정 제정(총11조) |
| | | 군산 | 오성문화제운영조례 | 독립조례 (총 13조) | 목적,행사시기,행사주관,위원회기능, 구성,위원임기및임무,회의및의결,재 정,실비보상 |
| | | 익산 | 마한민속예술제운영 조례 | 독립조례 (총 6조) | 목적,행사시기,행사주관,경비지원 |
| | | 정읍 | 관광산업발전위원회 설치및운영조례 | 제3조 (기능) | 단풍축제,벚꽃축제 추진 |
| | | 남원 | 흥부제조례 | 독립조례 (총 4조) | 목적,시기,행사,위원회설치 |
| 전남 | 5 | 전라남도 | 축제행사수익사업등 운영및관리조례 | 독립조례 (총 19조) | 목적,관람료및주차료,시설대부,광고 료,수익사업,상표사용,환경유지및보 수명령,수익금배분 별도의 시행규칙제정(총11조) |
| | | 담양군 | 대나무축제추진위원회조 례 | 독립조례 (총 12조) | 목적,위원회기능·구성,위원위촉및해 촉,고문,집행위원회,행사계획승인,재 원 |
| | | 합평군 | 축제추진위원회운영 조례 | 독립조례 (총 12조) | 목적,위원회기능·구성,위원임기,자문, 간사,행사지원경비,이용료등의 징수 |
| | | 해남군 | 재단법인해남군문화관광 진흥센터설립및지원조례 | 제4조 (사업) | 향토문화관광축제 추진 |
| | | 장성군 | 홍길동기념사업에관한조 례 | 제2조 (기념사업) 제3조 (사업추진) | 홍길동축제개최,축제시기 |

2003년 자료.

*충청도,경상북도,제주도의 경우 언급 할만한 축제관련조례 없음.

*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시민·구민·군민의날 조례 제외.

*규정및규칙제외: 전북 부안군해남이축제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규정

전남 강진군향토축제추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

전남 영암군향토축제추진위원회운영에관한규칙

전남 영암군왕인선정심사규정

전남 목포시관광진흥자문위원회운영규정

2. 축제 홍보 지원 정책

각 자치정부는 차별적인 정체성을 발굴하고 이를 도구로 하는 장소 마케팅을 통하여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장소 마케팅의 전략으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지역 축제이다. 따라서 지역의 축제는 해당 지역이 지니는 독특한 이미지를 중심요소로 하는 장소 마케팅의 상품이라 할 수 있다. 축제가 내용적으로 충실하더라도 축제를 소비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축제의 성공은 장담할 수가 없다.

축제가 지니는 문화적인 속성으로 인하여, 축제 홍보 지원 정책을 일반적인 소비자 지향적인 마케팅과 직결하여 논의하는데에는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축제의 소비자지향주의는 상업적 측면의 단순한 경제적 이윤창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광의의 소비자 개념을 도입한 문화 향수의 확대와 맥을 같이한다. 따라서 축제 홍보 지원 정책에서 의미하는 소비자지향주의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최적의 방법을 모색하는 전략’으로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권순석, 2005)

특히, 축제 홍보 지원 정책은 축제 내적으로는 축제의 준비단계에서부터 사후단계까지를 아우를 수 있도록 장기적인 플랜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축제 외적으로는 축제가 처음 개최되는 단계에서부터 의미 있는 지역축제로 자기매김하고, 경쟁력이 강화된 축제 성숙 단계에 따른 효과적인 전략 수립이 요구된다.

축제 홍보 지원 정책은 일반적인 마케팅의 요소인 ‘마케팅 5P¹⁷⁾’를 재구성하여 살펴볼 수 있다.

17) 마케팅 믹스 5P : Product(제품)/ Price(가격)/ Place(유통)/ Promotion(촉진)/ People(조직)

1) 축제 홍보 지원 정책에서의 Product

축제 홍보 지원 정책에서의 제품(product)은 축제의 주제(theme) 및 축제명(brand)이라 할 수 있다. 축제는 각 지역의 고유한 성격을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지역문화를 축제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문화적 매개체이다. 따라서 축제소비자의 흥미를 끌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지역축제는 차별성이 부족하고, 결과적으로 흥미로운 문화 활동으로의 역량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축제를 통하여 너무 많은 것을 이루고자 함과 이를 실현시키지 못하는 현실에서 오는 완성미의 부족이 소비자들의 흥미를 얻지 못함과 동시에 축제 참가의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축제 홍보 지원 정책은 구체적인 목표를 할 필요가 있다. 즉, 축제 테마의 선정이나 축제의 브랜드를 기획할 때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이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의 구성과 이를 소비하고자 하는 타깃을 파악하여 효율적인 축제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개최목적에 따라 유형을 구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명확한 개최목적은 축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에 추구하는 가치의 구현을 위한 축제 테마가 구체화되어 일관된 축제 진행이 가능토록 한다.

2) 축제 홍보 지원 정책에서의 Price

축제 홍보 지원 정책에서의 가격(price)은 축제에서 발생하는 지출과 더불어 축제의 재정을 말한다. 대부분 축제의 재정은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그밖에 협찬이나 자체 수익구조에 의해 충당된다. 따라서 축제의 안정적인 재정의 확보와 지속적인 수익의 발생은 축제의 자생적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축제는 다른 문화적 행사와는 달리 주기성을 축제 규정의 전제 조건으로 한다. 따라서 축제가 주기적으로 개최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가지는 것이 필요조건이 된다.

따라서 축제의 민간조직화를 통하여 고정적인 기업의 스폰서십이 가능토록 함과 동시에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투자를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축제의 대표 캐릭터 개발과 같은 물적 결과물에 대한 투자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축제내용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비물리적 결과물에 대한 투자를 의미하기도 한다.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한 기업과의 스폰서십은 축제 홍보 지원 정책이 축제가 지니는 이미지와 그 파급효과가 해당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만 가능하다. 즉, 축제 홍보 지원 정책은 축제가 지니는 경제적 잠재력 제고를 통하여 기업의 자발적인 협조가 가능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3) 축제 홍보 지원 정책의 Place

축제 홍보 지원 정책에서의 유통(place)은 축제가 전달되는 경로 및 현장을 말한다. 즉, 축제가 치러지는 공간과 축제 환경을 포함하는 축제 인프라 자체가 축제 홍보 지원 정책의 유통적 측면이 된다. 따라서 공간이 주는 의미는 축제와 더불어 관람객의 만족을 유발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접근 용이성이나 공간의 쾌적성, 서비스 시설의 충족 등 많은 요소가 결합되어 축제 소비자에게 제공될 때 비로소 축제의 마케팅적 가치는 증가된다. 이들은 축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만들어내어 축제에 대한 소비자의 참여 의지를 높이고 재참여를 유발하는데 기여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축제 홍보 지원 정책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4) 축제 홍보 지원 정책의 Promotion

축제 홍보 지원 정책의 판촉(promotion)은 일관된 축제의 정체성(FI, Festival Identity)을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 축제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관된 축제의 정체성이란 개별 축제가 지니는 차별적인 축제의 속성을 말한다. 이는 축제의 테마를 통하여서도 구축이 가능하며 그 밖에도 축제의 환경적 요소들을 통

하여서도 구축이 가능하다.(권순석, 2005) 축제의 정체성이 수립되어지고 나면, 이를 전달할 전략적인 홍보활동이 뒤따라야 한다. 축제 홍보 지원 정책에서 고려해야 할 홍보 전략은 다음과 같다.

◆ PR(public relations) : 네트워킹

(지역사회나 관객과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 가는 일)

◆ Publicity : 매체홍보

(각 매체에 정보를 제공하여 무상으로 게재되게 하는 활동)

◆ Promotion : 직접홍보 (기자간담회, 축제설명회 등)

◆ Advertising : 광고 (예산을 들여 지면이나 방송시간대를 사는 것)

5) 축제 홍보 지원 정책에서의 People

축제 홍보 지원 정책에서의 조직은 축제에 참여하는 다양한 집단으로 나타난다. 즉, 축제 추진 조직 내의 구성원과 축제의 원활한 진행을 돕는 자원봉사자와 같은 개인 혹은 단체, 그리고 축제 후원집단이 이에 해당한다.

어떠한 형태의 집단이든지 혹은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고 이든기간에 중요한 것은 축제 조직원으로서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신이 일하고 있는 단체(축제)에 대해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하며, 둘째, 관객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셋째, 알맞은 홍보의 방법을 선택할 줄 알아야 하며, 넷째,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모두 계획에 따라야 하고 마지막으로 창조적인 축제 주체여야 한다. 이러한 자질을 갖추고 각각의 역할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할 때 비로소 축제 홍보 지원 정책은 성과물을 얻게 된다.(권순석, 2005)

축제 홍보 지원 정책에 있어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축제 조직원 상호 간의 커뮤니케이션이다. 이는 원활한 축제의 진행에서 뿐만 아니라, 축제를 알리고 준비하는 홍보의 과정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축제 진행 동안 축제 조직원들이 지속적

인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하여, 축제 운영에 대한 주체성을 갖도록 함과 동시에 축제 사후 단계에서도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토록 하여 효율적인 축제 운영의 자원이 되도록 한다.

3. 축제 예산 지원 정책

축제가 안정적으로 개최되고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가 축제의 예산이다. 따라서 축제 지원 정책에서 예산을 다루는 것은 현재와 같이 대부분의 지역 축제들이 자생력이 약할 경우에 매우 의미가 있다.

현재, 지역 축제가 지니는 결정적인 문제점은 지원 정책이 아직까지 특별한 법적, 제도적 기준이 정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예산과 관련된 법적 기준으로서, ‘관광진흥법’ 46조 4항과 71조 1항, 그리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들 수가 있다.

<관광진흥법>

제46조 (관광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④문화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
2.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 사업
3.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4. 국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제71조 (재정지원)

①문화관광부장관은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관광사업자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의 예산계상신청 등) ①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매년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조금의 예산계상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보조금의 교부신청)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한 기일내에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중앙관서의 장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지체없이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여부
2. 보조사업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착오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유무(자금의 일부를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만한다)¹⁸⁾

위의 법률을 기준으로 하여 총 30개의 문화관광축제가 선정된다. 또한 현재의 문화정책 하에서는 지방 정부에서 운영하는 축제일지라도, 10억 이상의 예산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의 승인과 감사를 받아야하는 행정 절차적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행정 감독으로 인한 축제 예산의 확보가 어려우며, 충분한 축제 예산이 확보된다고 할지라도 집행에 자율성이 제한된다.

지역 축제의 예산과 관련된 축제 지원 정책 상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행정법령상 재정 문제와 예산회계법상의 문제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축제 예산과 관련하여 행정법령상으로, 지방정부가 지역축제 개최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방세 수입 증대를 기하여야 하나, 축제 참가자의 소비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상인들의 소득증대에 따른 법인세, 소득세 등 축제와 관련된 세수가 전부 국가 수입이 되고, 지역축제의 주최자인 지방정부는 쓰레기 처리부담, 교통 혼잡, 시설설치 등 재정만 부담하게 되는 바, 지방정부에 대한 축제 이익의 환류가 없는 모순적 구조가 존재한다.

또다른 축제 예산 관련 제도상의 문제는 예산회계법상 예산단년도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다음연도에 축제 예산이 반영될 지가 불투명하여 행사를 주관기획사나

18)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참조

단체들이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축제에 투자하기 어렵다. 또한 이 제도 하에서는 축제준비기간이 23개월밖에 되지 않아 행사의 부실이 초래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행정 제도상의 문제는 새로운 축제유형 개발에 따른 권리보호 장치가 미비하여 유사한 이벤트성 축제가 중복 개최되어도 조정장치가 없어 자치단체별 차별화가 어려운 실정이다.(이승균, 2004) 또한 안정적인 축제 예산 확보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체 및 민간조직의 스폰서쉽 형성의 또 다른 장애로 작용하는 것이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이다.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의 엄격한 운용에 따른 기업 협찬유도가 어렵고 하천법, 공원법 등과 같은 각종 법규에 의한 음식물판매 등이 제한되는 바와 같은 축제의 이익창출을 통한 예산 확보에 대한 제한 요소가 많다.

이러한 체계적인 축제 예산 지원을 위한 정책적인 논의들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예산 증액 및 중앙정부 예산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재정자립도면에서 대단히 열악하다. 따라서 각 지역의 기간산업 및 산업개발계획에 있어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문화관광분야에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은 극히 미미하며, 지역 내 문화재의 토목적인 유지관리보수의 차원에서 집행이 되고 있어 지역축제에 관한 본격적인 예산편성에 장애가 된다.

그러나 지역축제를 장소마케팅의 측면에서 부족한 지방 재정을 보충하기 위한 지역 활성화의 수단으로 바라보는 관점으로의 전환이 확대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축제 예산 배정 확대에 관한 긍정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지역 축제에 대한 전체 예산 배정을 증대함과 동시에 지역 축제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축제의 운영과 조직 및 예산 집행에 자율성을 부여토록 한다. 즉, 최소한의 예산 집행의 감독과 최대한의 자율성 보장이 요구된다.

2) 민간기업참여 적극 유도

축제의 예산 확보를 위한 정책적 지원 중 하나는 지역산업을 연계한 민간기업의 스폰서십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는 축제 정책에서 민간기업이 스폰서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매력 요인을 고려해야 하며, 동시에 이를 장려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도 수반되어야 한다.

현재까지의 민간기업 스폰서십은 축제 기간 동안에 일부공간을 제공하여 지역 특산물이나 해당 기업의 생산품을 전시 혹은 판매토록 하는 소극적인 방식이었다. 그러나 민간기업의 장기적인 스폰서십을 촉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역 축제의 중장기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세부 추진계획을 세워 민간기업의 참여 영역과 역할을 구체화하여야 한다. 이는 민간기업이 실질적인 축제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축제의 내실화와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동시에 충족시키는데 기여한다.

3) 제3섹터의 개발

지방정부는 지역축제를 통하여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지역 이미지 홍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 문화 예술 진흥 등의 복합적인 목적 달성을 추구한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대안으로는 제3섹터의 개발을 제시할 수 있다.

제3섹터란 제1섹터인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의 활동 분야와 제2섹터인 민간 기업의 활동 분야 등 개발 주체가 가진 장담점을 상호 보완하고, 사업 개발을 능률화하여 투자 효과를 크게 하기 위해 양자의 장점을 살리는 방식으로서, 민관 공동의 제3섹터에 의한 개발 방식이 채용되었다.(이각규, 2000)

따라서 지역 내의 전체 및 집단을 조직화하는 정책적인 지원을 통하여 예산의 일부를 분담하거나 투자하도록 하는 방안이 가능하다. 이는 지방 정부의 재원으로 축제 예산을 전담하는 경우에서 발생하는 일방적인 공공주도적 지역 축제의 문제점과 민간기업이나 수익단체가 전담하여 지역 축제가 진행될 때 발생하는 공공성 저

해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는 의미있는 예산 지원 정책이라 할 수 있다.

4) 축제 경영 마인드 함양을 통한 자체적인 수익의 증대

축제 개최의 궁극적인 목적 중 하나인 지역 활성화를 고려할 때, 예산 확보를 위한 정책적 논의로서 축제를 통한 수익의 창출을 도모하는 생산적인 경영 마인드 함양을 언급할 수 있다.

현대 도시 문화 정책의 일환으로서 발전적인 지역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소모적인 문화소비만이 이루어지는 소비적인 축제가 아닌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는 생산적인 축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생산적인 축제란, 협의로서는 축제 사업비 조달을 위한 입장권 판매, 부스 임대 등의 다양한 경영기법과 캐릭터 개발 및 기념품 사업 등의 수익 창출을 의미한다. 그러나 광의로서의 생산적인 축제란 축제를 통한 축제 소비자와 축제 생산자가 축제에 해당하는 문화적 활동들을 공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역문화에 대한 인식의 전환 및 해당 문화산업에 대한 잠재적인 수요의 증대를 도모하여, 궁극적으로는 지역 문화 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수익의 증대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축제의 예로 ‘프린지 페스티벌’을 들 수 있다. 다양한 문화 공연 수익료와 관련 예술 서적 및 물품의 판매 수익이 협의의 축제 수익이 된다면, 이러한 아트마켓과 같은 문화 교류의 장을 통하여 지역 내의 문화활동의 영역을 확대하고 외부인의 지역 방문을 발생시키는 것을 통한 이익의 창출은 광의의 축제 수익이 된다. 이와 같은 축제의 수익 창출은 안정적인 축제의 운영 뿐만 아니라, 축제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는 의미있는 축제 예산 지원 정책이라 할 수 있다.

4. 축제 조직 지원 정책

지역 축제가 연속성을 가지고 개최될 수 있도록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

성과 자율성을 지닌 축제 조직의 안정적 운영이다. 특히 전문화된 축제 조직은 축제에 차별성을 부여하고 이에 합당한 축제 운영 계획의 수립과 인적 자원의 확보를 가능케 하여 지역 축제의 발전에 기여한다. 축제의 조직에 관한 지원 정책은 축제 조직의 민간조직화와 효율적인 조직 구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1) 축제 조직의 민간조직화

축제 조직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자율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지녀야 한다. 지방 정부는 이 두 가지 성격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축제 조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대안으로 외부의 전문 기획사 유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지역 축제는 지역의 고유한 문화와 연계될 때 고유성과 특수성을 가질 수 있으므로, 지역의 문화계와 지역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축제 조직의 전문성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규모의 예산을 외부 전문 기획사에게 위탁한다는 것이 반듯이 지역 문화를 반영한 지역 축제의 성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따라서 소규모라 할지라도 안정적인 축제 조직의 형태로서 ‘축제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하다. ‘축제조직위원회’, ‘축제추진위원회’ 등으로 그 명칭은 다를 수 있으나 이와 같은 축제 관련 민간조직은 축제를 독자적으로 기획, 추진, 운영하도록 하는데 근간이 된다. 이와 같은 별도의 민간 조직은 축제와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하여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축제를 추진 운영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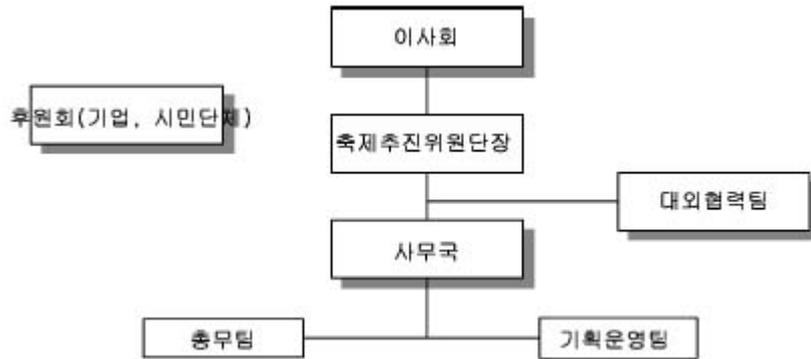
현재 지방 자치 단체에서 개최하는 축제들은 자치 정부의 문화관련 공무원들이 축제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정부 조직의 일환으로 축제를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 조직의 의견과 공적인 목적 및 목표 간에 발생하는 갈등 및 마찰이 줄어들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정부의 재정 확보도 비교적 수월하다. 그러나 해당 공무원들이 문화 정책 및 축제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축제 전체에 대한 운영을 담당한다는 것은 축제 발전의 큰 저해 요인이 된다. 지역 축제는 장기간의 계획과 준비를 위하여 진행되는 문화활동이어야 하나, 현재와 같이 공무원들이 직접 담당하

는 경우에는 축제에 전적으로 관심을 두지 못함에서 오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발생하여 축제의 질적 저하를 유발하게 된다. 물론, 축제 행정 이외의 다른 공적 사무에도 지장이 있음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또한, 자치 정부의 공무원들이 추진하는 행정 사업으로 지역 축제가 치러지는 경우에는 민간기업의 스폰서쉽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민간기업의 협조는 소규모의 물품 지원에서부터 축제 자금에 대한 기부까지 다양한 차원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행정 공무원이 축제 조직을 구성하고 행정 사무의 일환으로 축제가 운영되는 경우에, 어떠한 차원의 민간 기업 협조가 자유롭지가 못하다. 따라서 민간 조직 형태의 축제위원회 설치의 앞에서 논한 효율적인 축제 홍보 및 축제 예산 확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2) 효율적인 축제 조직 구성

성공적인 축제 개최를 위한 조직 지원 정책에서 다루어져야 할 또다른 사항은 효율적인 축제 조직의 구성이다. 법적, 제도적은 기준에 의해 설치한 축제추진위원회는 그 안정성을 보장받는 것과 동시에 효율적인 축제 운영을 위한 조직 구성의 제고도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축제 조직의 구성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은 자치 정부와의 역할 분담이다. ‘문화 거버넌스’에 관한 논의가 증대됨에 따라 축제 추진 조직의 민관 네트워크도 그 비중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 축제라는 문화 영역에서 국가, 시장(민간기업), 시민사회가 선의의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간의 네트워크를 통한 공동의 축제 추진이 가능하다. 따라서 국가가 정한 일정한 제도적 규범 아래 축제추진위원회의 존재를 보장하고, 기업과 시민단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함과 동시에 전문성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사무국을 설치하는 것을 통하여 이와 같은 민관 네트워크를 실현할 수 있다.

현재 우리 나라 축제의 일반적인 축제 조직의 구성은 [그림 5-1]과 같다.



[그림 5-1] 축제추진위원회 조직도

해외의 문화 거버넌스를 살펴보면, 문화부 영역 모형, 부처분산 모형, 독립위원회 모형, 혼합 모형의 네 가지로 구분된다.(김홍수, 2004) 문화부 영역 모형은 문화 행정을 담당하는 주무부처가 문화와 관련된 분야를 관장하면서 이들 분야의 증진을 위해 다양한 관련 기관들에 집중적인 재정지원을 하는 형태를 말한다. 프랑스와 일본이 이에 해당하며, 지역 문화의 행정 인력을 지역예술고문으로 하는 방식을 통하여 지역 간의 문화 네트워크도 동시에 도모한다. 부처분산 모형에서는 각 자치정부 마다의 문화주권이 확보되어 있어 문화 영역의 규정이 자유로우며, 분권화, 보조적 역할, 예술에 대한 자율성 보장 등을 토대로 문화정책을 운영한다. 이러한 형태의 문화 거버넌스를 운영하는 국가에는 독일이 해당한다. 독립위원회 모형은 문화와 관련된 행정을 담당하는 조직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서, 전국의 문화예술 전문가로 구성된 선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통한 시민의 참여 보장과 보조금 지급을 통한 파트너십 구축이 주된 특징이 된다. 대표적인 해당 국가는 미국으로, NEA¹⁹⁾가 중심체적 역할을 담당한다.(김문환·전예환, 1998) 혼합 모형에는 영국이 이에 해당하는데, 네트워크 센터의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을 운영함으로써, 문화예술

19) 국립예술기금

의 진흥과 이를 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형태이다. 예술위원회 및 지역예술인 연합회 등의 민간 조직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을 민관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축제 조직의 구성에 있어서 문화 거버넌스의 운영에 따른 민관 네트워크 조직의 활용은 지역의 문화 행정 현황에 따른 자치정부, 기업 및 시민의 역할 분담에 대한 함의를 제공한다. 각 지역의 문화 행정의 역할 분담 정도는 축제 조직 내의 기본적인 역할 분담의 틀을 제공하게 되고, 문화 거버넌스를 통하여 제시된 지역 문화적 차원의 목표는 축제 추진 조직의 하위 조직 구성의 기준이 된다.

또한 축제의 개최 목적에 따라서도 자유로운 축제 조직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예술을 주제로 하는 축제의 경우는 축제의 주제 선정이나 작품 선정 및 프로그램 구성에 관하여서 해당 예술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과 동시에 관련 분야를 전공하거나 개인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자원봉사자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직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시민들의 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축제는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의 의견 수렴을 위한 조직을 구성해야 하며, 전문적인 운영과 예산 집행에 관한 최소한의 부문을 제외하고는 시민의 참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조직을 구성할 수 있어야 하겠다.

5. 축제 평가 지원 정책

지역 축제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거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축제에 대한 재평가가 대단히 중요하다. 축제에 대한 평가는 단면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축제가 진행되는 동안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축제의 준비단계에서부터 사후 단계에 걸친 모든 과정에서 평가를 위한 다양한 접근이 요구된다. 축제 조직 자체가 실시하는 내부적인 자체 평가 뿐만 아니라, 축제 소비자나 전문 연구기관 등에 의한 외부 평가가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

지역 축제의 평가를 위해서는 일관된 체계를 지니는 평가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전문가로 조직된 평가단을 통하여 평가서를 작성하고 이를 다음 축제에 반영함으로써 개별적인 항목에 대한 예산 및 인적 지원규모부터 축제 전체의 방향성을 제고할 수 있다.

지역 축제를 평가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까지의 대부분의 축제 평가는 관광산업으로서의 효과만을 측정하기 위한 외래 관광객 수를 기준으로 하는 일괄적인 방식이었다. 이는 축제의 개최목적과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평가로서, 축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는 제한적인 기여만이 가능하다. 따라서 축제의 개최목적에 따라, 얼마나 지역 민속이나 문화를 충실하게 재현했는가,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자발적으로 참여했는가, 기초 예술 지원에 얼마나 기여했는가, 지역 예술인 지원 육성 사업 등과 연계될 수 있는 있는가에 관한 다면적이고 입체적인 축제 평가 기준이 수립되어야 한다.(이현식, 2004)

마지막으로 평가를 실시하는 평가단을 구성하는 방식을 생각해볼 수 있다. 지역 축제별로 해당 개최 목적을 고려하여, 이를 얼마나 실현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평가위원으로 지역의 저명인사만을 위촉하자는 것은 아니다. 축제의 기획 경영에 관한 평가는 해당 전문가가 담당할 수 있으나, 그 밖의 시민 참여라든지 잠재적인 욕구에 대한 평가는 실질적인 축제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평가단이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축제 기간 동안과 사후에 관한 시민 의견들은 다양한 매체들을 통하여 수집이 가능하다. 이는 특정 축제 평가단의 형식이 아니더라도 의미 있는 축제 평가 의견들이 도출될 수 있는 중요한 잠재적 평가체가 된다. 이를 위해서는 축제가 종료된 후에도 지속적인 의견 수집이 가능하도록 시민 네트워크를 유지하거나 온라인 상의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등의 평가 지원 정책의 마련도 필요하다.

제 2 절 국내외 축제 지원 정책 사례

국내외 축제 지원 정책의 사례는 서울형 축제의 체계적인 지원 마련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국내외 축제 지원 정책 역시 축제 홍보/ 축제 예산/ 축제 조직/ 축제 평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1) 국내외의 축제 홍보 지원 정책 사례

국내외의 축제 홍보와 관련된 정책 사례들은 [표 5-6]과 [표 5-7]와 같다. 축제 개최 이전의 준비단계에서 철저한 수요조사와 욕구조사를 통해, 축제의 내용을 구성하며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축제에 대한 홍보를 실시한다. 지역신문 및 지역 방송을 활용할 뿐만 아니라, 축제 자체 현수막이나 리플릿 등을 일관성있게 제작하고 배포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다.

[표 5-6] 국내외 축제 홍보 지원 정책 사례(1)

| 지역 | 내용 |
|----|--|
| 일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지방신문을 활용하여 홍보 <p>[오사코이축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축제의 심벌인 나루코(농촌에서 새를 쫓을 때 쓰던 케스터네츠 같은 전통 악기)를 축제 기념상품으로 구입하므로 경제적 효과 발생 ·축제라는 혼돈과 열기 속에서 익명성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이 젊은 층에게 크게 어필됨. ·지역사회와의 적극적인 상호관계가 뿌리내려짐. ·각종 매스컴에서는 홍보, 지역신문의 지속적인 관심을 야기 시킴, 전문가들은 방향 설정에 대한 지속적인 조언자 역할 |
| 미국 | <p>[텍사스 겔베스톤 축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대적 홍보 전략과 동시에 방문객들로부터 마케팅 조사에 의한 선호도를 분석 파악하여 그들에게 적합한 행사를 개최하도록 노력함. |

[표 5-7] 국내외 축제 홍보 지원 정책 사례(2)

| 지역 | 내용 |
|------|---|
| 캐나다 | [몬트리올 국제 재즈 페스티벌] ·오프라인 축제가 끝난 뒤에도 온라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축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새로운 기획을 시험 ·지속적으로 홍보 아이템을 개발하고 모니터링 ·지역축제의 계절별 구도와 효과적인 축제 개최시기를 선정 |
| 이탈리아 | [베네치아 카니발] 높은 명시도의 홍보물 제작, 대사관을 통하여 홍보 |
| 프랑스 | [니스카니발] · 축제는 관광계획의 일부로 포함되어 관광지와의 연계한 축제 홍보를 병행 ·홍보를 위한 포스터는 시내상가에 게시된 반면 홍보용 플래카드나 애드벌룬, 홍보 리플렛 배부 등도 없었음 |
| | [망똥카니발] ·축제를 통해 '레몬의 도시'라는 망똥시의 정체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데 성공, 단순히 축제 기간뿐만 아니라, 모든 공문서와 공공건물에 레몬 마크 |
| | ·문화시설들에서는 다음해의 연간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홍보책자를 1년 전부터 발간, 계절별로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책자나 홍보물 발간, 월별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신문형태의 홍보물 등 다양한 형태의 홍보 정책 ·마을거리, 광장, 교회, 고성 등 어느 곳에서든지 누구나 자유롭게 축제에 참가하여 즐길 수 있도록 함 ·축제를 관광상품으로 판매, 유럽 국가들은 민간단체인 유럽여행위원회를 통해 지역축제 참여를 위한 홍보를 널리 하고 있음. |
| 이천 | [도자기축제] ·전문적 PR회사를 통한 전폭적인 홍보 ·홍보에 있어 에버랜드와 상호 연계하여 홍보, 마스터카드사와 연계하여 해외홍보를 함 |
| 금산 | [인삼축제] ·축제의 슬로건을 통한 홍보의 강화(“금산에서의 하루, 당신의 미래가 건강해집니다.”) ·축제에 대한 홍보를 6개월 전부터 정기적인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음. ·특히 외국 바이어를 축제에 홍보함으로써 인삼제품의 수출에 기여. |

또한 축제를 알리기 위하여 망똥 카니발의 경우 공문서와 공공건물에 축제 중심 주제인 레몬을 활용하고 형상화하여 도시 전체가 축제 홍보의 장이 되도록 하기도 한다.

이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축제들은 특정 캐릭터나 브랜드, 슬로건이나 로고 등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축제의 일관된 홍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금산 인삼축제에서 인삼과 건강을 연결한 슬로건 등을 사용하고, 전문적인 PR 회사를 통한 홍보 노력을 기울이는 등의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2) 국내외의 축제 예산 지원 정책 사례

국내외의 축제 지원 정책 사례를 보면, 축제를 관람하기 위한 입장료 수익과 관련된 상품 판매 등을 통한 안정된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예산 구조의 일정 비율 혹은 상당 비율이 민간 기업이나 단체와의 스폰서십을 통하여 충당되고 있다. 이는 축제의 안정적인 재정 확보와도 관련이 있으며, 다각화된 축제 재원으로부터 다양한 프로그램의 구성도 가능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들 축제 들은 축제의 예산과 예산의 확보 및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축제추진주체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부산시와 과천시에만 축제 조직 및 예산과 관련된 조례가 있을 뿐, 다 지방 자치 단체에서는 해당 조례가 부재하거나 아주 미미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일관된 축제의 주제를 선정하고 안정된 축제 추진 조직의 운영으로 축제 프로그램 및 경영에 내실화가 이루어지면, 축제와 관련된 다양한 물적 자원의 창출이 가능해 진다. 일례로, 오스트리아의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의 경우, 후원회를 축제 기간 동안에 적극적으로 구성하는 바를 통하여, 후원조직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일정 후원금을 받아 축제의 재정의 일부로 환원하고 있다. 후원회가 되면 제공되는 축제 기간 동안 접할 수 있는 공연 참가자들의 CD를 판매하는 것을 통하여서도 축제 수익은 창출된다. 이 밖에도 축제와 관련된 물품 판매 등의 축제 수익의 다각화는 예산 지원 정책에서 중요하다.([표 5-8] 참조)

[표 5-8] 국내외 축제 예산 지원 정책 사례

| 지역 | 내용 |
|-------|---|
| 캐나다 | [윈터루트 축제] 모든 스폰서는 윈터루트 페스티벌 협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고 축제의 목적 및 이미지에 부합되어야 함. ·전체 프로그램 활동은 일반인에게 반드시 공개, 입장료 유료인 곳 과 무료인 곳 공존. |
| 영국 | [에딘버러 프린지 페스티벌] ·운영예산은 총 941,551파운드(약 17억 8천 9백만 원) ·프린지의 재원은 31%가 참가비, 22%가 광고비용, 18%가 스폰서십, 12%가 매표소수익, 6%가 기금, 6%가 판매수익, 3%가 기타수익, 2%가 투자금으로부터 조성(2001) |
| 일본 | [요사코이 축제] ·철저히 민간주도의 축제로서 전체 2억5천만엔의 예산 가운데 95%이상을 민간에서 감당하고 있음. NPO를 지향하는 민 중심의 조직위원회는 참가비, 중계료, 입장료수입, 휘장사업 등을 통해 축제의 경비를 조달하고 있으며 영리단체인 요사넷(Yosanet)을 통해 축제의 항구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 |
| 프랑스 | [아비뇽 축제] ·지자체가 예산 부담, 행정관료가 축제를 주도함으로써 야기 될 수 있는 경직성을 예술문화 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로 상쇄하고 있음. |
| 영국 | HIDB 설치(The Highlands and Islands Development Board) HIDB가 주관하여 낙후된 스코틀랜드 북부고지의 지역개발을 위한 joint events and festivals scheme(1989)을 마련하고 관광관련 축제 및 행사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고 있음. ·행사에 대한 지원은 지역 관광국을 통해 이루어지며, HIDB는 3년까지만 지원하며 그 후에는 자체적인 재정자립을 할 수 있어야 함. ·지원금은 행사별로 1만 파운드까지 가능하나, 첫 해에는 개최비용의 50%를 초과하지 말아야하며 연차적으로 줄어들어 3년째에는 행사개최비용의 15%를 지원함. |
| 오스트리아 | [짚츠부르크 페스티벌] ·예산의 70.5%를 자체충당. 티켓 판매외 후원금 행사중계료와 연주홀 대관료, 협동업체의 지원금으로 이루어짐. 티켓판매는4유로~340유로까지. ·후원금 구성은 기업의 스폰서와 개인 후원자, '짚츠부르크 페스티벌의 친구들' 로 이루어짐. 이 '친구들' 모임에는 후원회원과 정회원이 있고 각 연회비 900유로와 100유로씩이며 축제기간에 예술가들을 만나고 리허설과 워크숍에 초대, 전시회 무려감상, 입장권 구매시 우선권 등을 부여. 이 중 청소년들의 연회비는 25유로. |
| 미국 | ·기업이나 일반서민들을 대상으로 전문요원까지 활용하여 적극적인 모금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회원제 운영으로 회원에게 회비모금 대신 과감한 혜택을 부여. ·자원봉사제도의 활성화로 이들에게 금지를 갖게해 봉사활동과 운영예산을 절감. ·미국의 문화기관들이 연필, 책자, 생활용품, 수건, 카드 등 기념품들을 제작하여 관객들에게 판매하여 얻은 수익을 운영예산에 사용 |
| 과천 | [과천시 한마당 축제] ·기금 조성 위한 '한마당축제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설치 |

4) 국내외의 축제 조직 지원 정책 사례

국내외의 축제 조직 구성을 위한 지원 정책의 사례는 [표 5-9] 및 [표 5-10]와 같다. 해외 축제 대부분의 축제 조직은 일반적으로 민간 조직화되어 있다. 이들 조직은 하부에 여러 개의 전담 부서 및 전담팀을 구성하여 안정적으로 축제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조직도 단시간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재정적인 어려움 및 조직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여러 차례의 개편이 필수적인 과정이었다. 민간차원에서 자생적으로 생성된 축제들도 있으나 대부분의 축제들은 지방 정부의 지역 활성화에 의해 시작된 축제들이다. 자생적인 축제로서 대표적인 유럽지역의 카니발 및 일본의 마츠리 등은 그 역사적인 형성과정을 통하여 다양한 집단들이 개입되어 있다. 따라서 민간조직 차원에서의 축제 운영이 더 수월하다. 이 경우에는 자치 정부 및 공공 부문 등이 일정 부분의 지원이나 네트워크 형성의 허브적 역할만을 담당하면 된다. 그러나 자치 정부가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하는 축제들의 경우에는 초기의 관주도적인 축제 운영이 불가피 하다. 그러나 축제가 태생한 단계 이후의 발전 단계에 이르러서는 민관의 역할이 균형을 이루는 축제 조직체를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축제 추진 주체가 안정적이고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통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

우리나라의 축제 조직 지원 정책에서도 축제추진 조직의 민간조직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한 채 임시조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으며, 관의 의도를 대변하는 정도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결국 전문인력을 확보하였다 하더라도 조직 내의 안정성을 보장하지 못함으로 인한 지속적인 확보 유지가 어렵다. 현재 부산시에서 개최되는 축제들을 관리하는 축제 추진 주체로서 '(사) 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가 있으며, 이를 축제 운영에 관한 중요한 모태로서 벤치마킹할 수 있다.

[표 5-9] 국내외 축제 조직 지원 정책 사례(1)

| 지역 | 내용 |
|-----|--|
| 영국 | [글래스고우 축제] ·1985년 민-관 합작기관인 ‘글래스고우 액션’ 설립하여 축제나 행사 등을 시작 ·1987년 시 정부에서 축제담당부서 조직하여 축제 활성화 시작 ·도시 관광 매력도를 ‘글래스고우 액션’ 주변에 집중화시킴. |
| | [에딘버러 페스티벌] ·프린지소사이어티(The Festival Fringe Society)가 공동홍보와 티켓판매, 프린지 참가 관련 행정지원, 참가작에 대한 예술적 판단은 하지 않음 ·1970년부터 프린지 행정가(Fringe Administrator)들이 임명 ·1992년 공적지원이 크게 확대되면서 프린지 운영은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구조를 추구 |
| 캐나다 | [윈터루트 축제] ·국가 수도권 위원회(NCC)로부터 대부분의 자금을 지원받음. 몇 자치단체도 재정적 책임. ·1986년 NCC는 지역사회의 명물로서 페스티벌을 발전시키기 위해 ‘윈터루트 페스티벌협회’ 설립 |
| | [페스티벌 오브 스프링] ·계속된 재정난으로 1975 축제운영조직이 재편 ·1974부터 1986년까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영조직이 이루어짐, 정규스텝 채용. ·1986년 대대적인 조직 재정비. 혁신적 프로그램, 공격적 마케팅 이루어짐. |
| | [몬트리올 국제 재즈 페스티벌] ·비영리단체인 ‘몬트리올 국제 재즈 페스티벌(Festival International de Jazz de Montréal)’ 이 주관 ·축제조직의 최고기구는 행정위원회(9인) ·행정위원회 아래 8개 부서의 집행조직(총괄국, 언론·홍보국, 마케팅 및 협찬, 제작국, 행사장 관리, 영업, 행정, 내부관리 등) |
| 일본 | [삿포로 눈축제] ·초기에는 행정주도형 시민의 축제였고 각 업계에서 마스크업 상업 교통 숙박 등 각각의 역할 분담 ·축제 시작 10년 뒤 ‘눈 축제 실행위원회’ 설치, 운영조직 정돈 ·10회 때 자국내 유력한 여행사들을 초청해 여행사가 눈 축제를 상품화하여 관광패키지화. |
| | [요사코이 축제] ·조직위원회는 기본적으로 NPO이므로 영리사업을 할 수 없고 매년 축제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축제에 전액 투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조직위원회는 축제를 통해 브랜드파워를 확보하고 요사넷은 이 브랜드파워를 활용해 수익사업을 함으로서 비영리인조직위원회의 재정문제가 해결됨. 서로의 상보성이 성공요인. ·대학생을 비롯한 젊은이들이 주도하는 축제조직과 젊은 여성을 중심으로 범세대성을 갖춘 연행조직의 활성화 ·운영의 자율화 ·조직위원회는 사무국, 분과위원회, 학생실행위원회, 지역지부로 구성. 사업추진은 춤축제 이므로 춤꾼 출신의 요원7명으로 구성, 20대가 주축을 이룸, 한편 총무부는 경험이 풍부한 70대 50대 30대 각 1명씩 속해 있음. |

[표 5-10] 국내외 축제 조직 지원 정책 사례(2)

| 지역 | 내용 |
|-------|---|
| 프랑스 | [니스 카니발] 니스시 관광청 (페스티벌 위원회) 정식직원은 5명 내외로 나머지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 자원봉사형태로 참여 |
| | [망똥 카니발] 망똥시의 관광사무국 (L' Office du Tourisme de Menton) 주관 각 세부행사는 시의 각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 체제하에 조직 평가위원회에서 다음 해 축제의 테마가 결정되고, 축제 개시일 5개월 전에 실질적인 행사 준비에 들어감 |
| | [아비뇽축제] 축제운영능력이 뛰어난 이유는 축제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아비뇽축제법인의 실질적 대표인 예술감독의 임기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 체계적 운영을 위한 어느정도 임기보장은 필요. 자원봉사는 유급단기고용직이어서 휴가를 떠나지 않은 젊은 층 중심의 시민이 대다수,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지역의 공감대나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축제기간 이후에도 서로 교류하면서 축제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킴. |
| 미국 | 미국은 다민족국가이지만 일찍이 민간주도형의 지역축제로 많은 대학의 석사과정에 문화전문가 양성과정을 설치하여 인재를 양성 |
| 오스트리아 | [잘츠부르크페스티벌] 축제를 책임지는 조직은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재단이며 오스트리아 연방법에 의해 1950년에 공식 출범. 조직은 대의원회, 지도위원회, 감독위원회로 구성. |
| 이탈리아 | [베네치아 카니발] ·1400년대 중반 ~ 1500년대 말에 존재하던 젊은귀족단체(콤파니에델라칼자)가 주도 ·2001년까지 베네치아 카니발 컨소시엄(Consorzio carnevale di Venezia)사가 주관 ·2002년부터 프로모베네치아(Promovenetia)사 주관, 베네치아관광진흥청(Azienda di Promozione di Venezia Turistica di Venezia)의 활동과 협력하는 비영리단체 |
| 이천 | [도자기 축제] 축제의 주체인 이천시 및 공공기관과 이천도자기 조합으로 구성된 축제추진위원회가 있으며 현재 축제재원의 30%를 이천 도자기 조합에서 분담. 행사장의 안내와 통역 등의 업무는 시민들의 자원봉사로 이루어짐. |
| 영암 | [왕인문화축제] 관청에서는 국내 유일이라는 '축제 기획 팀(3인)' 이 구성되어 있어 축제에만 업무를 집중할 수 있다. 공무원이라기보다는 축제전문가 수준으로 축제를 전담 |
| 함평 | [나비축제] 추진위원회의 체계적인 운영과 연중행사 개념으로 준비. |
| 부산 | (사)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를 구성, 부산국제영화제 이외에 시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4종의 축제 및 산하15개 군.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축제 44종을 운영. 시 정부는 지원과 평가만 담당. |

4) 국내외의 축제 평가 지원 정책 사례

국내외의 축제 평가에 관한 정책적인 사항은 많지 않다. 국내 축제의 경우, 실질적으로는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있다고 하나 그 과정은 매우 주관적이며 실무에 관한 세세항목들로만 구성되어 있다. 더군다나 명확한 평가 지표의 설정 없이 외래객의 수나 축제 진행에 관한 만족도 조사 등이 축제 평가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축제의 유형별 평가 지표를 설정하고, 축제별로 다각적인 시각을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단을 구성하며 이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축제 발전을 위한 평가를 장기적인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축제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할 때, 평가의 목표와 평가단의 구성, 평가의 원칙 및 평가 범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국내의 축제 평가 지원 정책 사례는 [표 5-11]과 같다.

[표 5-11] 국내외의 축제 평가 지원 정책 사례

| 지역 | 내용 |
|----|--|
| 이천 | [도자기 축제] ·사후평가과정, 외부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매년 축제평가를 객관적으로 하고 있음. |
| 부산 | [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 ·축제를 평가하는 평가시스템을 만들고 전문가로 조직된 평가단을 통해 평가서를 작성, 이를 지원 규모와 연계 |

제3절 축제 유형별 사례 분석

서울형 축제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축제들을 대상으로 해당 축제기획자와 심층 인터뷰를 시행하여, 향후 정책적으로 지원해야할 사항이 어떤 것인지 파악해 보았다. 그 중 대표 사례만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산업경제형: 이태원지구촌축제

1) 주민참여 및 민관 네트워크 지원: 축제상설조직화 지원

이태원축제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상인들과의 연계와 참여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또한 이태원은 서울 최초의 관광특구로서 외국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역임으로 외국인들의 참여를 극대화하는 축제를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상인들의 참여가 미온적이고, 주변의 대사관이나 문화원을 통해 서울거주 외국인들의 참여를 강화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상인참여가 미온적인 이유는 2005년의 경우 ‘국제음식축제’를 메인테마로 함으로써 관련 식당만 참여하고, 여타 업소들이 배제되기 때문이다. 이태원의 대표 업소인 쇼핑, 유흥업소들과 연계가 요구되고, 대사관이나 문화원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주체 및 관련 단체와의 네트워킹을 추진하기 위한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축제 주최자인 관광특구협의회와 구청에서 기획사를 대상으로 한 공개입찰을 축제 시작 3개월 전에 요청하고, 기획사가 선정되면 사실상 축제 준비기간이 2개월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이다. 축제 참여주체들과의 네트워킹도 그렇고 축제의 기획과 연출도 최소한 1년 전부터 준비가 되어야 내실있는 행사가 될 수 있다. 이태원지구촌 축제의 경우 관광특구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1억, 자치구에서 1억을 지원하고 있다. 예산지원도 중요하지만, 축제를 안정적·체계적·조직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할 수 있는 지역주체를 중심으로 한 축제조직위원회와 같은 상설조직이 필요하며, 이러한 조직을 만들어가는데 정책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2) 축제의 정체성 확립: 지역발전전략과 축제목표의 조화 지원

이태원은 과거에는 ‘쇼핑’ 중심의 관광특구로 자리매김되어 왔으나, 현재는 동대문상권의 등장과 중국제품의 유입 등으로 쇼핑의 경쟁력을 상실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태원축제가 추구하는 상권활성화의 내용도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현재로서는 기존의 ‘쇼핑’ 중심에서 ‘세계음식’ 중심으로 초점을 전환하여 외식과 가족나들이 방문객을 주타깃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 그러나 이태원은 미군기지 이전 등 주변의 용산지역의 급속한 변화와 맞물려 지역 정체성 급속히 변화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서울시와 자치구의 이태원 지역의 장기발전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수립되어야 한다. 그러한 지역발전 전략과 축제의 목표를 연계시켜 축제를 기획하는 것이 요구된다.

3) 축제 개최 시기의 다양화 지원

현재 서울에는 매우 많은 축제행사가 개최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봄, 가을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고, 대부분 전문기획사들이 축제를 주관하고 있다. 따라서 이 시기가 되면, 기획사들은 여러 축제에 참여하느라 분주하고, 기업의 스폰도 특정 시기에 집중되어, 축제 진행 관련 장비나 스폰 유치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태원의 경우도 10월초에 축제가 개최되면서 청계천축제 등과 맞물려 스폰을 유치하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축제 개최 시기가 특정 기간에 집중하지 않도록, 즉 축제가 일년 내내 일상적으로 펼쳐지도록 개최 시기를 다양화하는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2. 시민화합형: 지구촌한마당

1) 일상적 커뮤니티 연계 지원

지구촌한마당축제는 서울 거주 외국인들이 참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해온 축제다. 따라서 외국인 커뮤니티의 네트워킹과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축제

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지구촌한마당은 서울시의 국제협력과에서 주관하여 추진하고 있고, 2004년부터는 별도의 독립 축제가 아니라 하이서울페스티벌의 프로그램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고, 그 성격이 모호해져 가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거주 외국인들의 일상적 커뮤니티 연계 지원을 위해서는 서울의 외국인 커뮤니티와 각국 대사관, 외국기업들이 연계한 별도의 축제조직위원회를 꾸림으로써, 관이 후원하는 민간주도형으로 축제를 발전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처럼 하이서울페스티벌의 일환으로 축제를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2003년 이전처럼, 지구촌한마당은 '서울거주 외국인들이 하나 되는 날'이라는 컨셉으로 일년에 한번씩 개최되는 별도의 특성화 축제로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이서울페스티벌의 프로그램은 축제 프로그램 일부가 다시 한번 참여하는 식으로 구성하면 된다. 그렇게 하여야 최소한 1년 전부터 축제를 기획하고, 준비하여 내실을 기할 수 있다. 현재는 하이서울페스티벌 자체가 1년 전부터 기획되지 않고 있어, 다양한 사전 연계가 요구되는 지구촌한마당은 사전 기획이 어려운 상황이다.

아울러, 현재 지구촌한마당 축제는 서울시의 국제협력과에서 주관하고, 외국인 커뮤니티 지원은 투자유치담당관실에서 주관하고 있어, 행정적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지구촌한마당 축제와 외국인 커뮤니티 강화를 함께 추진하기 위해서는 축제와 커뮤니티 지원 정책부서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아니면 축제조직위원회의 멤버로 양부서가 함께 참여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

3. 역사전통형: 종묘대제

1) 전통성과 원형의 복원 지원: 연구개발 프로젝트 지원

종묘대제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대표적인 무형문화재다. 또한 서울의 역사성을 상징하는 조선왕조의 문화를 대표하는 의례다. 따라서 서울의 역사성을 제대로 시민과 관광객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축제의 전통성과 원형을 철저히 고증하여

복원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조선 왕조의 제의 시스템이라 할 수 있는 ‘천·지·인 제사’를 복원하여 연계함으로써, 조선왕조 제례 축제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즉 종묘대제(地에 해당), 사직대제(人에 해당), 원구단제의(天에 해당)를 제대로 복원해 연계 축제상품으로 개발해야 한다.

두 번째로, 세계문화유산으로서 위상을 높이기 위해 종묘제례의 원형을 철저히 복원해야 한다. 어가행렬이나 제의에 필요한 사람과 장비, 의상, 제수품 등을 제대로 복원해야 한다. 이러한 복원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일례로 제의에 소요되는 제수용품과 재료도 전통을 살려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한국산 고급의 제수품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전 계약재배를 통해 안정적으로 물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과거 계절별로 년 5회 개최하던 전통을 복원하여 연중 축제로 관광상품화할 필요도 있다. 최근 왕조의 제의에 대한 학습을 위한 중국인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이러한 전통성과 원형 복원 및 관광연계를 지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통해 정확한 실태조사와 정책지원방안이 도출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서울시와 연구원(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학연구소 등), 전주이씨 대동종약원이 함께 연계하여 조선조의 궁중문화를 복원하고 관련 문화재를 보호 및 활용하는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2) 범정부적 연계 지원: 국가적 문화행사 인식 필요

사직대제는 전주이씨 종친의 사적인 제례가 아니라, 세계문화유산의 무형문화재로서 국가적인 문화행사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제의에 대한 정부와 공무원들의 정확한 인식이 요구되며, 중앙정부와 서울시, 자치구가 함께 연계하여 공동지원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예산 지원의 경우, 현재 중앙정부에서 2억원 정도 지원하고, 서울시에서는 홍보비 명목으로 8천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나머지

예산(약 6억 정도)은 전주이씨 대동종약원 측에서 대부분 부담하고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서울시, 전주이씨 측이 각각 3억원씩 매칭펀드 식으로 지원하여 민관파트너십에 의한 국가적인 축제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3) 관광상품화 지원: 관광코스화, 관광기념품 개발

종묘대제는 제의와 어가행렬을 포함하여 다양한 관광컨텐츠를 보유하고 있다. 종묘대제와 사직대제, 원구단제의 등 조선시대 천지인 제의가 복원되고, 정조대왕 화산릉 행차 어가행렬이 연계되고, 청계천의 정조대왕 반차도와 창덕궁 옥류천 등을 연계하면, 다양한 관광코스를 개발할 수 있다. 또한 제기로 활용되고 있는 향로나 술잔(작)을 고급의 질로 축소하여 관광기념품화함으로써 다양한 관광상품브랜드를 개발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조선시대 대표 축제들을 연계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4. 순수예술형: 서울국제미디어아트비엔날레

1)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축제전담 조직 구성 지원: 축제 재단화

‘미디어시티서울’로 처음 시작된 미디어아트비엔날레는 처음엔 IT 산업의 발전과 과학기술의 접목 및 미디어아트의 축진을 목표로 해서 서울산업진흥재단(현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서 축제 추진조직을 구성하였다. 그러나 다음 해에는 축제의 개최목적은 ‘미디어아트의 발전’으로 집중화하면서 서울시립미술관으로 사무국을 이관했다. 그러나 담당직원이 임시 계약직이고 임시조직의 형태를 띠고 있어 축제 운영이 상당히 불안정하다. 따라서 부산이나 광주, 청주, 경기도의 비엔날레와 마찬가지로 축제조직을 재단화(상설조직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서울문화재단 산하에 두는 방법과 서울시립미술관 내에 조직하는 방법, 별도의 축제조직위원회 형태로 조직하는 방법 등이 있다. 다른 지자체들도 미디어아트 관련 축제를 개최하거나 향후 개

최할 예정에 있으나, 미디어아트축제의 경우 서울만큼 경쟁력이 풍부한 지역은 없다. 따라서 현재의 기획력과 인지도를 유지강화할 수 있는 축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2) 축제 전용 시설 및 공간 지원

서울의 미디어아트 수준을 국내외에 체계적으로 홍보하려면, 축제공간으로 활용되는 전용 시설과 공간이 필요하다. 서울의 경우, 현재 상암동 지역에 디지털 미디어 시티와 거리가 조성되고 있으므로, 전략적으로 상암동 지역을 서울국제미디어아트비엔날레의 축제공간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상암동 경기장 주변에 있는 유류 탱크시설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지역의 역사성을 지니면서도 예술 공간으로서 활용이 가능한 유류탱크를 활용하게 된다면, 축제의 정체성 형성에도 도움이 되고, 콘텐츠를 다양화할 수 있으며, 교육적인 기능도 수행가능하다. 디지털 문화공간이 활성화되어 있는 인근의 홍대지역 클럽공간 및 문화시설과 연계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축제 예산 지원의 적정화·효율화

서울국제미디어아트비엔날레의 경우 1회 때는 75억원이던 예산이 2회 때에는 10억으로, 3회 때에는 9억 6천 만원으로 지원되었다. 예산지원은 명확한 축제의 정체성과 목표 정립 및 축제유형에 따른 적정한 예산지원이 요구된다. 미디어아트축제의 경우 다른 예술축제와 달리 첨단 장비가 많이 소요됨으로 대부분의 예산이 장비대여와 설치 및 유지에 들어간다. 따라서 축제의 유형을 고려하여 축제개수에 의한 단순한 산술분배식의 지원이 아닌, 축제 성격에 맞는 차별화된 적정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5. 자연친화형: 여의도 벚꽃축제

1) 축제 추진 조직의 전문성 제고 및 민간 주도화

약 540만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여의도 벚꽃축제는 벚꽃 구경과 부대 문화행사로 이루어진다. 현재 시비 2억 2천만원, 구비 1억 3천만원 등 3억 5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이 중 1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부대행사, 즉 연예인 초청에 쓰이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편성은 우선 축제 담당자의 전문성이 결여된데 기인한다. 구청이 주최하고 있어 순환보직제로 운영되고 있는 담당 공무원이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하는데는 내용적으로 한계가 있다. 따라서 문화행정 공무원들은 최소 2-3년 이상 업무를 담당하게 하거나 전문직 공무원을 채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민간 전문가와 주민단체로 이루어진 별도의 축제추진위원회를 설립하여 전담 운영토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교통 및 안전을 위한 정부협의체 구성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벚꽃축제의 경우, 교통통제와 안전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교통통제의 경우 토지 소유자(국회, 서울시 한강관리사업소 등)와의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 애로사항이 많다. 안전을 위한 경찰서와의 업무 협의도 매끄럽지 못한게 현실이다. 따라서 축제추진위원회를 조직할 때 교통과 안전 분야에 관련된 정부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연계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제4절 축제지원정책 시스템 마련

1. 축제지원정책 시스템의 필요성

그동안 서울시의 축제지원정책은 전무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비전 속에서 이루어지지 못했다. 일례로 민선 3기 서울시정 4개년 계획에서도 축제에 대한 계획은 시민문화예술 향수기회 확대의 항목에서 ‘서울 국제 축제 개최(하이서울 페스티벌)’와 전통화합의 문화행사 확대 등 두개 사업, 역사와 전통문화 보존과 전승 항목에서 ‘청계천에 얽힌 민속놀이 재현’ 한개 사업, 총 3개 사업만이 축제정책 사업으로 제시되었다. 이후 작성된 서울시의 성과관리 체계에서도 축제 관련 정책은 시민문화예술 향수기회 확대 목표 분야에서, ‘서울형 브랜드 축제 육성’, ‘문화행사 육성·지원’, ‘전통문화행사 재현’ 등 세 개 사업, 전통문화프로그램 활성화 목표 분야에서, ‘청계천에 얽힌 전통민속놀이 재현’ 한 개 사업, 매력적인 관광상품 개발 목표 분야에서, ‘왕궁수문장 교대의식 재현’, ‘고궁축제 행사 개최’ 등 두 개 사업,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 활성화 목표 분야에서 ‘국제 스포츠경기대회 개최’ 등 한 개 사업, 총 7개 사업만이 제시되고 있다.

2005년에 들어서는 문화도시 서울 선포 원년을 맞이하여, 처음으로 축제 정책이 제시되었다. 서울을 대표하는 축제를 육성하여 예술문화도시로 자리매김시킨다는 비전 하에, 다음과 같이 다섯 개 분야가 축제 정책으로 제시되고 있다.

- 하이! 서울페스티벌, 서울불꽃축제 같은 대형축제를 정례화하고 축제의 서울성을 확립
- ① 하이! 서울 페스티벌을 봄, 여름, 가을로 나누어 특화하고 서울다운 축제로 특화
- ② 서울불꽃축제와 같은 민간 주도 행사를 측면지원

- ③ 타악 축제인 드럼페스티벌을 세계적인 축제로 육성
-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알리는 고유의 (무형문화재, 종묘대제, 연등축제)축제를 거행
 - ① 기능보유자 작품 전시 시연 및 예능보유자들의 기량을 선보이는 무형문화재 축제 개최
 - ② 조선시대 과거제를 재현하고 종묘대제와 사직대제를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지원
 - ③ 단오축제, 초파일 연등축제를 우리만의 고유한 축제로 발전시키고 관광자원화
- 디지털 인프라를 활용 산업화하는 축제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예술축제 정착화
 - ① 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SICAF)을 개최하고 애니메이션 전용상영관을 운영
 - ② 디지털 미디어시티 축제를 매 2년마다 개최하여 예술성 높은 디지털 예술 발전을 선도
 - ③ 서울 넷 & 필립 페스티벌 등 디지털 영화제를 육성발전
 - ④ 유비쿼터스 환경을 활용한 문화 예술 관광에 대한 종합적 디지털 안내체계구축
- 순수 기초예술을 육성하는 연극제, 국악제, 교향악 축제 등 순수예술축제를 개최
 - ① 무용, 연극축제인 공연예술제를 지원하고 서울연극제를 새롭게 개최
 - ② 서울시향이 중심이 되는 신년(혹은 신춘) 교향악 축제를 개최
 - ③ 남산 한옥마을 전통공연장을 중심으로 순수 국악 축제 개최

■ 선농제, 약령시, 파발제와 여의도 벚꽃축제 등 자치구의 축제를 특색 있게 육성발전

① 자치구에서 개최하는 선농제, 약령시, 구로디지털 축제 등 특색 있는 행사를 지원

② 이태원, 신촌, 명동, 인사동 축제 등 상인들의 축제를 후원하고 서울시 축제와 연계

그러나 아직까지, 서울시의 축제지원정책은 미션과 중장기 비전, 그에 걸맞는 목표, 전략, 사업 등이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축제지원정책의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2. 축제지원정책의 체계

서울의 축제지원정책 체계는 크게 ‘임무(mission)’, ‘비전(vision)’, ‘목표(goal)’, ‘전략(strategy)’, ‘실행계획(action plan)’, ‘실행 및 피드백(execution & feedback)’ 등 6개 요소로 이루어진다.

1) 축제지원정책의 임무(mis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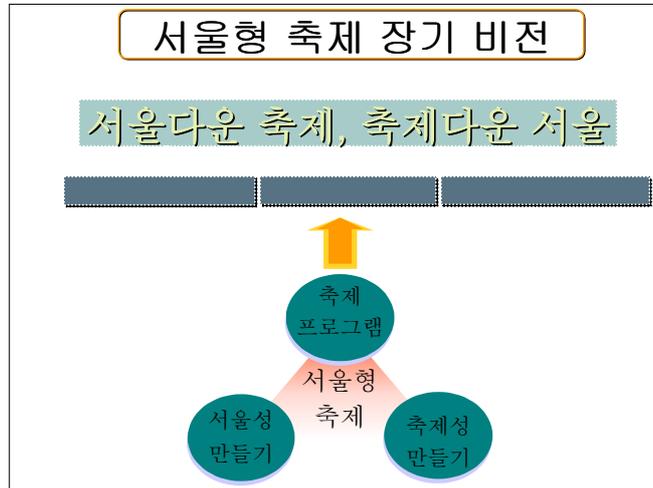
서울의 축제지원정책은 일상이 축제가 되고, 축제가 일상이 되는 서울, 즉 축제와 일상이 결합되는 서울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임무라 할 수 있다. 축제는 단순히 일회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벤트가 아니라, 서울시민들의 삶 속에서, 삶을 통해서, 삶과 함께 만들어지는 일상적인 삶의 결과이자 표현이 되어야 한다. 또한 축제를 통해 시민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삶을 풍요롭게 하고,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축제와 삶이 하나가 되는 축제지원정책이 요구된다.



[그림 5-2] 서울 축제지원정책의 체계

2) 축제지원정책의 비전(vision)

서울의 축제지원정책은 서울다운 축제, 축제다운 서울을 만드는 것을 장기비전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서울성 만들기’와 ‘축제성 만들기’에 몰두해야 한다. 그런 후에, 서울성과 축제성을 구현하는 다양한 ‘축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거나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세 가지 기본 요소를 바탕으로, 도시이미지와 정체성을 새롭게 문화적으로 구축하고, 문화관광 산업을 활성화시키며, 시민들의 문화향수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렇게 할 때 궁극적으로 서울다운 축제와 축제다운 서울을 만들 수 있고, 그것을 통해 세계 일류 문화도시 서울이라는 현 정부의 비전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5-3] 축제지원정책의 비전

3) 축제지원정책의 목표(goal)

서울 축제지원정책은 서울형 축제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서울형 축제의 컨셉을 마련하고, 다양한 축제들을 이러한 컨셉에 맞게 유형화하며, 그러한 유형에 따라 차별화된 지원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4) 축제지원정책의 전략(strategy)

서울 축제지원정책은 크게 ‘공간-주체-프로그램’으로 구성되는 삼각네트워크 지원정책 수립을 전략으로 한다.



[그림 5-4] 축제지원정책의 삼각네트워크

우선, 축제 ‘프로그램’ 지원정책에 있어서는 축제 프로그램들이 본연의 서울성과 축제성을 잘 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축제 유형별로 축제의 목표와 기능을 제대로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축제의 개최시기도 계절별, 월별, 시간대별로 다양화하여 일상적으로 축제를 접할 수 있도록 유도, 지원해야 한다. 아울러 여러 서울형 축제들 중에서 대표축제를 개발하여 서울을 마케팅하는 대표브랜드로 발전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축제 ‘공간’ 지원정책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공공공간을 축제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예를 들어 축제의 꽃이라 할 수 있는 거리퍼레이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통통제나 안전지원 등의 다각적인 행정지원이 요구된다. 또한 지역의 공공문화시설들을 축제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하며, 다양한 숙박시설과 같은 인프라도 축제의 원만한 개최를 위해서 지원되어야 한다.

세 번째로, 축제 ‘주체’ 지원정책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축제를 안정적·체계적·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축제추진 조직이 만들어지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파트너십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며, 정부조직 내에 축제분야 혹은 폭넓게 문화예술분야를 지원하는 전문공무원을 채용하거나, 최소한 전담공무원이 3년이상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순환보직제를 개선해야 한다. 아울러 다양한 타깃, 즉 시민과 기업, 관광객을 각각 타깃으로 한 지원정책이 차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며,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어려서부터 축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즐길 수 있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삼각네트워크 지원을 위해 예산, 조직, 정보, 홍보, 마케팅, 관광, 평가 등의 다양한 정책수단이 동원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서울성과 축제성이 잘 결합된 서울형 축제 지원시스템이 구축되도록 해야 한다.

[표 5-12] 축제지원정책의 전략

| 구분 | 전략 |
|------|----------------------|
| 공간 | 공공공간의 축제공간화 전략 |
| | 축제 인프라 지원전략 |
| 주체 | 축제추진조직의 안정화 전략 |
| | 타깃별 수요자 중심의 지원전략 |
| | 축제 소양 교육 지원 전략 |
| 프로그램 | 서울성과 축제성의 고려한 지원전략 |
| | 유형별 목표달성을 고려한 지원전략 |
| | 축제일상화를 위한 지원전략 |
| | 대표축제 개발을 통한 장소마케팅 전략 |

5) 축제지원정책의 실행계획(action plan)

서울 축제지원정책의 실행계획은 위에서 언급한 전략을 수행하는 다양한 사업들도 이루어진다. 즉 삼각체계에 따른 실행계획을 [표 5-13]의 내용과 같이 수립할 필요가 있다.

[표 5-13] 축제지원정책의 삼각체계 실행계획

| 구분 | 실행계획 | |
|-------------|------------------|--------------------------------------|
| 공간 | 거리퍼레이드 지원 | 퍼레이드 활성화 지원 퍼레이드 코스 개발 지원 |
| | 공공문화시설 축제 공간 활용 | 공공문화시설 활용정보 제공 |
| | 숙박시설 등 인프라 지원 | 다양한 숙박시설 개발 지원 |
| 주체 | 상설조직화 지원 | 축제조직위 육성 지원 |
| | 전담조직/부서 마련 | 서울시 축제 전담 부서 마련 |
| | | 축제전문직 공무원 배치 |
| | 민관 파트너십 구축 | 서울축제위원회 조직 |
| | | 지역축제 자문단 구성 |
| | 타깃별 지원 | 시민여가형 축제 지원 |
| | | 관광 관련 기업활동 지원 |
| | | 관광객 타깃 관광축제 지원 |
| 교육 프로그램 지원 |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 |
| | 예비기획자 교육 프로그램 | |
| | 전문가 재교육 프로그램 | |
| 전문인력 양성 지원 | 축제기획 전문가 양성 지원 | |
| | 축제행정 전문가 양성 지원 | |
| 프로그램 | 축제 유형별 지원 | 전통형, 예술형, 화합형, 산업형, 자연형 축제활성화 지원 |
| | 계절별, 월별, 시간대별 지원 | 여름, 겨울 페스티벌 육성 지원 |
| | | 야간페스티벌 육성 지원 |
| | 대표축제 개발 지원 | 하이서울페스티벌 업그레이드 전통축제, 자연축제, 장소특화축제 |
| | 신규축제 개발 지원 | 드라마/미디어페스티벌, 한강축제 |
| | 축제 정보지원 | 서울축제 가이드북 제작 |
| 축제지원 매뉴얼 제작 | | |
| 관광마케팅 지원 | 축제마케팅 전략 수립 | |
| 공통 | 예산 지원 | 축제유형별/기능별 지원차등화시스템 축제보조금 지원개선 |
| | 제도 지원 | 서울축제지원 조례 제정 |
| | 평가 지원 | 입체적 축제평가 시스템 개발 |

(1) 조직 및 민관 파트너십 체계 마련

축제를 주최한 법인형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주도형과 주식회사나 비영리, 공익법인 등의 민간주도형으로 나눌 수 있다. 유럽의 경우 행정조직이 중심

이 되어 예술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면 미국의 경우 민간기업이나 재단, 개인에 의한 예술활동 지원이 활발하여 이들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술 단체나 문화시설의 운영주체는 민간비영리단체(NPO)가 담당하고 있다.

문화시장이 활성화되지 않거나, 민간의 문화예술활동이 성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축제의 행정주도형 모델이 강하다. 그러나 행정주도의 경우 정부기관과 지방자치체의 협력체제를 정비함과 함께, 행정시스템으로 할 수 없는 운영의 유연함을 주기 위해 특수법이나 재단법인 등 행정본체와는 다른 운영체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 축제의 경우, 서울시가 직접 축제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형식보다는 민간단체에서 주관하는 형식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축제의 재정 확보과정에서 행정기관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주로 축제를 주관·집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서울시와 자치구는 몇몇 축제를 제외한 모든 행사에 주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자치구 축제의 경우 대부분이 구청이 조관하고 있는 행정주도형 모델이며, 자치구의 연례행사 격으로 치러지고 있다는 데에 문제점이 있다.

행정기관 주도형 축제 모델의 경우 축제의 전문성 문제, 시민의 참여 문제 등의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또한 시민참여의 통로가 부재하고 시민의 문화향수 보다는 관 주도의 이벤트 형식으로 축제가 치루어짐으로 인해 실제 축제의 효과는 여전히 시민들에게 체감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서울시 축제 역시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민관협력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축제의 주관은 크게 독립적 축제법인 형태, 문화시설·예술단체의 운영조직 형태, 그리고 조직위원회 및 사무국 없이 운영하는 형태로 나뉘어 진다.

서울시 축제의 경우, 독립법인체의 설립을 통해 운영한 사례가 없다. 최근 들어 서울문화재단이 출범하면서 2005년 하이서울페스티벌이 문화재단의 주관으로 개최되었으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한시적인 자문기구의 성격인 조직위원회(혹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개괄적인 축제의 명칭과 방향을 설정한 후, 서울시는 축제의 주

관단체를 선정하여 축제의 실질적인 기획과정과 실행과정을 담당하게 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러한 과정은 축제의 기획단계와 실행단계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며 해마다 축제의 주관단체가 바뀌어 축제의 내용적 연결성을 확보하기 힘들고, 그 노하우를 축적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성공적인 축제 사례로 평가받는 부산국제영화제나 부천 판타스틱영화제, 광주 비엔날레의 경우 축제의 조직 및 주관이 시가 아니라 독립 법인체로 조직위원회가 활동 중이며 그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다. 조직위원회와 같은 독립법인체로 축제를 주관할 경우 기획과 운영, 사후평가, 그리고 차기 행사계획 수립 등에 있어 연속성을 가질 수 있으며 사후 평가작업 역시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책관련자 조사 역시 상설화된 축제 전문기구와 체계적인 평가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축제지원에 대한 각종 행정 정보는 물론이거니와 축제행사에 대한 기존의 데이터들을 보관, 공유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타 부서와 기관들이 도움이 필요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현장과 행정이 원활히 연계되도록 하는 중간자적 입장의 기구를 통해 축제의 효율적인 기획과 관리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자치구 축제의 경우, 축제자문단이나 위원회의 형식을 빌어 축제의 기획과 운영 및 사후평가를 담당하도록 한다면, 행정기관형 모델이 갖는 단점을 부분적이거나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

[표 5-14] 지역축제 자문단 구성안

| 구분 | 내용 |
|--------------|--|
| 지역축제자문단 구성목적 | ·지역축제의 기획, 행사추진, 홍보 등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원과 조정 |
| 지역축제자문단 구성형태 | ·해당부처 공무원, 전문연구자, 민속학자, 향토사학자 등 전문가 ·각종 사회직능단체 대표 ·주민대표로 구성 |
| 지역축제자문단 운영형태 | ·최소한 행정 기능을 제외한 일반 자문위원은 비상임 전문가로 위촉 운영 ·지역축제 3개월 이전부터는 상설기구화하여 전반적인 행사기획 및 현장지도 지원을 실시 |

지역축제의 조직에 관한 또 다른 관점은 구성주체를 보는 것이다. 지역사회를 배경적 요소로 하는 지역축제는 축제행위를 위한 각 주체들에 의해 조직화가 이루어진다. 이들 조직화된 형태로는 기획·운영 등 축제전반에 걸쳐 총괄을 위한 조직과 축제 내 경제활동을 위한 축제시장 형성 조직으로서 상인 등 공급조직과 소비자, 그리고 축제의 주요 연행을 위한 각종 조직들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지역축제의 구성요소들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측면의 구성요소들에 의한 네트워크 구조를 형성하며 이들이 유기적으로 결합함으로써 지역생산을 만들어 낸다. 축제를 위한 조직구성은 지역공간 속에서 축제 주체적 구성요소인 지방정부, 시장상인 및 자본가, 시민 및 시민단체 등을 주축으로 이루어진다. 조직주체로서의 정부부문, 시민사회부문, 시장부문의 각 주체들은 축제 공급의 주체로 작용하며, 시민과 관광객들은 축제 소비의 주체로 작용한다.

이 같은 축제의 공급 및 소비(향유) 주체들이 이루어내는 행위들은 지역 공간 내 구성 주체들의 지역개발을 위한 주요한 가치추구로서의 참여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행위들 중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느냐가 지역의 사회적·문화적 발전을 이루어내는 핵심적인 부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 조차 주민참여 활성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혹은 정부부문이나 시장부문의 하위 조직과 같이 수직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등에 따른 시민사회부문의 축소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지역축제에 있어서 행위 및 조직구성 주체 간의 관계는 각 부문별 내부적 관계성 및 부문간의 관계성으로 유형지어질 수 있다. 이들은 상호협력적인 관계와 경쟁적 갈등관계를 동시에 유지하는 유기적인 결합관계로 엮여져있다. 이들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유형화 할 수 있다. 더불어 이들 축제 구성 부문 간의 갈등 관계를 파악하고 파악이 가능한 개별적인 갈등의 원인이나 갈등의 표출 현상 및 해결 방안 등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 갈등의 형태는 정치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들 갈등의 형성과 해소를 통하여 지역축제의 발전은 더욱 견고히 이루어질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지역발전에 도움을 준다. 따라서 지역축제에서 발견되는 지역 내 다양한 주체 간의 여러 가지 갈등을 파악하고 주체

간의 효율적인 역할분담을 통하여 지역의 정치적·경제적·사회문화적 발전을 다차원으로 이루어낼 수 있어야 하겠다.

[표 5-15] 축제 행위와 구성조직의 역할구조

| 구분 | 정부부문 | 시장부문 | 시민사회부문 |
|------|---|---|---|
| 운영조직 | 자치정부가 축제의 운영과 기획 등을 담당하고 축제평가를 실시하는 조직 형태 | 민간기업이나 관련협회가 축제를 기획하고 운영을 담당하고 축제평가를 실시하는 조직 형태 | 지역주민 및 시민단체가 축제의 운영과 기획을 담당하고 축제평가를 실시하는 조직 형태 |
| 연행조직 | 자치정부가 축제 프로그램의 결정, 출연자의 섭외 및 진행을 담당하는 조직 형태 | 민간기업이나 관련협회가 축제 프로그램을 결정하고 출연자를 섭외하며 진행을 담당하는 조직 형태 | 지역주민 및 시민단체가 축제의 프로그램을 결정하고 직접 출연하며 진행을 담당하는 조직 형태 |
| 소비조직 | 자치정부가 축제의 참여를 주도적으로 구성하는 조직 형태 | 민간기업이나 관련협회가 축제의 참여를 주도적으로 구성하는 조직 형태 | 지역주민 및 시민단체가 축제에 직접 참여하고 향유하며 축제의 정체성을 지역 정체성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조직 형태 |

[표 5-16] 축제 조직 부문별 갈등 유형

| 구분 | 형태 | 갈등사례유형 |
|----------|--------------------------------|--|
| 정치적 측면 | 운영주도권 갈등 | ·광역자치정부와 지방자치정부 간 갈등 ·위원회 및 자치정부 간 갈등 |
| 경제적 측면 | 시장상권형성 갈등 ·축제 수익 배분의 갈등 | ·상인 간 갈등(내부상인 및 외부상인) ·대형자본과 민간 소자본 간의 갈등 ·축제 수익 배분에 있어서의 갈등 ·스폰서의 축제를 통한 경제적 효용에 대한 기대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 |
| 사회문화적 측면 | 축제 주제에 대한 갈등 ·축제 방향성에 대한 갈등 | ·축제 정체성 형성에 대한 갈등 ·축제를 통한 지역이미지 형성에 있어서의 갈등 |

축제의 조직부문과 함께 정비해야 할 것은 축제의 재정문제이다. 국제적 규모의 문화예술축제를 운영하는 경우 해외예술단체의 조사와 섭외가 빠르게는 1년, 적어도 6개월 정도 전에 확정되는 것이 일반적임을 감안할 때, 사후지원을 하는 현행 서울시의 예산지원 시기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축제운영을 하기에 어렵게 만드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축제의 기획에 대한 무형적 가치(기획료)가 예산체계에서 인정되어있지 않고 Pre-Production에 대한 예산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창조적이고 완성도 높은 계획을 추진하기 어려우며 이는 행사의 질적인 부조화를 초래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서울시가 육성하는 축제예산에 대한 집행과 후원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축제에 대한 예산 집행을 다음과 같이 고려해볼 수 있다.

[표 5-17] 서울시 축제 보조금 지원 개선방안

| 구분 | 현행 | 개선방향 |
|------------------------|--|--|
| 서울시 육성 축제예산의 집행 | ·서울시 행정절차에 의한 집행 시기 결정 ·기획료를 예산체계에서 인정하지 않음 | ·서울축제기획위원회가 예산집행 시기 심의 ·Pre-Production 예산의 집행검토 ·행사평가예산의 집행검토 ·기획료 인정검토 |
| 서울시 후원 보조금 지원 축제예산의 집행 | ·서울시 행정절차에 의한 집행 시기 결정 | ·축제조직과 사전협의/예산집행시 기 사전통보방식 도입 |

축제를 통하여 스폰서가 되는 민간기업이나 단체들은 협의적인 관점으로는 축제에 참여한 사람들과 단체를 대상으로 홍보할 수 있으며 광의적인 관점에서는 경제적 이윤 창출의 효과 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단체의 이미지 쇄신과 사회문화적 위상의 증진 및 기업 내부의 문화적인 질적 수준의 향상 등이 달성될 수 있다. 또한 축제의 추진주체들은 협소한 재정 규모로 인한 어려움을 민간기업이나 단체들의 재정

적인 스폰서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어 이와 같은 민간부문과의 제휴는 축제 운영의 효율적인 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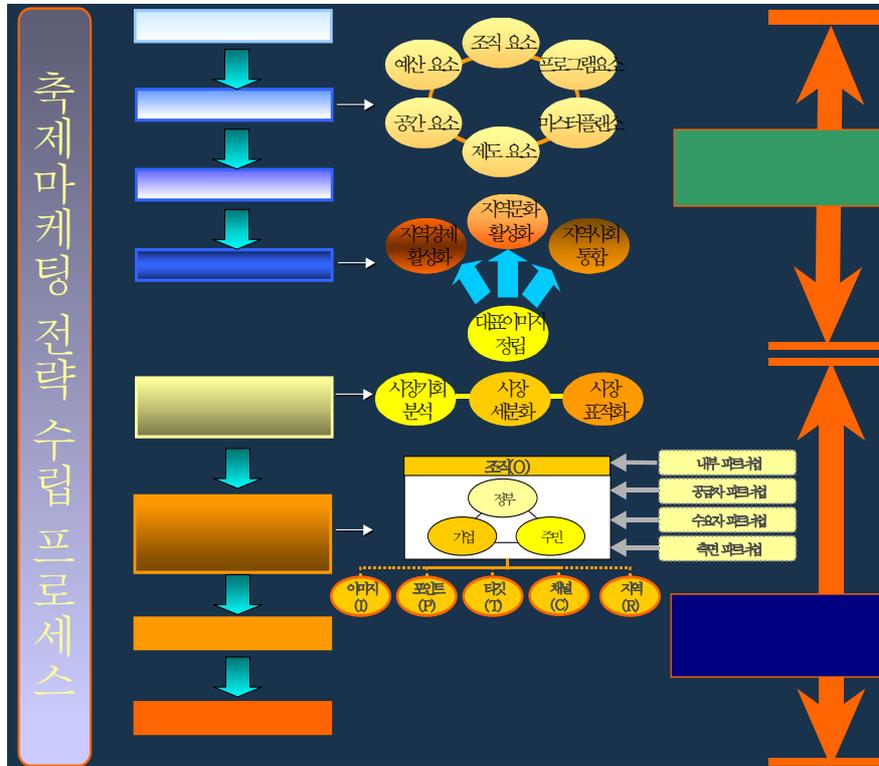
또한 축제를 통한 지역문화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간분야와의 상설 협의체가 구성되어야한다. 특히 관련 전문가와 제휴 타깃들로 이루어진 민간협의체와 축제 관련 담당 공무원 등이 함께 축제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를 수행한다면 축제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갈등도 감소시키고 추진력있는 축제 개최도 가능하여 축제를 통한 지역문화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2) 예산 지원 방안

예산지원과 관련해서는 축제유형별로 목표와 기능을 분명히 하여 차등화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안정적으로 축제를 개최할 수 있도록 축제 재원의 안정화 지원이 필요하다.

(3) 홍보 마케팅 지원방안

홍보 마케팅과 관련해서는 다음 그림과 같은 축제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림 5-5] 축제마케팅 전략 수립 프로세스

(4) 신규축제 개발 지원방안

신규축제 개발에 있어서는 하이서울 페스티벌 외에 서울을 대표하는 신규축제는 서울성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축제로 자리매김 시킬 필요가 있다. 2000년 서울의 역사를 자랑할 수 있는 전통축제(예를 들어, 무형문화재축제, 종묘대제, 사직대제, 연등축제 등), 내사산·외사산과 한강·청계천 등 수려한 자연환경을 활용한 자연축제(예를 들어, 한강축제, 정조대왕 도하축제, 청계천 축제 등), 서울의 명소를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장소특화형 축제, 첨단 미디어·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한 축제(예를 들어, 디지털 미디어 축제, 드라마축제 등) 등 네 가지 유형을 생각해볼 수 있다.

6) 축제지원정책의 실행 및 피드백(execution & feedback)

실행 및 피드백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평가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축제유형별로 평가지표와 가중치를 달리하여 선택 및 집중하는 평가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시민화합형의 경우는 네트워킹 효과와 자발적 축제 개최 정도를 중요하게 평가하고, 산업형 축제는 상권형과 산업형으로 나누어, 각각 서울형 산업으로 발전할 있는 잠재력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순수예술축제의 경우는 예술성이 중요한 평가항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축제 성과관리 체계와 평가 및 지원 매뉴얼을 작성하여 평가시스템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표 5-18] 축제유형별 축제평가지표

| 서울성 | 세부지표 | 역사 전통 | 순수 예술 | 시민 화합 | 산업 경제 | 자연 친화 |
|------------|----------------------------------|-------|-------|-------|-------|-------|
| 국제성 |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 | ○ | ○ | | ○ | |
| | 외국인과 함께 만들거나 즐기는 교류프로그램 존재 여부 | ○ | ○ | | ○ | |
| | 중앙정부 및 시민단체 차원의 지원 여부 | ○ | ○ | | ○ | |
| 장소성 | 서울 내 특정 지역의 장소성 반영 여부 | ● | ○ | ● | ● | ● |
| | 축제 프로그램과 시민들의 일상생활과의 밀접한 관련성 | ● | ○ | ● | ● | ● |
| | 자치구 및 주민단체 차원의 지원 여부 | ● | ○ | ● | ● | ● |
| 역사성 | 서울의 역사적 콘텐츠 활용 여부 | ● | | | | |
| | 역사적 요소의 현대적 재구성 여부 | ● | | | | |
| | 문화유산으로서의 발전 잠재력 | ● | | | | |
| 현대성 | 서울의 현대적 콘텐츠의 활용 여부 | | ● | | ● | |
| | 첨단기술의 문화적 활용 여부 | | ● | | ● | |
| | 사이버공간의 활용 여부 | | ● | | ● | |
| 다양성 |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향수 욕구 충족에 대한 기여도 | | ● | ● | | |
| | 문화소외계층을 타깃으로 한 프로그램 존재 여부 | | ● | ● | | |
| | 비주류/소수/ 언더그라운드 문화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 | | ● | ● | | |
| 역동성 |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의사 반영 달성 여부 | ○ | ○ | ○ | | ○ |
| | 축제발전을 위한 정부 및 민간단체와의 협의 채널 존재 여부 | ○ | ○ | ○ | | ○ |
| | 축제 평가를 통한 문제점 보완 여부 | ○ | ○ | ○ | | ○ |
| 거리 이용성 | 축제 장으로서 거리나 광장 등의 공공공간의 활용도 | ○ | ○ | ○ | | ● |
| | 거리퍼레이드의 효과적 수행 여부 | ○ | ○ | ○ | | ● |
| | 거리 이미지 및 거리문화환경의 변화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도 | ○ | ○ | ○ | | ● |
| 일상 공간성 | 축제의 장으로서 시민의 일상생활공간의 활용도 | | ○ | ● | | |
| | 일상생활공간의 문화적인 공간화 기여도 | | ○ | ● | | |
| |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시간, 장소, 프로그램 배치의 적절성 | | ○ | ● | | |
| 축제성 | 세부지표 | | | | | |
| 의례성 | 축제 개최 목적의 명확성 | ● | | | | ● |
| | 참가자들의 축제를 통한 소망 및 기원하는 비의 명확성 | ● | | | | ● |
| | 참가자들의 소망 기원 프로그램의 존재 여부 | ● | | | | ● |
| 집단성 | 축제 구성원들의 능동적, 자발적 참여도 | ○ | ○ | ● | | |
| | 축제의 기획, 운영, 평가 과정에서의 구성원 참여도 | ○ | ○ | ● | | |
| | 축제 주최자와 참가자들의 집단적인 축제 즐길 정도 | ○ | ○ | ● | | |
| 현장성 | 축제 개최 장소의 고유성 및 역사성 소유 여부 | ● | | ○ | ● | ○ |
| | 축제를 즐기고 체험을 하기 위한 축제 공간 설정의 적절성 | ● | | ○ | ● | ○ |
| | 축제 공간과 개최주체들의 삶의 현장과의 관련성 | ● | | ○ | ● | ○ |
| 유희성 | 축제 프로그램의 즐거움과 재미 및 흥미 유발 여부 | ○ | ● | ○ | ○ | |
| | 축제 참가자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적 요소 존재 여부 | ○ | ● | ○ | ○ | |
| | 기획되지 않은 즉흥적인 연행과 사건의 존재 여부 | ○ | ● | ○ | ○ | |
| 일탈성 | 일상에서 접할 수 없는 새로운 체험의 기회 제공 여부 | | ○ | ● | | ● |
| | 일상생활에서의 억눌림을 표출하는 해방감 유발 효과 | | ○ | ● | | ● |
| |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성찰의 기회 제공 여부 | | ○ | ● | | ● |
| 창조성 | 다양한 실험과 도전 시도의 여부 | | ● | | ● | |
| | 첨단기술과 테크놀로지의 적절한 활용도 | | ● | | ● | |
| | 축제참가자들에게 새로운 꿈과 상상력을 고무시키는 정도 | | ● | | ● | |

*●:핵심지표 ○:가중지표

참 고 문 헌

참 고 문 헌

- 강수택, 1998, 일상생활의 패러다임, 서울: 민음사
- 강해상, 2003, 축제참가자의 방문동기에 관한 연구, 문화관광연구
- 광주전남발전연구원, 2001, 향토축제를 활용한 지역활성화 방안,
- 김명자, 1992, 세시풍속의 기능과 그 변화, 민속연구, 제2집,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 김문겸, 1993, 여가의 사회학: 한국의 레저문화, 서울: 한울아카데미.
- 김미옥, 2000, 장소성의 의미와 가치에 관한 실증 분석, 대학로와 로데오거리 사례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 김병철, 2003, 축제평가방법론의 모색, 문화도시 문화복지,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p.80-83
- 김은혜, 2001, 국제영화제의 정체성과 참여주체구조에 대한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석사논문
- 김지희, 2004, 장소정체성의 형성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 지리학논총
- 김창곤, 2000, 문화관광축제운영의 활성화 방안 연구, 산경연구 제13호, p 359-382
- 김창호, 2000, 놀이문화와 축제, 그 신명의 원리, 문화도시 문화복지 제83호
- 김철원, 이석호, 2001, 문화관광축제 육성방안,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 김춘식, 남치호, 2002, 세계축제경영, 김영사
- 김태경, 1997, 한국축제의 공간과 행태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 대학원
- 다음아카데미, 2002, 축제경영전문워크숍 자료집
- 다음연구소, 2000, 서울축제 기본정책방향 설정 및 서울축제 개발

- 동양연극학회,과천마당극제, 2001, 아시아의 축제와 행렬의식, 동양연극학회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 류문수, 2001, 지역축제실태조사결과와 개혁방안
- 류정아, 2003, 축제인류학, 살림지식총서
-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 2001, 지역축제실태조사결과와 개혁방안, 지역축제실태조사 및 개혁방안연구 심포지엄
- 문화관광부, 2004, 2003 문화관광축제 종합평가보고서
- 문화연대, 2002, 지역축제 실태조사 및 개혁방안 연구
- 문화체육부, 1997, 한국의 지역축제
- 박미애 역, 1999, 문명화과정 1, 노베르트 엘리아스, 서울: 한길사
- 박정선, 1988, 이벤트론, 서울: 글로벌
- 박철·손해식, 1998, 지역문화축제에 대한 의례분석적접근과 관광상품화 전략. 관광학연구, 22(2): 43~49.
- 백선훈, 2004, 장소마케팅에서 장소성의 인위적 형성-한국과 미국 소도시의 문화예술축제를 사례로, 서울대학교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4, 서울시 자연생태자원을 활용한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1, 서울시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연구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2, 서울시 문화정책의 효율화 방안 연구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2, 서울시민의 문화욕구 및 향유실태 조사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문화재단, 2005, 서울문화재단 문화제휴 전략모델 및 프로그램 개발연구
- 서울특별시, 2004, 하이서울페스티벌 백서
- 송태섭, 2001, 향토축제를 활용한 지역 활성화 방안, 전남지역 경제조사

- 신용석, 1999, 관광상품화에 의한 지역문화유산의 성격변화-안동하회별신굿 탈놀이를 사례로.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석사학위 논문.
- 심상도, 1998, 축제와 지역관광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관광학연구. 22(2): 50~56.
- 이각규, 2002, 21세기 지역 이벤트 전략, 커뮤니케이션북스
- 이강욱, 1998, 문화관광축제의 영향 및 운영효율화. 한국관광연구원
- 이무용, 1996, 서울시 거리축제의 성격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병훈, 2001, 문화 속에 미래가 있다: 행정현장에서 바라본 지역 문화 이야기, 디자인하우스
- 이상일, 1998, 축제의 정신,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이승균, 2004, 지역축제의 정책적 문제점과 개선 방안 연구, 서울시 시정연구논문
- 이승환, 1998, 도시 가로외의 장소성 연구-대학로의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 이정덕, 2003, 지역축제가 지역정체성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 문화관광연구 제5권, 제2호, p.9-26
- 이현식, 2004. '한국의 지역 축제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서울도시연구, 제5권 제3호, p.127~150
- 이훈, 2002, 문화관광축제 평가방법 연구.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 2002 지역축제 평가 및 활성화 방안 토론회. 서울: 한국관광공사, 문화연대.
- 이훈·김정은, 1999, 문화관광축제 행사프로그램 내용분석, 관광개발논총. 제8권, 213-232.
- 장병권, 2000, 지방자치제와 지역축제정책의 방향, 문화관광연구, 2(1): 31~53.
- 장주근, 1982, 향토축제의 현대적 의미, 향토축제의 새로운 검증, 경희대학교 민속학연구소
- 정선희, 1996, 축제의 담론과 지역정체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 정어지루, 2002, 이벤트의 사후 평가와 그 효과지표에 관한 연구, 한국광고홍보학회 추계 학술대회 자료집, p.105-140
- 조현호, 2004, 문화이벤트기획론, 서울: 문왕사
- 중구문화원, 2004, 중구의 축제, 상원사
- 한국문화정책개발원, 1995,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문화축제 운영방안,
- 헤이만, 1999, 춘천시 축제에 나타난 장소마케팅의 성격-참여주체구조와 주체간 갈등관계를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논문
- Abner Cohen, Masquerade Politics: Explorations in the Structure of Urban Cultural Movement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Andreas Bimmer, 1988, in : R.W.Brednich(Hg.), Grundriss der Volkskunde
- Douglas Kellner, Media Culture: Cultural Studies, Identity and Politics Between the Modern and the Postmodern, Routledge
- Herbert J. Gans, Popular Culture and High Culture: An Analysis and Evaluation of Taste, Basic Books
- Ifu Tuan, 1996, 구동회·심승희 역, 공간과 장소, 대운출판사
- Johnny Allen, Festival and Special Event Management (Wiley Australian Tourism Series), Wiley
- Leonard H. Hoyle, Event Marketing : How to Successfully Promote Events, Festivals, Conventions, and Expositions (The Wiley Event Management Series), Wiley
- Martin Robertson & etc., Festival and Events Management : An International Arts and Culture Perspective, Butterworth-Heinemann
- Nick Roddick, The Festival Business , British Film Institute
- Priscilla Boniface, 2003, Tasting Tourism: Travelling for Food and Drink, Ashgate

Rolfe Heather, 1992, Arts Festivals in the UK, London: Policy Studies Institute)

문화관광부 <http://www.mct.go.kr>

문화예술종합정보시스템 <http://culture-arts.go.kr>

전국문화원연합회 <http://www.kccf.or.kr>

하이서울페스티벌 <http://hiseoulfest.org>

한국관광공사 <http://www.knto.or.kr>

부 록

- 부록1. 서울시 축제 총괄 데이터: 서울시
- 부록2. 서울시 축제 총괄 데이터: 자치구
- 부록3. 서울시 축제 캘린더
- 부록4. 서울형 축제 평가 설문지

부록1. 서울시 축제 총괄 데이터 : [서울시 축제 현황]

| 연번 | 주무부서 | 축제명 | 축제개최시기 | 개최회수 | 예산(천원, %) | | | | | 참가인원 | 주최 | 주관 |
|----|------|-----------------|--------|------|-----------|------|-------|-----|-------|-----------|------------------|-------------------|
| | | | | | 총액(천원) | 국비 | 시비 | 구비 | 민간 | | | |
| 1 | 문화국 | 서울여성영화제 | 4월 | 9 | 976,000 | - | 46.1 | - | 53.9 | 30,000 | (사)여성문화예술기획 | |
| 2 | 문화국 | 연등축제 | 음력4월 | 9 | 891,327 | - | 28.0 | - | 72.0 | 12,490 | 부처님오신날봉축위원회 | 사)전주이씨대동종약원 |
| 3 | 문화국 | 종묘대제 | 5월 | 36 | 418,770 | 10.3 | 35.8 | - | 53.9 | | 종묘제례보존회 | 연세대미디어아트연구소 |
| 4 | 문화국 | 서울-신촌아트페스티벌 | 5월 | 1 | 730,000 | - | 41.1 | - | 58.9 | | 연세대학교 | 서울문화재단 |
| 5 | 문화국 | Hi Seoul 페스티벌 | 5월 | 2 | 1,712,907 | - | 79.0 | - | 21.0 | 1,600,000 | 시민모임위원회 | 남산골한옥마을위탁사 |
| 6 | 문화국 | 남산골단오민속축제 | 음력5월2일 | 3 | 140,000 | - | 100.0 | - | - | 12,490 | 서울시(문화재과) | sbs,(주)한국의 장, 예문관 |
| 7 | 문화국 | 고궁축제 | 5월중 | 4 | 198,000 | - | 100.0 | - | - | 41,000 | 서울시(관광과) | 명원문화재단 |
| 8 | 문화국 | 어린이과거제 | 5월 | | 19,000 | - | 100.0 | - | - | 500 | 서울시(문화재과) | (주)화인ENT |
| 9 | 문화국 | 남산골 한옥마을 어린이날행사 | 5월 | | 11,230 | - | 100.0 | - | - | 500 | 서울시(문화재과) | 시립미술관 |
| 10 | 문화국 | 서울국제미디어아트비엔날레 | 격년(5월) | 3 | 962,050 | - | 100.0 | - | - | | 서울시(문화과) | (사)한국유킵협회 |
| 11 | 문화국 | 국제시민걷기대회 | 5월 | | 4,200 | - | 100.0 | - | - | 15,000 | 서울시(체청과) | 세계통과의례페스티벌 집행위원회 |
| 12 | 문화국 | 세계통과의례 | 6월 | 5 | 1,203,039 | 29.9 | 41.6 | 8.1 | 20.4 | | 세계통과의례페스티벌 집행위원회 | |
| 13 | 문화국 | 한여름밤 가족영화축제 | 7월, 8월 | | - | - | - | - | - | | 서울시(문화재과) | 세종문화회관 |
| 14 | 문화국 | 한여름밤 서울광장축제 | 7월, 8월 | | 129,400 | - | - | - | 100.0 | | 서울시(문화과) | 명원문화재단 |
| 15 | 문화국 | 윤현궁한시백일장 | 8월 | 9 | 17,750 | - | 100.0 | - | - | | 서울시(문화재과) | 사)전주이씨 대동종약원 |
| 16 | 문화국 | 사직대제 | 9월 | 17 | 111,950 | 5.4 | 44.7 | 5.4 | 44.6 | 5,000 | 사직대제보존회 | (주)화인ENT |
| 17 | 문화국 | 남산골한옥마을추석행사 | 9월 | | 25,000 | - | 100.0 | - | - | | 서울시(문화재과) | (주)한컴 |
| 18 | 문화국 | 서울세계불꽃축제 | 10월 | 4 | 1,648,000 | - | 9.0 | - | 91.0 | 1,300,000 | (주)한화,SBS | 서울국제공연예술제집행위원회 |
| 19 | 문화국 | 서울국제공연예술제 | 10월 | 4 | 1,350,000 | 37.0 | 25.9 | - | 37.0 | | 서울국제공연예술제집행위원회 | 경향신문사 |
| 20 | 문화국 | 정동문화축제 | 10월 | 6 | 160,000 | - | 18.8 | - | 81.3 | | 경향신문사 | 세종문화회관 |

| 연번 | 주무부서 | 축제명 | 축제개최시기 | 개최회수 | 예산(천원, %) | | | | | 참가인원 | 주최 | 주관 |
|----|-------|------------------------|--------|------|-----------|------|-------|----|------|--------|-----------------------|--|
| | | | | | 총액(천원) | 국비 | 시비 | 구비 | 민간 | | | |
| 21 | 문화국 | 조선조과거재현 | 10월 | 11 | 200,000 | - | 100.0 | - | - | | 서울시(문화과) | 세종문화회관 |
| 22 | 문화국 | 서울드림페스티벌 | 10월 | 6 | 500,000 | - | 100.0 | - | - | 67,000 | 서울시(문화과) | 명원문화재단 |
| 23 | 문화국 | 고종 명성후 가례 재현행사 | 10월 | 9 | 590,942 | - | 100.0 | - | - | | 서울시(문화재과) | (사)판소리보존위 (주)화인ENT |
| 24 | 문화국 | 전국 국악경연대회 | 10월 | 6 | 29,475 | - | 100.0 | - | - | | 서울시(문화재과) | (사)대한전통예술보존회 (주)화인ENT |
| 25 | 문화국 | 우리소리 우리가락 대축제 | 10월 | 6 | 28,300 | - | 100.0 | - | - | | 서울시(문화재과) | - |
| 26 | 문화국 | 보신각 타종 | 12월 | 52 | 220,000 | - | 100.0 | - | - | | 서울시(문화재과) | 서울시 한국방송공사 |
| 27 | 문화국 | 아시아무대예술제 | 8월~11월 | 3 | 145,000 | - | 100.0 | - | - | 11,000 | 서울시(문화과) | 세종문화회관 |
| 28 | 홍보기획관 | 서울사랑 Culture parade | 10월 | | 30,000 | - | 100.0 | - | - | | 서울시 | (주)상상공장 |
| 29 | 홍보기획관 | 청소년 게임음악회 | 10월 | 4 | 5,500 | - | 100.0 | - | - | 3,000 | 디지털타임즈, 스포츠투데이 | 디지털타임즈, 스포츠투데이 |
| 30 | 홍보기획관 | 한강마라톤대회 | 10월 | 2 | 460,000 | - | 13.0 | - | 87.0 | 7,000 | 서울시,서울신문 | (주)맥스21 |
| 31 | 정보기획단 | Hi seoul e- 페스티벌 | 5월 | 1 | 51,000 | - | 100.0 | - | - | 13,000 | 서울시 | 서울시(정보기획단) |
| 32 | 행정국 | 서울시민의날 행사 | 10월 | 11 | 252,000 | - | 100.0 | - | - | | 서울시 | 세종문화회관 |
| 33 | 행정국 | 시청뒤뜰 문화행사 | 매주 화.금 | 31 | 22,108 | - | 9.5 | - | 90.5 | 22,000 | 서울시(총무과) 문화예술기획이일공 | 문화예술기획 이일공 |
| 34 | 복지여성국 | Hi Seoul 서울사랑음식축제 | 5월 | 2 | 100,000 | - | 100.0 | - | - | | 서울시 | (사)한국조리사회 중앙회 |
| 35 | 복지여성국 | Hi seoul 여성마라톤대회 | 5월 | | 228,912 | - | 6.6 | - | 93.4 | 10,000 | (사)아줌마가 키우는 아줌마 연대 | (사)아줌마가 키우는 아 줌마 연대 |
| 36 | 복지여성국 | 장애인한미음체육대회 | 5월 | 1 | 30,000 | - | 100.0 | - | - | 3,700 | 한국지체장애인협회 | 한국지체장애인협회 |
| 37 | 복지여성국 | 장애인과 함께하는 국제시민걷기대회 | 5월 | 1 | 10,000 | - | 100.0 | - | - | 500 | 서울시 | 서울시장애인 생활체육회 |
| 38 | 복지여성국 | 여성주간행사 | 7월 | | 79,000 | 25.3 | 74.7 | - | - | 20,000 | 서울시 | 여성단체 연합회 여성발전 센터 보육시설연합회 여성 인력개발센터 |
| 39 | 복지여성국 | 서울시 여성백일장 | 10월 | 15 | 30,000 | - | 100.0 | - | - | 600 | 서울시 | 여성단체연합회 |
| 40 | 복지여성국 | 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한미음 한마당 | 10월 | 13 | 50,000 | - | 100.0 | - | - | 5,000 | 서울시 한국지체장애인협회 | 서울국제휠체어 마라톤대회조직위 |

| 연번 | 주무부서 | 축제명 | 축제개최시기 | 개최회수 | 예산(천원, %) | | | | | 참가인원 | 주최 | 주관 |
|----|---------------|------------------------|--------|------|-----------|----|-------|----|----|-----------|------------------|---------------------------------------|
| | | | | | 총액(천원) | 국비 | 시비 | 구비 | 민간 | | | |
| 41 | 산업국 | 지구촌한마당 | 5월 | 4 | 198,000 | - | 100.0 | - | - | 30,000 | 서울시 | IPG기획 |
| 42 | 산업국 |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SICAF) | 8월 | 8 | 521,000 | - | 100.0 | - | - | | 서울시, (사)SICAF조직위 | (사)한국애니메이션제작협회, (주)서울산업진흥재단 (애니메이션센터) |
| 43 | 환경국 | 서울시 재활용축제 | 10월 | 1 | 22,000 | - | 100.0 | - | - | 40,000 | 서울시, 녹색서울시민위 | 한국환경자원공사, 한국재활용협회, 녹색가게 |
| 44 | 환경국 | 아름다운 나눔장터 | 매월 | 1 | 225,000 | - | 100.0 | - | - | 500,000 | 서울시 | 아름다운가게 |
| 45 | 공원복지 관리사업소 | 월드컵공원역세축제 | 10월 | 3 | 120,000 | - | 100.0 | - | - | 2,200,000 | 공원녹지사업소 | 벤킴 |

부록2. 서울시 축제 총괄 데이터 : [자치구 축제 현황]

| 연번 | 주무부서 | 축제명 | 축제개최시기 | 개최회수 | 예산(천원, %) | | | | | 참가인원 | 주최 | 주관 |
|----|------|-----------------|--------|------|-----------|----|------|-------|-------|-----------|------------------|--------------------|
| | | | | | 총액(천원) | 국비 | 시비 | 구비 | 민간 | | | |
| 1 | 종로구 | 3.1만세의날 거리축제 | 3월 | 4 | 20,000 | - | - | 100.0 | - | 10000 | 종로구 | 종로구 |
| 2 | 종로구 | 인사전통문화축제 | 5월 | 17 | 28,000 | - | - | 100.0 | - | 20,000 | 종로구 | (사)인사전통문화보존회 |
| 3 | 종로구 | 어르신위안국악한마당 | 6.26. | 6 | 15,000 | - | - | 66.7 | 33.3 | 5000 | 종로구 (사)국악로보존회 | (사)국악로보존회 |
| 4 | 종로구 | 국악로문화축제 | 10월 | 11 | 30,000 | - | - | 100.0 | - | 10,000 | 종로구 | (사)국악로보존회 |
| 5 | 종로구 | 포도대장과 그순리들 | 매주 | 2 | 1,500 | - | - | 100.0 | - | 13,000 | 종로구청문화재현팀 | 종로구청문화재현팀 |
| 6 | 종로구 | 대학로처없는거리문화행사 | 매주 | 1 | 1,400 | - | - | 100.0 | - | 30,000 | 종로구 | 대학로문화지구 살리기운동본부 |
| 7 | 중구 | 명동축제 | 4월 | 33 | 10,000 | - | - | - | 100.0 | 750,000 | 명동상가번영회 | 명동상가번영회 |
| 8 | 중구 | 동대문 패션페스티벌 | 5월 | 3 | 400,000 | - | - | 50.0 | 50.0 | 1,000,000 | 동대문관광특구협의회 | 서울산업진흥재단 |
| 9 | 중구 | 명동축제 | 9월 | 33 | 10,000 | - | - | - | 100.0 | 750,000 | 명동상가번영회 | 명동상가번영회 |
| 10 | 중구 | 백학축제 | 9월 | 5 | 8,000 | - | - | 100.0 | - | 1,000 | 중구 | 신당5동 주민자치위 |
| 11 | 중구 | 무교 다동 축제 | 10월 | 12 | 8,000 | - | - | 100.0 | - | 200 | 무교다동번영회 | 무교,다동 번영회 |
| 12 | 중구 | 황학동 마장로 주방기구 축제 | 10월 | 5 | 3,000 | - | - | 100.0 | - | 250 | 중앙상인 상인회 | 중앙상인 상인회 |
| 13 | 중구 | 신당동 떡볶이 거리 축제 | 10월 | 10 | 10,000 | - | - | 100.0 | - | 200 | 신당동 떡볶이 상우회 | 신당동 떡볶이 상우회 |
| 14 | 용산구 | 용산국제미술제 | 7월 | 1 | 21,148 | - | - | 28.4 | 71.6 | 7,000 | 용산인미술협회 | 용산인미술협회 |
| 15 | 용산구 | 이태원지구촌축제 | 10월 | 2 | 200,000 | - | 50.0 | 50.0 | - | 200,000 | 용산구 | 이태원관광연합회 |
| 16 | 용산구 | 남이장군대제 | 음력10월 | | 30,000 | - | - | 100.0 | - | 3,000 | 남이장군사당제사업회 | 남이장군사당제사업회 |
| 17 | 용산구 | 용산구민한마음축제 | 10월 | 1 | 50,550 | - | - | 100.0 | - | 2,000 | 용산구 | 용산구 |
| 18 | 용산구 | 토요일예술무대 | 2월-12월 | 10 | 240,600 | - | - | 100.0 | - | 8,000 | 용산구 | 용산구 |
| 19 | 성동구 | 봉산탈춤발표회 | 9월 | 4 | 10,000 | - | - | 100.0 | - | 1,000 | 성동구 | 성동문화원 |
| 20 | 성동구 | 왕십리가요제 | 10월 | 7 | 100,000 | - | - | 100.0 | - | 10,000 | 성동구 | 성동문화원 |

| 연번 | 주무부서 | 축제명 | 축제개최시기 | 개최회수 | 예산(천원, %) | | | | | 참가인원 | 주최 | 주관 |
|----|------|------------------------|---------|------|-----------|------|------|-------|------|--------|------------|-------------|
| | | | | | 총액(천원) | 국비 | 시비 | 구비 | 민간 | | | |
| 21 | 성동구 | 서울새남굿발표회 | 10월 | 4 | 10,000 | - | - | 100.0 | - | | 성동구 | 성동문화원 |
| 22 | 광진구 | 아차산 해맞이축제 | 1월 | 5 | 50,000 | - | 20.0 | 80.0 | - | 30,000 | 광진구 | 광진문화원 |
| 23 | 광진구 | 청소년문예대전 | 5월 | 7 | 8,250 | - | 15.2 | 84.8 | - | 1000 | 광진구 | 광진문화원 |
| 24 | 광진구 | 광진민속한마당 | 5월 | 4 | 7,000 | 14.3 | - | 85.7 | - | 1000 | 광진구 | 광진문화원 |
| 25 | 광진구 | I Love 청소년거리예술축제 | 4월,5월 | 2 | 17,000 | 41.2 | - | 58.8 | - | 2000 | 광진구 | 광진문화원 |
| 26 | 광진구 | 광나루문화제 | 5월 | 1 | - | - | - | - | - | 15,000 | 광진구 | 광진구 |
| 27 | 광진구 | 나담축제 | 7월 | 4 | 20,000 | - | - | 15.0 | 85.0 | 2,000 | 몽골문화진흥원 | 몽골문화진흥원 |
| 28 | 광진구 | 지구촌한가족외국인 국도문화탐방 | 7월 | 1 | 1,947 | - | - | 67.6 | 32.4 | 900 | 지구촌한가족운동본부 | 지구촌한가족운동본부 |
| 29 | 광진구 | 아차산의온달장군과 평강공주소리극공연 | 8월 | 3 | 46,586 | - | - | 64.4 | 35.6 | 1000 | 광진구 | 경서도소리예술극단 |
| 30 | 광진구 | 광나루부채전 | 8월 | 2 | 4,000 | - | - | 50.0 | 50.0 | 1000 | 광진미술협회 | 광진미술협회 |
| 31 | 광진구 | 광진예술인초대전 | 10월-11월 | 9 | 13,000 | - | - | 100.0 | - | 2000 | 광진구 | 광진문화원 |
| 32 | 광진구 | 찾아가는문화원 | 4월-10월 | 3 | 14,500 | 31.0 | - | 69.0 | - | 1000 | 광진구 | 광진문화원 |
| 33 | 동대문구 | 선농제향 | 4월 | 25 | 66,512 | 15.0 | - | 68.4 | 16.5 | 10,000 | 동대문구 | 동대문구문화원 |
| 34 | 동대문구 | 서울약령시축제 | 5월 | 10 | 344,039 | - | 29.1 | 2.9 | 68.0 | 10,000 | (사)서울약령시협회 | (사)서울약령시협회 |
| 35 | 동대문구 | 청룡문화제 | 10월 | 14 | 50,000 | - | - | 40.0 | 60.0 | 5,000 | 청룡문화제보존위원회 | 청룡문화제보존위원회 |
| 36 | 종량구 | 봉화산도당제 | 음력3월 | 6 | 14,000 | - | - | 100.0 | - | 1,000 | 종량문화원 | 봉화산도당제보존위원회 |
| 37 | 성북구 | 아리랑축제 | 5월 | 3 | 300,000 | - | - | 100.0 | - | 20,000 | 성북구 | 성북구 |
| 38 | 강북구 | 구민문화,체육한마당 | 4월 | 10 | 96,000 | - | - | 100.0 | - | | 강북구 | 강북구 |
| 39 | 강북구 | 삼각산국제산악문화제 | 5월 | 10 | 31,030 | - | - | 100.0 | - | | 강북구 | 강북구 |
| 40 | 강북구 | 삼각산축제 | 10월 | 8 | 3,700 | - | - | 100.0 | - | 10,000 | 강북문화원 | 강북문화원 |

| 연번 | 주무부서 | 축제명 | 축제개최시기 | 개최회수 | 예산(천원, %) | | | | | 참가인원 | 주최 | 주관 |
|----|------|-----------------|--------|------|-----------|-----|------|-------|-------|---------|-------------|--------------|
| | | | | | 총액(천원) | 국비 | 시비 | 구비 | 민간 | | | |
| 41 | 도봉구 | 해맞이행사 | 1월 | 2 | - | - | - | - | - | 1,000 | 도봉구 | 도봉구 |
| 42 | 도봉구 | 신춘음악회 | 2월 | 1 | 7,000 | - | - | 100.0 | - | 1,000 | 도봉구 | 도봉구 |
| 43 | 도봉구 | 술바람가요제 | 5월 | 7 | 19,500 | - | - | 100.0 | - | 1,000 | 도봉구 | 도봉구 |
| 44 | 도봉구 | 도봉구민열린음악회 | 7월 | 1 | 20,300 | - | - | 100.0 | - | 1,000 | 도봉구 | 도봉구 |
| 45 | 노원구 | 마들문화축제 | 10월 | 17 | 161,000 | - | - | 100.0 | - | 4,500 | 노원구 | 노원구 |
| 46 | 은평구 | 2004은평사랑 한마음 축제 | 10월 | 2 | 344,127 | - | - | 100.0 | - | 70,000 | 은평구 | 은평구 외 12개단체 |
| 47 | 은평구 | 은평사랑한마음축제 | 10월 | 9 | 263,000 | - | - | 100.0 | - | 60,000 | 은평구 | 은평구 |
| 48 | 서대문구 | 서대문형무소역사관예술제 | 9월 | 4 | 45,000 | - | - | 100.0 | - | 3,000 | 서대문구 | 서대문문화원 |
| 49 | 마포구 | 마포나루곳 재현행사 | 5월 | | 11,000 | - | - | 100.0 | - | 600 | 마포문화원 | (사)한국민속예술연구원 |
| 50 | 마포구 | 서울프린지페스티벌 | 8월, 9월 | 7 | 30,000 | - | 66.7 | 33.3 | - | 200,000 | 서울 프린지 네트워크 | 서울프린지네트워크 |
| 51 | 마포구 | 한국실험예술제 | 8월 | 4 | - | - | - | - | - | 5,000 | 한국실험예술정신위 | KOPAS |
| 52 | 마포구 | 홍대거리미술전 | 10월 | 12 | 51,000 | - | 19.6 | 80.4 | - | 30,000 | 홍대거리미술전기획단 | 홍대미대 |
| 53 | 강서구 | 의성허준축제 | 10월 | 6 | 151,600 | 7.9 | - | 92.1 | - | 30,000 | 강서구 | 강서문화원 |
| 54 | 구로구 | 구로문화축제 | 10월 | 2 | 39,000 | - | - | 100.0 | - | 20,000 | 구로구 | 구로구 |
| 55 | 금천구 | 금천벚꽃축제 | 4월 | 2 | 40,000 | - | - | 100.0 | - | | 금천구 | 금천구 |
| 56 | 금천구 | 정조대왕행사 | 6월 | | - | - | - | - | - | | 금천구 | 금천구 |
| 57 | 금천구 | 여름별밤야외페스티벌 | 8월 | 1 | 60,000 | - | - | 100.0 | - | 10000 | 금천구 | 금천구 |
| 58 | 금천구 | 여름별밤 야외음악회 | 8월 | 1 | 55,000 | - | - | 100.0 | - | | 금천구 | 금천구 |
| 59 | 금천구 | 금천 축제한마당 | 10월 | 1 | 55,000 | - | - | 100.0 | - | 9000 | 금천구 | 금천구 |
| 60 | 금천구 | 제6회 한가위대축제 | 10월 | 6 | 8,000 | - | - | - | 100.0 | 1000 | 금천문화원 | 금천문화원 |

| 연번 | 주무부서 | 축제명 | 축제개최시기 | 개최회수 | 예산(천원, %) | | | | | 참가인원 | 주최 | 주관 |
|----|------|---------------------|--------|------|-----------|------|-----|-------|------|-----------|---------|----------------|
| | | | | | 총액(천원) | 국비 | 시비 | 구비 | 민간 | | | |
| 61 | 금천구 | 금천열린문화축제 | 10월 | 10 | 60,000 | - | - | 100.0 | - | | 금천구 | 금천구 |
| 62 | 영등포구 | 벚꽃축제 | 4월 | 18 | 100,000 | - | - | 100.0 | - | 5,000,000 | 영등포구 | 영등포구 |
| 63 | 영등포구 | 정월대보름맞이 | 4월 | 6 | 40,000 | - | - | 100.0 | - | 3,000 | 양평1동사무소 | 양평1동생활체육회 |
| 64 | 영등포구 | 어린이 동화구연대회 | 5월 | 2 | 3,000 | - | - | 63.7 | 36.3 | 300 | 영등포문화원 | 영등포문화원 |
| 65 | 영등포구 | 영등포서예협회전 | 7월 | 6 | 4,000 | - | - | 100.0 | - | 1000 | 영등포구 | 영등포구 |
| 66 | 영등포구 | 여름방학맞이어린이 뮤지컬공연 | 8월 | 4 | 4,500 | - | - | 100.0 | - | 2500 | 영등포구 | 영등포구 |
| 67 | 영등포구 | 문예공모전 | 9월 | 9 | 19,650 | - | - | 100.0 | - | 200 | 영등포구 | 영등포문화원 |
| 68 | 영등포구 | 구민노래자랑 | 10월 | 9 | 32,700 | - | - | 100.0 | - | 6000 | 영등포구 | 영등포구 |
| 69 | 영등포구 | 공원음악회 | 10월 | 3 | 7,600 | - | - | 100.0 | - | 2000 | 영등포구 | 세종문화회관 |
| 70 | 영등포구 | 목련전 | 10월 | 8 | 12,000 | - | - | 100.0 | - | 1000 | 영등포구 | 영등포예술인협회 |
| 71 | 영등포구 | 청소년미술실기대회 | 10월 | 10 | 8,009 | - | - | 100.0 | - | 1200 | 영등포구 | 영등포문화원 |
| 72 | 영등포구 | 구민회화대회 | 10월 | 12 | 6,341 | - | - | 100.0 | - | 200 | 영등포구 | 영등포문화원 |
| 73 | 영등포구 | 동대항 창작 및 애송시 낭송대회 | 10월 | 5 | 6,000 | - | - | 70.8 | 29.2 | 500 | 영등포문화원 | 영등포문화원 |
| 74 | 영등포구 | 청소년음악회 | 11월 | 6 | 18,500 | 18.9 | - | 81.1 | - | 1000 | 영등포문화원 | 영등포문화원 |
| 75 | 영등포구 | 문화교실 작품전 및 송년의밤 음악회 | 12월 | 5 | 18,000 | - | - | 75.6 | 24.4 | 1000 | 영등포문화원 | 영등포문화원 |
| 76 | 영등포구 | 2004 작은문화마당 | 4월~10월 | 8 | 39,100 | - | - | 100.0 | - | 3000 | 영등포구 | 영등포구 |
| 77 | 영등포구 | 단오한마당 | 5월 | 3 | 395,710 | 6.9 | 3.1 | 30.7 | 59.3 | 4,000 | 영등포문화원 | 영등포문화원 |
| 78 | 동작구 | 사육신추모제전 | 10월 | 3 | 35,000 | - | - | 100.0 | - | 1,600 | 동작구 | 동작문화원사육신현창회 |
| 79 | 관악구 | 관악산철쭉제 | 5월 | 17 | 156,659 | - | - | 94.3 | 5.7 | 9,700 | 관악구 | 관악문화원 |
| 80 | 동작구 | 장승제 | 10월 | 3 | 4,000 | - | - | 50.0 | 50.0 | 500 | 동작구 | 노량진바르게살기 추진위원회 |

| 연번 | 주무부서 | 축제명 | 축제개최시기 | 개최회수 | 예산(천원, %) | | | | | 참가인원 | 주최 | 주관 |
|-----|------|------------|--------|------|-----------|----|-------|-------|------|---------|----------|------------|
| | | | | | 총액(천원) | 국비 | 시비 | 구비 | 민간 | | | |
| 81 | 관악구 | 청소년음악축제 | 10월 | 1 | 55,400 | - | - | 100.0 | - | 20,000 | 관악구 | 관악구 |
| 82 | 강남구 | 압구정문화축제 | 9월(격년) | 9 | 50,000 | - | - | 100.0 | - | 2,000 | 압구정상가번영회 | 압구정상가번영회 |
| 83 | 관악구 | 낙성대인헌제 | 10월 | 17 | 26,805 | - | - | 89.8 | 10.2 | 2,000 | 관악구 | 관악문화원 |
| 84 | 강남구 | 청담로드패션쇼 | - | 1 | 15,000 | - | - | 100.0 | - | | 강남구 | 동덕여대 |
| 85 | 강남구 | 역말축제 | 10월 | 2 | 50,000 | - | - | 100.0 | - | 2,000 | 역삼1동사무소 | ㈜강남케이블 |
| 86 | 강남구 | 대청골문화축제 | 10월 | 4 | 50,000 | - | - | 100.0 | - | 1,000 | 강남구 | 대청골문화축제위원회 |
| 87 | 강남구 | 일원동어울마당 | 10월 | 1 | 30,000 | - | - | 100.0 | - | 216,000 | 강남구 | 일원동문화축제위원회 |
| 88 | 송파구 | 송파다리밟기 | 2월 | 1 | 800 | - | - | 100.0 | - | 2,000 | 송파구 | 송파산대놀이보존회 |
| 89 | 송파구 | 단오민속축제 | 2월 | 1 | 800 | - | - | 100.0 | - | 2000 | 송파구 | 송파구 |
| 90 | 송파구 | 예술극장문화행사 | 3월 | 6 | 20,600 | - | - | 100.0 | - | 226,000 | 송파구 | 송파구 |
| 91 | 송파구 | 석촌호수에메랄드축제 | 4월 | 20 | 88,000 | - | - | 100.0 | - | 40000 | 송파구 | 송파문화원 |
| 92 | 송파구 | 수변테크음악회 | 5월 | 1 | 20,000 | - | - | 100.0 | - | 5000 | 송파구 | 송파문화원 |
| 93 | 송파구 | 장애인가족한마당축제 | 6월 | 1 | 47,100 | - | - | 100.0 | - | 3000 | 송파구 | 송파인장애인복지관 |
| 94 | 송파구 | 송파백중놀이 | 8월 | 1 | 760 | - | - | 100.0 | - | 3000 | 송파구 | 송파구 |
| 95 | 송파구 | 한성백제문화제 | 9월(격년) | 12 | 315,614 | - | - | 100.0 | - | 216,000 | 송파구 | 송파문화원 |
| 96 | 송파구 | 송파미술대전 | 9월 | 1 | 17,876 | - | - | 100.0 | - | 1000 | 송파구 | 송파구 |
| 97 | 송파구 | 송파서예대전 | 12월 | 1 | 16,000 | - | - | 100.0 | - | 2000 | 송파구 | 송파구 |
| 98 | 송파구 | 사진공모전 | 12월 | 1 | 16,000 | - | - | 100.0 | - | 1000 | 송파구 | 송파구 |
| 99 | 송파구 | 서울놀이마당공연 | 4월-10월 | 28 | 230,000 | - | 100.0 | - | - | 56000 | 송파구 | 송파구 |
| 100 | 강동구 | 강동선사문화축제 | 10월 | 9 | 185,000 | - | - | 100.0 | - | 50,000 | 강동구 | 강동구 |

부록3. 축제칼렌다: [2005년 4월]

| sun | mon | tue | wed | thu | fri | sat |
|--|--|---|---|--|--|--|
| 노들ham당축제(동작구) 산동제향(동대문구, 전통문화축제) 도심속의 작은 축제(중구, 예술축제) 롯데월드 야간개장/ 축제(Night Fever, 모달볼 축제) 에버랜드 문라이트퍼레이드, 유로페스티벌(3.18-6.12), 낭만적데이트꽃밭길 | | | | | 1 .한국의소리(남산골한옥마을, 11:00-12:00) .금요상설심야영화 (세종문화회관) | 2 .남산골한옥마을 주말공연 (15:00-16:00) 왕비간택의식재현행사 (운현궁, 15:00-17:00) .토요일밤환상의불꽃놀이쇼(매직이일랜드, 20:30) |
| 3 .남산골한옥마을 주말공연 (15:00-16:00) .일요일예술투대 (운현궁, 17:00-18:00) | 4 .한국의소리(남산골한옥마을, 11:0-12:00) | 5 .한국의소리(남산골한옥마을, 11:00-12:00) .나무사랑축제 (월드컵공원 내 평화의공원, 10:00-14:00) | 6 .한국의소리(남산골한옥마을, 11:0-12:00) .줄타기공연 (운현궁, 14:00-16:00) | 7 2005 서울세계관광음식박람회(코엑스대서양홀, 4월 6일-10일)----- | 8 .한국의소리(남산골한옥마을, 11:00-12:00) .금요상설심야영화 (세종문화회관) | 9 .토요일밤환상의불꽃놀이쇼(매직이일랜드, 20:30) |
| 10 .남산골한옥마을 주말공연 (15:00-16:00) .일요일예술투대 (운현궁, 17:00-18:00) | 11 .한국의소리(남산골한옥마을, 11:0-12:00) | 12 .한국의소리(남산골한옥마을, 11:00-12:00) . '일상의 여유' (서울광장, 12:20-12:50) | 13 .한국의소리(남산골한옥마을, 11:0-12:00) . '일상의 여유' (서울광장, 12:20-12:50) | 14 . '일상의 여유' (서울광장, 12:20-12:50) | 15 .한국의소리(남산골한옥마을, 11:00-12:00) .금요상설심야영화 (세종문화회관) . '일상의 여유' (서울광장, 12:20-12:50) | 16 .고종명성후가례재현행사(운현궁, 15:00-17:00) |
| -----> | | | | | | |
| 17 .남산골한옥마을 주말공연 (15:00-16:00) .일요일예술투대 (운현궁, 17:00-18:00) | 18 .한국의소리(남산골한옥마을, 11:0-12:00) .도봉서원전통향사(도봉서원, 음력3월 10일) | 19 . '일상의 여유' (서울광장, 12:20-12:50) .세계빛축제(여의도한강시민공원, 18:00-, 20:40분경 도착) | 20 .한국의소리(남산골한옥마을, 11:0-12:00) . '일상의 여유' (서울광장, 12:20-12:50) | 21 . '일상의 여유' (서울광장, 12:20-12:50) | 22 .한국의소리(남산골한옥마을, 11:00-12:00) .금요상설심야영화 (세종문화회관) . '일상의 여유' (서울광장, 12:20-12:50) | 23 |
| | | | .서울청년미술제(서울시립미술관, 5월22일까지) | | .소원등축제(롯데월드 석촌호수 산책실, 5월22일까지) | |
| 24 .남산골한옥마을 주말공연 (15:00-16:00) .일요일예술투대 (운현궁, 17:00-18:00) | 25 .한국의소리(남산골한옥마을, 11:0-12:00) | 26 | 27 .한국의소리(남산골한옥마을, 11:0-12:00) | 28 | 29 .한국의소리(남산골한옥마을, 11:00-12:00) .금요상설심야영화 (세종문화회관) | 30 하이서울페스티벌전야제(서울광장, 17:30-21:00, 불꽃놀이, PIG쇼, 주용필콘서트) .세종대왕축위식(고궁 축제, 14:00-15:30) .서울사랑음식축제(10:00부터) |

[2005년 5월]

| sun | mon | tue | wed | thu | fri | sat |
|--|--------------------------------------|-----|---|-----|---|---|
| 1 외국인노동자축제 (대학로마로니에공원) | 2 ·한국의소리(남산한옥마을, 11:30-12:30) | 3 | 4 ·한국의소리(남산한옥마을, 11:30-12:30) ·2005서울연극제개막식 | 5 | 6 ·2005서울무형문화재축제(남 산한옥마을) ·한국의소리(남산한옥마을, 11:30-12:30) | 7 ·2005서울무형문화재축제(남 산한옥마을) |
| 인사동전통문화축제(4월23일 ~ 5월5일, 인사동일대)/ 하이서울페스티벌(4월30일 ~ 5월5일, 서울광장 및 도심)/ 서울청년미술제(4월22일 ~ 5월20일, 서울시립미술관 본관 및 남서울분관)/ 2005서울연극제(한국 문화예술진흥원 대극장, 학전블루 소극장 및 대학로 일대) | | | | | | |
| 8 ·2005서울무형문화재축제(남 산한옥마을) ·연등축제 (조계사 일대) | 9 ·한국의소리(남산한옥마을, 11:30-12:30) | 10 | 11 ·한국의소리(남산한옥마을, 11:30-12:30) ·수요다악(운현궁, 12:30) | 12 | 13 ·미술과음악의만남 '팝스콘 서트' (18:00,시립미술관) ·한국의소리(남산한옥마을, 11:30-12:30) | 14 남산한옥마을주말공연 (남산한옥마을, 15:00) |
| 인사동전통문화축제(4월23일 ~ 5월5일, 인사동일대)/ 하이서울페스티벌(4월30일 ~ 5월5일, 서울광장 및 도심)/ 서울청년미술제(4월22일 ~ 5월20일, 서울시립미술관 본관 및 남서울분관)/ 2005서울연극제(한국 문화예술진흥원 대극장, 학전블루 소극장 및 대학로 일대) | | | | | | |
| 15 부처님오신날법요식 (종대문운동장) ·홀로 빛나는한옥마을(남산 한옥마을, 10:00) ·일요예술무대 (운현궁, 17:00) | 16 ·한국의소리(남산한옥마을, 11:30-12:30) | 17 | 18 ·한국의소리(남산한옥마을, 11:30-12:30) ·수요다악(운현궁, 12:30) | 19 | 20 ·한국의소리(남산한옥마을, 11:30-12:30) | 21 책읽는서울(봉천5동관악드 림티아와외무대, 15:00) 남산한옥마을주말공연 (남산한옥마을, 15:00) |
| 22 ·서울시민생활체육대회 (효창운동장) ·남산한옥마을주말공연 (남산한옥마을, 15:00) ·일요예술무대 (운현궁, 17:00) | 23 ·한국의소리(남산한옥마을, 11:30-12:30) | 24 | 25 ·한국의소리(남산한옥마을, 11:30-12:30) ·수요다악(운현궁, 12:30) | 26 | 27 ·한국의소리(남산한옥마을, 11:30-12:30) | 28 남산한옥마을주말공연 (남산한옥마을, 15:00) |
| 29 ·서울시민생활체육대회 (효창운동장) ·남산한옥마을주말공연 (남산한옥마을, 15:00) ·일요예술무대 (운현궁, 17:00) | 30 ·한국의소리(남산한옥마을, 11:30-12:30) | 31 | ◆왕궁수문장교대의식(1일3회, 10:30/14:00/15:00, 서울광장) ◆세종문화회관 분수대 트라극제(정오의도시리콘서트, 4월11일 ~ 5월20일, 12:20-12:50) ◆2005춘·세종로도심별밤페스티벌(5월1일 ~ 5월31일, 17:00-21:00) ◆세계빛EXPO2005(fantasy of light, 고양시, 4월22일 ~ 6월19일) | | | |

[2005년 6월]

| sun | mon | tue | wed | thu | fri | sat |
|---|-----|-----|---|-----|--|---|
| | | | 1 | 2 | 3 | 4 |
| | | | 2005인디포럼, 서울아트시네마 -퀴어문화제 '퀴어질정', 종로/홍대/광화문 | | | |
| | | | | | 2005서울국제도서전, 코엑스, 0603-0608 | 2005서울국제도서전, 코엑스, 0603-0608 외국인노동자문화축제, 서울광장 |
| 5 | 6 | 7 | 8 | 9 | 10 | 11 |
| 2005인디포럼, 서울아트시네마 퀴어문화제 '퀴어질정', 종로/홍대/광화문 | | | | | | 마포나루굿재현행사 |
| | | | | | 26회 서울무용제(Modafe), 문예진흥원예술극장 대극장, 창무국제예술제(궁중무용), 포스트극장, | |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 26회 서울무용제(Modafe), 문예진흥원예술극장 대극장, 창무국제예술제(궁중무용), 포스트극장, 잘츠부르크오페라페스티벌, 올림픽홀 | | | | | | |
| | | | | | ·세계통과의례페스티벌 전야제, 강동암사선사주거지 | |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 26회 서울무용제(Modafe), 문예진흥원예술극장 대극장 잘츠부르크오페라페스티벌, 올림픽홀 | | | | | | |
| | | | | | ·서울시민예술축제, 마포문화센터서울퍼포밍아트홀 | |
| 26 | 27 | 28 | 29 | 30 | | |
| 26회 서울무용제(Modafe), 문예진흥원예술극장 대극장 | | | | | | |
| 잘츠부르크오페라페스티벌, 올림픽홀 | | | | | | |

[2005년 9월]

| sun | mon | tue | wed | thu | fri | sat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5 서울영화제(SeNeF) ◆ 제4회 애니메이션축제 ◆ 제2회 서울환경영화제 ◆ 제36회 명동축제 ◆ 2005 세계통과의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산골추석행사 ◆ 제5회 서울국제공연예술제 | 1 | 2 | 3 | | |
| | | 2005 서울영화제(SeNeF) : 단성사, 인사동 쌈지길 | | | | |
| 4 | 5 | 6 | 7 | 8 | 9 | 10 |
| 2005 서울영화제(SeNeF) : 단성사, 인사동 쌈지길 | | | | 제4회 애니메이션축제 | | |
| 사직대제(11:00-13:00/사직동 사직단) | | | | 제2회 서울환경영화제-CO2를 잡아라 (시네큐브, 정동 스타식스) | | |
| | | | | 2005서울기프트쇼(COEX) | | 추가석전봉행(10:00- / 성균관 대성전) |
| | | | 제1회 동물나라가을꽃축제 (-11.13일/서울대공원) | | 제36회 명동축제 개막 (10.9일까지, 명동중앙로) | |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 제4회 애니메이션축제(최강애니전 2005, 서울애니메이션센터) | | | | | | 05남산골한가위대축제 |
| 제2회 서울환경영화제-CO2를 잡아라 (시네큐브, 정동 스타식스) | | | | | | 2005세계통과의례 (10:00-19:00, 서울숲) |
| 2005서울기프트쇼(COEX) | | | | | | |
| 제5회 서울막걸리축제(인사 전통문화의 거리) | | | | | | |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 한가위국악대축제(14:00-21:00/ 서울광장) | | | | | | 제5회 서울국제공연예술제(-10월16일, 문예진흥원예술극장, 서강대학교 메리홀, 국립극장, 충무아트홀 외) |
| 05남산골한가위대축제(10:00-18:00/ 남산한옥마을) | | | | | | |
| 2005세계통과의례(10:00-19:00, 서울숲) | | | | | | |
| 25 | 26 | 27 | 28 | 29 | 30 | |
| 제5회 서울국제공연예술제(-10월16일, 문예진흥원예술극장, 서강대학교 메리홀, 국립극장, 충무아트홀 외) 작품행사 및 부대행사 | | | | | | |

[2005년 10월]

| sun | mon | tue | wed | thu | fri | sat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드림페스티벌 ◆ 세계불꽃축제 ◆ 월드컵공원 역사축제 ◆ 국제공연예술제 ◆ 제8회 서울세계무용축제 ◆ 뉴질랜드영화제(www.nzff.co.kr) ◆ 제6회 장애인영화제(www.pdf.net) ◆ 제6회 서울유립영화제-메가필름페스티벌(www.meff.co.kr) ◆ 제1회 서울시민예술제(동작구 '고이 나빌레라 아름다운 무용제') | | | | | | 1 |
| 제5회 서울국제공연예술제(-10월16일, 문예진흥원예술극장, 서강대학교 메리홀, 국립극장, 충무아트홀 외) | | | | | | |
| 제8회 서울세계무용축제(-10월18일, 예술의전당 토월극장, 자유소극장, 호암아트홀) | | | | | | |
| 청계천새물맞이축제/ 한성백제문화제/ 이태원지구촌축제/ 국악로문화축제/ 제15회청룡문화제/ 홍대거리미술전 | | | | | 서울드림페스티벌 | |
| 동대문패션페스티벌 | | | | | | |
| 9 | 10 | 11 | 12 | 13 | 14 | 15 |
| 제5회 서울국제공연예술제(-10월16일, 문예진흥원예술극장, 서강대학교 메리홀, 국립극장, 충무아트홀 외) | | | | | | |
| 제8회 서울세계무용축제(-10월18일, 예술의전당 토월극장, 자유소극장, 호암아트홀) | | | | | | |
| 서울드림페스티벌 | | | | | 제10회강동선사문화축제 | |
| | | | | | 제4회하늘공원(월드컵공원)역사축제 | |
| | | | | | 고종명성황후가례식 | |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 제4회하늘공원(월드컵공원)역사축제 | | | | | | |
| 제10회강동선사문화축제/ 제5회서울국제공연예술제/ 동궁계비축하연, 남산골한옥마을 윤비친가) | | | | | | |
| 2005서울세계불꽃축제 | | | | | | |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 제4회하늘공원(월드컵공원)역사축제 | | | | 정동문화축제(-10.30) | | 2005서울세계불꽃축제/남이장군대제/ 정동문화축제 |

부록4. 서울형 축제 평가 설문지 : [서울성 우선순위 평가]

| 연번 | 축제명 | 서울성 | | | | | | | | |
|----|--------------|-----|-----|-----|-----|-----|-----|-----|-----------|-----------|
| | | 국제성 | 전국성 | 장소성 | 역사성 | 현대성 | 다양성 | 역동성 | 거리 이용성 | 일상 공간성 |
| 1 | 서울악령시축제 | | | | | | | | | |
| 2 | 한성백제문화제 | | | | | | | | | |
| 3 | 인사전통문화축제 | | | | | | | | | |
| 4 | 벚꽃축제 | | | | | | | | | |
| 5 | 종묘대제 | | | | | | | | | |
| 6 | 명동축제 | | | | | | | | | |
| 7 | 선농제향 | | | | | | | | | |
| 8 | 홍대거리미술전 | | | | | | | | | |
| 9 | 연등축제 | | | | | | | | | |
| 10 | 서울국제공연예술제 | | | | | | | | | |
| 11 | 서울드림페스티벌 | | | | | | | | | |
| 12 | 이태원지구촌축제 | | | | | | | | | |
| 13 | 서울프린지페스티벌 | | | | | | | | | |
| 14 | 강동선사문화축제 | | | | | | | | | |
| 15 | 조선조과거재현 | | | | | | | | | |
| 16 | 석촌호수에메랄드축제 | | | | | | | | | |
| 17 | HiSeoul 페스티벌 | | | | | | | | | |

| 연번 | 축제명 | 서울성 | | | | | | | | |
|----|---------------|-----|-----|-----|-----|-----|-----|-----|-----------|-----------|
| | | 국제성 | 전국성 | 장소성 | 역사성 | 현대성 | 다양성 | 역동성 | 거리 이용성 | 일상 공간성 |
| 18 | 남산골단오민속축제 | | | | | | | | | |
| 19 | 고궁축제 | | | | | | | | | |
| 20 | 동대문패션페스티벌 | | | | | | | | | |
| 21 | 송파다리밟기 | | | | | | | | | |
| 22 | 사직대제 | | | | | | | | | |
| 23 | 국악로문화축제 | | | | | | | | | |
| 24 | 세계통과의례 | | | | | | | | | |
| 25 | 서울세계불꽃축제 | | | | | | | | | |
| 26 | 지구촌한마당 | | | | | | | | | |
| 27 | 청룡문화제 | | | | | | | | | |
| 28 | 서울여성영화제 | | | | | | | | | |
| 29 | 고종명성후가례재현행사 | | | | | | | | | |
| 30 | 송파백중놀이 | | | | | | | | | |
| 31 | 서울국제미디어아트비엔날레 | | | | | | | | | |
| 32 | 남산골한옥마을추석행사 | | | | | | | | | |
| 33 | 정동문화축제 | | | | | | | | | |
| 34 | 월드컵공원역새축제 | | | | | | | | | |
| 35 | 남이장군대제 | | | | | | | | | |

부록4. 서울형 축제 평가 설문지 : [축제성 우선순위 평가]

| 연번 | 축제명 | 축제성 | | | | | |
|----|--------------|-----|-----|-----|-----|-----|-----|
| | | 의례성 | 집단성 | 현장성 | 유희성 | 일탈성 | 창조성 |
| 1 | 서울약령시축제 | | | | | | |
| 2 | 한성백제문화제 | | | | | | |
| 3 | 인사전통문화축제 | | | | | | |
| 4 | 벚꽃축제 | | | | | | |
| 5 | 종묘대제 | | | | | | |
| 6 | 명동축제 | | | | | | |
| 7 | 선농제향 | | | | | | |
| 8 | 홍대거리미술전 | | | | | | |
| 9 | 연등축제 | | | | | | |
| 10 | 서울국제공연예술제 | | | | | | |
| 11 | 서울드림페스티벌 | | | | | | |
| 12 | 이태원지구촌축제 | | | | | | |
| 13 | 서울프린지페스티벌 | | | | | | |
| 14 | 강동선사문화축제 | | | | | | |
| 15 | 조선조과거재현 | | | | | | |
| 16 | 석촌호수에메달드축제 | | | | | | |
| 17 | HiSeoul 페스티벌 | | | | | | |

| 연번 | 축제명 | 축제성 | | | | | |
|----|---------------|-----|-----|-----|-----|-----|-----|
| | | 의례성 | 집단성 | 현장성 | 유희성 | 일탈성 | 창조성 |
| 18 | 남산골단오민속축제 | | | | | | |
| 19 | 고궁축제 | | | | | | |
| 20 | 동대문패션페스티벌 | | | | | | |
| 21 | 송파다리밟기 | | | | | | |
| 22 | 사직대제 | | | | | | |
| 23 | 국악로문화축제 | | | | | | |
| 24 | 세계통과의례 | | | | | | |
| 25 | 서울세계불꽃축제 | | | | | | |
| 26 | 지구촌한마당 | | | | | | |
| 27 | 청룡문화제 | | | | | | |
| 28 | 서울여성영화제 | | | | | | |
| 29 | 고종명성후가례재현행사 | | | | | | |
| 30 | 송파백중놀이 | | | | | | |
| 31 | 서울국제미디어아트비엔날레 | | | | | | |
| 32 | 남산골한옥마을추석행사 | | | | | | |
| 33 | 정동문화축제 | | | | | | |
| 34 | 월드컵공원역새축제 | | | | | | |
| 35 | 남이장군대제 | | | | | | |

부록4. 서울형 축제 평가 설문지 : [서울성 중요도-성취도 평가]

| 구분 | 지표 | 세부항목 | 중요도(Importance) | | | | | | | 성취도(Performance) | | | | | | |
|-------|---|-------------------------------------|-----------------|----|----|---|---|---|----|------------------|----|----|---|---|---|---|
| | | | -3 | -2 | -1 | 0 | 1 | 2 | 3 | -3 | -2 | -1 | 0 | 1 | 2 | 3 |
| 서울성 | 국제성 |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 | -3 | -2 | -1 | 0 | 1 | 2 | 3 | -3 | -2 | -1 | 0 | 1 | 2 | 3 |
| | | 국내외 외국인과 함께 만들거나 즐기는 교류프로그램 존재 여부 | -3 | -2 | -1 | 0 | 1 | 2 | 3 | -3 | -2 | -1 | 0 | 1 | 2 | 3 |
| | | 중앙정부 및 시민단체 차원의 지원 여부 | -3 | -2 | -1 | 0 | 1 | 2 | 3 | -3 | -2 | -1 | 0 | 1 | 2 | 3 |
| | 전국성 | 전국의 문화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잠재력 | -3 | -2 | -1 | 0 | 1 | 2 | 3 | -3 | -2 | -1 | 0 | 1 | 2 | 3 |
| | | 서울 이외 지역과 함께 만들거나 즐기는 교류프로그램 존재 여부 | -3 | -2 | -1 | 0 | 1 | 2 | 3 | -3 | -2 | -1 | 0 | 1 | 2 | 3 |
| | | 서울 이외 지방정부 및 시민단체 차원의 지원 여부 | -3 | -2 | -1 | 0 | 1 | 2 | 3 | -3 | -2 | -1 | 0 | 1 | 2 | 3 |
| | 장소성 | 서울 내 특정 지역의 장소성 반영 여부 | -3 | -2 | -1 | 0 | 1 | 2 | 3 | -3 | -2 | -1 | 0 | 1 | 2 | 3 |
| | | 축제 프로그램과 시민들의 일상생활과의 밀접한 관련성 | -3 | -2 | -1 | 0 | 1 | 2 | 3 | -3 | -2 | -1 | 0 | 1 | 2 | 3 |
| | | 자치구 및 주민단체 차원의 지원 여부 | -3 | -2 | -1 | 0 | 1 | 2 | 3 | -3 | -2 | -1 | 0 | 1 | 2 | 3 |
| | 역사성 | 서울의 역사적 콘텐츠 활용 여부 | -3 | -2 | -1 | 0 | 1 | 2 | 3 | -3 | -2 | -1 | 0 | 1 | 2 | 3 |
| | | 역사적 요소의 현대적 재구성 여부 | -3 | -2 | -1 | 0 | 1 | 2 | 3 | -3 | -2 | -1 | 0 | 1 | 2 | 3 |
| | | 문화유산으로서의 발전 잠재력 | -3 | -2 | -1 | 0 | 1 | 2 | 3 | -3 | -2 | -1 | 0 | 1 | 2 | 3 |
| | 현대성 | 서울의 현대적 콘텐츠의 활용 여부 | -3 | -2 | -1 | 0 | 1 | 2 | 3 | -3 | -2 | -1 | 0 | 1 | 2 | 3 |
| | | 첨단기술의 문화적 활용 여부 | -3 | -2 | -1 | 0 | 1 | 2 | 3 | -3 | -2 | -1 | 0 | 1 | 2 | 3 |
| | | 사이버공간의 활용 여부 | -3 | -2 | -1 | 0 | 1 | 2 | 3 | -3 | -2 | -1 | 0 | 1 | 2 | 3 |
| | 다양성 |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향수 욕구 충족에 대한 기여도 | -3 | -2 | -1 | 0 | 1 | 2 | 3 | -3 | -2 | -1 | 0 | 1 | 2 | 3 |
| | | 문화소외계층을 타겟으로 한 프로그램 존재 여부 | -3 | -2 | -1 | 0 | 1 | 2 | 3 | -3 | -2 | -1 | 0 | 1 | 2 | 3 |
| | | 비주류 문화, 소수문화, 언더그라운드 문화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 | -3 | -2 | -1 | 0 | 1 | 2 | 3 | -3 | -2 | -1 | 0 | 1 | 2 | 3 |
| | 역동성 |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의사 반영 달성 여부 | -3 | -2 | -1 | 0 | 1 | 2 | 3 | -3 | -2 | -1 | 0 | 1 | 2 | 3 |
| | | 축제발전을 위한 정부 및 민간단체와의 협의 채널 존재 여부 | -3 | -2 | -1 | 0 | 1 | 2 | 3 | -3 | -2 | -1 | 0 | 1 | 2 | 3 |
| | | 축제 평가를 통한 문제점 보완 여부 | -3 | -2 | -1 | 0 | 1 | 2 | 3 | -3 | -2 | -1 | 0 | 1 | 2 | 3 |
| 거리이용성 | 축제 장소로서 거리나 광장 등의 공공공간의 활용도 | -3 | -2 | -1 | 0 | 1 | 2 | 3 | -3 | -2 | -1 | 0 | 1 | 2 | 3 | |
| | 거리퍼레이드의 효과적 수행 여부 | -3 | -2 | -1 | 0 | 1 | 2 | 3 | -3 | -2 | -1 | 0 | 1 | 2 | 3 | |
| | 거리 이미지 및 거리문화환경의 변화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도 | -3 | -2 | -1 | 0 | 1 | 2 | 3 | -3 | -2 | -1 | 0 | 1 | 2 | 3 | |
| 일상공간성 | 축제의 장소로서 시민의 일상생활공간의 활용도 | -3 | -2 | -1 | 0 | 1 | 2 | 3 | -3 | -2 | -1 | 0 | 1 | 2 | 3 | |
| | 일상생활공간의 문화적인 공간화 기여도 | -3 | -2 | -1 | 0 | 1 | 2 | 3 | -3 | -2 | -1 | 0 | 1 | 2 | 3 | |
| | 시민들의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축제의 시간, 장소, 프로그램 배치의 적절성 | -3 | -2 | -1 | 0 | 1 | 2 | 3 | -3 | -2 | -1 | 0 | 1 | 2 | 3 | |

부록4. 서울형 축제 평가 설문지 : [축제성 중요도-성취도 평가]

| 구분 | 지표 | 세부항목 | 중요도(Importance) | | | | | | | 성취도(Performance) | | | | | | |
|-----|-----|----------------------------------|-----------------|----|----|---|---|---|---|------------------|----|----|---|---|---|---|
| | | | -3 | -2 | -1 | 0 | 1 | 2 | 3 | -3 | -2 | -1 | 0 | 1 | 2 | 3 |
| 축제성 | 의례성 | 축제 개최 목적의 명확성 | -3 | -2 | -1 | 0 | 1 | 2 | 3 | -3 | -2 | -1 | 0 | 1 | 2 | 3 |
| | | 참가자들의 축제를 통한 소망 및 기원하는 바의 명확성 | -3 | -2 | -1 | 0 | 1 | 2 | 3 | -3 | -2 | -1 | 0 | 1 | 2 | 3 |
| | | 참가자들의 소망 기원 프로그램의 존재 여부 | -3 | -2 | -1 | 0 | 1 | 2 | 3 | -3 | -2 | -1 | 0 | 1 | 2 | 3 |
| | 집단성 | 축제 구성원들의 능동적, 자발적 참여도 | -3 | -2 | -1 | 0 | 1 | 2 | 3 | -3 | -2 | -1 | 0 | 1 | 2 | 3 |
| | | 축제의 기획, 운영, 평가 과정에의 구성원 참여도 | -3 | -2 | -1 | 0 | 1 | 2 | 3 | -3 | -2 | -1 | 0 | 1 | 2 | 3 |
| | | 축제 주최자와 참가자들의 집단적인 축제 즐김 정도 | -3 | -2 | -1 | 0 | 1 | 2 | 3 | -3 | -2 | -1 | 0 | 1 | 2 | 3 |
| | 현장성 | 축제 개최 장소의 고유성 및 역사성 소유 여부 | -3 | -2 | -1 | 0 | 1 | 2 | 3 | -3 | -2 | -1 | 0 | 1 | 2 | 3 |
| | | 축제를 즐기고 체험을 하기 위한 축제 공간 설정의 적절성 | -3 | -2 | -1 | 0 | 1 | 2 | 3 | -3 | -2 | -1 | 0 | 1 | 2 | 3 |
| | | 축제 공간과 개최주체들의 삶의 현장과의 관련성 | -3 | -2 | -1 | 0 | 1 | 2 | 3 | -3 | -2 | -1 | 0 | 1 | 2 | 3 |
| | 유희성 | 축제 프로그램의 즐거움과 재미 및 흥미 유발 여부 | -3 | -2 | -1 | 0 | 1 | 2 | 3 | -3 | -2 | -1 | 0 | 1 | 2 | 3 |
| | | 축제 참가자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적 요소 존재 여부 | -3 | -2 | -1 | 0 | 1 | 2 | 3 | -3 | -2 | -1 | 0 | 1 | 2 | 3 |
| | | 기획되지 않은 즉흥적인 연행과 사건의 존재 여부 | -3 | -2 | -1 | 0 | 1 | 2 | 3 | -3 | -2 | -1 | 0 | 1 | 2 | 3 |
| | 일탈성 | 일상에서 접할 수 없는 새로운 체험의 기회 제공 여부 | -3 | -2 | -1 | 0 | 1 | 2 | 3 | -3 | -2 | -1 | 0 | 1 | 2 | 3 |
| | | 일상생활에서의 억눌림을 표출하는 해방감 유발 효과 | -3 | -2 | -1 | 0 | 1 | 2 | 3 | -3 | -2 | -1 | 0 | 1 | 2 | 3 |
| | |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성찰의 기회 제공 여부 | -3 | -2 | -1 | 0 | 1 | 2 | 3 | -3 | -2 | -1 | 0 | 1 | 2 | 3 |
| | 창조성 | 다양한 실험과 도전 시도의 여부 | -3 | -2 | -1 | 0 | 1 | 2 | 3 | -3 | -2 | -1 | 0 | 1 | 2 | 3 |
| | | 첨단기술과 테크놀로지의 적절한 활용도 | -3 | -2 | -1 | 0 | 1 | 2 | 3 | -3 | -2 | -1 | 0 | 1 | 2 | 3 |
| | | 축제참가자들에게 새로운 꿈과 상상력을 고무시키는 정도 | -3 | -2 | -1 | 0 | 1 | 2 | 3 | -3 | -2 | -1 | 0 | 1 | 2 | 3 |

A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Supports of Seoul-like Festivals

| | |
|-----------------------|--|
| Project Number | SDI 05-R-37 |
| Research Staff | Mu-Yong Lee (in Charge) Jieun Lee |

The expansion of individual temporal and spatial opportunities and increase of demand for cultural activities lead each urban government to develop differentiated festivals as an urban cultural strategy.

Whil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recognizes festivals' significant role, there are little research for Seoul's festivals which is concerned about cultural identity, visions and related supporting policies. Research for urban festivals should focus on identifying cultural individualities of cities, developing representative festivals, leading participation of citizens and visitors, and making effective governmental supporting policies.

This study is purposed to understand cultural meanings of urban festival and to examine current situation of Seoul's festivals and related administrative policies. This ultimately serves to provide Seoul-like festivals and systematic supporting policies associated which have both Seoulity and Festivity, and to devote to improve the quality of lives of urbanites and urban tourism and marketing strategies. This study is:

- to define urban festivals and its cultural role
- to demonstrate the current festivals and related policies in Seoul
- to define Seoul-like festivals
- to develop assessment of Seoul-like festivals and its analysis
- to propose supporting policies of Seoul-like festivals

Among 145 festivals in Seoul, only 35 are considered as potential Seoul-like festivals and classified with five typologically. By 'Historic-traditional type', 'Art-based type', 'Citizen reconciliation type', 'Industrial type' and 'Ecological type', individual matrices of Priority-Performance Analysis(PPA) are developed, and each indexes' averages use for Seouility-Festivity Analysis(SFA). According to interpretation of position in SFA matrix, differentiated strategies for each type and festival are organized. In this study, 9 festivals which are aimed for intensive support are identified such as Seoul Fringe Festival, Hi Seoul Festival, Insadong Traditional Festival, Seoul Drum Festival, Hongdae Street Art Festival, Itaewon Global Festival, Myongdong Festival, World Ritual Festival, and Global Hanmadang(Seoul Friendship Fair).

In the basis of SFA and interpretation of interview with persons in charge, this study suggests the legislation of law concerned about festivals in Seoul and the construction of Seoul festival-supports system, which consists of mission, vision, goal, strategy, action plan and execution & feedback.

Table of Contents

Chapter I Introduction

1. Background and Purpose
2. Contents and Method

Chapter II Review of Theories of Festivals

1. Theories about Festivals
2. Definition of Urban Festivals and its cultural role

Chapter III Analysis of Current Festivals in Seoul

1. Current Situation of Festivals in Seoul
2. Current Situation of Festival Policies in Seoul

Chapter IV Analysis of Seoul-like Festivals

1. Definition of Seoul-like Festivals
2. Development of Assessment of Seoul-like Festivals
3. Analysis of Assessment of Seoul-like Festivals

Chapter V Development of Supporting Policies of Seoul-like Festivals

1. Current Situation of Supporting Policies of Festivals in Seoul
2. Case Study of Other Cities' and Countries' Supporting Policies of Festivals
3. Typological Case Study of Seoul-like Festivals
4. Plans for Implementing of Seoul-like Festivals Supporting Policies

- ***References***
- ***Appendices***

시정연 2005-R-37

서울형 축제 발전 및 체계적 지원 방안 연구

발행인 강만수

발행일 2005년 11월 30일

발행처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37-071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391번지

전화 (02)2149-1273 팩스 (02)2149-1289

값9,000원 ISBN 89-8052-435-8-93330

본 출판물의 판권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속합니다.